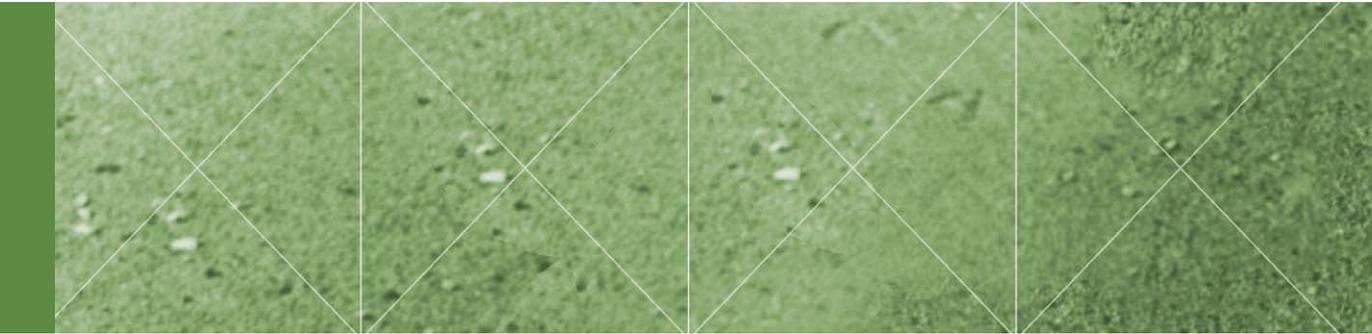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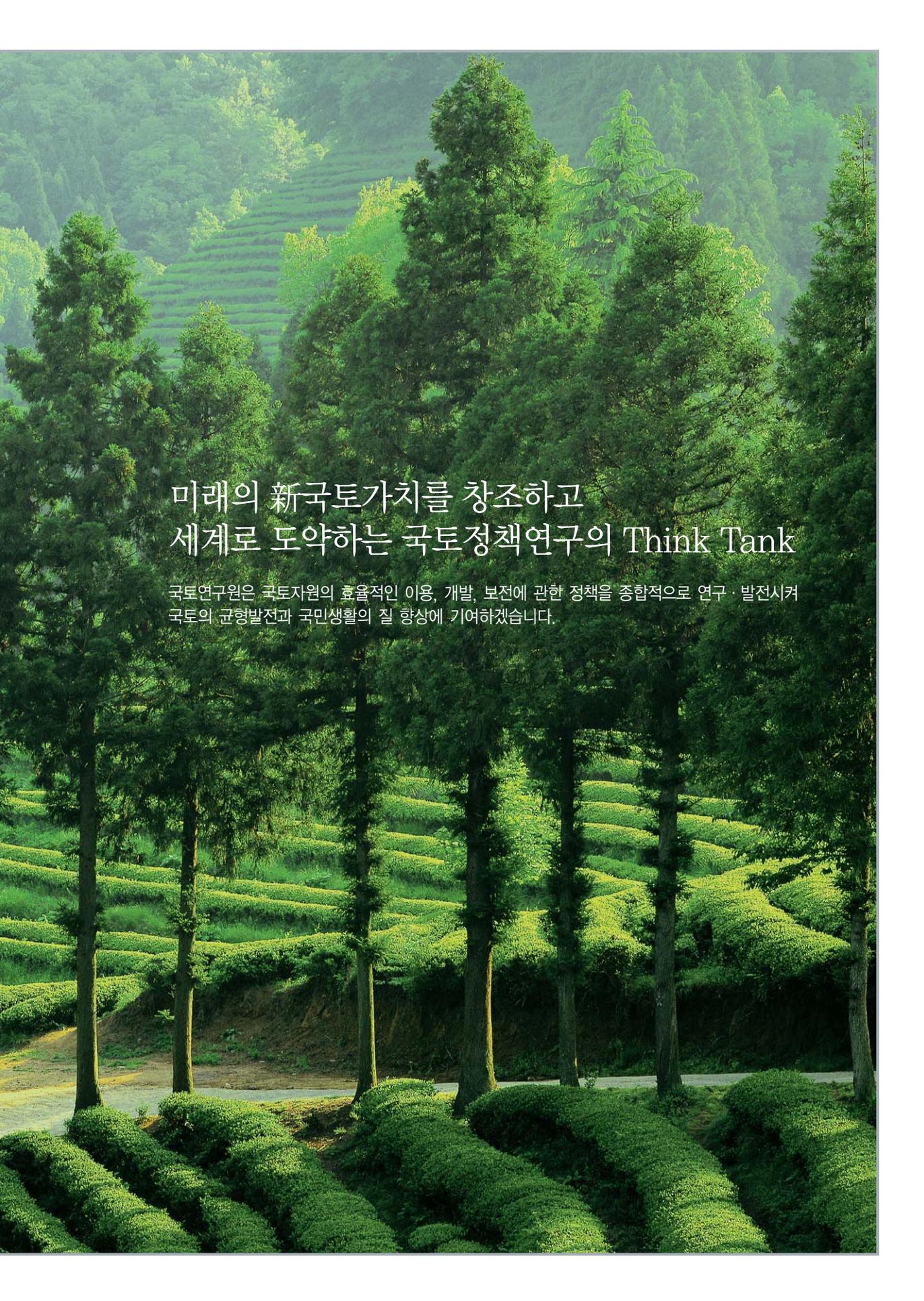


# 2008 국토연구원 연차보고서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 미래의 新국토가치를 창조하고 세계로 도약하는 국토정책연구의 Think Tank

국토연구원은 국토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개발, 보전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구·발전시켜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민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 [ 발간에 즈음하여 ]



2009년 5월  
원장 박양호

박 양 호

2008년은 국토연구원 창립 3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였습니다. 10월 1일에는 새로운 로고를 공포하는 등 30주년 기념행사도 가졌습니다.

국토연구원은 1978년 개원 이래 국토 및 지역계획의 수립, 국토환경 보전, 토지·주택의 개발 및 공급, 도시개발 및 관리, 건설산업의 육성, 국토인프라 공급, 공간정보체계 구축 등 국토의 경쟁력과 미래 지향적인 정책개발에 전념해 왔으며, 나아가 남북 간 공동번영 방안, 동북아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면서 우리나라의 효율적 국토개발과 서민생활 안정, 국토자원의 보전 등의 책무를 다하고, 국토분야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창조적 성장을 위한 국토 선진화 기반 강화'를 연구사업목표로 정하고 국토분야 전반에 걸쳐 200여 건의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연구사업목표를 실천하기 위하여 '미래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한 국토경쟁력 강화', '문화·환경·정주기반 내실화를 통한 삶의 질 창조', '동북아시아의 상생발전'의 3개 세부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세부목표별로 다음의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미래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한 국토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국토 경쟁력 강화를 위한 광역경제권 설정 및 발전구상', '미래 국토균형 발전을 위한 다핵도시체계 확립과 육성 방안', '주택정책평가모형 개발과 정책효과분석 연구', '부동산시장 선진화를 위한 리츠제도

활성화 방안', '전국 도로망체계 발전방안 연구(II)', '국토정보화 혁신을 위한 지능형국토 추진방안 연구(III)', '건설업 검열제한 폐지에 따른 건설보증시장 구조 및 특성변화 연구' 등을 수행하였으며, 문화·환경·정주기반 내실화를 통한 삶의 질 창조를 위해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국토관리 전략(I)', '재해에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한 방재도시계획 수립방안 연구', '중심시가지 환경개선을 위한 도시재생 전략 연구', '시민이 참여하는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II) : 전략편', '도시계획과정의 GIS기반 주민참여 모형 개발 및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 '도시용지 공급확대에 따른 계획적 활용방안', '주거수요 분석에 기초한 노인주거지원 정책과제 연구'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북아시아의 상생발전을 위해 '한반도 공동번영을 위한 국토분야의 대응방안', '동북아 핵심경제 지역의 발전 전망과 연계망 구축(II)', '남북경협활성화시대에 대비한 동해연안 남북접경지역의 평화적인 이용방안', '해외도시개발 진출 방향 및 전략', '중국 국토전략하의 환발해권 물류체계와 한중 물류협력 전략' 등을 연구하였습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연차보고서에는 지난해 국토연구원의 연구진들이 열과 성을 다하여 수행한 주요 연구과제들의 골자가 담겨 있습니다. 이처럼 연차보고서를 발간하는 것은 한 해 동안의 연구성과들을 정리하고, 요약·발표함으로써 연구진 스스로 새로운 연구수행을 위한 자성의 계기로 삼을 뿐만 아니라 수행한 주요 연구결과들이 각계각층에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널리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토연구원은 국토정책을 선도하는 초우량 국책연구기관으로서 고객지향의 창조적 연구산품을 산출하고 창의적이며 실용적인 국토정책을 개발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국민과 정부의 더 나은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세계적인 연구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국토연구원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항상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 Contents

<b>Chapter I</b>	<b>일반현황</b> .....	<b>8</b>
	1. 설립목적 및 주요 기능	10
	2. 조직 및 인원	11
	3. 2008년도 연구사업 및 2009년도 연구방향	13
<b>Chapter II</b>	<b>분야별 주요 연구</b> .....	<b>16</b>
	1.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19
	2. 녹색국토·도시연구본부	33
	3. 주택토지·건설경제연구본부	49
	4. 국토인프라·GIS연구본부	63
	5. 색인	75
<b>Chapter III</b>	<b>국제협력사업</b> .....	<b>80</b>
	1. 국제공동연구사업	82
	2. 국제연수교육	97
	3. 국제학술교류	100

<b>Chapter IV</b>	<b>연구지원사업</b> .....	<b>102</b>
	1. 개원 30주년 기념행사 개최	104
	2. 「상전벽해 국토60년」 발간	106
	3. CI 개편	107
	4. 「국토연구원 30년사」 발간	107
	5. 제7회 국토연구 우수논문상 시상	108
	6. 제13회 전국 초등학교 국토사랑 글짓기 대회 개최	109
	7. 연구관련 주요 행사·교육	110

<b>Chapter V</b>	<b>정기간행물 목차</b> .....	<b>122</b>
	1. 국토(315호~326호)	124
	2. 국토연구(56권~59권)	135
	3. 건설경제(55권~58권)	136
	4. 국토정책Brief(164호~210호)	138
	5. 도로정책Brief(3호~14호)	140

<b>Chapter VI</b>	<b>부서 소개</b> .....	<b>144</b>
	1. 원장·부원장	146
	2.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149
	3. 녹색국토·도시연구본부	157
	4. 주택토지·건설경제연구본부	165
	5. 국토인프라·GIS연구본부	173
	6. 기획경영본부	181



# 일반현황

1. 설립목적 및 주요 기능	10
2. 조직 및 인원	11
3. 2008년도 연구사업 및 2009년도 연구방향	13

# 1. 설립목적 및 주요 기능

## ■ 설립목적

국토연구원은 국토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개발·보전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구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민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1978년에 설립된 국책연구기관이다.

연구원 개원 이래 “경쟁력 있는 국토, 살기 좋은 국토 만들기”의 시대적 소임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구현하기 위하여 개발과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지속가능한 국토, 사회경제활동을 효과적으로 수용하는 지식기반 국토를 위한 연구를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 ■ 주요 기능

국토연구원은 국토종합계획의 수립, 국토의 이용과 보전, 지역 및 도시계획, 주택 및 토지정책, 교통, 건설경제, 환경, 수자원, GIS, 동북아 등 국토 전반에 걸쳐 폭넓은 분야를 연구하고 있다. 또한, 국가의 중·장기 정책의제를 발굴하고, 정부정책을 선도·뒷받침하며, 정책현안 및 사회적 이슈를 분석·해결하기 위한 현장중심적 연구를 미래 지향적이고, 실용·실증적으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풍요롭고 안전한 국토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국토연구원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국토종합장기계획 및 지역계획수립 연구

국토 이용·보전 및 자원관리에 관한 연구

토지·주택·도시 및 건설산업 등 국토관련 분야 정책 연구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종합연구

국토공간정보의 체계적인 관리와 공급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와 공동연구 및 연구협력사업

정부, 국내·외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의 연구용역 수탁

국토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국내·외 국토관련 전문가 교육 및 위탁연수

연구결과의 출판 및 배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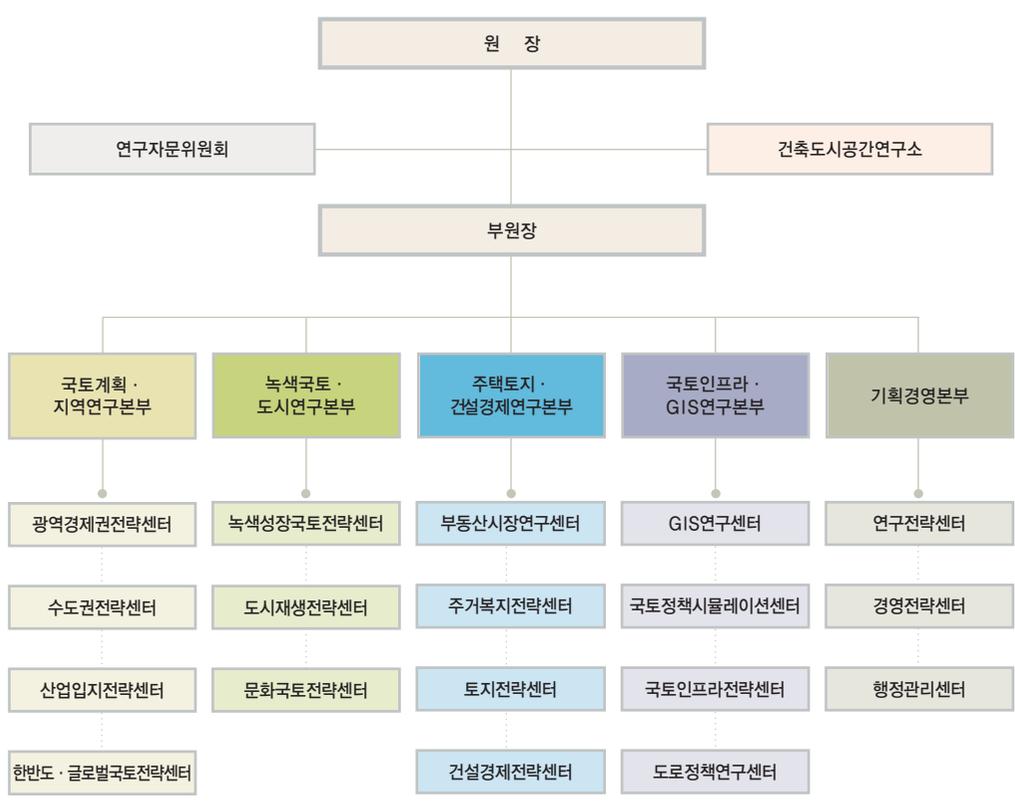
국토연구 관련 부대사업 및 기타 연구원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 2. 조직 및 인원

### ■ 조직

국토연구원의 조직은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녹색국토·도시연구본부, 주택토지·건설경제연구본부, 국토인프라·GIS연구본부 등 4개의 연구본부와 기획경영본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설 건축도시공간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 정부 국정과제를 전략적으로 수행하고, 국토분야의 융복합 정책연구를 활성화하며, 전문화에 기초한 국토연구 브랜드 구축과 가치창출을 위해 2008년 12월 30일 조직개편을 시행하였다. 본 조직개편을 통해 고객지향의 창조적 ‘연구 상품’ 개발과 분권화 개념의 연구경영체제 확립이 가능할 것이다.

조직개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종전의 12개 실·센터를 5개 본부(18개 전략센터 포함)로 재편하였다. 국토정책 분야 4대 연구기능(국토계획·국토관리·국토경제·국토기반)에 맞게 연구조직을 개편하였으며, 행정·지원기능도 기획경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1본부 3센터 체제로 개편하였다. 또한 국토정책 테마별 전략과제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18개 전략센터를 운영하고, 국정과제 등 주요 과제는 전략센터에서 브랜드 융합적 대팀 성격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 ■ 인원

2008년 말 현재 현원 150인(정원 218인)으로 임원을 제외한 연구직이 130인, 비연구직이 19인이다. 연구직은 다양한 전문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력별로는 박사 81인, 석사 49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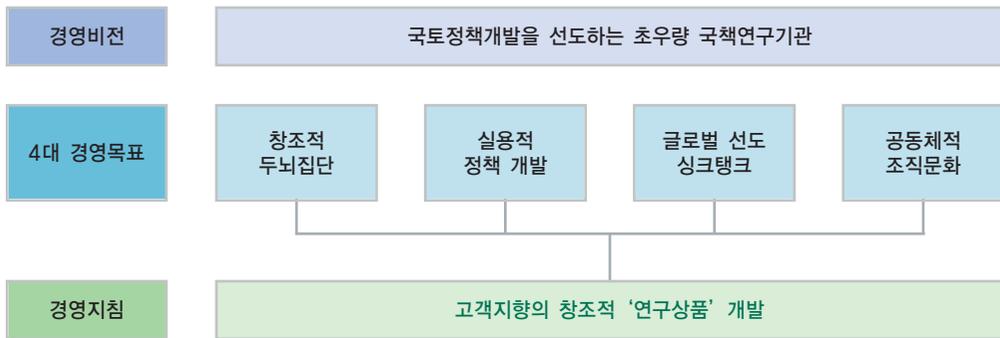
계	임원	연구직		관리·전문직	
		박사	석사	관리직	전문직
구성	원장	81인	49인	18인	1인
150인	1인	130인		19인	

## ■ 보직자 현황

원 장	박양호
부원장	김영표
부서장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김동주
녹색국토·도시연구본부	최영국
주택토지·건설경제연구본부	손경환
국토인프라·GIS연구본부	류재영
기획경영본부	서태성
부설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소장	은영태

### 3. 2008년도 연구사업 및 2009년도 연구방향

국토자원의 효율적 이용·개발·보전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구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민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국토연구원은 개원 이래 총 2,600여 건의 연구를 수행하여 정부 정책 수립 및 집행에 기여하고 있다. 2008년 박양호 원장 취임이후 '미래의 신 국토가치를 창조하고 국토정책개발을 선도하는 초우량 국책연구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고객·미래지향적 연구기획체제 구축, 연구인력의 브랜드 파워창출과 핵심역량 강화, 정책지식 생태네트워크 구축과 활용, 글로벌 연구 지원·교류 활동기반 강화, 공동체 조직문화의 기반 구축 등 5대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고객지향의 창조적 연구상품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5대 전략(펜타곤)



## ■ 2008년도 연구과제 수행현황

2008년도에는 연구사업목표를 '창조적 성장을 위한 국토 선진화 기반 강화'로 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미래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한 국토경쟁력 강화, 문화·환경·정주기반 내실화를 통한 삶의 질 창조, 동북아시아의 상생발전을 3개 세부목표로 설정하고 연구를 수행하였다.

과제유형별 수행현황을 살펴보면, 「기후변화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국토관리 전략(I)」 등 33건의 기본연구과제, 「중국의 주요 거점 도시 및 개발축 형성 동향 연구」 등 26건의 수시연구과제와 「비무장지대 인근지역 평화적 이용 연구용역」 등 148건의 수시연구과제 등 총 207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하였다. 이 중 기본연구과제 33건, 수시연구과제 24건, 수탁연구과제 93건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57건은 2009년으로 이월되었다.

## ■ 2009년도 연구환경변화 전망 및 국토연구원 운영목표

2009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에너지, 환경 등 기후변화와 삶의 질, 건강 등 **新생활가치**에 부응하기 위한 Green-Technology와 국토개발정책의 융합화를 통한 녹색성장시대가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금융위기발 세계경기 침체로 인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을 국토발전과 접목하는 연구수요가 확대될 것이다. 국제적으로도 연구활동영역이 확대되어, 자원개발, 해외 신도시개발, 해외 인프라건설 등을 위한 해외 지역개발협력기회가 급증하고, 베트남, 인도네시아, 중국, 몽골, 이집트 등에 한국의 국토개발경험 전수기회가 점차 확대될 것이다. 고객수요도 구조적으로 변화를 일으켜, 국토 및 도시개발 연구수요가 다양한 정부부처로 확대되고 수요자 간 통합연구 의뢰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최적시기(JIT), 최적현장(JIP), 최적수요(JID)를 고려한 고도의 맞춤형 연구수요가 급증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책연구기관, 지방연구소, 민간연구소, 대학, 학회 등 국토정책 R&D 주체의 다변화로 경쟁이 심화될 것이며, 학문분야의 통섭과 기술분야의 융합을 위한 새로운 협력연구의 필요성이 급증할 것이다. 더불어 각종 국토정책 계획수립 과정에 고객과 시민의 참여를 통한 민주적·실용적 Process Quality의 중요성 또한 강조될 것이다.

이러한 대·내외적 연구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2009년도 국토연구원의 운영목표를 다음의 다섯 가지로 설정하였다. 첫째, 고객·미래 지향적 연구 기획체제 구축, 둘째, 연구인력의 브랜드 파워 창출과 핵심역량 강화, 셋째, 정책지식 생태네트워크 구축과 활용, 넷째, 글로벌 연구 지원·교류활동 기반 강화, 마지막으로 공동체 조직문화의 기반 구축이다.

## ■ 2009년도 연구사업목표

대내·외 연구환경 변화와 기관의 운영목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09년도 연구사업목표를 '창조적 국토발전을 위한 국토선진화 역량 강화'로 선정하였다. 이 목표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다음의 세 가지 연구사업 운영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신성장동력 확충을 통한 상생적 지역발전 추진이다. 녹색성장형 국토발전전략 모색, 지역개발사업의 통합적 추진모형 구축과 적용방안 마련, 내수경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건설산업 역할강화 방안 제시 등을 통해 첫 번째 세부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

둘째, 수요자 중심의 실용적 국토관리체계 확립이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국토관리전략과 통합재해에 대응한 도시 구축방안 제시, 수요 지향적 주택 및 도시용지 공급을 위한 부동산시장 관리 방안 제시, 글로벌 통합 물류체계의 한

국적 모델 정립 등을 통해 두 번째 세부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국민생활 안정과 품격있는 정주환경 형성이다. 문화사회에 대응하는 지역커뮤니티 활성화 방안 수립, 주거다양성 제고를 위한 단독주택시장의 구조분석 및 정책방향제시,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국토공간정보 체계 구축 등의 연구를 통해 마지막 세부목표를 달성할 것이다.

## ■ 2009년도 중점연구과제

2009년 수행과제 중 다음의 다섯 개 과제는 발굴·선정과정에서 2009년에 전략적으로 수행해야 할 과제로 선정하고 연구역량을 집중하기로 하였다. 각각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토재생 전략 연구」에서는 국가경쟁력 관점에서 국토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관련 이론검토와 유사 해외사례 분석을 통해 국토재생을 위한 발전전략을 제시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공간속성, 특성, 공간요소별 재생전략 및 세부실천과제 등을 도출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행정적 추진방안 및 시민참여 등 거버넌스 체계 구축 방안 등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다양한 실천적 전략들을 국토의 새로운 가치창조를 위한 실천적, 가시적인 발전전략으로 구체화하는 최초의 연구라 할 수 있다.

둘째, 「녹색성장형 국토발전전략 연구」는 총괄부문, 토지이용부문, 주택부문, 교통부문의 4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수행된다. 본 연구에서는 녹색성장을 촉진하고 국토공간에 담아내기 위하여 국토 분야에서 추진해야 하는 저탄소 녹색 국토공간 조성 및 교통체계 구축, 생태효율적 국토이용체계 구축 등을 국토 전체와 대도시권 그리고 도시·농촌의 기초생활권 등 공간적 단위를 대상으로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나아가 공간단위와 국토관리 부문별로 도출된 추진 전략을 융합하여 녹색성장 국토관리 모형을 개발하고자 한다.

셋째, 「한국형 국토발전모형 정립 연구」에서는 우리 국토가 보유하고 있는 고유한 특성을 도출하고 각각의 장단점과 발전요소 등을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급속히 전개될 미래여건을 고려한 한국형 국토발전모형을 정립하고 국토발전 과제와 전략을 도출한다. 연구의 성격상 관련 국내외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적으로 통합하는 국토발전분야 통섭(Consilience)을 시도할 예정이다.

넷째, 「개발도상국의 공간계획체계 발전을 위한 협력방안 연구」에서는 국토계획 분야에 있어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 전략 및 실천방안을 제시하고 개발도상국 지원을 통하여 향후 국토연구원 위상 및 국가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제적 협력체계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결과 도출을 위해 개발도상국에 대한 국제적 지원 현황 및 한국형 국토계획의 개발도상국 적용 가능성을 먼저 타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한반도 비전과 개방형 국토발전 전략 연구」에서는 최근 동북아 지역의 국가 간 투자유치 경쟁의 가속화와 한중일 간의 FTA 추진 등 지역경제통합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단계적인 남북경제통합을 전제로 한반도의 경쟁력 강화와 균형발전을 위한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반도의 대내외 여건변화 전망과 주변국의 동북아 및 한반도 전략 분석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발전잠재력을 분석하고, 해외 지역경제권 발전전략 사례 및 시사점을 도출하여 새로운 한반도의 비전 및 국토 발전구상을 모색한다. 연구의 성격상 관련 국내외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부분적으로 인공위성 자료를 기반으로 한 분석을 계획하고 있다. 통합경제권 사례 분석은 독일 전문가와 국제공동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다.



# 분야별 주요 연구

1. 국토계획 · 지역연구본부	19
2. 녹색국토 · 도시연구본부	33
3. 주택토지 · 건설경제연구본부	49
4. 국토인프라 · GIS연구본부	63
5. 색인	75

## 국토계획 · 지역연구본부

### 광역경제권연구

- 국토경쟁력 강화를 위한 광역경제권 설정 및 발전구상 20
- 국토 및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법적분쟁의 실태와 대처방안 21
- 농촌이주 인구의 공간적 분포특성과 국토정책과제 22
- 미래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다핵도시체계 확립과 육성 방안 23
- 지역개발사업의 통합적 추진모형 구축 및 적용방안(I) 24

### 산업입지연구

- 규제자유지역의 추진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5
- 해외진출 유턴(U-Turn)중소기업에 대한 입지공간 지원방안 연구 26

### 한반도 · 글로벌국토연구

- 남북경협 활성화 시대에 대비한 동해연안 남북접경지역의 평화적인 이용방안 27
- 동북아 핵심경제지역의 발전 전략과 연계망 구축(II) :  
지역생산네트워크와 지역 간 보완적 발전 전략 28
- 중국 국토전략하의 환발해권 물류체계와 한·중 물류협력 전략 29
- 중국의 거점도시 및 개발축 형성동향 30
- 한반도 공동번영을 위한 국토분야의 대응방안 31
- 해외도시개발의 진출 방향 및 전략 32

## » 국토경쟁력 강화를 위한 광역경제권 설정 및 발전구상

Delimitation and Development Strategies of Mega Economic Regions for National Territory's Competitiveness

김광익, 이동우, 박경현, 김창현, 이원섭, 박양호

이 연구에서는 국토경쟁력 강화를 위한 광역경제권과 관련한 실증분석으로 지역 간 통행의 연계구조 및 지역 간 산업연계구조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보다 구체적인 광역경제권의 형성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광역경제권에 대한 발전구상을 제시하였다. 지역 간 연계분석을 위한 방법으로 SPSS Package에 의한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수행하여 지역 간 연계구조 및 지역연계권역을 도출하였다.

우선 광역경제권 설정 및 발전전략 수립과 관련된 영국, 프랑스, 일본, 독일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하여 볼 때 광역경제권의 설정기준은 권역의 역사성을 존중하면서 최소한의 인구규모를 지녀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권역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추진기구는 국가별로 다르지만 협의체처럼 약한 조직에서 통합된 지방정부 형태 등으로 단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지역 간 흐름을 통하여 권역을 구분할 수 있는데, 우선 지역 간 통행연계구조를 16개 시·도 및 165개 시·군으로 분석하여 광역 및 지역통행권역을 구분하였다. 우선 시·도 단위의 광역연계구조 및 광역통행권역 구분 결과를 종합하면, 첫째, 대체로 수도권권을 중심으로 하는 연계구조가 형성되어 그 권역이 강원, 충청도, 제주까지 포함하는 커다란 광역수도권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며, 그 중 일부는 충남권이 분리되기도 한다. 둘째, 부산, 대구 등 경상권을 대상으로 하는 연계구조가 형성되어 그 권역이 형성되고 있으며, 그 중 경북권과 경남권으로 분리되기도 한다. 셋째,

전라권을 대상으로 하는 연계구조가 형성되어 그 권역이 나타나고 있으며, 그 일부인 전남권이 형성된다. 따라서 광역통행권역은 시·도 경계가 다르기는 하지만, 대체로 3~4개 권역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산업을 크게 제조업과 서비스업으로 구분하고, 제조업은 다시 19개 부문으로, 서비스업은 13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16개 시·도 간 지역연계분석을 통하여 광역산업연계권역을 구분하였다. 분석결과, 전체산업의 광역산업권역은 광역수도권(수도권, 충청권, 강원 포함), 전라권(제주 포함), 경상권 등 3개의 권역으로 구분됨을 확인하였다. 전체서비스업의 권역은 전체산업의 권역 구분과 거의 동일하나 전북이 광역수도권에 포함되어 광역수도권이 더욱 확대되어 나타나는 특징을 보인다. 전체제조업은 전체산업의 권역 중 광역수도권의 영향이 전라권까지 미쳐 광역수도권(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강원, 제주 포함)과 경상권으로 크게 구분되어 나타나지만, 광역수도권은 충남권(대전, 충남, 전북 포함)과 전라권(광주, 전남, 제주 포함)이 소권으로 구분된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광역경제권 발전구상을 다루고 있다. 광역경제권 발전구상에 대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① 다중심 국토구조의 구축, ② 초광역적 연계체계의 구축, ③ 광역경제권 내 다중심 도시지역체계의 구축, ④ 광역산업 및 대학기능의 연계체계 구축, ⑤ 광역적 교통네트워크의 구축 등을 제시하였다.

## >> 국토 및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법적분쟁의 실태와 대처방안

Lawsuits on Spatial Plans and Projects in Korea : Trends, Features and Policy Implications

문정호, 이순자, 이춘용, 윤영모, 장은교 외

이 연구는 ① 국토 및 지역개발사업의 법적 속성과 관련 법률에 대한 이론적 쟁점을 정리, ② 국토 및 지역개발 사업에 대한 법적 분쟁의 원인, 분쟁당사자, 재판결과 등 전반적인 실태를 조사·분석, ③ 법적 분쟁 예방 및 대처방안 또는 정책적·제도적 개선방안 제시를 위해 수행되었다. 이 연구에서의 시간적 범위는 1988~2007년의 20년간으로 설정하였고, 조사 및 분석대상은 법리적 관점에서 '계획법에 의한 행정계획'과 이에 따른 각종 행정처분성 계획적 결정 및 실제 집행되는 공공사업에 대한 행정소송, 민사소송 및 헌법소송으로 설정하였다.

제2장에서는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과 국내외의 법이론 논의 과정에서 제기되는 이론적 쟁점을 검토하였다. 제3장에서는 우선 행정소송, 관련 헌법소송 등의 전체적 동향을 검토하고, 290개의 실제 판례를 수집하여 전체적인 실태와 동향, 특성 등을 분석하였다. 실태 분석은 대법원 판례 156건과 헌법재판 결정례 55건을 중심으로 하되 정량적·정성적 방법을 복합적으로 활용하였다. 또한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① 법적 분쟁에 대한 대처 시스템 구축 필요, ② 계획법 체계 및 법규 내용의 개선·보완, ③ 계획재량에 대한 통제기준 보완 등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4장에서는 분야별·유형별로 대표적이거나 빈번한 원인의 소송, 또는 사회적으로 파급영향이 큰 판례 5개(혁신도시 입지선정 무효 확인, 새만금간척사업 정부조치계획의 확정·발표 취소, 신항만 배후철도 건설 실시승인 취소 청구, 신항 명칭 관련 헌법소원 심판 청구, 안양천 하천정비기본계획 하자 관련)를

심층 분석하였다. 이로부터 ① 계획법의 정비와 법제·개정 기술의 증진, ② 사법적 판단의 전문성 보완 및 강화, ③ 계획수립 과정의 정교화와 참여의 강화, ④ 계획고권의 원칙과 규범 정립, ⑤ 행정적 처분성 및 소의 적격 판단기준 보완·확대 등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제5장에서는 우리나라와 법제도가 유사한 일본과 계획법에 관한 선진국인 독일의 행정계획 관련 계획법, 소송사례, 법리적 쟁점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6장에서는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단기, 중장기로 구분하여 그 정책 및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였다. 우선 단기적인 정책방향으로 법적 분쟁에 대처하기 위한 '소송(법무)관리시스템' 구축과, 둘째, 단기 내지는 중장기 정책방향으로 법적분쟁 예방을 위한 참여제도 및 사전적 권리구제 강화 방안을 제시하였고, 중장기적인 정책방향으로 계획법 규범의 강화와 사법심사의 전문성 강화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중장기적인 방향에서 제시되는 계획법 규범의 강화와 관련된 주제들은 향후 연구과제로서 꾸준히 논의되고 보다 심층적으로 탐구해야 할 것들이다. 또한 이 연구는 결과물로서 연구과정에서 수집한 290개 판례의 전문을 수록한 자료집을 별도로 작성하였는데, 위와 같은 주제들에 대한 세부 심층연구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연 2008-57, 211면, 2008. 1. 1~2008. 12. 31

## » 농촌이주 인구의 공간적분포특성과 국토정책과제

Spatial Distribution of Rural Area Migration and Its Policy Implications

김창현, 강호제, 이종열

이 연구는 도·농 간 인구가동, 통근·통학 광역화, 농촌 인구공동화에 대한 거시적 추세분석과 농촌이주 도시민의 공간선호에 대한 미시적 행태분석, 그리고 도시민 농촌이주의 구체적인 현장과 국내의 정책사례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하여 도시민 농촌 이주·정착을 통한 농촌활성화와 국토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정책적 대응과제 및 대응방향을 모색하여 제시하고 있다.

거시적 추세분석 결과에 의하면,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농촌인구의 유출과 남은 인구의 급속한 노령화와 자연감소, 그리고 주변 도시지역으로의 거주지 이전과 농촌으로의 통근·통학 현상은 농촌 상주인구의 감소와 초고령화, 동시에 주간인구지수의 상승 등을 초래하고 있다. 미시적 행태분석 결과로부터는, 수도권 인구의 외연적 확산이라는 수요자 일방적인 도시민 농촌이주의 큰 흐름 속에서도 지방의 면단위 농촌공간을 중심으로 건강·교육·직업 등의 요인으로 수요자·공급자 쌍방의 도시민 농촌이주가 집적되는 지역이 식별됨을 확인할 수가 있다. 구체적 현장 및 국내의 정책사례에 대한 조사·분석 결과에서는, 수도권 내지 도시의 외연적 확산에 따른 도시민의 농촌이주라는 큰 흐름에서 비켜 서있는 전통적인 농촌지역에서 U·J·I턴 등 다양한 형태의 이주자들에 의해 정주공간이 재편성되는 등 도시민 농촌공간 선호가 구체적으로 표출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거시적 추세 분석결과와 관련해서는, 마을이나 읍·면 나아가 군지역을 정책집행단위로 하는 다양한 정책 및 사업의 투자효율성이나 규모의 경제성 확보, 고령자 노후생활의 안정성과 건전성 확보, 농촌공간 정비와 국

토자원의 효율적 관리, 농촌지역의 주간인구, 즉 유동인구의 증가와 효율적 공간정비 등의 정책적 대응과제를 도출할 수 있다. 미시적 행태분석 결과와 관련해서는, 요양·복지시설 입지확산에 대한 지역활성화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 자연환경의 활용과 교통 등 접근성 개선, 특수목적고 및 농업 등 전문교육기관의 설립·유치,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한 도시민 유치전략 마련 등과 같은 정책과제를 도출할 수 있다.

구체적 사례와 국내의 정책사례 분석결과와 관련해서는, 도시민 농촌이주 유형 간의 농촌공간에 대한 선호의 특성차이를 활용하는 것, 농촌정주공간의 재구조화 현상에 대하여 각 현상별 맞춤형 정책적 대응, 농촌공간선호 특성차이와 농촌정주공간 재구조화 현상을 접목하여 농촌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주공간을 정비하는 것, 국토자원관리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대응, 도시민 유형별 공간수요의 특성차이와 농촌공간의 지역적 특성차이가 서로 조화될 수 있도록 도시민 농촌유치 관련 각종 사업을 추진하여 정책적 실효성을 제고하는 것, 복수의 농촌지역을 연계한 광역적 차원에서의 사업 간 연계와 종합적 추진으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여 예산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 도시민의 농촌이주 촉진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민간 간에 있어서의 역할 분담과 상호 공조 등이 정책적 대응과제가 된다.

## » 미래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다핵도시체계 확립과 육성 방안

Measures for Establishment and Promotion of Polycentric Urban Region System for Future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권영섭, 임상연, 구정은

이 연구는 미래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 다수의 근접한 다양한 특징적인 도시들이 도시 간 네트워크를 통해 경쟁력 있는 시스템(다핵도시체계)을 구축하고 이를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그 결과 동남권은 물리적으로 다핵도시지역 형태를 가지고 있다. 다수의 도시와 높은 인구밀도(300명/km<sup>2</sup>)를 가지고 있고, 각 도시들은 그린벨트나 농경지에 의해 뚜렷이 구분된다. 동남권 내 도시 간 1시간 내 구간은 52개, 60km 층속 구간은 63개다. 인적행태를 보면 동남권 주민들은 통근통학으로 평균시간 27.9분 약 30분을 소비하고 있으며, 평균 통근통학거리는 13.5km이다. 기업들은 주요 고객과의 거리가 55.3km라고 응답하여 1일 최대이동거리를 넘어서고, 주요 고객과의 시간·거리 만족도는 보통수준을 약간 상회하고 있다.

동남권은 기계금속산업에 전문화되어 있고, 이 산업 내에서 도시들 간 약간의 중첩을 이루면서 특화되어 있다. 부산, 울산, 창원, 마산, 김해, 진주는 차별화된 업종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업종들에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동남권 도시들은 도시 간 차별화되어 있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그 수준은 4.3점으로 나타났다. 산업특화나 단일경제지역 등 대외적 정체성도 4.3점으로 나타났다. 동남권에 대표산업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나(4.4) 국제성은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다(3.9). 인접시군과 협력관계, 지자체의 정책역량 수준은 보통 이상(4.2)이나 광역지역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아 공식적 거버넌스는 작동하고 있지 않다. 비공식적 거버넌스 체계로서 사업 간 협력(4.1) 및 기업지원조직(4.2)은 보통

이상으로 나타났다.

동남권 대도시와 중도시는 중심-주변도시 간 상호 의존적 집중형에 가까운 도시체계를 형성하고 있어 미래에는 5개 권역 중 가장 빠르게 완전다핵형으로 발전해 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부산 주변도시간 연계가 좀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점, 정책개입을 통해서 단일경제지역으로 계획될 필요성 등 다핵도시체계 확립과 육성을 위해서는 다음 몇 가지 방향에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다핵도시체계 확립과 육성방향으로는 중소도시 육성, 접근성 제고, 기능차별화를 위한 첨단복합단지 조성, 도시 간 연구개발 및 기술협력 사업, 도시정체성 제고, 공식적·비공식적 협력 활성화, 다핵도시(지역)체계 확립수단 확보, 적정규모의 사업 단계적 추진, 일자리와 정주여건 간의 미스매치 축소 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기대효과로는 학문적 측면에서 국내에는 아직 생소한 다핵도시지역과 다핵도시(지역)체계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고 이 개념을 다양한 분석을 통해 개념의 작동성을 검증하였다. 정책적 측면에서는 대도시나 중심도시에서 주변도시를 보는 관점뿐 아니라 도시 간 상호 연결의 관점에서 볼 필요성, 그린필드 전략만이 아니라 브라운 필드 전략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성 등 미래 국토공간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도시나 지역 단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부문별·도시군별 사업 발굴방향을 제시하였다.

국토연 2008-48, 354면, 2008. 1.1~2008. 12. 31

## >> 지역개발사업의 통합적 추진모형 구축 및 적용방안(I)

A Study on a Place-based Integrated System for Regional Development in Korea(I) :  
Problems and Issues of Segmented Implementation System

차미숙, 김태환, 김재영, 박준화, 남윤우 외

이 연구는 현행 지역개발사업의 추진체계가 분절화와 대기화 등에 의해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과 문제인식에서 출발하였다. 이에 지역개발사업의 추진 체계와 유형별 집행과정 분석을 토대로, 지역발전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역개발사업의 통합적 추진모형 구축과 적용방안 모색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 연구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과제로서, 2008~2009년간 2차연도에 걸쳐 추진하고 있다. 이 연구는 1차연도 연구로 현행 지역개발사업의 추진실태를 파악하고 원인을 규명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지역개발사업의 추진체계 특성과 문제점 분석결과 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정부 지역개발사업 추진조직의 대기화와 조정 미흡이다. 둘째,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중층적 사업추진 구조와 지역 내 연계 부재다. 셋째, 지역개발사업 예산운영의 자율성과 포괄적 예산제도 작동 미비, 넷째, 복잡한 지역개발사업 추진관련 법령체계와 통합법령의 작동 한계 등이다. 그리고 지역개발사업을 농촌 및 낙후지역개발사업, 지역혁신사업, 중소기업지원사업, 지역 SOC사업으로 구분하여, 이들 지역개발사업 유형별 사업추진 및 집행과정의 문제점과 애로사항 등을 분석하였다. 지역개발사업 유형별 분석결과는 사업유형에 상관없이 공통적인 양상으로 나타났다지만, 실제 원인과 해석에 있어서는 상이한 현상들이 나타나 향후 지역개발사업의 추진체계 개선방안 검토에 있어서 사업유형별 차별적인 접근과 처방책 제시가 필수적임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 지역개발사업의 통합적 추진모형 구축방향과 정책과제 도출에

있어 준거를 삼기 위해 해외국가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들 분석결과를 토대로 이 연구는 지역개발사업의 통합적 추진모형 구축을 위한 기본방향과 중점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기본방향으로는 첫째, 지역단위 통합화와 역량기반 강화. 둘째, 지역개발사업 유형별 특성화 및 맞춤형 추진체계 구축. 셋째, 중앙정부 부처 간 및 중앙-지방 간 정책조정과 예산운영시스템 통합. 넷째, 지역개발사업의 통합적 추진 성공모델 창출과 단계적 확산 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중점 정책과제로 첫째, 중앙정부 부처 간 조정 및 중앙-지방 간 조직 정비, 둘째, 지역개발사업의 근거법령 정비 및 계획제도 실효성 강화, 셋째, 지역개발사업의 추진절차와 추진방식 개선, 넷째, 지역개발사업의 예산배분 및 포괄적 예산운영체계 도입 확대, 다섯째, 지역개발사업의 평가체계 구축, 여섯째, 지역개발사업의 정보공유 및 지원시스템 구축, 일곱째, 지역단위의 협력적 거버넌스체계 구축 등을 제시하였다. 여기서 제시된 중점 정책과제에 대한 현행 제도운영 실태와 개선방안은 2차연도 연구에서 구체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국토연 2008-33-1, 290면(총괄보고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8-03-01, 국토연 2008-33-2, 417면(협동연구기관 보고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8-03-02, 2008. 1. 1~2008. 12. 31

## >> 규제자유지역의 추진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Policy Directions for the Efficient Implementation of the Deregulation Zones

김상욱, 박형서, 김동주, 윤영모

정부는 현재, 국제자유도시, 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 외국인투자지역 등 정부규제가 완화 또는 폐지되거나 세제감면 등 정부의 '인센티브' 및 지원이 수반되는 여러 형태의 특정한 지역, 곧 규제자유지역을 지정·조성하고 있으며, 이들 지역에 관한 종합적이고도 체계적인 연구는 일천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는 규제자유지역들의 추진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효과성을 검토함과 동시에, 이들 지역들이 국토 및 지역개발 체계상에서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연구목적을 두고 수행되었다.

제1장 서론은 연구목적 및 범위와 방법론 등으로서 규제자유지역을 '국가정책목표의 실현을 위하여 정부규제의 적용이 일부 배제되도록 지정된 지역'이라 정의하고, 현재는 국제자유도시, 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 외국인투자지역, 개발촉진지구, 지역특화발전특구, 연구개발특구, 관광특구 등 9개의 형태가 있다고 보았다.

제2장 관련이론 및 선행연구의 검토 부문에서는 규제 및 규제완화의 개념과 논거, 우리나라 규제완화정책, 규제자유지역의 등장배경, 선행연구 등을 살펴보고, 중국·영국·러시아·일본 등 8개국의 사례를 조사하고 그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3장 추진실태와 문제점 부문에서는 여러 형태로 지정·추진되고 있는 규제자유지역을 종합적·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규제자유지역의 유형을 구분하고, 그 유형에 따라 지정 및 추진 실태와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을 조사·분석하였다.

제4장 규제자유지역의 개선방안 부문에서는 앞서의 조사·분석을 바탕으로 각 규제자유지역이 지닌 정책수단들을 유형화·특성화하는 등 일련의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제시하고, 규제자유지역 각각에 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제5장 결론 부문에서는 앞서 제시된 개선방안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제언 및 향후의 과제들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규제완화와 '인센티브'를 수반하면서 계획권역적인 성격을 지닌 여러 규제자유지역들을 국토 및 지역개발의 관점에서 처음으로 종합적·체계적으로 분석·연구한 것이다.

따라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각 규제자유지역들에 관한 효과적인 추진방안의 마련뿐만 아니라, 향후 보다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여러 규제자유지역에 대하여 그 지정목적이나 지역실정에 최적인 규제자유지역의 유형 선정이나 가장 효과적인 정책수단의 선택 등 규제자유지역 추진의 체계화방안 마련에도 그 기초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 해외진출 유턴(U-Turn) 중소기업에 대한 입지공간 지원방안 연구

Study on Location Support Policy for Returning U-turn Small-Medium Enterprises(SMEs) from Foreign Countries

배경화, 강호제

우리나라의 해외투자는 1980년 이후 규모면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투자 대상국 역시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원자재 가격 폭등이나 인건비의 폭등 등으로 인해 1990년대 후반부터 동남아나 중국 등으로 국내 생산거점을 이동하는 경향이 뚜렷해졌다. 그러나 최근 2006년도 이후부터 중국 등지에 진출한 우리 중소기업들이 인건비 상승, 중국정부의 과도한 직접적 규제 등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들의 일부가 중국 등 동남아에서 무작정 도주하는 상황까지 이어져 국가 간의 문제로 비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해외 진출해 있는 우리 중소기업들 중에 제품경쟁력을 보유한 기업들은 국내로 사업을 철수하거나 새로운 사업으로 전환을 희망하고 있는 경우가 종종 발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해외 진출 중소기업의 국내 유턴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책은 사실상 부재한 상황이다. 즉, 기존의 산업단지나 중소기업전용단지 등을 중심으로 한 조기정착을 지원한다든지, 관련 사업을 다른 사업으로 전환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아직 미흡한 실정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해외진출 중소기업이 국내로 유턴하는 경우에 이들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기존의 중소기업 입지지원책을 검토하고, 최근 신정부에서 대책으로 제시하고 있는 임대산업단지의 확충과 기존행정기반시설의 재활용 등에 대해서도 고려해 보았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국내로 유턴하는 중소기업이 조기에 정착할 있도록 입지를 지원하는 방안으로 기존 중소기

업전용단지의 리모델링, 정기·저리의 임대산업단지 제공, 개성공단의 확장과 같은 입지공간 지원방안과 이들 단지에 입주할 경우 성공률 보조금이나 컨설팅, 입지 지원을 위한 금융체계구축 등의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한편, 본 연구를 통해 살펴본 해외유턴기업에 대한 입지공급은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신규일자리 창출과 유턴 중소기업의 기술적 노후우가 사장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며, 둘째, 해외진출유턴 중소기업에 대해 다양한 입지지원정책을 제시했다. 기존의 중소기업전용단지 및 창업보육센터 등 신규 입지조성보다는 기존의 입지공단을 재활용하는 정책 등이 근거로 제시되었다. 셋째, 해외진출유턴 중소기업에 대한 입지공급정책을 시행함으로써 무조건적인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국내기업의 국내 정착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즉, 저렴한 인건비등을 이유로 해외에 진출하는 것보다는 국내에서 각종 규제완화와 더불어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는 정책의 근거를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해외 유턴 중소기업에 대한 입지공간 지원을 통해 궁극적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으며, 국내기업이 해외진출 시 얻게 되는 인센티브보다 더 좋은 환경 속에서 경영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 >> 남북경협 활성화 시대에 대비한 동해연안 남북접경지역의 평화적인 이용방안

A Study on the Peaceful Utilization Strategy of the East Coast Border Reg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김영봉, 이승복, 김은정

본 연구는 남북 접경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남북한 교류협력사업의 활성화와 협력기반의 구축을 위한 동해연안 남북 접경지역 교류협력사업의 추진방안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교류협력사업 선정을 위해 접경지역의 자연환경, 교류협력의 시급성, 사업의 경제성, 환경 보존성 등을 분석하는 한편, 접경지역 관련 계획 및 정책, 관련문헌, 전문가 면담 및 예비조사(Pilot Survey) 등을 함께 수행해 교류협력사업을 선정하기 위한 전 단계로서 협력가능사업들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도출된 협력가능사업에서 지역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두 차례의 설문을 통해 교류협력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였다. 선정된 협력가능사업은 관광협력부문, 수산·해운협력부문, 환경생태협력부문, 생활권·자원협력부문으로 구분하여 총 24개 사업이다. 이들 사업에서 지역 공무원, 관련 전문가, NGO 등을 대상으로 1차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총 20개 사업을 교류협력사업으로 선정하였다. 단기사업으로는 설악산·금강산 관광연계사업, 도로·철도시설 설치 및 공동이용사업, 문화유적지 등 주요 관광지 탐사사업, 항만 등 기반시설 지원사업, 동북아 물류 항로 개설사업, 화재 및 홍수 등 자연재해 공동대처사업, 비무장지대 내 녹색생태환경 조성사업 등 총 7개 사업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는 교류협력지구를 선정하기 위해 총 6개 지역(양구군 방산면, 양구군 동면, 양구군 해안면, 인제군 서화면, 고성군 수동면, 고성군 현내면)을 중심으로 도시형성 잠재력, 도로·철도, 협력사업과의 합치성 등

총 10개의 기준을 설정한 후 비교·평가하였다. 분석 결과 고성군 현내, 인제군 서화, 양구군 동면이 우위 지역으로 도출되었다. 특히, 고성군 현내면 지역이 교류협력지구로서의 입지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한 연계관광사업에 대한 투자가 남한, 북한 그리고 남북 강원도 지역의 각 산업 부문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을 위해 투입산출분석모형(Input-output Analysis)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생산유발효과와 경우 남한 약 1조 5,560억 원, 북한 8,630억 원, 남북 강원도 1조 900억 원 수준이다. 부가가치유발효과는 남한 8,680억 원, 북한 7,100억 원, 남북 강원도 9,380억 원으로 나타났다. 고용유발효과는 남한 23만 8천 명, 북한 12만 6천 명이, 남북 강원도 18만 6천 명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석 결과를 보면 남북한의 경우 건설부분에서는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으나 운영 부분에서는 약 2배 이상의 차이가 발생함을 볼 수 있다.

남북교류협력의 활성화와 상호 이해의 증진은 반세기 넘게 넘는 군사적 대립과 긴장상태의 한반도를 평화와 번영으로 이끌어 줄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게 하였다. 동해연안 남북접경지역에서의 교류협력 활성화는 남북한 모두에게 이익이 될 뿐만 아니라, 남북한 간의 신뢰 구축 및 평화통일의 기반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환동해경제권에서의 관광과 물류 중심지역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과 한반도의 경쟁력 향상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국토연 2008-32, 194면, 2008. 1. 1~2008. 12. 31

## » 동북아 핵심경제지역의 발전 전략과 연계망 구축(II) : 지역생산네트워크와 지역 간 보완적 발전 전략

Development Prospects for and Collaborative Development of the Core Economic Regions in Northeast Asia(II) : Regional Production Networks and Complementary Regional Development Strategy

김원배, 조진철

이 연구는 통상적인 국가 간 경쟁과 협력이라는 시각에서 벗어나 지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1차연도의 연구에서 동북아 8대 핵심경제지역의 발전 현황과 전망, 그리고 이들 지역 간의 관계에 대한 거시적 분석을 시도한 바 있다. 2차연도인 2008년에는 구체적으로 지역 간의 관계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의 역할을 글로벌 생산네트워크라는 개념을 빌려 조명함으로써, 지역 간의 호혜적 분업구조의 구축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분석대상 지역은 중국의 주강삼각주, 장강삼각주, 경진기 지역, 한국의 수도권과 영남권, 그리고 일본의 간토, 긴키, 주부지역을 선정하였다. 분석대상 산업은 동북아 교역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전자산업과 자동차산업이며, 전자산업은 다시 LCD, 휴대전화, 반도체 등 대표적 전자산업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제조업 업종에 더해 물류산업에 대한 개괄적인 분석을 포함함으로써 물류산업 자체의 지역 간 연계뿐만 아니라 제조업에서의 교역 상황도 분석하려 하였다.

연구 결과 전자산업에서의 지역생산네트워크는 글로벌 네트워크화의 진전에 따라 비교적 개방된 수평적 분업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LCD의 경우는 지역클러스터화의 경향이 강해 지역 간 단절적인 구조를 보이고 있으나, 휴대전화와 반도체산업은 세계적인 플랫폼이나 부품모듈화의 확대추세에 따라 수직적 분업보다는 각 지역의 장점을 활용하는 보다 수평적 분업체계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산업에서는 폐쇄적 생산체제의 특성상 지리적 클러스터 간의 네트워킹은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한국 및 일본 기업의 중국 자동차 생산클러스터가 현지조달에 대한 압력을 받고 있고, 동시에 구미기업의 개방형 생산네트워크와 경쟁이 격화되어 부품부문에서 협력의 여지는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지역생산네트워크의 수평적 분업구조 확대에도 불구하고, 가치사슬에서의 지위는 동북아 지역 간에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동북아 주요 지역의 가치사슬에서의 지위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간토권 및 긴키권과 같이 연구개발과 마케팅에 치중되어 있는 지역, 주부권과 같이 연구개발, 생산, 마케팅 등 가치사슬의 전 부문을 갖춘 완결형 클러스터를 가진 지역, 중국 광동성과 같이 저부가가치 생산에 치중된 지역이다. 문제는 모든 지역이 가치사슬의 상류부문으로 진화하려는 가운데 상호 보완적 관계보다는 경쟁관계가 심화되는 데에 있다. 본 연구는 지역 간 보완적 분업구조의 정착을 위해 가치사슬에서의 지역 간 협력과 분업의 확대, 클러스터 간 네트워킹 강화를 통한 지역 간 연계발전, 물류·교통에서의 범지역적 플랫폼 구축, 기술지식의 확산을 위한 도시 간 네트워크 구축 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4대 전략의 골격에 맞추어 이 연구는 세부적인 정책과제를 산업정책 및 국토정책적 관점에서 도출하였다.

## » 중국 국토전략하의 환발해권 물류체계와 한·중 물류협력 전략

Logistics System in the Bohai Rim under China's National Land Development Plan and Logistical Cooperation Strategy between Korea and China

김원배, 신정식, 권은주, 김세창, 양광식

이 연구는 한·중·일 물류협력체계의 구축을 목표로 한·중 간 물류협력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해 중국의 11·5 계획을 심층 분석하고 중국 환발해지역의 사회간접자본 및 국토개발계획 조사를 통해 한국과 중국 환발해권 간의 실질적 물류협력 방안을 모색하였다. 환발해권은 한국과의 지리적 근접성으로 인해 초국가적 생산네트워크가 이미 구축되기 시작하였고, 향후 지역 간 분업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일 뿐만 아니라 중국정부에서 새로운 경제 중심지로 육성하고자 하는 지역이다.

그동안 한·중 간 논의되어 온 항만, 공항, 철도 분야에서의 개괄적인 물류협력에서 벗어나 환황해권이라고 하는 공간에 초점을 맞추어 실질적인 차원에서 분석을 통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실천적인 과제로서 평택과 웨이하이를 잇는 한·중 열차페리 사업과 공동물류단지 건설 사업을 제안하였다. 한·중 열차페리의 기본 구상은 산둥성 웨이하이와 경기도 평택 간에 정기 컨테이너 열차페리를 운항하고, 한국 내에서는 철도로 평택항과 부산항을 연결하는 것이다. 철도페리 사업과 연계하여 제안한 공동물류단지사업은 웨이하이 지역에 복합물류단지를 건설함으로써 칭다오, 옌타이 등 인근 도시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저렴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한·중 공동물류중심 공간을 개발하는 것이다.

한·중 열차페리의 기대효과는 우선 한국기업의 중국 내륙진출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담당하여 새로운 물류시장을 창출할 것이라는 점이다. 또한 컨테이너화 할

수 없는 새로운 화물 수송시장의 개척, 사회간접자본 분야의 시장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선점효과 등을 들 수 있다. 공동물류단지의 기대효과는 환황해권의 증가하는 물동량을 흡수하는 것인데, 한·중·일 열차페리와 연계시킨다고 가정할 경우 경제적 타당성은 충분히 확보된다고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제안한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은 한국 투자기업, 중국 기업, 양국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컨소시엄 참여자 등에 의해 가능하다. 사업의 성공을 담보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과제는 토지 및 어업보상비 처리, 사업대상지 기반시설 건설, 사업대상지의 자유무역지대 지정, 사업시행자에 대한 편의 제공과 행정 절차 간소화 등이다. 열차페리와 관련해서 한·중 간 역할 분담이 필요한데, 중국은 물류기지 제공과 물동량 확보, 한국은 경제성 있는 열차페리 선박의 건조 등을 맡을 수 있을 것이다.

## >> 중국의 거점도시 및 개발축 형성동향

The Trend of Forming Growth Pivot City and Development Axis of China

박인성, 리칭, 정희남

본 연구는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국토 및 도시공간구조 변화추세, 주요 발전 축과 도시군(都市群) 형성동향을 공간구조의 형성과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또한 경제특구 선전, 상하이, 베이징을 대상으로 개혁개방 정책의 배경 및 실험 경험, 도시성격과 도시화의 진전 및 변화과정, 도시계획 수립 및 추진 경험을 고찰하고, 주강 및 장강삼각주, 베이징-톈진-탕산 3대 도시군과 기타 9개 도시군 형성지구의 현황과 특징을 고찰, 정리하였다.

제2장은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선전에 경제특구를 설치한 배경과 과정을 고찰하였다. 선전의 개혁실험을 거쳐 14개 연해 개방도시 지정 설치, 3개 연해 삼각주 지구 개방, 상하이 푸둥지구 개발, 톈진 빈하이 신구 개발로 이어지는, 점(點)-선(線)-면(面)-망(網) 형태의 공간적 확산 전략 등의 발전과정과 동향을 거시적으로 고찰하였다.

제3장은 중국의 국토 및 도시공간구조 변화추세를 개혁개방 이전과 이후의 시기로 구분하여 고찰하였다. 1978년 개혁개방 이후는 효율과 거점개발 전략이 중시되어 연해지역 특히, 항구도시들의 발전이 촉진되었다. 동부 연해지구의 급속한 성장에 따른 지역격차가 커지면서 1990년대 말부터는 서부 지구, 동북 3성 지구, 중부 지구에 대한 발전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바, 이들 전략의 추진 배경과 동향, 향후 예상되는 중국의 국토 및 지역 공간구조와 발전 축, 그리고 도시군의 형성 및 발전 동향을 고찰하였다.

제4장은 중국의 3개 대도시인 경제특구 선전시, 경제중심 상하이시, 수도 베이징시를 대상으로 도시개발

및 성격, 도시형성 및 발전, 도시화 진전현황, 도시공간구조 형성 및 변화추세, 도시개발정책 및 도시계획의 수립과 추진 경험을 고찰하였다.

제5장은 주요 도시군(都市群)의 형성 및 발전전망을 고찰, 정리하였다. 2000년대 이후 시장경제요소가 빠른 속도로 확대되면서 도시와 도시, 도시와 지역 간의 연계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현재 중국에서 도시군 관련계획이 수립되었거나 수립 중인 곳은 12개다. 이중 주강삼각주(珠三角), 장강삼각주(長三角), 베이징-톈진-탕산을 '3대 도시군'이라 부르고, 다시 여기에 산둥반도, 타이완해협 서안 도시군을 포함하여 '5대 도시군'이라 부르기도 한다. 이들 지역에 대해 최근 추세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중국의 경제성장과 발전을 공간구조의 형성과 변화라는 틀에서 고찰하고, 그중에서도 거점도시와 발전 축, 도시군의 형성동향과 발전전망에 초점을 두었다. 그 결과 중국의 거점도시와 발전 축, 도시군의 형성 및 발전 동향에 관한 체계적 인식과 기본적인 인식의 틀을 만들어 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 » 한반도 공동번영을 위한 국토분야의 대응방안

Territorial Development Policies for Mutual Benefit and Common Prosperity of the Korean Peninsula

이상준, 김성일, 김근용, 안흥기, 조진철

본 연구에서는 남북이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국토분야의 과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정부와 민간차원의 종합적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반도 공동번영이라는 측면에서 향후 국토분야에서 어떠한 과제가 제기될 것인지를 북한경제전문가들과 국내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와 북한당국 및 국제사회의 관련수요를 토대로 파악하였다. 건설소요에 따른 투자비용은 원단위 가정을 통해 추정하였고, 건설투자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산업연관분석 등 계량모형 분석을 통해 파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향후 북한의 국토분야에 어떠한 과제가 제기될 것인지를 전망하기 위해 베트남의 사례를 조사하였다. 베트남은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국토개발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민관협력을 통한 재원조달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개발도상국가다. 베트남의 사례가 향후 북한에 주는 교훈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향후 북한지역에서의 국토개발과정에서 민관협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제금융기구의 역할이 절대적이라는 점이다. 국제금융기구가 같이 참여하여 투자자에게 신뢰를 주지 않으면 투자회수기간이 긴 기반시설 개발사업에 민간투자를 유치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둘째, 기반시설 개발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에너지와 교통분야의 과제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특히 산업생산활동의 활성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전력과 수송분야의 개선은 국토분야의 과제 가운데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

서 북한 국토의 각 분야별 개발과제에 따른 건설소요를 파악한 결과 중단기에는 81조 1,000억원, 장기에 143조 5,000억 원 등의 소요가 예상되었다. 이러한 투자는 남북한 모두에 큰 경제적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예상된다.

상생과 공동번영을 통해 지향할 한반도의 장기 비전 하에서 북한당국의 협력과 국제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가 '한반도 그랜드 디자인' 과 같은 종합적 구상 수립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한반도 그랜드 디자인' 의 수립은 주변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협력역량을 최대한 활용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정부는 한반도 미래의 비전과 청사진, 분야별과제와 추진의 우선순위 등에 대한 구상안을 마련하고 이것을 가지고 북측과 협의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 민간기업은 이러한 구상을 고려하여 투자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 >> 해외도시개발의 진출 방향 및 전략

The Strategy and Direction for Foreign City Development

조진철

2008년 수시과제로 수행된 이 연구는 해외도시개발에 대한 필요성 및 개념정의부터 시작하여, 공공과 민간의 해외도시개발 현황 및 문제점 도출, 싱가포르의 해외도시개발 및 일본의 부동산 진출 사례조사, 우리의 해외도시개발 진출 방향 및 전략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해외도시개발의 문제점으로 첫째, 공공부문의 경직된 해외진출 패턴을 지적하였다. 현재 해외 자원개발에 거의 모든 해외진출 패턴이 고정되어 있는데, 공공의 참여를 자원개발에 한정하기보다는 다른 해외자산들을 통합하여 다각적인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해외도시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민간부분의 단독 해외진출의 어려움이다. 외형적 수주에 비해 경험, 정보, 인력부족으로 인하여 수익성 저하 및 개발일정 차질 등의 어려움이 있다. 이에 리스크 관리와 사업확장 차원에서 정보, 자금조달, 관리 및 조정분야에서 정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해외도시개발의 진출 기본방향 및 진출 전략을 마련하였다. 기본방향으로 국가 간 협력기조, 민간협력 기조, 미래형 도시 모듈화, 국내 고용창출 극대화 등을 제시하였다. 국가 간 협력기조는 해외부동산과의 차별화로서 해외도시개발이 국가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시현하는 데 있어 견지해 나가야 될 기본 방향이라고 설명한다. 민간협력 기조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기업의 리스크 경감 등 지원을 위해 필요하며, 공공의 직접적 참여를 통해 공공과 민간의 협력 해외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시한다. 미래형 도시 모듈화는 해외도시개발의 시장성에 관계된 문제로서 변화하는 세계에 적응하고 우리만

의 독특한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해외도시개발을 하나의 문화수출로서 이끌어야 한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해외도시개발은 국내고용을 창출하는 방향에서 모색되어야 하며, 이러한 연유로 인해 해외도시개발의 전략도 건설 이후의 과정에 더 많이 고려해야 함을 지적하였다.

결과적으로 이 연구는 해외자원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현재의 공공부문 해외진출에서 해외도시개발이라는 영역을 심각히 고려해야 함을 지적하며, 해외도시개발에 공공의 참여를 독려하는 내용이다. 특히, 해외자산 확보 활동이 약탈적이라기보다는 진출국 및 상대국 모두에게 서로 윈-윈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것을 제시함으로써 해외도시개발을 통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을 건의한다.

이 연구의 기대효과로는 민간기업에서 진행하고 있는 해외도시개발에 대해 공공부문이 공동으로 참여함으로써 지원할 방안을 강구하고, 해외도시개발 진출 방향 및 전략을 제시하는 점에 있다. 특히, 민간부분의 해외도시개발이 금융위기로 추중한 상황에서 공공의 합리적인 지원을 통한 민간협력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이 연구의 의의가 크다 하겠다.

# 02

## c h a p t e r II

### 녹색국토 · 도시연구본부

#### 녹색성장국토연구

-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 측정 · 평가 연구 34
- 건강 · 문화 · 생태회랑 구축 전략 연구 : 국토 녹색길 조성을 위한 기초연구 35
- 기후변화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국토관리 전략(I) : 지역별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및 지역특성 분석 36

#### 도시재생연구

- 대중교통중심형 도시공간구조 구축을 위한 도시계획과 교통계획의 연계방안 연구 37
- 도시용지의 공급확대에 따른 계획적 활용방안 38
- 라멘플란의 실체와 국내 적용가능성에 관한 연구 39
-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마을계획 제도 도입 방안 40
- 시민이 참여하는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 전략편 41
- 시민참여형 도시정비를 위한 시민역량 강화방안 42
- 재해에 안전한 도시조성을 위한 방재도시계획 수립방안 연구 43
- 중심시가지 환경개선을 위한 도시재생전략 연구 44

#### 문화국토연구

- 국토관리분야의 사회적 자본 확충방안(I) : 사회적 자본 영향요인 분석 45
- 근대 산업유산의 보존 · 활용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연구 46
- 도시재생을 위한 근대역사환경 활용방법 분석 : 부산, 광주, 군산을 사례로 47

## »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 측정·평가연구

Evaluation of Sustainability in National Territory Management : The Numbers and Trends

이순자, 장은교

이 연구는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 현황을 점검하고 바람직한 발전방향 제시를 위하여 ① 2008년 2월 국토해양부가 공표한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지표 30개를 시범적으로 측정·평가하고, ② 이들 30개 지표들을 근거로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 지수화 가능성을 타진해 보며, ③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 지표체계 및 평가방식이 지닌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지표를 시범 측정된 결과, 전체 지표 중 22개 지표에서 뚜렷한 변화를 발견할 수 있었다. 30개 지표 중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는 지표는 16개이고, 부정적인 방향으로 악화되고 있는 지표는 6개이며, 개선과 악화를 반복하면서 뚜렷한 변화 추세를 발견할 수 없는 지표가 8개로 우리나라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은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판단된다. 분야별 평가결과를 보면, ‘형평적 국토관리’ 분야, ‘효율적 국토관리’ 분야, ‘친환경적 국토관리’ 분야 모두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친환경적 국토관리’ 분야의 경우 부정적인 경향을 보이는 지표 비율이 다른 두 분야보다 상대적으로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지표별 지수화 값의 변화추세를 살펴본 결과, 전체 30개 지표 중 19개 지표의 지수화 값이 증가하는 반면, 나머지 11개 지표의 지수화 값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 2000~2006년 지수화 값의 평균을 비교해 보면, ‘효율적 국토관리’ 분야가 155.09로 가장 높고, ‘친환경적 국토관리’ 분야는 122.55이며, ‘형평적 국토관리’ 분야가 118.60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효율적 국토관리’ 분야가 ‘친환경적 국토관리’ 분야나 ‘형평적 국토관리’ 분야보다 지속가능성 정도가 더 크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다. 다만 이러한 해석은 상대적인 것이고 절대적인 것이 아님은 주지의 사실이다.

시범 평가작업으로써 이번 연구가 지니는 의의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가장 중요한 의의로서 2008년 초 공표된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 지표를 시범적으로 적용해 봄으로써 본격적인 평가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제고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이 연구의 또 다른 정책적 기여의 하나가 바로 국가의 지속가능성 평가 능력과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 정책의 효과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 여러 가지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표값의 지수화를 시도하였다는 점이다. 즉, 일반인도 비교적 이해하기 쉬운 지표보다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용되는 지수를 활용하여 국토의 이용 및 보전 현황을 평가하는 작업도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 >> 건강·문화·생태회랑 구축 전략 연구 : 국토 녹색길 조성을 위한 기초연구

Strategy of Multi-purpose Corridors for Human Health, Culture and Ecology(CHCEs) :  
A Study on the Construction of 'National Green Ways' in Korea

김명수, 박정은, 최영국, 정소양

최근 걷기와 자전거 문화의 확산은 소득과 여가시간의 증대로 나타난 삶의 여유와 건강을 중시하는 사고변화의 한 모습이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하여, 국토의 자연환경을 보전하면서 많은 사람이 건강하게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고, 도시민들에게 문화적 향유의 기회를 줄 수 있는 공간으로 건강·문화·생태회랑을 제시하고자 한다. 건강·문화·생태회랑이란 “생태적 건강성을 유지하고 (인간의) 체육, 문화, 여가활동이 가능하도록 (선적으로) 연결된 공간”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건강·문화·생태회랑 개념, 구축 방안 및 계획적·제도적·정책적 해결과제와 전략을 제시한다.

건강·문화·생태회랑은 기능에 따라 생태형, 건강형, 역사·문화형, 여가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규모(국토, 광역, 도시주변, 도시)와 목적(보전 또는 활용)에 따라 다양한 유형구분이 가능하다. 회랑의 요소로 활용 가능한 대상으로 옛길, 마을길, 폐도, 폐철도, 숲길(등산로), 산책로, 해안길, 하천길, 개발제한구역 등을 선정하였다. 규모와 공간적 위계의 고려, 활용방향, 규모와 활용방향 연계의 원칙에 따라, 최종적으로 8가지 유형의 건강·문화·생태회랑과 각 유형별 설계개념, 구축방안,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때 각 활용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토, 광역, 지역, 도시규모에서 구축 전략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을 사례로 단계별로 건강·문화·생태회랑의 선정과정을 제시하였다. 먼저 GIS 분석을 통해 생태축 위주로 보전할 지역을 선정하고,

통계자료를 중심으로 활용 가능한 자원을 파악하였다. 그 다음 주변 이용수요를 고려하여 구축에 대한 시나리오와 계획방향을 작성하였고, 마지막으로 건강·문화·생태회랑 유형별로 설계개념을 정하고 최종적인 노선을 도면화하였다. 사례대상지에 8가지 유형의 회랑을 적용하였을 때, 도시구간의 경우 연결을 저해하는 요소가 상존하고, 기존 도시계획시설(기존 공원, 문화시설, 하천, 광장 등)과의 연결에 어려움이 있으며, 서로 다른 행정구역 간 연결의 문제가 나타났다.

건강·문화·생태회랑 조성을 위한 계획적 전략으로 전 국토 차원의 건강·문화·생태회랑 구축을 위한 마스터플랜의 수립이 필요하다. 정책적 전략으로는 재원 확보 및 사업추진 체계와 시범사업 추진을 제시하였다. 제도적 전략으로는 회랑 활용을 위해 행위제한 일부 완화, 사유지 보상방안,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방안, 그리고 인증제도 도입을 통한 선별적 지원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많은 녹색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고,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녹색성장형 사업으로 건강·문화·생태회랑의 개념 및 적용방안을 제시한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 » 기후변화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국토관리 전략(I) : 지역별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및 지역특성 분석

Climate Change and Sustainable Land Management Strategies in Korea

최영국, 정진규, 심우배, 이문원, 임은선, 김명수, 왕광익, 서연미, 박정은

본 연구는 3개년 연구(2008~2010년)로 진행된다. 3개년 연구를 통하여 지역특성과 온실가스 배출 그리고 기상이변에 취약한 지역 구조를 분석·평가하여 지속가능한 국토관리 전략을 마련하게 된다. 1차연도(2008년) 연구는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추계하고 지역특성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둔다. 2차연도(2009년) 연구는 기후변화 영향 예측과 정책과제를 도출하는 것이 목적이다. 3차연도(2010년 예정) 연구는 지역특성별 기후변화 대응 전략 수립과 그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국토관리 전략 연구'를 종합하게 된다.

1차연도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요약 가능하다. 첫째, 온실가스 배출량은 연도별·지역별·도시 인구규모별로 다른 특성을 나타낸다. 우선, 총 배출량은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완만한 증가추세에 있으며 에너지부문은 증가추세에 있는 반면 농업과 폐기물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더불어 전국적으로 흡수량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추계되었다. 다음으로, 전국 234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대규모 산업단지가 입지하고 있는 전남 여수시, 울산 남구, 울주군, 충남 서산시, 경기도 안산시 등이 상위를 기록하였다. 반면, 산림과 같은 흡수원의 분포가 많은 강원도 인제군, 화천군, 경북 울진군, 영양군, 청송군 등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도시 인구규모별 온실가스 배출 현황을 종합해보면, 인구 1인당 총 배출량은 중대도시가 가장 높고 중도시, 대도시, 중소도시, 소도

시의 순으로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온실가스 배출량과 지역특성 상관분석 결과, 온실가스 배출 증가유발 요인과 감소유발 요인을 도출하였다.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과 '양(+)'의 관계를 뚜렷이 보이는 지표(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요인)는 만 인당 시가화구역면적, 공업지역비율, 공업용건축허가면적비율 순이다. 한편,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과 '음(-)'의 관계를 뚜렷이 보이는 지역특성지표(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요인)는 3차산업 비중, 산림면적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토지용도별로 CO<sub>2</sub> 배출원단위는 차이를 보였다. 필지 원단위를 기준으로 하면 '중심상업시설'의 원단위가 315.9(kg/m<sup>2</sup>·년)로 가장 큰 것으로 산정되었다. 연면적 원단위를 기준으로 비교하면 '공업 및 물류시설'의 배출 원단위가 193.6(kg/m<sup>2</sup>·년)으로 가장 크게 산정되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속가능한 국토관리 전략 수립의 1차 연구과제는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제시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전국단위의 지자체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추계함으로써 다양한 전략과 실천수단 발굴의 발판을 마련하였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온실가스 배출량과 지역여건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온실가스 배출에 영향을 주는 요소의 실제 규명의 단초를 제공하였다는 점이다. 세 번째는 토지용도별 이산화탄소 배출 원단위를 산정하여 토지이용상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방법을 검토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 >> 대중교통중심형 도시공간구조 구축을 위한 도시계획과 교통계획의 연계방안 연구

Integrative Approaches of Urban Planning and Transportation Planning towards  
Transit-Oriented Urban Structure

박세훈, 박은관, 조남건, 이왕건, 이진희

최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경주되면서 대중교통의 이용률 제고와 그에 부합하는 공간구조의 형성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대중교통 중심적 도시공간구조는 대중교통 결절점을 중심으로 고밀도의 복합적 토지이용과 보행친화적인 가로망 및 도시설계를 통해 자동차이용보다는 대중교통이용과 보행을 유도하는 도시공간구조를 의미한다. 대중교통 중심형 도시공간구조 구축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대중교통정책과 함께 근본적으로 대중교통이용을 유도할 수 있는 도시계획·설계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현재 대중교통 결절점의 토지이용 실태와 이를 둘러싼 제도적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대중교통 중심형 도시공간구조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대중교통 중심형 도시공간구조의 실태분석을 위해 수도권 도시철도 역세권을 사례지역으로 선정하였다. 기존 연구를 참조하여 역세권을 도심역세권, 도시근린역세권, 교외중심역세권, 교외근린역세권의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으며, 각각 서울 역곡, 서울 봉천, 성남 서현, 부천 역곡을 사례대상지역으로 선정하였고 이에 대한 계획요소별(토지이용 밀도, 토지이용 복합성, 보행편의성, 대중교통연계) 실태를 분석하였다. 실태분석을 통해, 권역보다는 가로중심의 도시 발달, 열악한 보행환경과 보행동선의 비체계성, 역사주변 공간의 공공성 부족, 세분화된 필지로 통합적 개발 저해 등의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은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활용되었다.

또한 기존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기 위해 도시계획과 교통계획의 대표적인 계획과, 근거로 하고 있는 법제도를 분석하였다. 도시계획관련 계획에서는 주로 인센티브 방식을 통하여 고밀복합화를 유도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으며, 교통계획의 측면에서는 대중교통시설의 공급, 연계성 강화, 보행우선구역의 지정 등을 통해 대중교통이용을 유도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통합적인 대중교통 결절점 계획 및 관리수단이 없다는 점, 구체적 재정지원의 부족, 지구단위의 대중교통 결절점 평가시스템의 부재 등이 문제점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논의를 기초로 하여 도시계획과 교통계획의 통합적 운영방안을 제시하였다. 대중교통 결절점의 기능개선을 위해서는 먼저 요구되는 지역의 지구지정과 이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체계가 필요하다. 필요한 지역의 지구지정이 이루어지면 이 지역을 대상으로 밀도계획, 보행동선계획, 환경개선계획, 주차정책프로그램 등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계획추진을 통해 대중교통 결절점의 기능이 어느 정도 개선되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이에 따르는 구체적인 제도개선방안으로 계획체제의 개선, 통합적 지구관리제도의 도입, 각종 인센티브 제도 확충, 대중교통 결절점 기능개선을 위한 재정지원 등을 제시하였다.

## » 도시용지의 공급확대에 따른 계획적 활용방안

Plan-based Land Management System on Increasing Urban Land

이왕건, 왕광익, 이진희

이 연구는 도시용지의 개념 및 공간적 범위를 설정하기 위한 명확한 기준과 추가 공급될 토지에 대한 계획적인 관리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현재 도시용지에 대한 개념과 기준이 불분명하고 유사용어가 혼재된 형태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용어 자체의 적합성에 대한 검토와 공간적 범위 설정을 위한 기준제시가 요구된다. 정부가 발표한 개발용지 확보정책에 따라 단기간 내 개발가능용지가 대량 공급될 경우 난개발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므로 이에 대한 방지대책이 필요하다.

연구는 첫째, 도시용지에 대한 개념과 공간적 범위를 설정하기 위한 명확한 기준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현재 활용되고 있는 도시용지와 관련된 유사용어, 적용 기준, 구역경계설정방식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미국, 일본, 영국 등 해외의 유사사례를 분석하여 도시용지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였다. 둘째, 향후 추가 공급될 토지에 대한 난개발 방지대책, 즉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관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분석하여 개발가능용지의 계획적 활용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2장에서는 도시용지에 관한 명확한 개념정의를 시도하였고, 공간적 범위를 설정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도시용지에 관한 실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현재 활용되고 있는 다양한 유사용어와 적용기준에 대한 현황 조사를 시행하였다. 일본, 영국, 미국 등 해외에서 우리의 도시용지, 시가지지역, 도시지역과 유사한 개념으로 활용되고 있는 용어를 대상으로 선정기준과 구역경계 설정방식을 검토하였고, 통계자료의 정확성, 합리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선정기준을 제시하였다.

3장에서는 도시용지 공급확대를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을 간략히 설명하고, 추가 공급될 신개발지의 계획적인 관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난개발을 막고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채택하고 있는 다양한 토지이용규제방식을 검토하였다. 다른 유사연구에서 이미 소개된 사례보다 가급적이면 국내에 널리 알려지지 않은 제도를 중심으로 실태를 조사하고자 하였다. 운영제도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 토지구묘, 기반시설 설치현황 등을 감안한 계획적 개발유도방안을 제시하였다.

4장에서는 도시용지라는 용어를 도시지역으로 변경하고, 협의의 공간적 범위를 시가지가 이루어진 지역(Urbanized Area)으로 한정하고 광의의 범위는 이해당사자와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최종확정하는 도시용지의 범위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는 방안으로 용도지역 세분화, 토지사용제한계약 등 새로운 방식을 제안하였다.

## >> 라멘플란의 실체와 국내 적용가능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Rahmenplan and its Applicability to Korea

이원영, 이영아, 문기덕

독일의 라멘플란은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의 중간에 위치하면서 생활권 단위의 공간환경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며, 법적 구속력을 갖는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지침과 방향을 제시하는 중간단계의 물적 구상이다.

독일은 한국의 도시기본계획에 해당하는 Flächennutzungsplan(이하 F-Plan: 토지이용계획을 포함)과 한국의 지구단위계획에 해당하는 Bebauungsplan(이하 B-Plan)의 두 가지 법정계획이 지자체 도시계획청을 통하여 계획되고 있다. 이 두 법정계획이 연속성을 가지기 위하여 1970년대부터 비법정계획인 라멘플란을 수립, 활용해 왔다. 각 지자체의 필요에 의해 생겨난 이 전략적 계획 도구는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하위계획인 B-Plan에 일정한 지침과 방향을 제시하는 '시가지 정비계획 및 전략'으로서 성격을 가진다. 오늘날까지 '비정형화된' 성격의 장점 덕분에 법정계획을 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보충하고 보완하면서, 여러 가지 형태와 쓰임새를 보여주고 있다.

다양한 변화와 개별 주체들의 요구사항이 라멘플란을 통해 전문적인 도시계획 영역에서 검토되고, 이러한 요구사항이 공간계획상 도면으로 표현되고 있다. 이는 법정계획의 한계를 넘어서는 중장기적인 비전을 담고 있고, 궁극적으로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수준에서 구현될 수 있는 '구상'으로 완성된다. 라멘플란은 또한 지구정비의 개념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합의도출의 방법이자, 공공과 주민(의회)과의 소통을 위한 매개수단이다. 라멘플란을 통하여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독일에서는 법정계획인 F-Plan이나 B-Plan보다 훨씬 많은 계획용역이 라멘플

란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문가의 참여도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라멘플란은 계획 목적에 따라 종류와 형식도 다양하며, 스케일이나 범례기준도 다양하다는 특징이 있다.

지구 수준 라멘플란의 국내 적용가능성을 검토해보면, 도시계획에서 다음과 같은 역할을 위해 라멘플란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에 대한 검토와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반영해야 할 사항에 대한 개략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이다.

둘째, 법적 구속력이 강한 도시관리계획이 너무 경직적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완충적 역할을 하도록 하고,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지구 수준의 토지이용 및 기반시설에 대한 구상이다.

셋째, 비도시지역 및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곳에 대해 개발행위허가 지침이 될 수 있도록 지구 수준의 토지이용 및 기반시설에 대한 구상이다.

## >>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마을계획 제도 도입 방안

The Institutionalization of Neighborhood Planning for Making the Livable City

김진범, 김은란, 장은교, 이승욱

이 연구는 현재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살고 싶은 지역 만들기’ 정책의 활성화와 주민 등이 자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마을 만들기를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로서 ‘마을계획’의 제도화 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일상 생활권을 대상으로 하는 마을단위 계획인 ‘마을계획’의 개념과 필요성, 제도도입방안, 실천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먼저, 관련 이론의 검토를 통해 마을계획을 ‘마을을 대상으로 물리적인 요소와 사회·경제적인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지역주민의 발의하에 다양한 주체가 연계·협력하면서 수립·집행하는 계획’으로 정의하였다. 다음으로는 국내외의 관련 제도와 정책을 분석하였으며, 마을계획이 실제로 어떻게 수립·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마을계획의 필요성과 제도화 방향, 행정의 지원방안 등 다양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토대로 마을계획의 제도화 방안을 단기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한 결과 단기적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절차조례를 추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중·장기적으로는 도시기본계획의 생활권계획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마을계획조례의 개념과 의의에 대하여 설명하고, 마을계획을 행정계획으로 반영하는 절차를 세부적으로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크게 4단계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즉, 주민발의 유도→주민대표조직의 구성→마을계획의 제안→마을계획의 행정계획 반영 검토 등의 순이다.

마을계획과 관련한 주제들의 역할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특히, 지방정부에 대하여 마을계획은 마을의 주민들의 ‘모듬 계획’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기존의 인사제도와 조직구조 등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중앙정부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정책의 개선방향에 대하여 마을계획의 활성화 측면에서 제시하고 있다. 시범사업의 내용을 사업위주가 아닌 주민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계획 수립 위주로 개편하도록 제안하였다. 이러한 방식을 활성화하기 위해 가칭 ‘마을계획조례’를 제정하는 지자체에게 사업평가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제안하였다.

끝으로 마을계획을 제도화하여 실제로 운영함에 있어서 유의해야 할 점을 제시하였다. 행정이 마을의 형성을 재촉하거나 마을계획 등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마을은 주민이 자연발생적으로 형성하는 지역생활의 관계이자, 행정이 그 발전에 ‘협력’하는 입장에 중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마을을 시범적으로 설계하거나, 계획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최근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해 정부에서도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바람직한 것이지만, 행정은 마을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모형을 만들거나, 지도하여 ‘틀에 맞춘’ 마을을 만드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 >> 시민이 참여하는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 전략편

Livable City Making in Partnership with Citizens : Principles and Strategies

진영환, 류승한, 정윤희, 김은란

이 연구는 2개 연도에 걸쳐 추진된 연구다. 1차연도의 사례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시도되고 있는 시민이 참여하는 살고 싶은 도시·마을만들기의 대표적인 사례들을 대상으로 사업별 추진주체, 추진과정, 행정지원 등의 주요 요소를 심층 분석하여, 살고 싶은 도시·마을만들기의 체계적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토대를 제공하였다. 이어 본 연구는 그동안 수행했던 사례편 연구의 성과를 바탕으로, 시민이 참여하는 도시만들기의 효과적인 추진과 성숙을 위해 우리가 고려해야 할 원칙과 전략을 다루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살고 싶은 도시·마을만들기 실무자들이 현장에서 고려해야 할 과제를 도출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하고, 이러한 전략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 개선 사항 등을 제시함으로써 살고 싶은 도시·마을만들기의 효율적·효과적 추진을 지원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생활공간 단위 접근의 필요성과 시민참여의 중요성에 대한 연구진의 관점을 제시하여 시민이 참여하는 도시·마을만들기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았다. 또한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에서 나타난 도시·마을만들기를 부문 혹은 주체별 역할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도시·마을만들기의 과제를 도출하였다. 전략편이라는 간결한 부제를 달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도시·마을만들기의 성숙단계를 고려하여 구체적인 전략에 앞서 각 참여주체들이 견지해야 하는 핵심가치, 원칙과 전제에 대한 정리가 함께 이루어졌다. 이를 기본으로 참여의 창출과 비전의 공유, 참여주체 간 협력체계 구축, 리더십 형성과 주민역량 강화 등의 주요 과제를 중심으로

현장에서 필요한 전략을 비교적 상세하게 다루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살고 싶은 도시·마을만들기의 주요 과제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도시·마을만들기의 다양한 과제 중 이 연구에서 특히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동네나 마을 단위에서의 주민참여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참여의 다양성과 계획과정의 유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도시·마을만들기 과정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사업의 가시적 성과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이다.

이와 더불어 도시·마을만들기를 위한 정책방향에 대해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지원, 제도적 개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재설정 등이다.

이 연구는 시민이 참여하는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를 사례편과 전략편으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정리하고자 한 최초의 시도라는 데에 의의가 있다. 연구수행과정에 최대한 현장의 목소리와 실무자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노력했지만, 현장에서 발로 뛰어야 더욱 깊이 알게 되는 마을만들기의 특성상 시민사회, 지역주민, 지자체공무원 등 각 주체별로 보다 구체적인 전략을 도출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 » 시민참여형 도시정비를 위한 시민역량 강화방안

Capacity Building for Community Development in Korea

이영아, 변필성, 류승한, 최병남

2000년대 들어 '시민주도-정부지원'의 선진국형 도시 정비 체계 패러다임이 수사학적으로는 빠르게 전환되어가고 있으나, 실제 시민주도형 도시정비가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으며, 특수한 지역의 성공사례 정도로 소개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제기하에 본 연구에서는 도시정비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끄는 역량 있는 주민을 사회적 공공재로 인식, 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하고, 개인 차원에서 시민역량을 강화시키는데 필요한 요인을 분석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적, 제도적 방안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주민이 주도하는 도시정비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한 정부차원의 시민역량강화 지원 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사업, 공동모금회의 한시적 공모사업으로 이루어졌던 지역사회발전센터 사업, 주민 주도적 도시정비(주로 일부 시설 정비) 사례 등을 통해 열심히 참여한 주민들의 참여 동기 및 배경을 분석함으로써, 역량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발굴하였다.

역량강화를 분석하기 위한 항목으로는 특히 '개인의 참여와 관련된 역량 강화'라는 점을 고려하여, '(비참여에서)참여', '지속성', '개방성'이라는 세 가지 역량 강화를 진단하기 위한 항목을 도출하였다.

우선 개인수준의 역량강화요인에 대하여,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요인은 '사회적 성취감', '신뢰감을 가질 수 있는 인간관계 구축', '개인의 이해를 지역 현안과 일치시키는 노력' 등이었다. 개인적인 수준의 지속성 항목과 요인을 분석하여 종합한 결

과, '조직 활동의 적극성'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사회교육경험', '대인 관계에서의 주도권' 등도 역량강화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어떤 조직에의 참여가 시민역량을 더 강화시키는지 보기 위하여 조직적 차원의 특성을 자세히 살펴본 결과, '지역주민(시민)단체' 및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소속감과 '친밀한 이웃' 관계 등이 주민의 참여를 주로 이끄는 조직(혹은 관계)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조직들은 지역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며, 정부와 시민을 잇는 '매개조직'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러한 매개조직의 활동이 활발해질수록 지역주민의 역량강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또한 개인적인 역량강화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 중 하나로 분석된 공부방, 도서관, 복지관, 마을회관, 주민자치센터 등이 지역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의 필요성도 강조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및 외국의 지원제도의 시사점 등을 바탕으로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시스템 구축 방안을 제안하고 있는데, 정부의 지원은 공모의 형태로 하도록 하되, 지역의 중심점 역할을 하는 매개조직을 통해서 보다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지역의 특성에 맞게 공간이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포괄적 지원시스템 구축을 제안하였다.

## >> 재해에 안전한 도시조성을 위한 방재도시계획 수립방안 연구

A Study on the Disaster-prevention Urban Planning for the Creation of Safe City

심우배, 왕광익, 이범현, 이문원, 문채

본 연구의 목적은 도시계획 위계와 범위를 고려하고 부문별 계획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재도시계획 수립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또한, 방재도시계획의 위상과 실효성 제고를 위해 부문 계획 간 연계방안, 단기 제도개선방안과 중장기 발전방향을 마련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도시계획 내 방재계획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효율적인 방재도시계획 수립방안을 마련하였다. 효율적인 방재도시계획 수립을 위해 먼저, 각 도시계획이 추구하는 기본이념에 부합하고, 계획의 특성과 범위를 고려하는 기본방향과 중점 고려사항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상·하 계획 간 방재계획의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는 구성틀을 마련하였다.

기초조사와 재해 위험도분석이 연계되고, 재해 위험도분석이 다시 방재계획과 연계되어 대상지역의 재해 취약성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재계획 도출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마다 차별적인 방재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구조를 제시함으로써 기존 계획과 차별성을 갖도록 하였다. 한편, 각 도시계획의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방재도시계획 수립 기본방향과 중점 고려사항을 연계하여 부문 계획의 방재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방재도시계획과 부문 계획 간의 연계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제도개선방안은 단기 제도개선방안과 중장기 발전방향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단기 제도개선방안은 현행 도시계획의 방재계획 지침 개정방안을 제시하였다. 도시계획 지침 개정방안에는 도시계획의 기초조사 보완방안, 방재계획의 내용 및 위계정립 방안, 부문별 계

획의 방재 보완방안을 제시하였다. 중장기 발전방향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의 개정방안, 도시계획지침의 구조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특징은 효율적 방재도시계획 수립방안을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마련했다는 것이다. 또한, 구조적인 접근을 통해 방재도시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하였다. 재해 유형화, 재해 위험도분석 절차를 새롭게 도입하여 도시마다 차별적이고 구체적인 방재계획이 수립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재해 유형별 재해 취약지구 분석을 위한 기초 DB구축이 미흡하고 모델링 분석 기법이 정립되지 않아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재해 위험도분석 방법론을 제시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의 학술적 기여는 법률 및 사회학적 관점에서 재해를 고찰하여 재해의 이론적 개념을 정립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도시계획을 전공하지 않은 방재전문가를 위해 도시계획의 특성을 체계적으로 정립하였다. 정책적 기여로는 단기 제도개선방안으로 현행 도시계획의 방재계획 지침 개정방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방재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중장기 발전방향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방안을 제시하여 방재도시계획의 위상을 제고하도록 하였다.

## » 중심시가지 환경개선을 위한 도시재생전략 연구

Urban Regeneration Strategies to improve the Environment of CBD Area

이범현, 민범식, 왕광익, 이우진, 문채, 김경배

본 연구는 앞으로의 도시성장 관리정책이 신도시의 확장보다는 쇠퇴하는 기존 도시에 대해 차별화된 도시재생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시작되었다. 특히, 인구와 기능이 급격하게 쇠퇴하고 있는 지방중소 도시에 있어서는 중심시가지 차원의 쇠퇴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러한 지방중소도시 중심시가지의 쇠퇴원인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이 연구의 주요한 연구 목적이다. 또한, 바람직한 도시성장을 위해서는 신시가지와 기존 시가지의 공생적인 도시발전 전략을 마련하여야 하며, 기존 시가지의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도시민의 균형적인 삶의 질을 달성해야 한다.

이 연구는 물적·경제적·사회적 측면 등 종합적인 재생전략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쇠퇴하는 도시는 발전의 바탕이 인구·산업 또는 경제·사회적 잠재력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물적 환경개선만으로 재생되기 어려우므로 경제·사회적 요소의 재생을 포함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환경정비는 이러한 물적·경제·사회적인 요소를 포함하여 검토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사업수단 단계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며, 향후 도시재생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의 가장 큰 특징의 하나는 중심시가지의 명확한 개념정립을 통해 유형을 구분하고 유형별 사례대상지를 심층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또한, 도시재생전략은 구체적인 시행전략 차원이 아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수행해야 할 정책 우선순위 설정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미 도시재생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이 연구에서는 유형별 특성을 파악

하고 주요 과제를 도출하는 데 연구의 의의를 찾고자 하였다. 실태분석과 해당 지자체의 도시재생사업 문제점과 도시가 갖고 있는 잠재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중심시가지 재생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대구 모의 도시개발사업이 아닌 산업 등 경제적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재생전략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지방중소도시 유형별로 특성화된 지표별 원인진단을 통해 구체적인 재생전략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인구와 산업이 급속하게 쇠퇴하고 있는 지방중소도시의 유형별 사례대상지의 심층적인 실태분석 자료는 향후 도시재생사업이 구체화될 경우 중요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광역적 접근형·도시적 접근형·중심시가지 접근형 등 지방중소도시의 재생유형은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 것이다. 이를 구체화하여 설정한 중심시가지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지방정부 차원의 재생정책에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도시재생정책을 구체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몫이며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정책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 >> 국토관리분야의 사회적 자본 확충방안(I) : 사회적 자본 영향요인 분석

Measures to Enhance Social Capital in the Field of National Territorial Management :  
Analysis of Factors to Effect on Social Capital

김선희, 천현숙, 서연미, 윤윤정, 모창환, 박창석, 소진광, 한경원

‘삶의 질’이 인간의 공간 활용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또 이 과정에서 인간관계가 형성된다는 측면에서 사회적 자본과 공간특성 간에는 상호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이 연구는 국토관리 분야의 사회적 자본 확충을 위한 이론적, 실증적 토대를 확립하고 사회적 자본 확충을 고려한 국토공간체계 및 관리계획 대안을 제시하려고 한다. 본 연구는 2차연도에 걸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지방자치학회와 협동연구로 진행된다. 1차연도에서는 국토공간특성 및 국토관리 수단과 사회적 자본형성의 관계, 국토공간특성과 수단에 따른 사회적 자본의 차이 등을 검증해보고자 하였다.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로 신뢰, 참여, 네트워크를 설정하고, 각각에 대하여 측정지표를 도출하였다. 또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AHP기법을 통해 사회적 자본지수(Social Capital Index: SCI)를 산출하였다. 이를 통해 근린단위를 비롯한 지역사회단위에서 공간단위별 사회적 자본수준의 비교가 가능할 수 있었다.

도시 및 지역분야, 교통분야, 환경분야에 대해 공간 특성별 사회적 자본 수준 차이를 검증하고 사회적 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주거지 형성방식을 대상으로 분석한 도시 및 지역분야에서는 주거지 형성방식, 주거지 만족도, 거주기간, 지역사회 소속감 등이 사회적 자본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최근 뉴타운 개발 시, 물리적 요소 외에 사회적 자본 형성요소가 중요하며, 이를 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녹색교통 정책수준을 대상으로 분석한 교통분야에서는 보행환경, 자전거이용의 편리성 등 녹색교통체계가 사회적 자본에 영향을 주는 요소임을 확인하였다. 걸을 수 있는 보행성이 높은 지역이 보행성이 낮은 지역보다 사회적 자본이 높아, 최근의 녹색성장과 관련된 실천적인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도시공원 분포유형을 대상으로 분석한 환경분야에서는 공원배치형태, 공원이용 수준, 공원관리 활동, 공원이용 만족도, 공원에 대한 인식도 등이 사회적 자본에 영향을 주는 요소임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요소들은 공원계획과 설계 시 새로운 유용한 지표로 활용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는 국토공간의 효율성은 물리적 시설지표 등 기존 자본 개념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인류사회의 공동가치를 창출하는 지역사회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을 통해 새롭게 접근할 필요성을 제시한 데 큰 의미가 있다. 국토관리분야의 사회적 자본에 대한 기초자료와 지표개발, 방법론 정립, 다양한 콘텐츠 제공 등을 통해 정부의 사회적 자본 축적을 위한 국토관리분야의 정책 및 프로그램 지원, 사업 추진 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국토연 2008-24, 221면(총괄보고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8-02-01; 국토연 2008-24-1(자료집), 104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8-02-02, 2008. 1. 1~2008. 12. 31

## » 근대 산업유산의 보존·활용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연구

Evaluation of Local Capacity for Reusing Industrial Heritage

이순자, 양하백, 장은교

이 연구는 기존 시·도별 근대문화유산 기초자료 조사 및 목록화사업 보고서와 관련 통계자료를 근거로 어떤 산업유산들이 어디에, 어떻게 분포해 있는지를 조사하고, 이를 기초로 다양한 측면에서 실태 및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산업유산의 보존·활용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반을 제공하며, 산업유산을 재활용한 지역재생 모델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 후보 대상지역 및 후보 대상사업(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근대산업유산은 전국적으로 총 1,950건이 분포하며, 이 중 등록문화재는 135건이고, 문화재청이 선정한 '가려 뽑은 등록문화재 30선'에는 16건이 포함되어 있다. 둘째, 전국 산업유산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입지조건별로는 특별시·광역시보다 도(77.8%)에, 군지역보다는 시지역(63.8%)에 더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경북(24.6%)에, 시·군·구별로는 경북 봉화군, 경주시, 안동시에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다. 성격·기능별로는 교통·토목·자원 관련시설 60.3%, 산업시설 18.7%, 기타 금융·행정시설 21.0%이었고, 시기별로는 일제 강점기에 형성된 산업유산이 가장 많은 62.6%를 차지하였다. 소유주체별로는 공공기관 36.0%, 개인 21.8%, 행정청 21.2%이었고, 보존 상태별로는 '완전 보존' 35.9%, '중요 부분 보존' 33.3%, '일부 보존' 및 '파손' 26.9%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치 정도별로는 국가지정문화재 8건, 지방지정문화재 34건, 등록문화재 135건인 반면, 전체의 90.1%는 미지정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셋째, 산업유산 활용잠재력 평가결과, 지역별로는 강원 철원군 점수가 가장 높았고

(32.07), 전남 고흥군(31.35)순으로 분석되었다. 국가시범사업 실시를 위한 후보 대상지역 232개 시군구는 5개 그룹으로 구분하였는데, 이 중 활용잠재력이 가장 높은 1그룹에 포함된 27개 지역(경북 6개, 전남 4개 등)이 선정되었다. 그 다음 국가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후보 대상사업(안)으로 27개 후보 대상지역 내 산업유산들 중 활용의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376건을 도출하였다.

이 연구는 두 가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는데, 우선 국가시범사업 추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어떤 산업유산이, 어디에, 어떻게 남아 있는지 전국차원에서 산업유산에 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정부에서 추진 중인 관련 사업이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국가시범사업의 개선을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제도 정비, 실질적인 지원방안 마련, 조정·협력을 위한 관련기구 설치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 >> 도시재생을 위한 근대역사환경 활용방법 분석: 부산, 광주, 군산을 사례로

The Reuse Methods of Modern Historic Environment in Urban Regeneration :  
with Focus on Busan, Gwangju and Gunsan Cases

강동진, 이순자

이 연구는 근대역사환경 관련 주요 개념의 정의와 도시 마케팅 차원에서의 활용가치 정립, 국내사례 조사 및 분석을 통한 근대역사환경의 보전·활용과 관련된 이슈 도출, 관련 이슈들과의 비교를 위한 선진사례 분석, 가설적 활용방법론 도출 및 부산, 광주, 군산의 적용가능성 탐색 등을 목적으로 한다.

우선, 이 연구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시각에서 근대 도시에서의 문화유산을 근대역사환경이라고 정의하고, 근대라는 시기도 개화기부터 본격적인 경제개발이 시작되기 전인 1960년대까지로 정의한다. 따라서 근대역사환경은 19세기 말~1960년대에 조성된 우리의 역사적 결과물들이라 할 수 있다.

둘째, 근대역사환경의 보전·활용과 관련된 이슈를 도출한 결과, 주민조직과 시민단체 등 지역지향적 주체, 소유권과 관계된 경제지향적 주체, 이를 지원하는 행정지향적 주체 등이 하나의 시스템 속에서 통합적 논의와 상호 절충의 여건 확보가 성공적 보전·활용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인이 밝혀졌다.

셋째, 선진사례들은 근대역사환경의 체계적 통합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와 각종 인센티브와 재정지원 장치들을 지니고 있고, 국가와 지방정부의 이원적 역할분담 속에서 주된 권한은 지방이 보유하고 있으며, 주민과의 협의과정은 반드시 포함되어 있으며, 민간조직 활동이 활성화되어 있었다.

넷째, 근대역사환경의 활용방법을 ‘제도 지정형’, ‘활동 지원형’, ‘경제 지원형’ 등 세 가지 유형으로 제시하여 국내 적용가능성을 타진한 결과, ① 부산 남항

일대의 경우, 지구단위계획의 적용, 새로운 문화창작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시민활동가들의 유입, 황폐해진 경관과 환경 자체의 질적 개선을 위한 지원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② 광주 양림동의 경우, 역사적 가로들을 중심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거나, 시범지구사업을 통해 마을가꾸기사업부터 근대역사환경을 테마로 하는 양림동 일대의 전체 정비사업까지 다각도로 추진될 필요가 있으며, 역사연구회, 동아리 등과 연계하여 문화해설가, 지역활동가 및 지역리더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 ③ 군산 내항 및 원도심 일대의 경우, 지구단위계획 및 특정정관지구를 지정하고, 기존 시민단체 및 주민조직을 정비하거나 활성화를 지원하며, 근대역사환경에 부합하는 활동프로그램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연구의 의의는 근대역사환경의 개념적 가치와 범역을 정립한 점, 근대역사환경을 활용한 도시재생의 가능성을 확인한 점, 지역의 역사문화에 기반을 둔 문화예술산업의 사회·경제적 효과를 개략적으로 확인한 점, 근대역사환경의 올바른 활용을 위해 필요한 실천체제와 내용 도출을 시도한 점 등이다.

# 03

## c h a p t e r II

### 주택토지·건설경제연구본부

#### 부동산시장연구

- 2008년도 국내외 부동산시장 동향 및 정책 연구 50
- 부동산시장의 선진화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51
- 주택정책평가모형 개발과 정책효과분석 연구 52

#### 주거복지연구

- 서민 주거복지 확대정책의 평가와 향후 정책방향 53
- 주거수요분석에 기초한 노인주거지원 정책과제 연구 54

#### 토지연구

- 국책사업의 갈등해결을 위한 보상제도 개선방안 55
- 부동산시장 선진화를 위한 리츠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 56
- 투자자국가소송(SD)에 대비한 토지규제 개선연구 57

#### 건설경제연구

- 건설업 겸업제한 폐지에 따른 건설보증시장 구조 및 특성변화 연구 58
- 고유가에 대한 건설산업 대응 전략 59
- 전환기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정책 재정립 60
- SOC 건설사업비 합리성 제고를 위한 추정체계 개선방안 연구 61

## >> 2008년도 국내외 부동산시장 동향 및 정책 연구

Real Estate Market and Policy Trends in 2008

최 수, 이진형

부동산정책의 문제는 부동산시장에 대한 정보부족과 관련정책에 대한 사전 준비가 부족한 데 상당부분 기인하기 때문에 부동산시장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부동산시장의 동향 및 부동산 정책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부동산시장을 전망하고 부동산시장 정책에 활용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택가격은 2008년 1/4분기에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었던 소형주택을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하였지만 5월 이후에 가격 상승률이 둔화되었고 미국에서 시작된 세계적인 금융위기 및 부동산시장 침체와 국내외 경제 침체, 주택가격하락 기대에 따른 대기수요 증가 등의 원인으로 2008년 3/4분기에 주택가격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주거용 주택거래량은 2007년에 비해서 2/4분기와 3/4분기에 일시적인 반등세를 보이기도 하였으나, 2008년 10~11월까지의 주택거래량은 전년동기대비 약 29% 감소하였으며 아파트의 경우에는 전년동기대비 23.9% 감소하였고 다가구, 다세대, 연립의 경우에는 전년동기대비 45% 이상의 높은 감소를 보이고 있다.

전국의 토지가격은 2007년에 3.89% 상승하였고 2008년(10월)에는 3.97% 상승하였으며 2008년 동안 서울의 지가상승률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높았지만 행정중심복합도시 지역의 지가상승률은 상당히 둔화되었다. 2008년 토지거래 동향은 전반적으로는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8월 이후에는 전년보다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부동산금융시장은 정부의 유동성 공급 정책으로

시중 유동성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변동형 주택담보대출금리의 기준인 양도성예금증서의 유통수익률도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가산금리가 하락하지 않아 주택담보대출금리는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은 전년동기대비 약 7% 증가하였고 단기유동성은 약 6% 증가하였으며 광의의 유동성은 약 1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의 부동산시장은 침체된 부동산시장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과 제도가 도입되어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다. 이에 따라서 부동산세제가 대폭 완화되었고,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도 대폭 해제되었으며, 전매제한 및 재건축 규제도 대폭 완화되었다. 또한 지분형주택 및 신혼부부용 주택 등의 새로운 제도도 도입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가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금융위기 속에서 전반적으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상당수의 전문가들은 2009년에도 부동산시장이 침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세계·금융 등이 포괄된 종합적인 정책 패키지 등을 통하여 부동산시장의 침체를 완화할 수 있는 정책대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 부동산시장의 선진화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Policy Evaluations & Alternatives for the Advanced Real-estate Market in Korea

손경환, 김근용, 지대식, 이수욱, 전성제, 이진형

이 연구는 세제, 금융, 정보, 거래 등 각종 부동산정책의 성과를 시장안정과 선진화 측면에서 평가하고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의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문가 면담조사, 설문조사 및 외국사례 정리를 바탕으로 우리 부동산시장의 선진화에 필요한 정책, 제도 등의 조건을 도출하고, 계량분석과 설문조사 등을 이용하여 현행 부동산정책을 분석하고 중요한 정책과제를 도출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현재 우리나라의 부동산시장 및 관련정책의 선진화 정도를 투명성, 효율성, 공정성, 안정성의 측면에서 평가하였으며, 나아가 선진화 관련 부동산정책의 주요 부문별 선진화 수준과 시장안정 기여도와 함께 세부 정책수단(정책운용·부동산세제·금융·정보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효율성·투명성·안정성·공평성의 지표 값은 아직까지 낮은 수준에 있지만, 지난 몇 년 동안 실거래가격 신고의무화, 정보의 정비노력, 실수요자 지원을 위한 세제·금융의 개편과 같이 선진화를 뒷받침하는 다양한 대책이 추진되어 시장의 선진화 수준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와 함께 해외사례를 검토한 결과를 반영하여 정책방향과 부동산시장의 선진화에 필수적인 8가지 주요과제를 제시하였다.

먼저 부동산시장의 선진화를 위한 정책유형별 정책방향은 정책기조의 일관성 유지와 시장대책의 탄력적 대응능력 제고,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시장형성 유도를 위한 세제·금융 및 제도 개선, 다양하고 정확한 통

계의 생산과 정보제공, 그리고 투명한 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과 세제·금융의 역할 강화로 정리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부동산시장의 선진화에 필수적인 과제로 합리적인 정책추진, 보유세율 및 거래세율 구조의 개선, 자산가치 평가방식의 합리화, 주택금융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2차 저당시장의 정비, 주택자금대출 운용의 합리화를 위한 DTI개선, 부동산거래자금흐름 파악장치 마련, 다양한 통계생산 및 정보제공, 투명한 거래과정을 위한 제도 정비 등 8가지 주요 과제가 제시되었으며, 이를 통하여 부동산시장의 선진화를 판단하는 요소와 주요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서 제시된 8가지 주요 과제에 대한 세부대책 및 추진전략이 점진적으로 이뤄진다면 부동산시장의 주기적인 불안현상을 완화시켜 국민 주거복지의 향상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국민경제의 건실한 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국토연 2008-39, 187면, 2008. 1. 1~2008. 12. 31

# 03

## » 주택정책평가모형 개발과 정책효과분석 연구

Development of System Dynamics Model for Housing Policy Impact Analysis

이수욱, 김근용, 박천규, 변세일, 전성제

본 연구는 2002년 이후 도입된 주택정책들이 주택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파악하기 위해 주택 수요함수와 시스템 다이내믹스(System Dynamics) 기법을 적용한 정책분석 평가모형을 개발하는 데 목적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보고서는 모두 6장으로 구성하였다. 제1장에서는 연구목적과 방법론을 살펴보았다. 제2장에서는 관련이론 및 기법 그리고 선행연구를 고찰하였고, 제3장에서는 주요 주택정책에 대한 사안별 검토와 주택정책평가에 대한 조작적 정의, 측정지표 그리고 주요 선진국의 주거서비스 지표수준에 대해 검토하였다.

제4장과 제5장에서는 제3장까지의 기초적 분석을 토대로 수정 주택수요함수를 추정하고 시스템 다이내믹스를 이용한 모형개발 및 검증, 시뮬레이션, 그리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마지막 제6장에는 연구결과의 정책적 기대효과, 주택정책평가모형의 확장정책적 활용방안을 담았다. 개발된 모형을 이용해 주택정책 효과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은 사용자비용과 주택수요 분석치로 살펴볼 수 있으며, 취·등록세 감소, 보유세 인하, 양도세 인하, 이자율 인하, LTV 상향 등을 정책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둘째,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분양가규제, 이자율 상승 등의 정책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

셋째, 주택거래 활성화를 유도하면서 주택가격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수단으로는 보유세 완화, 1%p 이내의 금리인하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분석결과, 보유

세를 현행보다 10% 낮출 경우, 주택초과수요는 6만 7천 호, 그리고 가격은 1% 이내에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연 2008-46, 130면, 2008. 1. 1~2008. 12. 31

## >> 서민 주거복지 확대정책의 평가와 향후 정책방향

Evaluation of the Housing Welfare Policies for Low-income Households in the 2000's and New Policy Directions

배순석, 진정수, 김승중, 이용만, 이상한

이 연구는 2000년대부터 서민들의 주거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확대된 서민 주거복지 정책프로그램들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정책지원에 취약한 계층은 없는지, 정책효과를 달성하는 데 문제는 없는지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저소득·서민을 위한 주거정책의 효율적 운영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정책프로그램의 평가결과, 정책의 효율성 측면에서 임대주택 공급정책이 전세자금 및 주택자금 대출 지원정책보다 수요자 효율성이 대체로 높게 나타났지만, 생산 및 관리는 비효율적이며, 사회적 격리현상으로 인해 간접적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의 형평성 측면에서 대부분의 주거복지정책은 대체로 공평하게 지원되고 있으나, 정책 수혜자가 제한적이고, 지원효과와 지역별 격차가 발생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의 효과성 측면에서 대부분의 주거복지정책은 정책목표 및 정책대상자의 선정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 정책프로그램에서는 지원대상이 불필요하게 확대되거나 불합리하게 축소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향후 서민 주거복지 정책은 첫째, 정부의 지원이 주거 빈곤층에 직접 전달될 수 있는 수요자 지원프로그램을 확대(주거비 지원) 및 민간금융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주거복지 대상자 선정 기준으로 주택법상 최저주거기준을 활용하고, 절대소득금액보다 소득대비 주거비 비율을 고려하여 정책지원 대상선정의 합리화가 요구된다. 셋째, 자치단체의 주택정책기능을 강화하고, 민간임대주택사업 및 비영

리단체의 역할을 강화하여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정책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공급측면 정책프로그램의 경우 소득수준에 따라 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차등화하여 임대료 부담을 완화, 임대주택관리를 위한 공적기금을 조성하여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을 완화, 국민임대주택의 도심접근성을 강화하여 임대주택의 만족도 제고, 다가구매입임대주택에 대한 기초자치단체의 관리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수요측면 정책 프로그램의 경우 주택구입자금 대출기준을 가구소득 2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확대,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기준을 세대주 소득 3천만원에서 가구소득 3천만원으로 강화하되 이자부담은 완화, 저소득가구 전세대금 대출기준을 강화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 주거복지 재정확충을 통해 주택바우처 제도를 도입하되, 민간임대산업을 육성하고 임대료 방식에 대한 개선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주거복지 정책에 대해 매우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서민 주거복지 정책의 한 단면만을 다루기보다는 서민 주거복지 정책의 큰 틀 속에서 전체를 조명해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각 프로그램의 개선방안은 현재 운용되고 있는 정책프로그램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거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 주거수요분석에 기초한 노인주거지원 정책과제 연구

A Study on Housing Support System for the Elderly based on Housing Demand Analysis

김혜승, 강미나

이 연구는 2007년에 노인가구를 주된 대상으로 실시된 대표성 높고 시의성 있는 법정조사인 주거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우리나라 노인가구의 주거실태 및 노인 주거지원정책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주·입지·주거유형 등과 관련된 노인가구의 주거수요행태를 심층적으로 분석한 후, 이를 토대로 건강·경제력·노인가구유형 등에 따라 차별화된 다양한 수요를 추정하고 이에 대응하는 노인주거지원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65세 이상의 노인이 있는 가구인 노인가구는 2007년 말 현재 전국적으로 약 369만 가구로 전체 일반가구의 22.5%에 해당하며, 이 중 절반 이상이 노인 1인 가구와 노인 부부가구인 노인독립가구(53.8%)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장년가구의 절반 정도 수준이며, 저소득층(월소득 154만 원 이하)에 속하는 노인가구 비율은 77.0%로 장년가구의 경우(34.2%)보다 훨씬 높다.

노인가구의 주거수요행태 분석 결과 경제적인 문제, 건강문제 및 일상생활의 유지문제가 노인의 주거수요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고, 일상생활의 유지와 관련해서는 건강상태뿐 아니라 혼자인지의(노인 1인 가구) 여부도 중요하다. 이에 건강·경제력·노인 1인 가구 여부에 따라 노인가구를 유형화하고, 각 노인가구 유형별로 규모와 개인/주거/이주 관련 특성을 파악하였다. 또한 구축된 모형을 이용하여 각 유형별 주거선택확률을 추정한 후 이 확률을 각 유형별 노인가구수에 적용하여 다양한 주거선택(주거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량(가구수)을 추계하였다. 또한 이

상의 분석결과를 이용하여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의 공급필요량을 추계하였다. 그 결과, 전체적으로 재가서비스 공급은 모두 311만 가구, 주택개조는 29만 6,500가구, 무료양로시설은 14만 7천 가구, 고령자전용 국민임대주택은 2만 8천 가구, 노인공동생활주택은 2만 3,500가구, 실버타운은 1만 8,500가구에 대해 공급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우선적 정책대상이 되어야 하는 건강하지 않고 소득도 낮은 노인가구에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 공급물량은 재가서비스 40만 4천 가구, 주택개조 3만 7,500가구, 무료양로시설은 2만 5,500가구, 고령자전용 국민임대주택은 3,500가구, 노인공동생활주택도 3,500가구다.

마지막으로 고령자를 위한 주택개조 정책과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정책을 포함하는 재가지원정책, 노인전용주거시설 공급정책, 그리고 주거비보조제도의 정착 등 수요측면의 지원정책을 중심으로 노인주거지원 정책 수립 시 고려해야 하는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이 연구의 기대효과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노인 주거지원정책의 중복 및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수립에 기여하며, 노인주거복지 관련 법제 정비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 >> 국책사업의 갈등해결을 위한 보상제도 개선방안

Policy Tasks to Improve Compensation System for Mitigation of Conflicts in Public Works

정희남, 김승중, 안영아, 김영옥, 김병주, 고평채, 강문수, 정명운, 박찬호

최근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등 대규모 국책사업을 추진하면서 보상규모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그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상문제를 둘러싼 민원과 갈등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이 연구는 보상현황에 대한 거시분석과 보상사례에 대한 미시분석을 기초로 보상갈등의 유형을 분석하고, 각각의 유형에 대한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 보상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보상갈등의 유형과 원인은 다음 네 가지로 유형화할 수 있다. 첫째, 국책사업과 토지소유자 간 갈등이다. 전면매수방식에 의존한 국책사업 추진방식은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강제로 취득하기 때문에 보상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둘째, 준법보상과 보상투기 간의 갈등이다. 개발계획에 대한 주민 공람공고를 전후해서 위장전입, 개발행위허가, 비닐하우스 설치 등의 보상투기행위가 발생하여 준법 보상대상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야기하고 있다. 셋째, 사업지구 내·외 토지소유자 간의 갈등이다. 개발사업 주변지역의지가 상승으로 인해 보상가격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아져서 실제 지급된 보상액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인식하고 있다. 넷째, 국책사업 보상비와 일반국민 간의 갈등이다. 국책사업의 보상비는 일반 국민의 세금으로 조달되기 때문에 보상비의 증가는 결국 조세부담으로 이어지게 된다.

보상갈등 완화를 위해 제시한 제도개선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거시적 측면에서 민주화, 거버넌스, 정보화, 세계화 등의 정치사회 변화를 수용할 필요가 있다. 즉, 전면매수방식과 함께 환지방식의 활용을 검토하고,

국가, 지자체, 사업시행자, 최종수혜자 간의 역할분담을 강화하며, 국책사업 주변지역의 시장관리를 통한지가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시적 측면에서 정책의 추진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먼저, 선계획-후발표를 통해 국책사업의 계획성을 강화하고, 연차별·단계별 사업의 경우 토지비축기능을 활용하며, 사업시행자와 지자체 간 협력 및 관련 제도 간의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미시적 측면에서 보상행정을 선진화할 필요가 있다. 먼저 분쟁방지를 위한 보상대상의 명확화, 보상평가의 공정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평가업자 선정방식 개선, 채권보상, 대토보상 활성화 등을 통한 보상방식의 다양화 등 대물보상제도의 개선이 요구된다. 아울러 사업시행자 간 이주대책의 형평성 제고, 생활대책 선정기준 강화와 통일성 제고 등 이주 및 생활대책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보상갈등을 원인에 따라 유형화하고, 유형별 갈등요인을 세부적으로 분석한 후, 갈등원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국책사업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상갈등을 완화될 경우 국책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부동산시장의 안정기반 구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토지보상법 등 수용보상 관련법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 부동산시장 선진화를 위한 리츠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

K-REITs as a Tool to Advance Real Estate Market of Korea : Policy Directions to Vitalizing K-REITs

정희남, 최수, 권태정, 강승일, 송현부, 이현석

본 연구는 도입 이후 지난 7년간 우리나라 리츠제도의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리츠가 활성화되지 못하였던 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혀내며, 향후 부동산시장과 부동산 정책의 변화를 전망하고, 그에 대응하여 리츠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추진되었다.

우선 지난 7년간의 리츠시장에 대한 분석·평가에 따르면, 우리 리츠시장은 2002년에 CR-리츠가 처음 출시된 이후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빠른 성장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우리와 비슷한 시기에 출발한 아시아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면 다소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다. 또한 자기관리-리츠가 없기 때문에 리츠 펀드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펀드의 운용대상도 업무용 건물 등에 편중되어 있고, 현재까지 국내시장에서만 운영하고 해외시장은 거의 진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세계 6개 주요 국가의 리츠제도와 리츠시장을 평가·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리츠의 유형은 나라마다 다소 상이하여 호주 등 아시아권은 주로 신탁형을 기반으로 리츠를 운영하고 있는 반면, 미국 등 유럽에서는 주로 회사형에 기초하고 있다. 둘째, 각 국은 리츠운영의 기본원칙에 보다 충실하여 리츠의 기업공개와 주식 공모가 많은 국가에서 리츠에 대한 조세혜택 부여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다. 셋째, 2000년대 들어 리츠가 보다 대형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대형화는 투자대상의 다양성과 특정분야에 집중하는 전문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넷째, 정부의 지

원은 물론 리츠시장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기본인프라가 주요 국가 리츠의 안정적 운영과 성장을 이끌었다.

이러한 시사점과 함께 전문가 설문조사, 전문가 연구협의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리츠의 국내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다양한 리츠유형 간의 경쟁체제를 도입하기 위하여 리츠유형의 다양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리츠 설립절차도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현물출자 및 외부차입의 건전성 확보는 물론 리츠운영의 자율성이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자기관리-리츠에 대한 법인세 면세 등 세제지원과 기본인프라 구축도 지원해 주어야 하며, 리츠운영의 투명성과 투자자 보호 및 도덕적 해이 방지 대책을 강화하고 부동산시장의 기본적인 투자정보를 대폭 확충하여 리츠시장의 효율성을 크게 제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리츠협회 설립과 관련 전문가 양성은 물론, 리츠 등 부동산투자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해 나감과 동시에 정부는 규제위주의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리츠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본 연구는 우리 부동산시장의 선진화 기반을 구축하고, 부동산시장과 금융시장의 연계성 기반강화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은 물론, 정부의 부동산간접투자 관련법제 개선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 투자자국가소송(ISD)에 대비한 토지규제 개선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Land Regulations Preparing for the Investor-State Dispute

지대식, 최혁재, 김승중

이 연구는 한미 FTA에서 도입하고 있는 투자자국가 소송이 우리나라의 토지규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출발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한미 FTA 투자협정, 간접수용의 이론적 배경과 투자자국가 소송(ISD) 사례분석을 기초로 우리나라의 주요 토지규제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ISD에 대비하는 토지규제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 연구는 투자자보호를 위해 한미 FTA에서 규정하고 있는 투자자국가소송 및 간접수용의 본질을 파악하고 우리나라 토지규제의 분쟁가능성을 검토하여 분쟁이 우려되는 토지규제의 개선대책을 제시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첫째, 간접수용의 이론적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규제적 수용법리를 기초로 투자자국가 소송 및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분석을 통해 분쟁사례를 유형화하여 투자자국가소송과 토지규제와의 관련성을 확인하였다. 둘째, 각각의 분쟁사례에서 나타난 판단기준을 종합하여 토지규제의 분쟁가능성 검토의 틀을 구성하여 향후 토지규제의 투자분쟁을 가능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셋째, 우리나라 토지규제를 사용규제, 수익규제, 처분규제로 나누어 분쟁가능성을 검토하여 개발제한구역·도시계획시설결정·토지거래허가제·공공시설부담 등에 대한 분쟁이 제기될 수 있는 개연성을 확인하였다. 넷째, 향후 투자자국가소송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사전적 규제심사 강화, 규제수단의 선진화도모, 사후적 규제수단의 정비를 위한 개선방향을 제시하였고, 분쟁이 우려되는 토지규제의 개선대책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제시된 주요 개선방향과 대책으로는 ① 사전적 규제심사 강화를 위한 규제영향분석의 실효성 제고, ② 규제방식의 선진화를 도모하기 위한 토지거래허가제 운용합리화·부동산 시장안정화의 정책합리화·공공시설부담제도의 개선·불필요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③ 사후적 권리구제수단의 정비를 위한 개발제한구역·토지거래허가제·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매수청구제도의 개선 등이다.

이 연구의 기대효과는 첫째, 주요 토지규제의 분쟁가능성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투자자국가소송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투자자국가소송에 대비하여 규제의 질적 측면을 분석함으로써 최근 규제개혁 패러다임의 국제적 변화에 순응할 수 있는 규제의 품질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FTA를 계기로 우리나라 토지규제의 선진화·투명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정비·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서 제시한 분쟁가능성 판단기준은 외국 투자에 대한 영향평가제도(법무부), 규제영향분석(행정규제기본법), 입법심사기준(법제업무운영규정) 등의 근거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며,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나 법원의 재판기준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 건설업 검업제한 폐지에 따른 건설보증시장 구조 및 특성변화 연구

A Study on the Structural Changes of the Construction Surety Market

김재영, 권혁진

본 연구는 중·장기적으로 건설보증시장의 양적·질적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건설업 검업제한 폐지라는 정책적 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건설보증시장의 규모와 구조의 변화를 전망하고 바람직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건설관련 공제조합과 서울보증보험이 분점하고 있는 건설 보증시장구조는 검업제한이 폐지됨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큰 변화를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업제한 폐지로 인한 건설업체들의 건설보증기관 이용행태 변화가 건설보증시장 구조의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예상 가능한 구조변화로는 공제조합형 건설보증기관과 보증보험형 건설보증기관 간의 시장점유도와 3대 건설관련 공제조합 간의 건설보증시장 점유도에 변화가 발생하리라는 것이다.

분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검업제한 폐지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현 건설보증시장에 급격한 구조변화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건설생산체계의 변화가 가시화될 것이며, 이에 따라 건설보증시장의 구조도 크게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향후 기존의 일반과 전문, 설비 등 건설업역을 기반으로 보증을 독점적으로 공급하던 건설보증시장의 구조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건설산업 정책차원에서는 우선 건설관련 공제조합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재정립이 요구된다. 향후 건설관련 공제조합이 수행해야 할 역할은 '건설산업 활동의 지원자 역할', '건설시장의 조정자 역할', '건

설수요자의 보호자 역할'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즉,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 환경변화 속에서 건설보증기관은 향후 건설산업 활동의 지원자로서의 역할, 건설시장 조정자로서의 역할, 건설수요자의 보호자로서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공제조합의 건설보증여건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건설보증 수요동향 분석결과에 따르면 건설보증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현재 금융관련 법률에 의해서 제한되고 있는 금융기관과 보험기관의 건설보증시장 참여도 중장기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비하여 건설보증시장에서 공제조합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 정책차원의 대응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공제조합 차원에서는 각 공제조합별로 차별화된 발전전략의 수립이 필요하다. 공제조합의 상호 발전을 위해서는 3대 건설관련 공제조합 간의 역할 조정과 역할의 재정립도 필요하다. 건설공제조합은 장기적으로 타 금융기관과의 경쟁을 통해 건설전문 금융기관으로서 성장해야 할 것이며, 타 보증기관 역시 해당 영역에서 건설공제조합과 차별화되는 특성과 전문성을 충분히 활용한 발전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 고유가에 대한 건설산업 대응 전략

A Strategy of Construction Industry against High Oil Price

김민철

2008년 상반기 들어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30달러를 넘어서는 등 사상 초유의 고유가 상황이 발생하였다. 2008년 하반기 들어서면서부터는 유가가 안정세로 돌아섰다. 그러나 미국의 서브 프라임 모기지료 초래된 금융충격으로 국내에 투자하였던 외국인들이 대거 자금을 회수하면서 원화의 가치가 폭락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결과적으로 석유를 수입해 들어오는 수입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철강 및 원자재 파동이 한 차례 지나간 이후에 유가와 환율 충격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건설산업의 비용 구조는 악화되었다. 이상과 같은 대외 요인들 이외에 국내적으로는 부동산 경기가 둔화되면서 미분양 아파트가 증가하였으며, 국토해양부의 조사에 의하면, 16만 호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내외적으로 건설산업계가 겪는 어려움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다행히 해외건설 수주가 증가하여 외화 가치과 국민 경제 성장에 건설산업이 기여하는 바가 커지는 긍정적인 효과도 발생하였다. 향후에도 중동의 오일머니로 인하여 해외건설 공사 물량은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원유가격이 10% 인상되는 경우, 건설업체의 체감 비용은 0.18% 증가한다. 건축공종의 경우, 주택·비주택·건축보수 모두 0.15% 가량 건설공사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시설건설 공종의 경우 0.23% 상승하고, 기타 토목건설 공종의 경우 0.19% 상승한다.

2008년 상반기 동안의 실제 연간 원유가격 상승분인 78.9%를 감안하는 경우, 주택건축 공종의 공사비용은 1.21% 증가하였고, 비주택건축 공종의 공사비용은

1.19% 증가하였으며 건축보수 공종의 경우 1.21% 증가하였다. 교통시설건설 공종의 공사비용은 1.85% 증가하였고 기타 토목건설 공종의 공사비용은 1.47% 증가하였다. 건설업 평균적으로는 1.4% 증가하였다.

유가와 환율, 즉 대외가격 요인의 총체적인 변화로 인하여 초래되는 건설업의 생산비용 상승 효과를 추정해 보았다. 2008년 상반기 동안 연간 환율 상승률은 5.93%이었고 원유의 원화표시 수입단가 상승률은 78.9%이었다. 국제 원유가격과 대미 달러 환율이 모두 10%씩 상승할 경우 건설업의 생산비는 주택건축 공종의 경우 1.84% 상승하고 비주택건축 공종의 경우 1.72% 상승하며, 건축보수 공종의 경우 1.63% 상승한다. 교통시설건설 공종의 경우 1.57% 상승하고, 기타 토목건설 공종의 경우 1.7% 상승한다. 건설업 평균적으로는 1.7% 생산비용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

고유가 및 고회환율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하도급 공사를 위주로 하는 전문건설업체의 경우 단품슬라이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거나 대기업과 동반으로 해외건설에 진출하는 등의 자구노력을 지속적으로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을 활용하여 원도급업체의 지위에 준하는 계약 관계상의 지위를 확보함으로써 비용 상승에 적극적으로 대비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연 2008-17, 92면, 2008. 8. 1~2008. 10. 31

## >> 전환기의사회간접자본(SOC) 투자정책 재정립 방안(II)

Reestablishing Investment Policies for Social Overhead Capital in the Period of Transition(II)

안흥기, 윤하중, 김성일, 김민철

본 연구는 SOC 투자를 둘러싼 전환기적 여건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SOC 투자정책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연구로 질적, 선도적, 효율적 3대 투자정책 기조 하에서 SOC 투자정책 전환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핵심 정책과제를 발굴하여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질적 SOC 투자로의 전환을 위한 가치지향형 공급체계 구축이다. 특히 SOC 투자계획단계에서부터 안전, 친환경, 공간적 효율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목표를 명시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사업시행 및 사후 관리단계에서도 이러한 목표들이 계획대로 시행되는지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둘째, 국가장기 발전 수요에 부응하는 선도적 투자를 적극 발굴·지원해야 한다. 선도적 투자 유형의 사업들은 리스크가 큰 사업이므로, 이러한 리스크를 낮출 수 있도록 시범사업, 갈등조정제도의 도입, 조건부 단계적 사업수행 방식 지원, 재원조달의 다양화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투자효율 제고를 위한 SOC 투자평가 체계 구축 및 정비 방안 등의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단위 사업위주로 평가되는 평가체계를 장단기로 구분하여 단기에는 유사한 성격의 단위사업을 묶어 프로그램 평가를 실시하고, 장기에는 여러 프로그램을 포괄하는 상위의 정책목표, 비전에 대해 성과평가를 하는 정책목표연계형 성과평가시스템과 이에 기반이 되는 인력, 조직, 기초자료의 정비 및 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향후 SOC 소요와 재정소요 전망을 통하여 정부재정으로 충족되지 않은 재정소요 부족분에 대

하여 민간투자로 대체하는 경우 향후 2019년까지 필요한 민간투자 규모를 전망하고, 적정 민간투자 규모의 해외사례 등을 소개하고 이를 위한 민간투자통계DB 및 관리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 >> SOC 건설사업비 합리성 제고를 위한 추정체계 개선방안 연구

A Study for Enhanced Estimation System for Capital Costs of SOC Construction

김재영, 권혁진, 구정은

SOC 건설사업의 예산낭비는 비합리적인 예산수립 및 집행과정, 비현실적인 SOC 사업단가, 제도적 결함, 직 무유기, 중복투자, 정책변경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본 연구는 최근 SOC 건설사업비 추정체계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분석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그동안 SOC 건설사업 예산낭비의 요인이 되고 있던 과다설계와 과다비용 추정의 원인을 분석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재정법」에 근거한 총 사업비 관리제도와 예비타당성조사제도 「국가계약법」에 근거한 추정가격 및 예정가격 결정제도 등을 통해서 SOC 사업비를 산정·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SOC 사업비의 낭비, 저가투찰에 따른 부실시공, SOC 사업비 하락에 따른 원도급자의 수익악화, 저가 하도급 등이 지속적으로 문제시되고 있어 SOC 사업비 추정체계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분석된 사업비 추정체계와 관련된 주요 문제점으로는 ① SOC 사업 단계별 문제점, ② SOC 사업비 추정상의 문제점, ③ 표준화된 사업비 관리방법 활용의 미흡, ④ 사업비 변경을 당연시하는 계약변경 관행, ⑤ SOC 사업비를 왜곡시키는 입·낙찰제도, ⑥ SOC 사업비 추정 지원 시스템의 구축 및 활용 미흡, ⑦ 사업비 추정·산정을 위한 전문조직의 부재 등이 제기되었다.

SOC 사업예산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국민들이 적절한 비용으로 고품질의 건설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SOC 사업비 추정체계의 합리성 확보가 무엇

보다 중요하다.

즉, SOC 사업 각 단계에서 과학적인 근거와 절차를 통해 SOC 사업비를 추정하고 추정된 사업비 정보를 국민들에게 시의 적절하게 공개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예산산정 및 관리에 대한 패러다임을 재정립하고, 예산 산정, 편성, 확인, 집행에 대한 개념을 일관되게 정립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한 7개의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① 총사업비 산정 및 관리체계의 개선, ② SOC 사업 추진 단계별 사업비 추정·산정 방법 및 절차개선, ③ SOC 사업비 관리체계의 표준화, ④ 계약변경제도와 사업비관리제도의 연계운영, ⑤ 순수내역입찰제도 도입확대, ⑥ SOC 사업비 산정 및 관리지원체계 강화, ⑦ SOC 사업비 추정·산정 전문가 제도 도입 등이다.

본 연구는 SOC 건설사업비 추정체계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에 대해 보다 심층적으로 접근하고 다양한 사례 분석을 통해 문제의 근본 원인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향후 SOC 투자집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예산낭비요인을 제거하고 SOC 투자비 절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04

## c h a p t e r II

### 국토인프라 · GIS연구본부

#### GIS연구

- 국토정보화 혁신을 위한 지능형국토 추진방안(II) 64
- 도시계획과정의 GIS기반 주민참여 모형 개발 및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 65
- 지자체 공간정보화 수준분석 및 역량 제고방안 66

#### 국토정책시뮬레이션연구

- 재정투자피급효과측정시스템 개발 및 국가발전지수 정립 연구(II) : SD와 GIS 기반의 시공간 통합시스템 개발을 중심으로 67

#### 국토인프라연구

- 동북아시아의 역내 항만얼라이언스 구축방안 연구 68
- 승용차 이용자가치를 고려한 교통정책 수립방안 연구 69
-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 연구 :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의 성과지표 개발을 중심으로 70
- 항만배후단지의 물류비즈니스모델에 기초한 물류정책방향 71

#### 도로정책연구

- 1.5차로에 관한 기초연구 : 1차로 도로의 개량방안 72
- 비상재해에 대응하는 도로망 연계성 제고방안 73
- 전국 도로망체계 발전방안 연구(II) 74

## » 국토정보화 혁신을 위한 지능형국토 추진방안(II)

Strategies for Intelligent National Territory(II)

정문섭, 김정훈, 조춘만

본 연구는 국토차원과 도시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할 국토지능화사업을 발굴하여 공공부문의 차세대 국토정보화사업을 제안하고 이를 통한 국민 삶의 질을 혁신할 수 있는 국토정보서비스사업을 도출하여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도출하기 위하여 작년에서 금년에는 지능형국토의 중장기적인 추진에 필요한 유비쿼터스시대의 국토관리, 지능형국토의 구현요소, 지능형국토 기본구상 등을 토대로 지능형국토 추진방안을 제시한 후 이에 대한 효과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지능형국토는 '공중, 지상, 지하, 해양 등의 자연환경 (natural environment)과 건조환경 (built environment)을 지능화하여 사람-사람, 사람-사물, 사물-사물 간 커뮤니케이션이 시공의 제약을 뛰어넘어 이루어지는 국토공간 구축을 의미하였고 이러한 국토지능화의 목표는 국토공간관리의 혁신을 통한 국가경쟁력 확보와 대국민편익 증진에 있다'고 정의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지능형국토의 구현요소로서 '데이터', '기술', '응용시스템' 및 이들을 법과 정책으로 구분하였다.

지능형국토는 세계 최고수준의 정보통신 인프라를 국토 공간에 접목하여 효율적인 국토 공간 관리 및 인간 정주 공간의 질을 개선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선진화와 제2의 도약을 이루어 내기 위하여 국토관리 및 정주 공간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사람, 국토환경, 정보기술이 하나되는 첨단 지능형 국토 공간 창출을 비전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이 비전을 위하여 '① 첨단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국토 공간의 지능화, ② 수요자 중심적

인 첨단국토 서비스의 제공, ③ 공간 정책 및 국토 관리의 효율화, ④ 지속적인 지능형국토 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의 4대 목표를 제시하였다. 또한 기본방향에 따라 구현요소별, 단계별 그리고 수행주체별로 각각의 추진 전략을 제시하였다. 또한 지능형국토의 발전상에 따라 사이버화, 지능화, 네트워크화로 나누고 각 단계별로 추진전략을 제시하였으며 시간에 따라 단기, 중기, 장기 단계별로 구축전략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 기업의 수행주체별로 구현전략 및 역할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하며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중 국토정보화의 혁신과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국토지능화 관련사업 연계추진, 국토공간정보산업의 혁신적 육성 등을 유도하였다. 또한 지능형국토의 산업연관 효과분석을 통하여 향후 10년간의 50조 원 투자로 100조 원 정도의 산업연관파급효과를 전망하였다.

## » 도시계획과정의 GIS기반주민참여 모형 개발 및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

GIS-based Public Participation in Urban Planning : Design of Prototype Web2.0 Site and Policy Implications

서기환, 신동빈, 이왕건, 김동한

본 연구는 최근 공간계획 및 정책수립 과정에서 주민들의 참여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의 실천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계획과정의 주민참여가 갖는 의미와 중요성에 비해 현재의 제도가 허용하는 참여수단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를 극복하고자 도시계획과정에 GIS기반의 주민참여 모형을 개발하고, 개발한 모형의 적용방안과 관련 도시계획 제도의 개선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주민참여 모형은 참여유형을 구분하는 네 가지 분석틀, 즉 참여방식, 참여주체, 참여단계, 참여수준에 따라 모형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의하였다. 첫째, 참여방식에 따라 구분하면 법·제도적 도시계획과정을 중심으로 하는 제도적 참여방식과 준제도적 참여방식으로 나누어진다. 둘째, 참여주체에 따라 구분하면 계획대상지역에 재산권이나 생존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 집단과 계획구역에 거주하는 대다수의 주민으로서 계획결과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일반집단으로 구분된다. 셋째, 참여단계에 따라 구분하면 계획단계, 집행단계, 평가단계로 나눌 수 있으며, 계획단계를 제외한 집행과 평가단계에서는 주민 참여를 위한 제도적 창구가 없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계획단계 중 입안과 검토 단계에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넷째, 참여수준에 따라 구분하면 정보의 제공, 의사개진 및 협의, 의사결정에 의한 참여로 나누어지며, 정보의 제공과 의사개진 및 협의를 중심으로 모형을 설계하였다.

한편, 모형의 적용방안과 제도개선 방안을 위해서

모형 적용의 기반인 도시계획정보화와 국가GIS사업의 결과로 구축된 지자체 공간정보DB를 어떻게 연계·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을 제시하였다. 또한 도시계획정보체계 확산사업 추진계획을 참고하여 5개의 세부모형과 기술 및 서비스 구현을 3단계로 나누어 적용방안을 제시하였다. 제도개선 방안에서는 특정 이해관계자 중심의 참여나, 형식적 절차에 머물고 있는 현행 계획과정의 주민참여를 실질적인 참여로 유도하고, 계획과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주민 등의 의견 청취를 위한 홍보를 신문과 인터넷에 병행하고, 의견수렴도 온오프라인 양쪽에서 가능하도록 법조문을 수정, 제안하였다. 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경우 표준제안서를 인터넷으로 제공하고 이를 통해 필요하다면 누구나 쉽게 제안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주민참여 모형개발과 3단계 적용방안을 제시하여 정책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주민참여 모형의 적용에 필요한 정부의 예산확보 문제를 기존의 도시계획정보체계 확산사업 내용과 연계함으로써 추가적인 예산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제안하였다. 따라서 GIS와 인터넷을 이용한 실천적 방법과 제도적 뒷받침으로 도시계획에서의 주민참여를 한 단계 발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 » 지자체 공간정보화 수준분석 및 역량 제고방안

The Policies to Promote Geo-information Capacities of Local Authorities

사공호상, 박종택, 김걸, 강해경

본 연구는 지자체 간 공간정보화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지자체 공간정보화 수준에 따라 차별화된 정책전략을 제시함으로써 지자체의 공간정보화 역량을 제고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지자체 공간정보화 수준 분석모형을 설계하고, 전국 24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지자체 간 공간정보화 수준을 분석한 후, 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 정보화 역량제고에 필요한 정책들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지자체의 공간정보화 수준은 시스템 구축·활용하는 단계에서 더 나아가 연계·통합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단계로 이동하고 있었다. 이러한 변화는 광역시들이 주도하고 있었으며, 시·도들도 높은 정보화 마인드를 바탕으로 이러한 추세를 뒤따르고 있었다. 그러나 군·구의 공간정보화 수준은 광역시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서, 행정계층 간 공간정보화 격차를 완화시킬 수 있는 정책들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지자체 공간정보화 수준분석을 통해 드러난 또 다른 중요한 시사점은 동일한 행정계층 내에도 정보화 격차가 존재하는 점이었다. 예를 들어, 동일한 경기도에 포함된 시들 간에도 최대 두 배 이상의 정보화 격차가 발생하였다. 이것은 광역시의 정보화 지수가 높더라도, 이 광역시에 포함되는 기초지자체의 수준은 낮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동일한 행정계층 내에서 정보화 격차를 완화하는 정책들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일곱 가지의 정책방향을 도출하였다. 첫째, 중앙정부 주도의 국가 GIS 정책이라 할지라도 국가GIS 비전만 설정하는 것

이 아니라, 지자체GIS의 비전과 정책목표를 함께 설정한 후, 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이 역할을 정립해 나가는 것이다. 둘째, 국가는 지자체 간 공간정보화의 차등 요인을 발굴하고 공간정보화의 최저 수준 만족도를 평가하여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셋째, 중앙정부와 기초지자체의 중간자로서 광역자치단체의 역할정립이 필요하며, 넷째 재정자립도 등 지자체의 공간정보화 여건에 따라 국비를 차등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다섯째, 도시지역과 군지역의 균형 있는 공간정보화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여섯째,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여 지자체 간 경쟁을 유도하고 지자체의 자생력을 키워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자체 간 공간정보화의 격차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조사 및 평가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공간정보화 수준 측정모형은 앞으로 지자체의 공간정보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계량적 조사체계로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또한 공간정보화의 차이로 인해 지자체 및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될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자체 공간정보화 정책을 제안한다는 점에서 기여하는 바가 크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결과는 제4차 국가GIS기본계획은 물론 향후 지자체들이 공간정보화 정책방향 수립 시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 재정투자파급효과측정시스템 개발 및 국가발전지수 정립 연구(II) : SD와 GIS 기반의 시공간통합시스템 개발을 중심으로

Development of Simulation System for Financial Investment Impact Assessment and Set-up of National Development Index(II) : Based on System Dynamics and GIS Integrated System

한선희, 김단야, 김미정

이 연구는 효율성, 경제성, 형평성, 안정성의 네 가지 국가발전지수를 개발하고, SD기법과 GIS기법을 통합한 시·공·인 통합시스템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2007년부터 2개년 연구사업으로 추진되었다. 2008년도 2차연도 연구의 목적은 세 가지다. 첫째, 1차연도에 개발된 국가발전지수를 확장·보완하고, 시스템 다이내믹스와 3차원 지리정보시스템을 묶은 시·공·인 통합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다. 둘째, 3차원 공간표현기술과 시간변화에 따른 공간변화 표현기법을 활용하여 시스템 시뮬레이션 결과를 입체적으로 시각화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셋째, 개발된 모형과 지수를 활용하여 예산당국이 예산편성과정에서 재정투자자에 대한 국가효율성파급효과, 국가경제성파급효과, 국가형평성파급효과, 국가안정성파급효과를 사전에 분석·평가·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1차연도 연구에서 개발된 국가발전지수 중 국가효율성지수, 국가경제성지수, 국가형평성지수를 수정·보완하였다. 따라서 국가효율성 지수는 시간적 효율성지수, 공간적 효율성지수, 인간적 효율성지수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국가경제성지수는 우리나라와 OECD국가들 사이의 비교·분석을 통해 투자의 효과와 경제적 수준을 측정하였다. 또한 국가형평성지수는 지역 간 형평성지수, 계층 간 형평성지수, 시간 간 형평성지수로 구분하였다.

시·공·인 통합 재정투자파급효과측정시스템 설계에서 시스템의 하부모형은 기초부문, 응용부문, 지수측

정부문으로 구분하였다. 기초부문은 인구, 토지이용, 국민경제, 국제부문으로 구분된다. 응용부문은 주택, 교통, 교육, 산업, 재정투자, 정책효과측정부문으로 구성된다. 지수측정부문은 국가발전지수부문으로 구성된다.

시·공·인 통합 재정투자파급효과측정시스템을 개발하고 개괄적으로 인구, 지역 내 총생산, 그리고 발전지수 등을 행태분석하였다. 그리고 사용자 중심의 운용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사용자 중심의 운용시스템에서는 개괄적으로 행태를 분석할 수 있을 기본모형뿐만 아니라, 대안을 설정하여 시뮬레이션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그리고 사용자 중심의 운용시스템에서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시도별, 시군별, 분석권역별로 그래프와 표 그리고 3차원 지도를 이용하여 가시적으로 표현되도록 개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시스템다이내믹스와 GIS를 연계하고 통합하여 여러 용도에 쓰일 수 있는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시·공·인 통합 재정투자파급효과 측정시스템을 개발하였으므로 학술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부가 재정정책을 추진할 때 과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효율성, 경제성, 형평성, 안정성 측면에서 정책의 타당성을 분석하고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 동북아시아의 역내 항만얼라이언스 구축방안 연구

Strategies for the Development of Port Alliance in the Northeast Asian Region

임영태, 한철환

동북아는 세계 물동량의 30%가 발생하며, 세계 10대 컨테이너항만 중 5곳이 위치해 있는 세계 최대의 물류 시장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지리적 우위와 물류망을 배경으로 중·일 화물수요를 흡수하는 동북아 지역의 '허브화 정책'을 현재 추진 중이다. 사실 중국의 항만 시설 확충과 초대형 선박 투입 및 일본의 물류체계 개선을 통한 해운서비스 패권의 급변 등으로 허브화 정책이 불확실해지면서 중국과 일본을 잇는 우리의 포트얼라이언스를 통한 환적화물 유치 전략은 매우 필요해졌다. 나아가 동북아 지역 항만 및 항만배후지역에 대한 합작투자, 선사들의 협상력 대비, 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효율적 해상물류네트워크의 구축 등 항만 간의 전략적 제휴가 시급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동북아 항만 간 전략적 제휴 형태인 포트얼라이언스에 대한 이론적 근거의 검토와 포트얼라이언스 구축을 위한 세부적 방안과 절차, 그리고 기대효과를 제시하였다.

동북아지역에 있어서 포트얼라이언스의 성공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국가 간 필요성과 공감대 형성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정부, 항만공사, 민간물류업체들 간 상호 이해관계가 필요하다. 또한 성공적인 포트얼라이언스 구축은 항만당국 간 항만운영관련 정보 공유나 인적교류 등을 통한 상호 신뢰성 구축과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사업모델 개발을 통한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정부의 동북아 포트얼라이언스 구축전략으로는 경쟁 일변도의 폐쇄적 전략에서 상호호혜의 개방적 동북아 물류중심화 전략으로의 패러다임 전이가 필요하며 첫째, 동북아지역의 물류표준화를 통한 해·육상운송의 복합일관운송시스템 구축, 둘째, 동북아 주요

항만에 있어서 통관수속 간소화 및 복합일관수송의 효율화를 위한 전산망 구축, 셋째,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기반 조성을 위한 민·관·학의 공동 참여를 통한 동북아 물류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동북아 포트얼라이언스 구축을 위한 항만당국(PA) 차원의 과제로는 첫째, 인적교류 및 운영 노하우나 기술 등 상호교류를 통한 신뢰기반 구축, 둘째, 제휴대상 항만 및 배후지역에 대한 시장조사, 이에 대한 DB 구축, 셋째, 사업의 리스크(risk)를 감안하여 단계적 제휴관계를 추진해야 한다.

동북아 포트얼라이언스 구축의 기대효과로는 첫째, 해외와의 신규항로 및 직항로 개설로 국내항만의 동북아 역내 허브기능 강화, 둘째, 다양하고 효율적인 동북아 역내 물류네트워크 구축으로 다양한 해상운송 선택권 부여와 저렴한 물류망 제공, 셋째, 역내 항만 및 항만배후지역의 합작투자로 해외진출 기반 확충과 해외 진출 국내제조업체와 국내물류기업 간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국내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넷째, 동북아 역내 포트얼라이언스 구축으로 국가 간 물류네트워크 구축과 기업 간 합작투자를 통한 동북아 경제통합의 기반 구축 등이 있다.

## >> 승용차 이용자가치를 고려한 교통정책 수립방안 연구

Transportation Policy Considering the Value of Private Automobile Users

김종학, 김호정, 정진규, 고용석

21세기는 '3C 시대', 즉 Change(변화), Customer-oriented(고객중시), Competition in Quality(품질경쟁)의 시대다. 3C 시대의 교통정책은 일정 수준의 교통 서비스 품질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이용자의 만족도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용자 만족도 관리하는 이용자 자체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의 가치를 관리해야 한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3C 시대에 부합하는 수요자 중심의 교통정책 마련을 위한 방법론을 정립하고 사례지역 연구결과를 통해 실질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특징은 교통 서비스 만족도를 단순히 체감하고 있는 만족도(지각치) 뿐만 아니라 기대하고 있는 서비스수준(기대치)으로 구분하여 조사하는 SERVQUAL모형을 적용하여, 이용자가치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시도한 점이다. 그동안 개념적 차원에서 머물렀던 교통서비스 품질에 대한 이용자들의 기대 정도와 지각 정도를 구체적으로 '이용자가치 방정식'을 통해 산출하였다.

또한 지불한 비용에 대해 제공받은 서비스(편익) 품질의 비율을 의미하는 이용자가치를 이용자가치 방정식을 통해 기대치와 지각치로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이러한 분석방법론은 정책만족도와 불만족도 요인을 파악하여 민의(民意)에 입각한 정책수립 및 집행을 도모하는 도구로써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승용차 이용자들이 수단별로 다르게 인식하고 있는 이용가치를 파악하고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이 승용차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이 승용차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 단순한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만으로 승용

차 수요가 대중교통으로 전환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승용차 이용자들이 원하는 수준만큼 대중교통 서비스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당초 의도한 수단 전환으로 인한 교통체계 개선효과는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방법론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용자들의 개별 인식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가 필요하다. 이러한 설문조사는 조사시기, 조사방법, 조사상황에 따라 바이어스(bias)가 있을 수 있다. 설문조사 시 표본설계, 설문지 작성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전국적인 이용자가치의 분석을 위해서는 적정 샘플 수를 확보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많은 시간, 인력과 비용이 필요하다.

향후 이용자가치 방정식 산출방법, 다양한 지역의 설문조사 계획과 수단선택모형의 통계적 유의성 확보 등을 위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본 연구의 경험을 기반으로 통행자 행태 설문지 설계 및 표본 설계를 보다 정교하게 작성함과 동시에 좀 더 많은 표본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이러한 연구가 수행된다면 이번 연구 결과에서 개발한 이용자가치의 지역별 차이를 계량적으로 규명하고 이용자 가치를 반영한 수단선택모형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여 신뢰성 높은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 >> 자전거 이용 활성화방안 연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의 성과지표 개발을 중심으로

Strategies for Promoting Bicycle Use

임영태, 백남철, 이재영, 박재현

1970년대 중반 자동차대중화의 문제점이 극에 달했던 서구유럽에서 환경 친화적인 녹색교통수단으로서 자전거는 재조명받기 시작했다. 그러나 다시 자전거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시설 정비만으로는 역부족이었다. 자동차대중화가 진행된 현대 도시의 혼재된 도로 교통류 속에서 자전거는 다른 어떤 교통수단보다 가장 다치기 쉬운 수단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자전거를 위한 분리된 차로를 설치할 뿐만 아니라, 자전거이용자의 안전한 통행권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자동차에 대한 규제도 대폭 강화해야 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유럽에서는 자전거를 soft mode라고 한다. 즉, 자전거교통정책은 전용도로 등 시설 정비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고, 이용자를 위한 soft 프로그램, 즉 법규제(enforcement), 교육(education), 이용촉진(encouragement), 조사평가(evaluation) 등 5E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전거친화적지수(Bicycle Friendly Index: BFI)라는 자전거정책성과 평가방법론을 제안하고 기존의 5E에 자전거와 대중교통의 연계(enlinking)기능을 추가하여 6E라고 하였다.

또한, 6E를 평가하기 위한 방법을 제안하였다. 자전거 정책이 지점(1점) → 구간(2점) → 면(3점) → 타 교통수단/타 조직/타 기능과의 연계(4점) → 도시전체에 1개의 문화로 정착(5점)되었는지 측면의 5점 척도로 평가하는 방법이다. 즉, 1개 도시의 자전거친화성이 1개 지점에 그치고 있는지, 1개 구간 수준에 이르렀는지 등을 평가해 볼 수 있다. 지금 우리나라 정책을 BFI로 평가하라고 한다면 40점이다(5점 척도에서 2점 척도수

준). 자전거보관대를 설치하는 점(點), 자전거도로를 중심으로 한 선(線)의 수준까지밖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향후 우리나라 자전거정책의 목표는 면(面)의 수준 - BFI에서 3점 수준(60점) - 에까지 자전거친화적인 도시정책을 펼쳐야 한다. 실제 자동차 교통량은 10~30%이면서 전체 도로연장의 70~80%를 차지하는 도시부 통행이 시작하고 끝나는 장소(場所, place)에까지 자전거 친화적인 정책을 펼쳐야 한다. 본 연구 BFI에서 제시한 4점, 5점 수준은 보다 장기적으로 펼쳐야 할 문제다. 4점 수준(80점)은 자전거가 하나의 생활교통수단으로 다른 교통수단과 공존하는 것인데 이는 시민들의 전반적인 의식 전환을 위한 법규제, 교육, 사회문화 등이 뒤따라야 한다. 5점 수준(100점)은 자전거 녹색교통을 위해서 도시가 한 방향으로 가고 있어 도시 전체가 조화로운 것을 말하는데, 자전거가 하나의 문화로서 정착되는 수준이다.

BFI를 정기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체계로서 '자전거 도시 포럼(안)'을 제안한다. 이는 6E를 평가하기 위한 거버넌스 개념의 추진조직으로서, 정부와 연구기관 그리고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에 의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 항만배후단지의 물류비즈니스모델에 기초한 물류정책방향

Strategies for the Logistics Development of Port Distripark

임영태, 류재영

지난 반세기 동안 국내 경제성장을 주도했던 제조업의 국외 이탈로 국내 성장동력 부족과 국가경제 위기론이 팽배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많은 미래학자들은 장래 우리나라 성장산업의 하나로 물류산업을 들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물류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국가의 신성장동력으로 물류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항만과 항만배후단지를 중심으로 동북아 물류중심기지 구축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항만이 더 이상 단순 물동량 증가에 의존하는 외형적 성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인접한 배후단지에 글로벌 기업들을 유치함으로써 보다 많은 고용과 부가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동북아 물류중심 국가 건설이라는 정부의 강력한 정책의지가 결실을 맺은 하나의 사례로 부산신항 배후부지에 지난 2006년 이후 물류시설이 입주하였으나, 정부 재정지원으로 조성된 이곳에서 어떠한 물류 비즈니스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한 그러한 활동이 어떠한 물류비즈니스 유형에 속하는지 물류 비즈니스 모델을 기초로 한 평가가 전혀 시도되고 있지 않은 실정에 처해 있어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항만인 부산항 항만배후단지의 물류 비즈니스 및 부가 가치 창출 활동을 물류비즈니스모델에 기초하여 실증 분석을 하고, 해외 선진 항만배후단지와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지에 물류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부산신항 배후단지의 전략적 활용방안에 대한 실증분석과 신항만입주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물류서비스 특성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리나라 항만배후단지 활성화를 위한 네가지 전략은 제품(product), 가격(price), 경로(place), 정부정책(politics) 측면의 전략이 도출되었으며, 구체적으로는 이 4P전략 속에 있는 세부과제들 즉, 신속한 배후단지 확보, 전략적부지 확보, 산업단지 활용을 통한 물류와 산업 통합, 낮은 임대료, 인센티브 수혜조건 완화, 법인세 인하, 합동유치팀 및 글로벌 에이전트 운영체계 구축, 범부처적 협력, 기업환경 조성, 유연한 외국인 고용제도 마련, 국내 U턴 기업 지원 등이 실행될 수 있도록 올바른 물류정책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로는 아직 부산신항을 제외하고는 광양항이나 인천항이 항만배후단지에 물류업체가 입주하여 부가 가치 물류비즈니스 활동을 하고 있지 않아 구체적인 물류비즈니스 모델에 입각한 실증분석을 하기 어려운 점을 들 수 있다. 향후 북중국 경제권과 인천항 배후 수도권경제권과의 물류비즈니스 사업유형이 가시화되면 인천항을 사례로 물류비즈니스 모델에 기초한 항만특성을 반영한 물류정책방향 도출이 가능하리라 여겨진다. 하루속히 우리나라의 항만배후단지를 중심으로 물류비즈니스모델에 기초한 항별 차별화된 물류비즈니스 전략과 물류정책방향을 도출하는 과제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 >> 1.5차로에 관한 기초연구 : 1차로 도로의 개량방안

A Basic Study on 1.5 Lane Road: Focusing on Improving of One Lane Road

조남건, 김응철

일반적으로 도로는 차량의 양방향 통행을 고려하여 2차로 이상이 기본으로 설계되고 건설되었다. 그렇지만 농어촌도로의 경우는 경제성과 환경성을 고려하여 리도와 농도는 1차로 도로로 개설할 수 있다. 양방향 1차로 도로는 도로폭원이 좁아서 소형차의 양방향 통행이 어렵고 버스의 통행도 자유롭지 못하고 안전성도 낮다. 따라서 농산어촌에 살고 있는 지역주민의 통행권역을 확대시켜주고, 통행의 안전성을 높이려면 이러한 1차선 도로를 양방향 통행이 가능하도록 개선해 주는 방안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1차로 도로의 개선수법으로 일본에서 실시되고 있는 1.5차로를 벤치마킹하여 우리나라에서 적용가능성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1.5차로 도로정비 수법은 도로의 교통량이나 지형상황, 연도상황 등 지역의 실상에 맞춰 2차선 정비와 국부적 정비, 1차선 정비를 효과적으로 조합하여 정비하는 방법이다. 1.5차로 도로정비 수법은 네 가지 정도다.

첫째, 현 도로를 최대한 활용한다. 현 도로의 폭원이 충분한 경우, 문제가 없는 구간에 적용한다.

둘째, 2차선 개량: 취락지 내 또는 인접구간, 취락지간에 교통량이 많은 구간, 추월이 필요한 구간 등에 적용한다.

셋째, 1차선 개량: 현 도로의 폭원이 좁거나, 시거 확보·재해방지 등이 필요한 구간에 적용한다.

넷째, 대피소 설치: 현지에 즉시 필요에 따라 설치한다.

‘1.5차로 도로정비’에 의해, 도로확폭 시 동반되는 절토면적을 줄일 수 있게 되어 정비비용이 2차선 도로정비에 비해 3분의 1로 경감된다. 이에 따라 환경영향도

완화되고, 방재능력이 향상되며, 통행의 원활화는 물론 속도 향상도 기대된다.

본 연구의 결과, 우리나라에 1.5차로 도로정비를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였다. 우리나라에 1.5차로 도로가 도입되어 적용될 경우 여러 가지 장점이 예상된다. 첫째, 1차로 도로를 전국 일률적으로 2차로 도로로 확장 시 야기될 수 있는 과부하를 방지하여 도로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둘째, 일률적인 2차로 확장에 비하여 적은 공사비와 짧은 공사기간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셋째, 1.5차로를 통한 이동성의 확보는 지역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고, 안전성을 제고하며, 환경적인 훼손을 경감할 수 있다. 이러한 장점들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에서도 1.5차로 도로정비 방안은 상당한 타당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 비상재해에 대응하는 도로망 연계성 제고방안

Improvement on the Connection of Express Highways for the Preparation of Emergency Situation

조남건, 김준기

본 연구의 목적은 고속도로의 비상재해 등으로 인해 도로이용자들이 겪는 불편을 최소화하고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도로의 연계성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고속국도의 일부 구간에서 통행두절 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중앙분리대 개구부 개방, 터널 앞 우회로 개방, 도로변 비상연결로 개방, 휴게소 뒷문 비상연결로 개방 및 톨게이트 진입부 우회로 우회 등을 통해 우회할 수 있는 방안이 현재 마련되어 있다. 그런데, 이러한 비상대피 방안이 실제상황에서 원활히 작동하는 데는 많은 문제점이 상존하고 있었다. 따라서 비상상황으로 인해 진행방향으로 도로의 통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합리적이고 실질적으로 통행을 우회시키거나 대피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과 미국 등의 비상시 대피방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일본의 경우 지진발생에 의해 통행두절이 일어났을 때, 여유분의 고속도로가 통행소통에 기여하고 지역경제를 유지하는 데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례에 의할 때, 비상재해에 대비하여 우회로를 확보하는 방안이 긴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고속도로의 비상재해 시 도로망의 연계성 효과를 알기 위해 2005년 대설로 인해 통행두절 피해가 있었던 호남지역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 분석을 해 보았다. 이 분석은 당시 공사 중인 고속국도를 이용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도로망의 연계성 효과가 있을지를 알기위한 것이었다.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에 의하면, 서해안 고속국도의 이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도로망의 연계로 인한 교통량 분산효과가 입증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 비상재해 시 도로의 연계성이 가져오는 효과가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비상재해에 대응하여 도로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가간선망의 계획수립 시 비상재해 대책을 고려하여야 하며, 고속국도와 연계도로를 활용하는 비상연결로 및 비상대피로 계획이 체계적으로 수립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도로 계획수립 시 안전(security)이 평가요소로 추가되어야 하고, 일본의 스마트 IC에 준하는 하이패스용 비상연결로가 개설되어야 하며, 비상연결로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정책제안으로 제시하였다.

국토연 2008-23, 86면, 2008. 9. 1~2008. 11. 30

## >> 전국 도로망체계 발전방안연구(II)

The Development of Nationwide Road Network(II) : Focusing on the Performance Evaluation and Formulation of Revising the Master Plan on Arterial Road Network Development

정일호, 이미영, 이백진, 김준기, 서민호

국토간선도로망은 남북 7개축, 동서 9개축(약 6,527km)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7년 말 현재 3,413km가 개통되어 운영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 같은 국토간선도로망의 발전적 재편을 위한 연구의 최종 2단계 연구다. 1단계 연구에서는 그간 구축된 국토간선도로망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간선도로망 구축에 영향을 미칠 다양한 요소를 규명하여 간선망의 규모를 산정, 제시하였다. 2단계 연구에서는 1단계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국토간선도로망의 개편방안과 도로재원 조달 및 사업집행체계를 포함한 중장기 도로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연구 성과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간선도로망의 구축 성과를 평가해 보면 간선도로망은 국가적 차원의 교통소통측면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인지하는 국토공간의 심리적 단절감 극복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된다. 고속도로로 구성된 간선도로망은 통행시간 절감 24조 원, 차량운행비용 절감에서 92조 원의 편익이 발생하여 총 116조 원이 고속도로의 총 편익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2005년 GDP 72조 2천억 원의 약 16.1%에 해당된다.

한편 고속도로 건설 파급영향을 개별 고속도로 노선이 아닌 집합적 고속도로망 구축효과(Network Effect)로 평가하기 위한 실증적 방법론을 활용하였다. 즉, 도시 간 심리적 거리인식의 차이를 분석하는 인지도(cognitive map) 작성으로 고속도로망 구축에 따른 국토공간상 인지거리 단축효과를 평가하였다. 또한 심리적 거리 추정법을 활용하여 고속도로망 구축에 따른 공간적, 시간적, 심리적 동질감을 상호 비교하여 파급

영향을 검토하였다. 분석결과, 물리적 거리에 비해 심리적 인지거리가 전반적으로 작은 것으로 나타나 심리적 거리단축 효과가 존재하며 고속도로망 구축으로 인한 심리적 격리감 완화 효과는 국토공간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이질감 해소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고속도로망 구축에 따른 심리적 거리 단축효과는 약 16% 수준이며 고속도로 건설 전·후를 비교할 때 고속도로에 의한 직접 연결은 약 60% 정도의 거리단축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선도로망 재편과 관련 간선망 계획내용의 수정에 영향을 미칠 향후 여건 변화요인을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영향요소 간 차이는 크지 않지만 교통체계 측면의 변화가 국토공간 측면이나 사회경제 측면의 변화보다 상대적으로 보다 중요하고 이를 간선망 재편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한편 향후 추가 건설이 필요한 고속도로 및 국도를 포함한 간선도로 규모 산정결과, 우리나라는 2012년까지 총 도로규모가 3만 7천km에서 3만 8천km까지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2012년까지 최소 2,100km가 더 확충되어야 선진국 경제수준에 적합한 도로규모를 찾을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2030년까지는 최소 8,600km의 간선도로망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 05

## c h a p t e r II

### 색인

- 과제명 색인 76
- 연구자명 색인 78

## 과제명 색인

1.5차로에 관한 기초연구 : 1차로 도로의 개량방안	72
2008년도 국내의 부동산시장 동향 및 정책 연구	50
건강·문화·생태회랑 구축 전략 연구 : 국토 녹색길 조성을 위한 기초연구	35
건설업 겸업제한 폐지에 따른 건설보증시장 구조 및 특성변화 연구	58
고유가에 대한 건설산업 대응 전략	59
국책사업의 갈등해결을 위한 보상제도 개선방안	55
국토 및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법적분쟁의 실태와 대처방안	21
국토경쟁력 강화를 위한 광역경제권 설정 및 발전구상	20
국토관리분야의 사회적 자본 확충방안(I) : 사회적 자본 영향요인 분석	45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 측정·평가 연구	34
국토정보화 혁신을 위한 지능형국토 추진방안(II)	64
규제자유지역의 추진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5
근대 산업유산의 보존·활용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연구	46
기후변화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국토관리 전략(II) : 지역별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및 지역특성 분석	36
남북경협 활성화 시대에 대비한 동해연안 남북접경지역의 평화적인 이용방안	27
농촌이주 인구의 공간적 분포특성과 국토정책과제	22
대중교통중심형 도시공간구조 구축을 위한 도시계획과 교통계획의 연계방안 연구	37
도시계획과정의 GIS기반 주민참여 모형 개발 및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	65
도시용지의 공급확대에 따른 계획적 활용방안	38
도시재생을 위한 근대역사환경 활용방법 분석 : 부산, 광주, 군산을 사례로	47
동북아 핵심경제지역의 발전 전략과 연계망 구축(II) : 지역생산네트워크와 지역 간 보완적 발전 전략	28
동북아시아의 역내 항만얼라이언스 구축방안 연구	68
라멘플란의 실체와 국내 적용가능성에 관한 연구	39
미래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다핵도시체계 확립과 육성 방안	23
부동산시장 선진화를 위한 리츠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	56
부동산시장의 선진화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51
비상재해에 대응하는 도로망 연계성 제고방안	73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마을계획 제도 도입 방안	40
서민 주거복지 확대정책의 평가와 향후 정책방향	53
승용차 이용자 가치를 고려한 교통정책 수립방안 연구	69

시민이 참여하는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 전략편	41
시민참여형 도시정비를 위한 시민역량 강화방안	42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 연구 :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의 성과지표 개발을 중심으로	70
재정투자파급효과측정시스템 개발 및 국가발전지수 정립 연구(II) : SD와 GIS 기반의 공간간 통합시스템 개발을 중심으로	67
재해에 안전한 도시조성을 위한 방재도시계획 수립방안 연구	43
전국 도로망체계 발전방안 연구(II)	74
전환기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정책 재정립	60
주거수요분석에 기초한 노인주거지원 정책과제 연구	54
주택정책평가모형 개발과 정책효과분석 연구	52
중국 국토전략하의 환발해권 물류체계와 한·중 물류협력 전략	29
중국의 거점도시 및 개발축 형성동향	30
중심시가지 환경개선을 위한 도시재생전략 연구	44
지역개발사업의 통합적 추진모형 구축 및 적용방안(I)	24
지자체 공간정보화 수준분석 및 역량 제고방안	66
투자자국가소송(ISD)에 대비한 토지규제 개선연구	57
한반도 공동번영을 위한 국토분야의 대응방안	31
항만배후단지의 물류비즈니스모델에 기초한 물류정책방향	71
해외도시개발의 진출 방향 및 전략	32
해외진출 유턴(U-Turn)중소기업에 대한 입지공간 지원방안 연구	26
SOC 건설사업비 합리성 제고를 위한 추정체계 개선방안 연구	61

## 연구자명 색인

강동진	47	김재영	24, 58, 61
강문수	55	김정훈	64
강미나	54	김종학	69
강승일	56	김준기	73, 74
강혜경	66	김진범	40
강호제	22, 26	김창현	20, 22
고용석	69	김태환	24
고평채	55	김혜승	54
구정은	23, 61	김호정	69
권영섭	23	남윤우	24
권은주	29	류승한	41, 42
권태정	56	류재영	71
권혁진	58, 61	리 칭	30
김 걸	66	모창환	45
김경배	44	문기택	39
김광익	20	문정호	21
김근용	31, 51, 52	문 체	43, 44
김단야	67	민범식	44
김동주	25	박경현	20
김동한	65	박세훈	37
김명수	35, 36	박양호	20
김미정	67	박은관	37
김민철	59, 60	박인성	30
김병주	55	박재현	70
김상욱	25	박정은	35, 36
김선희	45	박종택	66
김성일	31, 60	박준화	24
김세창	29	박찬호	55
김승중	53, 55, 57	박창석	45
김영봉	27	박천규	52
김영욱	55	박형서	25
김원배	28, 29	배경화	26
김은란	40, 41	배순석	53
김은정	27	백남철	70
김응철	72	변세일	52

변필성	42	이원영	39
사공호상	66	이재영	70
서기환	65	이종열	22
서민호	74	이진형	50, 51
서연미	36, 45	이진희	37, 38
소진광	45	이춘용	21
손경환	51	이현석	56
송현부	56	임상연	23
신동빈	65	임영태	68, 70, 71
신정식	29	임은선	36
심우배	36, 43	장은교	21, 34, 40, 45
안영아	55	전성계	51, 52
안홍기	31, 60	정명운	55
양광식	29	정문섭	64
양하백	46	정소양	35
왕광익	36, 38, 43, 44	정윤희	41
윤영모	21, 25	정일호	74
윤윤정	45	정진규	36, 69
윤하중	60	정희남	30, 55, 56
이동우	20	조남건	37, 72, 73
이문원	36, 43	조진철	28, 31, 32
이미영	74	조춘만	64
이백진	74	지대식	51, 57
이범현	43, 44	진영환	41
이상준	31	진정수	53
이상한	53	차미숙	24
이수옥	51, 52	천현숙	45
이순자	21, 34, 46, 47	최병남	42
이승복	27	최 수	50, 56
이승욱	40	최영국	35, 36
이영아	39, 42	최혁재	57
이왕건	37, 38, 65	한경원	45
이용만	53	한선희	67
이우진	44	한철환	68
이원섭	20		





## 국제협력사업

1. 국제공동연구사업	82
2. 국제연수교육	97
3. 국제학술교류	100

# 1. 국제공동연구사업

세계적인 국토종합 연구기관을 지향하는 국토연구원은 미국, 중국, 일본 등 11개국 18개 기관과 자매결연을 맺어 연구인력 및 정보를 상호교환,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유엔 아시아, 태평양지역 경제사회위원회(ESCAP)에서 신설한 국토개발관련 교육, 연구, 정보협력기구(TRISHNET)에 이사국으로 참여함으로써 연구사업의 세계화를 도모하고 있다. 국내외 전문가를 활용한 네트워크형 협동연구를 적극 추진하여 연중 20여 회에 이르는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여 다양한 연구정보 공유, 협동연구 등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 >> 대도시권 성장관리에 관한 국제세미나

International Seminar on Growth Management of Metropolitan Region

■ 일시 : 2008. 4. 15 ■ 장소 :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실

### ■ 참석자

**한국** 김영표(국토연구원 부원장), 김원배(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현식(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재길(국토연구원 연구혁신본부장), 김태환(국토연구원 연구위원), 권도엽(국토해양부 제1차관), 김규현(국토해양부 수도권정책과장), 이상대(경기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계기석(안양대학교 교수), 서순탁(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이상대(경기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막중(서울대학교 교수), 허재원(중앙대학교 교수), 황희연(충북대학교 교수)

**유럽** Nicholas Alfred Phelps(영국 런던대학교 교수), Vincent Fouchier(프랑스 파리수도권연구소 국장)

**동북아** Onishi Takashi(일본 도쿄대학교 교수), Mee Kam Ng(중국 홍콩대학교 교수)



### ■ 발표내용

1. 유럽의 주요 수도에 대한 고찰

- Nicholas Alfred Phelps(런던대학교 교수)
- 2. 프랑스 일드프랑스 계획 수립과 집행의 분권적 거버넌스
  - Vincent Fouchier(파리수도권연구소 국장)
- 3. 광역계획제도에서의 광역계획협의회의 역할과 구성
  - Onishi Takashi(도쿄대학교 교수)
- 4. 동북아 주요 대도시권 경쟁력 비교
  - Mee Kam Ng(홍콩대학교 교수)
- 5. 우리나라 수도권계획 · 관리의 쟁점과 대안
  - 이상대(경기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 개최목적

본 국제세미나는 최근 세계화, 개방화의 진전으로 대도시권 간 경쟁이 심화되고 대도시권 문제 해결을 위하여 대도시권의 광역적 성장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향후 우리나라 수도권의 바람직한 새로운 관리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개최하였다.

### ■ 주요 내용

Session I에서는 국토연구원 김현식 선임연구위원이 사회를 맡아 유럽의 영국과 프랑스 사례를 중심으로 주제 발표가 있었다. Nicholas Alfred Phelps 런던대학교 교수는 유럽의 3개 수도권지역(런던, 파리, 마드리드)의 분석을 바탕으로 도시주변부 지역의 성격변화와 형성과정에 관하여 경제적·정치적·사회적 측면에서 분석하고, 이들 3개 수도권 지역 각각의 제도적 틀 및 거버넌스를 비교하여 제시하였다. Vincent Fouchier 파리수도권연구소 국장은 프랑스 파리대도시권 계획의 총괄책임을 맡고 있으며, 1990년대 이후 프랑스 수도권 계획체제의 전환과 이에 따른 일드프랑스 대도시권의 계획이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계획되고 집행되고 있는지를 발표하였다.

Session II에서는 국토연구원 김현식 선임연구위원의 사회로 동북아시아의 일본과 중국사례를 중심으로 2개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Onish Takashi 도쿄대학교 교수는 최근 일본 수도권의 계획체계가 국토형성계획 및 수도권 정비계획이라는 새로운 계획체계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일본에서 어떻게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단체가 협의회를 구성하여 광역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관리·운영하는지를 소개하였다. Mee Kam Ng 홍콩대학교 교수는 아시아 대도시권의 세계적 경쟁력 및 지속가능성에 관하여 홍콩, 도쿄, 싱가포르, 타이페이, 상하이, 서울 6개 대도시권의 비교를 통하여 아시아 대도시권의 경쟁력을 비교하고 발전방안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Session III에서는 국토연구원 김원배 선임연구위원의 사회로 이상대 경기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현재 우리나라 수도권 정책 및 계획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의 발전 방안에 관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수도권계획 및 관리방향에 관하여 참가자 전원의 종합토론이 진행되었다.

### ■ 시사점

본 세미나에 참석한 국내외 전문가들은 수도권의 계획 수립과 집행과정에 분권적이면서 협력적인 거버넌스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과 성장관리를 중심으로 수도권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였다. 또한 이러한 수도권체제의 전환을 통하여 앞으로 우리나라 수도권의 경쟁력 향상이라는 장기적 비전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 뜻을 같이하였다.

## >> '커뮤니티재생 거버넌스 시스템 개발' 국제워크숍

International Workshop on Building Participatory Governance for Urban Regeneration : East Asian Experiences

■ 일시 : 2008. 5. 8 ■ 장소 : 국토연구원

### ■ 참석자

**한국** 김영표(국토연구원 부원장), 천현숙(국토연구원 연구위원), 김기호(서울시립대학교 교수), 남기범(서울시립대학교 교수), 배웅규(중앙대학교 교수)

**일본** Koizumi Hideki(도쿄대학교 교수)

**홍콩** Wing Shing TANG(홍콩침례대학교 교수)

**대만** Liling Huang(대만국립대학교 교수)



### ■ 발표내용

1. 일본 마치즈쿠리의 특징과 의미  
- Koizumi Hideki(도쿄대학교 교수)
2. 홍콩의 주민참여 도시재개발 사례  
- Wing Shing TANG(홍콩침례대학교 교수)
3. 대만의 도시재생 거버넌스 사례  
- Liling Huang(대만국립대학교 교수)

### ■ 개최목적

앞으로의 도시재생은 주민들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도시계획에 참여할 수 있는 수단과 접근방식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주민참여를 촉진시킬 수 있는 거버넌스 시

스템 개발은 기존에 도시개발 또는 도시재생에서 발생했던 이해관계자들 간의 갈등을 줄이고 상호 협력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효율적인 도시재생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워크숍은 일본, 대만, 홍콩 전문가들의 주민참여 커뮤니티 재생 거버넌스와 관련하여 정보 교류 및 연구심화에 목적이 있다.

### ■ 주요 내용

본 워크숍에서는 김영표 국토연구원 부원장의 환영사와 함께 Koizumi Hideki 도쿄대학교 교수, Wing Shing TANG 홍콩침례대학교 교수, Liling Huang 대만국립대학교 교수의 발표로 진행되었다. Koizumi Hideki 도쿄대학교 교수는 일본 마치즈쿠리의 역사와 교토에 있는 마치야 역사상점지구, 시마네현 마츠에시의 도심재생, 하마마츠 도심부 교통물 재생, 세타가야구의 마치즈쿠리, 텐류시 쿤마마을과 카즈마 사례를 보여주며 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을 증대시키고 양질의 도시환경을 조성하며 도시계획에 있어 민주적인 의사결정과정을 정착시키는 효과를 가지는 마치즈쿠리의 역할에 대해 얘기하였다.

Wing Shing TANG 교수는 홍콩에서 추진된 지금

까지의 재개발 프로젝트 문제점과 최근 완차이 재개발 사례 등에서 나타난 주민들의 활동이 도시환경을 바꾸는 움직임에 대해 얘기하고 앞으로 홍콩에서 추진될 도시재개발의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 보여주었다. 대만국립대학교 Liling Huang 교수는 대만에서의 도시개발 수요를 촉진시키는 도시재생 전략에 대해 얘기하였으며 특히 도시를 디자인하는 데 있어 어떻게 각 주체가 협력하는지 대만의 도시거버넌스 적용사례로서 완후아(Wan-hua)지역의 역사건축물 보존 및 지구활용사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각 국가별 도시재생 사례발표 이후에는 김기호 서울시립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남기범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배응규 중앙대학교 교수, 천현숙 국토연구원 연구

위원의 패널 토론 및 질의응답이 있었다.

■ 시사점

본 워크숍에 참석한 한국·일본·대만·홍콩 전문가들은 주민참여 커뮤니티재생거버넌스에 대한 서로의 경험을 나누었으며 각 나라의 사례를 통해 도시재생을 위한 접근방식의 다른 점을 보여주었다. 이에 도시재생에 있어 주민참여를 위하여 사람의 역량강화가 먼저인지 아니면 역량강화를 촉진할 수 있는 시스템이 먼저인지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언급하였으며, 한국의 도시재생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시점에서 중요한 이슈를 주었다.

» 국토연구원과 일본 종합지구환경연구소 간 국제심포지엄 : 아시아 대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도시계획, 환경, 교통부문의 정책방향 모색

KRIHS and RIHN Joint International Symposium : Urban Sustainability in Asia : Urban Planning, Environment & Transportation

■ 일시 : 2008. 6. 12 ■ 장소 : 국토연구원

■ 참석자

**한국** 김영표(국토연구원 부원장), 고용석(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왕광익(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이백진(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서민호(국토연구원 연구원), 윤소원(서울시설공단 박사), 이동근(서울대학교 교수), 이성원(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등

**일본** Akimasa Fujiwara(히로시마대학교 교수), Hiroshi Shimamoto(히로시마대학교 조교수), Shinji Kaneko(히로시마대학교 부교수), Katsuya Tanaka(시가대학교 부교수), Makoto Taniguchi(종합지구환경연구소 교수), Takahiro Endo(종합지구환경연구소 연구원), Shobhakar Dhakal(국립환경연구소 팀장), Tsuyoshi Imai(아마구치대학교 교수)

■ 발표내용

기조연설: 기후변화관점의 도시에너지 사용과 지속가능성

- Shobhakar Dhakal(국립환경연구소 팀장)

Session I.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도시계획과 교통

1. 교통과 환경 효율성



- Akimasa Fujiwara(히로시마대학교 교수)
- 2. 한국의 지속가능한 교통정책
  - 이성원(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 3. 지속가능한 도시공간 구조: 한국을 중심으로
  - 왕광익(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Session II. 도시 환경적 측면의 지속가능성

1. 아시아 연안 대도시의 지하 환경
  - Makoto Taniguchi(중합지구환경연구소 교수)
2. "Hard" 접근법과 "Soft" 접근법: 도시 수자원 문제에 대한 제도적 대응
  - Takahiro Endo(중합지구환경연구소 연구원)
3. 기후변화관점에서 본 지속가능성: 한국사례를 중심으로
  - 윤소원(서울시설공단 박사), 이동근(서울대학교 교수)
4. 도시공간구조와 온실가스: 아시아 대도시(일본, 한국, 중국)를 중심으로
  - 이백진(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 개최목적

본 국제심포지엄은 최근 국제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지구환경문제 및 기후협약 등에 대응하기 위한 아시아 도시들의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에 대해 한·일 전문가들의 주제발표와 토론을 통해 그 경험과 인식을 공유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이번 심포지엄은 국토연구원 개원 30주년을 기념하고

일본 중합지구환경연구소와의 연구교류협정(MOU) 체결을 기념하여 개최되었다.

■ 주요 내용

일본 중합지구환경연구소(RIHN)는 지구환경 문제 관련 종합적·국제적 연구를 목적으로 2001년 4월 문부과 학성 산하 연구소로 설립되었다. 국토연구원과 RIHN은 2007년 12월 연구교류협정(MOU) 체결을 통해 지구환경문제에 관한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협동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초연설에서 Shobhakar Dhakal 팀장은 지난 50여 년간의 세계 도시인구 및 도시화 규모에 대한 변화를 살펴보고 도시에너지 사용과 탄소가스 배출에 대한 주요 영향요인을 소개하였다.

Session I에서는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도시 계획과 교통을 주제로 총 3편의 주제가 발표되었다. 히로시마대학교의 Akimasa Fujiwara 교수는 교통부문의 환경효율성 평가모형 구조 및 세계 주요 도시에 대해 적용한 결과를 소개하였다. 한국교통연구원의 이성원 연구위원은 한국의 지속가능한 교통정책을 주제로 물류수송수단 전환을 위한 지속적인 관련 인프라 투자를 강조하였으며, 지속가능한 교통을 위한 제도적 정비 사례인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였다. 국토연구원의 왕광익 책임연구원은 한국의 주요 70개 도시에 대해 인구밀도, 도시형태, 교통 등 다양한 요인과 이산화탄소 배출량과의 관계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Session II에서는 도시 환경적 측면의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총 4편의 주제가 발표되었다. 중합지구환경연구소의 Makoto Taniguchi 교수는 아시아 연안 대도시인 도쿄, 오사카, 방콕, 자카르타, 마닐라, 서울, 타이페이 등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도시, 물, 자원, 열의 네 가지 측면에서 다양한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도시발전과 지하환경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미래의 보다

나은 인간환경과 도시발전을 위한 지하수와 지하환경의 지속가능한 개발방안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Takahiro Endo 박사는 지반침하에 영향을 주는 지하수 문제에 대해 Hard한 접근과 Soft한 접근 등 종합적이고 적극적인 정부의 관리와 개입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서울시설공단과 윤소원 박사와 서울대학교의 이동근 교수는 한국의 기후변화가 한반도 식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와 2050년 저탄소사회 실현을 위한 다양한 분석결과를 소개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저탄소사회를 위한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끝으로 국토연구원의 이백진 책임연구원은 서울, 베이징, 도쿄 등 한·중·일 3국의 주요 도시에서 사회경제적 변수 및 도시공간구조의 변화와 온실가스의 상관관계를 Moran 지수를 이용하여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

다. 여기서 인구와 고용의 Moran 지수는 도시지역의 온실가스 배출을 설명하는 지표로서 적합하다고 하였으며, 이를 잘 설명하는 모형을 제시한 것이 큰 의의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 ■ 시사점

본 워크숍에 참석한 한·일 전문가들은 기후변화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에 대한 연구 및 경험 공유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였다. 아울러 기후변화와 지속가능성 등은 미래의 불확실성이 높은 주제이긴 하나 지속적인 연구와 과학적 결론 제시로 계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며 이를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하고 홍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 >> SD와 GIS 통합모형 구축에 관한 국제세미나

Formulating the System Dynamics - GIS Integrated Model

■ 일시 : 2008. 9. 23 ■ 장소 : 서울교육문화회관

### ■ 참석자

**한국** 김영표(국토연구원 부원장), 한선희(국토연구원 연구위원), 김단아(국토연구원 연구원), 이정식(안양대학교 교수), 김은형(경원대학교 교수), 문태훈(중앙대학교 교수), 이만형(충북대학교 교수), 김연준(심시티전문가)

**미국** Khalid Saeed(Worcester Polytechnic Institute 교수), Keith C. Clarke(University of California, Santa Barbara 교수)

### ■ 발표내용

1. 모형구축에 있어서 은유법 또는 포괄적 시스템의 사용방법론  
- Khalid Saeed(Worcester Polytechnic Institute 교수)

2. 동태적 시스템, 셀룰러 오토마타, 도시모형, 그리고 SLEUTH  
- Keith C. Clarke(University of California, Santa Barbara 교수)
3. 심시티의 특징과 활용



- 김연준(심시티 전문가)

#### 4. 시스템 다이내믹스와 지리정보시스템의 통합모형 구축방향

- 김영표(국토연구원 부원장)

### ■ 개최목적

본 국제세미나는 시간 중심적 접근모형인 SD(System Dynamics)기법과 공간 중심적 접근모형인 GIS기법의 특징과 강점을 분석하고, SD와 GIS를 통합한 시공간 통합모형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 ■ 주요 내용

Khalid Saeed 교수는 “모형구축에 있어서 은유법 또는 포괄적 시스템의 사용방법론”이라는 주제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Khalid Saeed 교수는 은유법이 모델링 방법론에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며 모델링에서 사용된 은유적 방법은 전형, 포괄적 구조라고 정의하였다. 그리고 시스템다이내믹스에서 포괄적 구조의 사용과 공공정책에 적용할 수 있는 두 가지 간단한 은유적 모형인 떠돌이 개 시스템과 왕조순환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Keith C. Clarke 교수는 “동태적 시스템, 셀룰러 오토마타, 도시모형, 그리고 SLEUTH”이라는 주제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Keith C. Clarke 교수는 동태적 시

스템 모형을 비롯하여 셀룰러 오토마타, SLEUTH 모형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다. 그리고 동태적 시스템의 특징을 기술하였다. 또한 동태적 시스템의 궁극적 목적은 동태적 시스템의 구조가 시간, 공간, 의사결정자의 통합과 연계임을 설명하였다.

김연준 심시티 전문가는 “심시티의 특징과 활용”이라는 주제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심시티는 도시를 설계하고 경영하는 도시경영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이며, 심시티의 개념과 발전과정을 비롯하여 기능과 구성요소, 공간구성 방법, 의사결정과정, 국토연구 분야에의 활용 가능성 등을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김영표 국토연구원 부원장은 “시스템 다이내믹스와 지리정보시스템의 통합모형 구축방향”이라는 주제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앞서 3인의 주제 발표자가 각자 이용했던 세 가지 접근방법, 즉 시스템 다이내믹스(System Dynamics: SD) 기법, 지리정보시스템(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GIS) 기술, 게임엔진(Game Engine: GE) 기술에 최적제어기법(Optimal Control Method: OCT)을 덧붙인 명실상부한 시간·공간·인간 요소의 대통합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 ■ 시사점

본 국제세미나에 참석한 관련분야의 한·미 국책연구기관의 전문가 및 학계인사들은 본 국제세미나가 시공간 통합모형과 관련하여 시간 중심적 접근모형인 SD기법과 공간 중심적 접근모형인 GIS기법의 통합에 대한 KICK-OFF적 측면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였고, 데이터와 기술적인 측면에서 어려운 상황이 존재하기 때문에 SD기법과 GIS기법의 통합에 대한 향후 추가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 >> 개원 30주년 기념 '지구적 변화와 국토전략' 국제학술세미나

International Symposium in Celebration of KRIHS 30th Anniversary

■ 일시 : 2008. 10. 1 ■ 장소 : 서울 교육문화회관 가야금홀

### ■ 참석자

**한국** 박양호(국토연구원 원장), 최영국(국토연구원 국토환경·문화연구실장), 김현식(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세원(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김지태(환경부 국장), 한만희(국토해양부 국장), 고영선(한국개발연구원 부장), 박원재(동아일보 논설위원), 이정전(환경정의 공동대표), 허재원(중앙대학교 교수)

**외국** Roberta Capello(이탈리아 밀라노공과대학교 교수), 고주석(네덜란드 웨게닝겐대학교 교수), Massayuki Sasaki(일본 오사카시립대학교 교수)



### ■ 발표내용

1. 유럽모델: 글로벌 차원의 공간적 통합과 국토전략  
- Roberta Capello(밀라노공과대학교 교수)
2. 강소국 모델: 네덜란드 국토계획 환경의 변화와 국토전략  
- 고주석(웨게닝겐대학교 교수)
3. 아시아 모델: 삶의 질 변화와 국토전략  
- Massayuki Sasaki(오사카시립대학교 교수)
4. 한국형 모델: 녹색성장과 국토전략  
- 최영국(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 개최목적

본 국제세미나는 국토연구원의 개원 30주년을 기념하

고 글로벌 환경변화를 고려한 국토계획 및 관리의 방향을 점검하기 위하여 '지구적 변화와 국토전략'이라는 대주제에 선진국의 경험을 청취하고 우리의 전략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 ■ 주요 내용

Roberta Capello 교수는 '세계화와 유럽의 성장전략 : 유럽 통합국토의 미래상'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지난 십여 년간 유럽은 급격한 경제적, 제도적, 사회적 변화를 겪어왔다고 설명하였다. 유럽연합의 확대나 유럽통합 동맹은 유럽경제에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고, 세계화 및 신흥개발국들로부터 제기되고 있는 경쟁은 미래 유럽의 성장기회와 유럽 내 지역 간 부의 재분배에 대해 새로운 위협이 되고 있다고 전제하였다. 그는 확대된 유럽에 대한 정량·정성적 시나리오를 제시함으로써 장래 유럽이 해결해야 할 문제를 제시하였다.

고주석 교수는 '세계화를 고려한 통합적 도시 및 지역계획 방법론 : 네덜란드 사례'라는 주제발표를 통하여 계획가들의 건축차원 접근방식은 기후변화, 에너지, 안전한 수자원 확보, 식량위기를 포함한 공간계획에 대한 글로벌차원의 다양한 도전으로 인하여 실행 가능한 대안으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그는 네

덜란드에서 어떻게 경관적 접근방식이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제시하였는데 이러한 접근방식이 근대화 이전 한국의 문화전통과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다양한 환경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는지 제시하고 있다.

‘창조도시와 삶의 질 : 일본 도시를 사례로’라는 주제 발표를 한 사사키 교수는 창조도시란 예술가, 창작가, 일반 시민 등의 활기찬 창조활동을 통해, 예술과 문화를 장려함과 동시에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산업을 촉진하는 도시로서, 다양한 ‘창조적 환경’과 ‘혁신적 환경’을 담고 있고, 나아가 지구온난화와 같은 세계적 환경문제를 지역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도시를 의미한다고 설명하였다. 창조도시정책 관련 모범사례인 카나자와시와 요코하마시의 정책을 소개하였다.

마지막 주제발표자인 국토연구원의 최영국 선임연구원은 ‘녹색성장시대에 대응한 새로운 국토가치 창출과 국토관리 전략’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지금까지 국토의 최대 가치는 ‘개발’, ‘경제개발에 의한 물질적 풍요 우선’, ‘양적 성장과 공급’ 등이었다고 평가하였다. 최영국 선임연구원은 국토가치 창출을 위한 국토관리 전략과제로 화석연료 고갈에 대응한 신·재생에너지 지원 확보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녹색성장과 새로운 국토가치 창출을 위한 3S 국토전략으로 느린 개발(SLOW), 작은 성장(SMALL), 그리고 부드러운 추진력(SOFT)을 제시하였다.

■ 시사점

워크숍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글로벌 환경변화에 따른 공간계획의 재정립에 공감하면서, 공간계획 수립 및 국토관리에서 국제협력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인식하였다. 특히 본 세미나의 분석지역인 통합된 유럽, 대표적 강소국인 네덜란드, 우리와 여건이 유사한 일본 등의 사례 교환을 통하여 우리 실정에 보다 유용한 실천방안의 수립에 도움이 되는 계기로 판단된다.

## >> 제12차 GIS 국제세미나: 국토정보의 통합적 활용을 위한 NSDI 정책방향

The 12th International Seminar on GIS : NSDI Policy for National Spatial Data Integration

■ 일시 : 2008. 10. 9 ■ 장소 : 일산 KINTEX

### ■ 참석자

**한국** 사공호상(국토연구원 GIS연구센터장), 신동빈(국토연구원 연구위원), 김미정(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이권현(대한주택공사 박사), 김수천(대전시청 정보화담당관), 장은미(한국공간정보통신 상무), 이창훈(LBS Plus 연구소장), 김계현(인하대학교 교수), 김은형(경원대학교 교수), 조우석(인하대학교 교수), 최윤수(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조명희(경일대학교 교수), 남형근(대구시 정보통신과장), 이한주(한국토지공사 팀장), 유명준(한국지역개발정보시스템 본부장), 박종현(ETRI 텔레매틱스연구부장)

**외국** Yoshihide Sekimoto(일본 도쿄대학교 교수), Hiromichi Fukui(일본 게이오대학교 교수), David Coleman(캐나다 뉴브런즈윅대학교 교수), Bill Shepherd(싱가포르 ESRI Asia 박사)



### ■ 발표내용

#### Session I. 공간정보활용을 위한 국가 정책

1. 일본의 NSDI 법 제정 이후 공간정보산업의 변화  
- Yoshihide Sekimoto(도쿄대학교 교수)
2. 캐나다의 NSDI 정책과 실행 사례  
- David Coleman(뉴브런즈윅대학교 교수)
3. 한국의 국토통합정보시스템 구축방안  
- 김미정(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 Session II. 공간정보의 통합과 지방정부의 공동 활용

4. 서술적(Descriptive) NSDI에서 예방적(Prescriptive) NSDI로  
- 김은형(경원대학교 교수)
5. 일본사례로 본 지방정부의 통합GIS 접근방법  
- Hiromichi Fukui(게이오대학교 교수)
6. 지방정부의 공간정보기반 : 미래전략 건물통합정보  
- 이권한(대한주택공사 박사)
7. 원클릭 공간데이터 웨어하우스  
- 김수천(대전시청 정보화담당관)

#### Session III. 공간데이터통합의 방법론과 기술론

8. 시스템 재실행 순환에 대비한 공간데이터통합의 전략  
- 장은미(한국공간정보통신 상무)
9. GIS시스템 통합을 위한 서비스 플랫폼의 발전  
- 이창훈(LBS Plus 연구소장)
10. 지리학 지식의 공유 : 서비스 중심적 지향을 향하여  
- Bill Shepherd(ESRI Asia 박사)

### ■ 개최목적

본 국제세미나는 ‘국토정보의 통합적 활용을 위한 NSDI 정책방향’을 주제로 공간정보 활용을 위한 국가 정책과 공간정보의 통합과 지방정부의 공동 활용, 공간 데이터통합의 방법론과 기술론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정부의 국가공간정보 사용 극대화를 위한 적절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 ■ 주요 내용

Session I에서는 김계현 인하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세 개의 주제가 발표되었다. 먼저 도쿄대학교 교수인 Yoshihide Sekimoto는 “일본의 NSDI법 제정 이후 공간정보산업의 변화”라는 주제로 일본 NSDI 법의 개요와 NSDI법 제정 전후 공공의 역할을 재조명하였으며 법 제정 이후 국제 산업계의 경향, 국가와 지방 정부의 역할 등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다음으로 뉴브런즈윅 대학교의 David Coleman 교수는 “캐나다의 NSDI 정책과 실행 사례”라는 주제로 캐나다 공간정보기반(the Canadian Geospatial Data Infrastructure : CGDI)을 협력 및 유지·관리하는 기관들의 구조와 활동들에 대하여 소개하였으며, 국토연구원의 김미정 책임연구원은 “한국의 국토통합정보시스템 구축방안”이라는 주제로 공간정보 인프라를 구현하기 위한 국토통합정보 시스템의 구축방안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Session II에서는 조명희 경원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네 개의 주제가 발표되었다. 먼저 경원대학교 김은형 교수는 “서술적(Descriptive) NSDI에서 예방적(Prescriptive) NSDI로”라는 주제로 과거가 서술적(Descriptive)이었다면 이제는 예방적(Prescriptive)으로 점차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 공간들을 위한 국가의 유용한 통합 수단으로서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게이오대학교 교수인 Hiromichi Fukui는 “일본사례로 본 지방정부의

통합GIS 접근방법”이라는 주제로 기후현 사례를 통하여 일본 지방정부의 통합GIS 접근방법을 소개해주었으며, 한국주택공사의 이권한 박사는 “지방정부의 공간정보기반 : 미래전략 건물통합정보”라는 주제로 지방자치단체의 공간정보기반으로서 건물통합정보의 구축과 유지전략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대전시청의 김수천 정보화담당관은 “윌클릭 공간데이터 웨어하우스”를 주제로 공간데이터 웨어하우스와 대량의 공간정보·일반 행정정보를 기반으로 한 지방자치단체 지리정보 부문에 대한 바람직한 블루오션 전략을 제안하였다.

Session III에서는 조우석 인하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세 개의 주제가 발표되었다. 먼저 한국공간정보통신의 장은미 상무는 “시스템 재실행 순환에 대비한 공간데이터통합의 전략”이라는 주제로 한국 정부와 다른 정부 사이의 공간데이터통합의 흐름을 재고하고, 공간데이터통합에 기반을 둔 핵심요소를 끌어내기 위하여 한국 정부와 기관에서 GIS통합수준의 유형에 대한 논의와 시스템 실행을 위한 5단계를 공간데이터통합의 관점에서 논의하였다. 다음으로 LBS Plus의 이창훈 연구소장은 “GIS시스템 통합을 위한 서비스 플랫폼의 발전”을 주제로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되고 있는 지금의 GIS시스템은 표준서비스 플랫폼 도입을 통한 시스템의 폐쇄적 속성을 해결하고 데이터 제공업자는 서비스 적응력의 증가를 위한 노력 및 시스템의 융통성과 연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향상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ESRI Asia의 Bill Shepherd 박사는 “지리학 지식의 공유: 서비스 중심적 지향을 향하여”라는 주제로 오늘날 지리학은 사람들의 활동을 이해하기 위해 적용되고, GIS기술을 통해 세계를 연구하고 분석·이해하는 것을 돕는다는 설명과 함께 GIS기반의 다양한 서비스들에 대한 설명 및 역할 등을 발표하였다.

## ■ 시사점

1995년 1차 국가GIS가 시작된 후 14년이 지난 현재 우리나라 국가GIS정책의 현주소를 진단해보고 특히 앞으로 공간정보의 중앙과 지자체 간 공동활용에 관한 국가GIS정책과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뜻깊은 논의의 기회였다. 공간정보의 통합적 활용을 위한 정책,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공간정보의 통합과 공유, 공간데이터 통합방법 등에 관한 논의를 통해, 공간정보의 구축 및 활용의 기반은 국가와 지자체 간 상호 협력을 기반으로 수립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특히 해외 및 국내의 여러 사례들을 기반으로 볼 때, 한국적 상황에 근거한 그동안의 국가GIS 역량과 정보내용을 기반으로 향후에는 국가정책, 지자체 정보통합 및 적절한 공간정보 기술의 활용의 통합적이고 시의적절한 상호조화의 노력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교훈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 >> 제8차 한·중 토지정책세미나

The 8th Joint Seminar on Land Policy between China and Korea

■ 일시 : 2008. 11. 3 ■ 장소 : 국토연구원 중회의실

### ■ 참석자

**한국** 박양호(국토연구원 원장), 김영표(국토연구원 부원장), 채미옥(국토연구원 토지·주택연구실장), 배순석(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수옥(국토연구원 연구위원), 강미나(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최수(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정희남(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지대식(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최혁재(국토연구원 연구위원), 김근용(국토연구원 연구위원), 김승중(국토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손학기(국토연구원 책임연구위원), 권태정(국토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박천규(국토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송하승(국토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전성제(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중국** 우츠팡(저장대학교 동남토지관리학원 원장), 박인성(저장대학교 교수), 차오위(저장대학교 부교수), 리앤(저장대학교 부교수), 한하오잉(저장대학교 강사), 황후이링(저장대학 건공학원 부교수)

### ■ 발표내용

1. 중국 생태주택의 발전과 평가체계 구축  
- 차오위(저장대학교 교수)
2. 한국의 인구·가계자산 구성 변화와 부동산시장의 영향  
- 이수옥(국토연구원 연구위원)
3. 하얼빈시 경제적용주택의 현황조사와 분석  
- 황후이링(저장대학교 부교수)·한하오잉(저장대학교 강사)
4. 고령화, 저출산 및 주택보급 확대에 대응한 주택공급체계 개편방향  
- 배순석(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5. 중국의 주택복지 정책에 대한 고찰: 경제적용주택과 저가임대주택  
- 리앤(저장대학교 부교수)
6. 노인가구 주거실태 및 주거의식 현황  
- 강미나(국토연구원 연구위원)

### ■ 개최목적

본 국제세미나는 중국 저장대학 동남토지관리학원과의

연구협약에 따른 양국의 토지정책에 관한 공동연구의 일환으로 개최되었다.

### ■ 주요 내용

이번 국제세미나에서는 중국 측에서 3개, 한국 측에서 3개, 총 6개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제1주제는 차오위(曹宇) 교수가 “중국 생태주택의 발전과 평가체계 구축”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하였으며, △ 중국 주택정책의 역사 연혁, △ 중국 생태주택(生態住宅)의 발전 현황, △ 중국 생태주택 기술평가 및 표준 등이 주된 내용이다.

제2주제는 국토연구원의 이수옥 연구위원이 “한국의 인구·가계자산 구성 변화와 부동산시장의 영향”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하였으며, △ 부동산정책과 인구·가계자산 변화에 대한 문제인식, △ 인구·가계자산 구성과 베이비붐 세대(Baby Boomers), △ 베이비붐 세대의 가계자산 보유형태 변화 및 주택시장 파급효과, △ 베이비붐 세대의 주택소비형태 전망과 정책방향 등이 주된 내용이다.

제3주제는 황후이링(黃輝玲) 교수와 한하오잉(韓昊

英) 교수가 “하얼빈시 경제적용주택 현황 조사 및 분석”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하였으며, △ 하얼빈시 경제적용주택 발전현황, △ 하얼빈시 경제적용주택 건설 현황, △ 향후 경제적용주택의 개선사항 등이 주된 내용이다.

제4주제는 배순석 선임연구위원이 “고령화, 저출산 및 주택보급 확대에 대응한 주택공급체계 개편방향”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하였으며, △ 인구·사회적 변화와 주택보급 추이, △ 주택공급체계의 개편방향 등이 주된 내용이다.

제5주제는 리엔(李艷) 교수가 “중국의 주택복지 정책에 대한 고찰: 경제적용주택(經濟适用房)과 저가임대주택(廉租房)”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하였으며, △ 경제적용주택의 현 실태와 현존하고 있는 문제점 및 그 원인 분석, △ 저가임대주택의 현황과 그 실시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점 등에 대해서 살펴보고, 중국 도시주택복지제도의 제정 및 조정은 반드시 국가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제6주제는 강미나 연구위원이 “노인가구 주거실태 및 주거의식 현황”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하였으며, △ 노인가구 주거실태, △ 노인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 등이 주된 내용이다.

### ■ 시사점

국토연구원과 동남토지관리학원은 2001년 이래 7년 동안 양국의 토지시장과 토지제도에 대한 공동연구를 추진해 왔다. 그동안의 교류는 양 연구기관 간의 이해 증진뿐만 아니라, 학문적, 이론적, 실천적인 측면에서도 큰 성과가 있었으며, 더 나아가 한국과 중국 간의 교류확대에도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연구협약서’에 따라 2007년에는 “토지정책의 중앙-지방정부 간 역할분담과 집행체계”에 대해, 그리고 2008년에는 “부동산시장의 여건변화와 주택정책”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다. 이번 세미나는 한·중 부동산시장의 여건변화, 그리고 양국의 주택정책을 파악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

## >> 제17차 한·일 건설경제워크숍

The 17th Korea-Japan Joint Workshop on the Construction Economy

■ 일시 : 2008. 11. 12~11. 14 ■ 장소 : 제주 엘리시안

### ■ 참석자

**한국** 김영표(국토연구원 부원장), 손경환(국토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 윤희중(국토연구원 연구위원), 김성일(국토연구원 연구위원), 김민철(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구정은(국토연구원 연구위원), 김흥수(한국건설산업연구원 원장), 두성규(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빈재익(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일본** Shigeo Kondo(일본건설경제연구소 이사장), Toshiro Matsushita(일본건설경제연구소 상무이사), Hiroshi Oshima(일본건설경제연구소 상무이사), Keiichi Yanagisawa(일본건설경제연구소 연구원), Shinya Watanabe(일본건설경제연구소 연구원), Souichi Isono(일본건설경제연구소 연구원), 안상경(일본 도요대학교 교수)



## ■ 발표내용

1. 건설경기 동향
  - 윤하중(국토연구원 연구위원)
2. 거시동향 및 건설경기
  - Hiroshi Oshima(일본건설경제연구소 상무이사)
3. 해외건설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 개선 방안
  - 김성일(국토연구원 연구위원)
4. 건설기업과 해외건설 시장
  - Hiroshi Oshima(일본건설경제연구소 상무이사)
5. 한국의 주택 및 부동산 시장 동향
  - 두성규(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6. 건설사업 이윤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요인과 위험분산
  - Toshiro Matsushita(일본건설경제연구소 상무이사)

## ■ 개최목적

본 워크숍의 목적은 한국과 일본 양국 간의 건설경제 분야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고 우호를 증진하는 데 있다.

## ■ 주요 내용

Session I에서는 윤하중 연구위원이 한국의 거시경기와 건설산업의 동향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한국의 2008년 3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3.9%에 그쳤다. 전 세계적 금융위기와 내수부진

으로 2009년 경제성장률은 3.6%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2008년 총 건축허가는 전년대비 19.2%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2009년에는 총 건축허가가 4.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2주제로는 일본건설경제연구소의 Oshima 상무이사가 일본의 거시 경기 및 건설경기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일본은 2007년 1분기 이후, 실질 GDP성장률 감소가 본격화되었다. 2008년 10월 현재 주가지수는 세계 주식시장 침체로 인해 1만 엔 아래로 떨어졌다. 2008년 실질 경제성장률은 0.4%, 2009년에는 1.0%로 전망된다. 2008년 건설투자는 전년대비 1.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Session II에서는 김성일 연구위원이 한국 정부의 해외건설 지원 정책 개선방안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신규 개발시장을 다각화하고 신규 시장진입 기업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다음으로 해외시장에 진입하는 중소기업들에 대한 체계적 지원 방안으로서, 종합적 정보제공, 해외건설인력 육성 지원, 그리고 R&D 투자 지원 등을 강조하였다.

제2주제로는 일본건설경제연구소의 Oshima 상무이사가 일본 건설기업과 해외건설 시장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일본 내수시장의 경쟁 심화와 기술경쟁력 우위로 인하여 일본기업의 해외건설 진출이 2002년 이래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일본 건설사들의 해외 진출 전략은 신중한 진출대상 국가 선정, M&A를 통한 시장 네트워크를 강화, 종합적인 위험관리를 통한 수익성을 개선, 그리고 기술경쟁력 우위를 앞세운 가격경쟁 강화 등이다.

Session III에서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두성규 연구위원이 한국의 주택 및 부동산 시장 동향과 전망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최근 한국 부동산시장은 가격 급락과 거래위축으로 침체에 접어들었다. 따라서 정부는 다양한 규제완화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리고 건설기업들도 위기대응 체제를 정비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제2주제로는 일본건설경제연구소의 Matsushita 상무이사가 건설프로젝트의 수익률 요인과 위험분산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건설 프로젝트의 수익성 악화 요인들은 발주자 요인과 수주자 요인으로 분류된다. 발주자 요인들로는 설계결함, 설계변경에 따른 대응 부족, 보존지역에서의 허가지연 등이다. 수주자 요인들로는 발주자와의 협력 부족, 지역주민과의 협력 지연, 공정 계획 및 관리, 노동력과 자재의 조달 등이다.

### ■ 시사점

일본에서는 미분양 해소에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시장에 전적으로 맡겨 놓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분양가격의 조정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미분양이 해소되므로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인위적인 정부 개입은 오히려 건설산업의 구조조정을 저해하고 불공정 거래를 조장하는 등의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한국에서도 미분양 해소를 위한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해외건설기업은 가급적 국산 장비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불필요한 위험 부담을 최소화하고 자국 기술자의 고용을 증진하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한국의 해외건설기업들도 국산 장비 사용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 2. 국제연수교육

국토연구원은 매년 개발도상국 중견공무원들을 초청, 한국의 국토정책 수립 집행 경험을 공유하고 관련 지식과 기술을 전수하는 연수 과정을 운영하여, 개도국의 공간정책 수립 집행 능력제고 및 이에 필요한 인재양성에 기여하고 있다. 2008년에는 중남미(과테말라, 페루), 아시아(인도네시아, 몽골, 필리핀, 베트남), 아프리카(에티오피아, 탄자니아, 코트디부아르, 이집트), 구소련 국가(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우즈베키스탄)를 포함하여 총 23개국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도시 및 지역개발, 토지, 주택정책에 관련된 연수과정을 총 세 차례 운영하였다. 특히 2008년 10월에는 이라크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지역개발정책 수립' 연수과정을 실시하여 '새마을운동'을 포함한 각종 지역개발정책 노하우를 전수하는데 이바지하였다.

### >> 2008 도시 및 지역개발정책 과정

■ 기간 : 2008. 3. 13~3. 28 ■ 장소 : 국토연구원

#### ■ 참석자

Hor Malin(프놈펜 시청, 캄보디아), Bola Susan Lambe(환경주택도시개발부 부국장, 나이지리아), Bounthong Keohanam(주택도시개발부 부국장, 라오스), Luz Mariella Bueno(리마시청, 페루), Andrea Patricia Velasquez Monge(과테말라시청, 과테말라), Albert Lazare Seka Nguia(도시계획부 국장, 코트디부아르), Gayrat Rasulov(타슈켄트시청, 우즈베키스탄), Mohamed Abdel-Kader Sweedan(주택건설연구센터 연구원, 이집트), Arief Noviar Sugito(국제협력부 팀장, 인도네시아), Hassen Endre Neima(건설계획부 팀장, 에티오피아), Batbaatar Batmunkh(울란바토르 건설개발계획부 도시계획사무관, 몽골), Ainur Abildina(지역금융센터 과장, 카자흐스탄), Nicholas Jonas Nakaseae(토지주택개발부 도시계획 사무관, 탄자니아), Zacarias Abrogena Abanes(주택도시개발위원회 국장, 필리핀), Vangharshak Nkrтчhyan(에레반 시청 건축허가담당 과장, 아르메니아)

#### ■ 주요 내용

전 세계 15개국 국토 개발 분야 중견 공무원 총 15명이 참가한 가운데 실시된 본 연수 프로그램은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 한국의 국토·토지·주택·SOC정책 등 총 8개 전문 강의와 관련 기관 견학, 3일 일정의 산업시찰 등으로 이루어졌다.

연수 참가자들은 전문 강의에 이어 한국의 신도시 사례지인 분당 신도시를 둘러보았으며 한국도로공사 교통정보센터에서는 전국 고속도로체계와 관리 및 기술을 직접 체험하였다.



산업시찰 기간 동안 포스코,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을 방문하여 한국의 대표적인 산업시설을 둘러보았

으며 전통과 문화의 도시 경주를 방문하여 한국의 전통 문화를 접할 기회를 가지기도 했다. 이로써 참가자들은 한국의 경제 상황과 한국의 전통 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한층 더 넓힐 수 있었다.

‘도시 및 지역개발 정책’ 과정은 참가자들로 하여금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을 공유하고 국토개발 관리, 주택, 신도시 개발 등에 대한 선진 기술과 전략을 전수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아울러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활발한 교류와 토론을 통해 참가자 간 깊이 있는 의견 교환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 >> 토지정책 및 주택정책 과정

■ 기간 : 2008. 6. 19~7. 4 ■ 장소 : 국토연구원

■ 참석자

Bairu Desta Beyene(도시개발부 금융팀장, 에티오피아), Woldehanna Sissay Dejene(도시개발부 토지정보팀장 에티오피아), Nursanthayasto Bimo Adi(기획총무부 과장, 인도네시아), Phengdouang Vinh(토지개발계획부 과장, 라오스), Simmavong Noukone(토지개발계획부 부국장, 라오스), Batmunkh Zagdsambar(토지행정부 사무관, 몽골), Chadraabal Ochir(토지행정부 사무관, 몽골), El Ouadghiri Mourad(주택토지개발부 과장, 모로코), El Ouardirhi Majida(주택토지개발부 국장, 모로코), Dineros Rowena Prado(주택도시개발부 기획사무관, 필리핀), Ontina Eutemia Bernales(필리핀주택공사 영업부 과장, 필리핀), Mashigala Joseph Nsabi(주택토지개발부 부국장, 탄자니아), Mtui Lamech Andrea(주택토지개발부 도시계획 사무관, 탄자니아), Nho Phung Van(하노이 토지개발관리위원회 과장, 베트남), Phung Tien Anh(하노이건축대학교 강사, 베트남)

### ■ 주요 내용

전 세계 8개국 국토 개발 분야 중견 공무원 총 15명이 참가한 가운데 실시된 본 연수 프로그램은 한국의 토지와 주택정책에 초점을 맞춰 총 9개 전문 강의와 관련 기관 견학, 3일 일정의 산업시찰 등으로 이루어졌다.

연수 참가자들은 전문 강의에 이어 한국의 신도시 사례지인 분당 신도시와 은평뉴타운 택지개발현장을 둘러보았다. 또한 3일 일정의 산업시찰 기간 동안 현대자동차, SK에너지, 월성원자력 발전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을 방문하여 한국의 대표적인 산업시설과 공공기관을 둘러보았으며 전통과 문화의 도시 경주를 방문하여 한국의 전통 문화를 접할 기회를 가지기도 했



다. 이로써 참가자들은 한국의 토지 및 주택정책의 발전 상황과 한국의 전통 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한층 더 넓힐 수 있었다.

‘토지정책 및 주택정책’ 과정은 참가자들에게 우리나라의 토지정책과 주택 정책을 전수 받아 참가국의 관련 정책 개발 및 계획 수립 역량을 배양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더 나아가 향후 토지개발 및 주택건설사업, 토지관련 정보화사업 등에 우리나라가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연수 참가자들은 자국이 겪고 있는 토지·주택 분야의 문제점 및 애로사항에 대한 토론을 통해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참가국의 관련 분야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 아울러 한국과 참가국 간 상호 국제협력을 더욱 증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 >> 지역개발정책 과정

■ 기간 : 2008. 10. 14~10. 26 ■ 장소 : 국토연구원

### ■ 참석자

Asad Sami Qasim QASIM(수석 엔지니어, 주택건설부), Haiyder H. Mohamed AL-ZAHALIL(국장, 디야나 지역개발계획부), Younis M DHAHIR(건축 엔지니어, 살라하딘 지역개발계획부), Mohammed Hashim. M.K. ABDULA(선임 엔지니어, 지역개발계획부), Imad Kadhim Oudah ALHASHAM(통계 사무관, 지역조사부), Haider Oudah Hussein AL-JUBOORI(도시계획 엔지니어, 지역개발계획부), Zinah Mustafa Atta ATTA(엔지니어, 바그다드시 도시계획과), Maha Taha Ahmed AL-AZZAWI(수석 엔지니어, 바그다드시 도시계획과), Hashim Marzoog Ali ALI(교수, Moheer-Kerbala대학교 국제경제학과), Abdulzahra Mohammed Waheed WAHEED(국장, 정보기술홍보부), Ali Salim Neamah AL-ABBOODI(법률 사무관, 지역개발계획부), Ahmed Ausama Ahmed AHMED(과장, 지역개발계획부), Mohammed Ayden Omer Omer(과장, 지역개발계획부), Mushtaq Talib Mohammed MOHAMMED(회계사, 안바르 지역개발환경부), Hussam Ali Mahmood(법률 사무관, 디알라 지역개발계획부), Laeth Hadei Manshed AL-ASEMEI(강사, Moheer대학교 토목공학과)



### ■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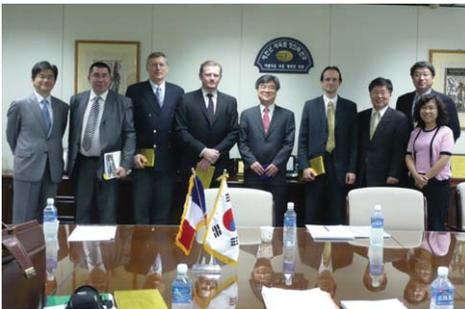
지역개발 분야에 있어서 축적된 정책 수립 노하우를 전수함으로써 전후 복구 및 재건 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이라크를 지원하기 위해, 국토연구원은 2003년 이후 매년 이라크 중앙 및 지방정부 공무원을 초청하여 한국의 국토정책 경험과 사례를 소개하는 연수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2008년은 이라크 각 지방 공무원을 비롯하여 각 부처의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는 사무관 16명이 연수에 참가하였다.

총 13일 일정의 교육을 통해 한국의 국토정책, 토지 정책, 주택정책, 인프라구축정책, 낙후지역 및 농촌 개발 전략 등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이 시도한 다양한 공간 정책과 제도를 배우고, 송도 신도시 사업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한국토지공사 등 관련 현장과 기관을 방문하여 한국의 국토정책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기회를 가졌다. 특히, 참가자들은 '새마을연수원'에서 제공하는 1박 2일 교육과정을 통해 새마을운동의 의의와 관련 경험 및 지식을 전수받는 뜻 깊은 시간도 가졌다.

이외에도 연수 참가자들은 주요 공공기관 방문과 다양한 전통문화 체험을 통해, 한국의 경제성장 동력과, 수준 높은 한국의 고유문화에 대한 이해를 폭을 넓힐 수 있었다. '지역개발 정책' 과정을 통해 참가자들은 이라크 전후 복구 재건사업을 위한 보다 효율적인 정책 수립 집행 역량을 배양하게 되었음은 물론 양국 간 상호 이해의 폭을 확대하여 앞으로 한국과 이라크 간 협력 기반을 더욱 강화하고 우호관계 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3. 국제학술교류

#### ■ 프랑스 국토환경부 국장 간담회



프랑스 국토환경부 소속 경제·대외협력국장, 아시아 담당팀장, 국립교통안전연구소 대표, 주한프랑스대사관 상무관 일행이 2008년 5월 21일 내원하여 김영표

부원장과 지속가능한 개발 관련 연구동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향후 연구협조 방안도 논의했다.

#### ■ OECD 경제검토위원회(EDRC) 미션단 내원

2008년 7월 9일 경제협력기구 경제검토위원회 소속 로버트 포드 OECD 경제총국 경제검토국장을 필두로 한국경제검토회의의 미션단이 본원을 방문하였다. 주택 분야를 주제로 하여 본원의 관련분야 연구원과 면담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자료요청에 적극 협조하였다.

참고로 OECD 경제검토위원회는 OECD 30개 회원국 및 주요 비회원국의 거시경제상황 및 구조개혁정책을 분석·검토하고 정책방향을 권고하는 기구다.

### ■ 국토연구원-세계은행연구소(WBI) 공동세미나 개최



본원은 개도국 지역개발 지원을 위한 전략 수립을 위하여 세계은행연구소와 공동 협조방안을 모색하고자 2008년 10월 29~30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공동 세미나를 열었다.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태국,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11개국 중앙부처 국장급 공무원 13명, 국토연구원을 포함하여 연구기관 및 대학교 소속 연구원 및 교수가 참여했다.

첫째 날 세미나에서는 인더미트 길 세계은행연구소 수석경제학자의 “성장과 지역개발을 위한 전략관리”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최성수 세계은행연구소 도시경제 선임연구원의 “공간개발과 형평성” 주제발표로 마무리되었다.

둘째 날에는 국토연구원 김원배 연구위원의 “지역개발에 미치는 도시정책의 영향력”,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박삼욱 교수의 “한국의 지역개발 정책집행: 과거경험과 향후발전 방향” 주제발표 후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시간을 가졌다.

### ■ 베트남 사절단 내원



2008년 11월 24일 베트남 개발전략연구소 연구원과 베트남 투자기획부 공무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베트남 사절단은 “베트남 경제개발비전 2020” 수립을 위한 한국의 경험을 공유하고자 본원을 방문하였다.

국토연구원장 환담 및 본원 소개를 시작으로 국토종합계획, 기간교통망계획, 토지정책변화과정, 공간DB 구축 등 4개 주제발표가 있었다.



# IV 연구지원사업

1. 개원 30주년 기념행사 개최	104
2. 「상전벽해 국토60년」 발간	106
3. CI 개편	107
4. 「국토연구원 30년사」 발간	107
5. 제7회 국토연구 우수논문상 시상	108
6. 제13회 전국 초등학교생 국토사랑 글짓기 대회 개최	109
7. 연구관련 주요 행사·교육	110

# 1. 개원 30주년 기념행사 개최

2008년 10월 4일로 국토연구원이 개원 30주년을 맞이하였다. 이에 국토연구원의 지나온 발자취를 되짚어보고 새로운 30년을 준비하는 '제2의 개원'의 출발점으로 삼고자 지난 10월 1일 '국토연구원 개원 30주년 기념행사 및 CI 선포식'을 개최하였다.

## ■ 지난 30년, 새로운 30년을 위한 "제2의 개원"

박양호 국토연구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지난 30년 동안 국토연구원을 위해 노력해주신 분들에 대한 감사에 이어 "개원 30주년이 되는 오늘은 국토연구원의 새로운 30년이 시작되는 날이기도 하고 제2의 도약을 시작하는 날이다"라며 행사의 의의를 밝혔다. 또한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를 받기 위해 창조모드, 실용모드, 글로벌 모드, 그리고 통합모드를 융합하여 초우량 국책연구기관이 되고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녹색성장 패러다임을 포함하여 한국형 국토발전모형을 정립하고 국토대예측 연구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국토연구원의 30년 발자취와 도전'을 주제로 국토연구원이 자체 제작한 영상이 상영되었다. 이 영상에서는 1978년 박정희 대통령의 국토연구원 설립 재가를 시작으로 30년간 국토연구원이 수행한 국토정책의 역사를 보여주었다. 국토연구원은 설립 이후, 외국에 의존하던 국토계획을 직접 계획하는 등 국민들의 삶 가까이에 있는 지역, 환경, 도시, 주택, 교통, SOC

등 관련 분야의 성장발전과 궤를 함께해왔다. 7분여의 짧은 영상이었지만 지난 30년간 2천여 건이 넘는 공간 계획을 수립하는 등 우리나라의 대표적 싱크탱크로 자리매김해온 국토연구원의 성장과정을 비롯해 향후 비전과 각오를 영상에 담아냈다.

## ■ 향후 30년의 비전을 담은 CI 선포

CI 제막식에서는 제2의 개원을 준비하고 앞으로 30년의 비전을 담은 새 CI가 선포되었다. 국토연구원은 새 CI 제작을 위해 지난해 T/F를 결성했으며 그동안 3회에 걸쳐 원내외의 이미지 설문조사, 4회의 디자인 설문조사를 비롯해 CI관련 전문가인 안정연 서울산업대학교 교수 등을 위촉해 자문회의를 개최하는 등 국토연구원 직원 및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지난 9월 새 CI를 결정하였다.

국토연구원의 새로운 CI는 녹색동지, 보금자리, 씨앗, 배아 등을 모티브로, 무한한 잠재력을 품고 새로운 가치가 움트는 모습을 함축적으로 형상화했다. CI 제막식에서는 새로운 CI를 함축적으로 표현한 시를 성우 김성현이 낭독하고 새로운 CI의 여러 응용디자인을 함께 상영하기도 하였다.

## ■ 축하와 격려

이날 행사를 축하하기 위해 이명박 대통령이 축하연설





문을 보냈으며,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대독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우리 국토의 효율적인 개발과 보존을 위해 노력해 오신 연구원의 모든 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 그동안 국토 이용과 관련한 다양한 청사진을 제공하여 우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라며 지금 우리가 지향하는 선진 일류국가 달성을 위해서는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갖고 세계를 바라보는, 전향적인 국토 정책의 틀을 새로 마련할 때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친환경과 성장을 동시에 이루고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백년대계의 국토종합개발 계획이 나와야 한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녹색성장’과 ‘광역경제권 구상’ 이야말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전략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필요한 인프라를 최대한 지원할 것이며 국토연구원이 앞으로도 미래 지향적이고 균형 잡힌 국토개발종합정책을 선도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세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과 노용희 국토연구원 초대 원장의 내빈축사가 진행되었다. 김세원 이사장은 “지난 30년 전과 비교해 볼 때, 우리 국토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변해 있다.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있어, 우리의 삶의 터전인 국토를 연구하고 계획하는 국토연구원의 역할은 더욱 더 중요해지고 있으며, 삶의 질이 보장되는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국토, 저탄소 녹색성장을 기반으로 하는 환경국토, 재해

에 안전한 국토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

초대원장을 역임한 노용희 원장은 축사를 통해 개원당시를 회상하며 국토연구원의 의미를 되새겨 앞으로 국토연구원 제2의 개원 차원에서 국토 연구에 힘써주시기를 당부했다.

### ■ 국토의 하모니, 합창단 공연



행사의 대미를 장식하는 국토연구원 합창단의 축하공연이 이어졌다. 국토연구원 합창단은 개원 30주년을 맞이하여 참신하고 신명나는 직장문화 조성과 활기찬 연구원 분위기를 조성하여 연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08년 5월 창단하였다. 이상건 연구위원 등 총 36인으로 구성된 국토연구원 합창단은 그동안 주 1회 정기연습과 월 1회 집중연습을 통해 개원 30주년 기념 공연을 준비해왔다. 이날 행사에서는 축하곡으로 ‘아름다운 강산’, ‘향수’, ‘울릉도 트윈스트’, ‘뮤지컬’ 등을 열창하여 청중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 2. 「상전벽해 국토60년」 발간

2008년 10월 1일 개최된 개원 30주년 기념행사에서는 지난 60년간 전개된 국토의 현대사를 새롭게 정리하고, 미래의 국토 위상을 재정립하고자 기획된 「상전벽해 국토60년」을 배포하여 참석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상전벽해 국토60년」은 현 시대를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간 우리 국토의 개발과 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과 사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책자다. 전후(戰後)의 척박한 국토 여건을 딛고 오늘날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에 이르기까지 국토정책의 전반적 흐름을 간접적인 체험을 통해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역작이며, '정책편'과 '사업편'으로 구분해 두 권의 책자로 발간되었다.

'정책편'은 국토개발의 주요 성과를 국토기반, 국민생활 환경개선, 교통망 등 인프라 확충, 국토종합계획, 북한국토정책 등을 13개 장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지난 60년 동안 이루어진 우리 국토의 개발과 보전에 관해 기술하였으며, 시대별 국토정책의 핵심사항과 전반적인 흐름을 정리한 후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하는 형태로 되어 있다.

'사업편'에서는 지난 60년간 국토변화에 영향을 끼친 주요 국토개발사업 26개를 선정하여 개개 사업의 추진경위와 주요 내용을 정리하였다. 여기에 제시된 사업들은 우리나라 국토개발사에 각기 전환점을 이룰 수 있는 것들로 한때 우리나라 개발사업을 주도하였던 토지구획정리사업과 농촌새마을사업을 비롯해 현재 진행 중인 도시재생사업, 신도시건설사업 등 여러 분야의 사업들을 소개하고 있다. 사업별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작성하여 이해도를 높였고 사업에 대한 성과와 과제라는 항목을 설정하여 향후 국토정책 및 개발사업의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독자로서 국토의 미래에 대한 고찰을 할 수 있게 편집되었다.

「상전벽해 국토60년」은 국토연구원이 지난 1996년 「국토 50년사」를 발간한 이후 12년 만에 다시 국토의 현대사를 새롭게 정리하고 미래의 국토 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해 기획단계부터 새로운 시도를 거듭하였다.



우선, 기획단계부터 많은 논의를 통해 기존 역사서와는 달리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책으로 만들어졌다. 고급적 사진과 그림을 많이 실어 잡지 등 일반 간행물에서 접할 수 있는 디자인을 도입한 편안한 책자형태로 발간되었다. 또한, 정책편과 사업편으로 나누어 발간함으로써 독자들이 궁금한 부분을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고려하였다.

상전벽해의 우리 국토 변화상을 담은 이 책자는 비록 변화된 국토의 진면목을 다 보여주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국토의 이용과 보전에 관한 우리의 열정과 성과를 되돌아보고 새로운 방향과 미래에 대한 도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다.

### 3. CI 개편

국토연구원은 개원 30주년을 기념하고 '국토정책을 선도하는 초우량 국책연구기관'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의지를 대내외에 표방함은 물론 지식정보화 흐름에 대응하여 창의적이며 실용적인 국토정책연구로 생태적·문화적·국제적인 한국형 국토발전모델을 정립하고 글로벌 선도 싱크탱크로 발돋움하는 역량과 위상을 널리 알리고자 새로운 CI를 제정, 2008년 10월 1일 선포하였다.

새롭게 만들어진 국토연구원 CI는 보금자리, 씨앗, 녹색동지, 배아 등 따뜻하고 감성적인 이미지를 모티브로, 무한한 잠재력을 품고 새로운 가치가 움트는 모습을 함축적으로 형상화했으며, 과거로부터 현재, 미래로 이어지는 우리 삶의 터전인 국토와 그 터전 위에서 새로운 가치를 탄생시키고 키워가는 국토연구원의 모습을

을 상징화했다. 또한 대자연과 생명의 힘을 상징하는 녹색의 주조색을 밝은 빛을 품고 있는 듯한 모습으로 시각화하여 '녹색성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가고자 하는 국토연구원의 의지를 표현했다.



### 4. 「국토연구원 30년사」 발간

2008년 10월 1일 개최된 개원 30주년 기념행사에서는 「국토연구원 30년사」도 발간, 배포되었다. 「국토연구원 30년사」는 1978년 국토연구원 개원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국토연구원의 30년 역사를 총망라한 연구원 사로 국문판과 영문판으로 나뉘어 발간되었다.

‘사진으로 보는 30년사’에서는 지난 30년간 개최된 각종 행사를 사진을 통해 일목요연하게 정리했으며, ‘향후 30년에 바란다’에서는 전임 원장 및 부원장, 관계자들이 바라는 국토연구원의 미래상을 담았다. ‘원로에게 듣는다’에서는 국토연구원의 연구성과, 국토연구원에 바라는 점, 향후 국토정책 방향 등에 대해 각계 각층의 원로를 인터뷰하였고, 해외 석학들이 보내온 30여 편의 개원 30주년 축사도 함께 게재되어 있다.

또한 국토개발의 전개과정과 연구실적을 국토·지

역, 국토환경·문화, 도시, 토지, 주택, 교통, 건설경제, 국토정보, 동북아 분야로 나뉘어 정리했으며 그동안의 주요 행사와 국내외 활동 등 국토연구원 30년의 역사가 모두 수록되어 있다.



## 5. 제7회 국토연구 우수논문상 시상

국토연구 우수논문상은 국토관련 연구의 질을 제고하고 연구의욕을 진작시키고자 마련한 제도로서 한 해 동안 게재된 논문 중 우수논문을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다. 국토연구 편집위원회에서는 지난 2008년 12월 우수논문상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2008년도 게재논문 43편을 심사하여 최우수상 1편, 우수상 3편을 선정하였다.

제7회 국토연구 우수논문상의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논문은 “광역경제권 설정 대안에 따른 제조업 생산성

비교분석 : 비용함수-누적공간효과모형의 적용”이고, 우수상으로 선정된 논문은 “최저주거기준과 최저주거비부담을 고려한 주거복지정책 소요추정”, “Effects of Built Environmental Factors on Perceived Health Status and Health Disparity”와 “부동산정책이 아파트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다. 시상식은 2009년 3월 4일 국토연구원에서 개최되었다.

국토연구 우수논문상은 지난 2002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수상자들에게는 연구장려금과 상패가 수여된다.



### ■ 제7회 국토연구 우수논문상 시상내역

구분	연구자	논문제목
최우수상	김아영(국토연구원 동북아발전연구센터 연구원) 윤성도(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석사과정) 김의준(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광역경제권 설정 대안에 따른 제조업 생산성 비교분석 : 비용함수-누적공간효과모형의 적용
우수상	김혜승(국토연구원 토지·주택연구실 연구위원) 김태환(국토연구원 토지·주택연구실 연구위원)	최저주거기준과 최저주거비부담을 고려한 주거복지정책 소요추정
	김은정(국토연구원 동북아발전연구센터 책임연구원)	Effects of Built Environmental Factors on Perceived Health Status and Health Disparity
	서수복(초당대 부동산학과 겸임교수)	부동산정책이 아파트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6. 제13회 전국 초등학생 국토사랑 글짓기 대회 개최

이 땅의 어린이들에게 삶의 터전인 국토의 중요성과 환경 보존의 필요성을 일깨우기 위해 마련한 국토사랑 글짓기 대회가 제13회를 맞이하였다. 이번 대회에는 총 3,415편의 작품이 응모하여 3차에 걸친 엄격한 심사를 거친 결과 대상 1편, 금상 2편, 은상 4편, 동상 50편, 단체상 3개교, 지도교사상 3인, 장려상 300편이 선정되었다. 이번 대회의 시상식은 2008년 11월 2일 열렸으며,

대상을 국토해양부장관상으로 격상하여 대회의 위상을 제고하기도 하였다.

- 주최: 국토연구원, 대한주택공사, 소년한국일보사
- 후원: 국토해양부, 교육과학기술부
- 응모기간: 2008. 8. 25~9. 30
- 시상식: 2008. 11. 2, 국토연구원 강당



### ■ 개인상(대상, 금상, 은상) 수상자 명단

구분	학교	학년	이름	제목
대상	서울 계성	6	심민경	작은 생명이 나에게 주는 교훈
금상	마산 신월	1	이재은	흙이 배가 아파요
	의정부 민락	6	정다정	아름다운 서해안을 꿈꾸며...
은상	완주 구이	2	신호정	자랑스런 우리 강산, 우리 마을
	인천 경인교대부설	3	임지수	우리 집이 좋아요
	제주 백록	3	이현주	내 사랑 곳자왈
	창원 일동	6	이민영	할머니의 논

### ■ 단체상

구분	학교
대상	서울 삼육초등학교
금상	함안 가야초등학교
은상	서울 상명사대부속초등학교

### ■ 지도교사상

구분	학교	성명
대상	서울 계성초등학교	신상동
금상	완주 구이초등학교	김귀자
은상	서울 가동초등학교	윤종남

## 7. 연구관련 주요 행사 · 교육

국토연구원은 연구성과의 질적인 향상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워크숍, 세미나 등 다양한 형태의 연구관련 행사를 개최해왔다. 지난 2008년에는 총 71건의 워크숍, 34건의 세미나, 31건의 간담회, 19건의 설명회, 9건의 토론회, 3건의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연구성과를 확산함으로써 연구정보의 공유와 국민들의 알권리 충족에 기여하였다.

### 1) 워크숍

#### ■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KOPSS) 구축(2차) 워크숍

- 개최일 : 1.15~16
- 개최장소 : 3층 소회의실
- 주요내용 : 토지이용계획지원, 기반시설입지계획지원 등 분석모형 개발내용 점검 및 발전방안 토론

#### ■ 글로벌 시대의 국토정책과 동북아 도시 간 연계 · 협력 방안연구 전문가 워크숍

- 개최일 : 1.22
- 개최장소 : 6층 회의실
- 주요내용 : 동북아 도시 간 환경산업협력 및 FTA 현황과 전망

#### ■ 수도권 계획적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공동연구단 워크숍

- 개최일 : 1.23(1차), 3.7(2차), 5.29~30(3차), 7.2(4차), 12.10(5차)
- 개최장소 : 7층 회의실(1차), 서울교육문화회관(2차), 인천 오션사이드호텔(3차), 7층 회의실(4차), 2층 대회의실(5차)
- 주요내용 : 발주처(건교부 · 서울시 · 인천시 · 경기도) 연구보안 내용에 관한 의견 수렴 및 전문가 토론회 · 설문조사 실시계획 등 구체화 방안 논의(1차), 최종보고서 작성을 위한 수도권 계획적 관리 공동연구단 합동 토론 및 국제세미나 준비 점검(2차), 최종보고서 세부내용 검토 및 보완을 위한 합동작업 등 논의(3차), 수도권 관리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발주처 및 공동연구단 연구내용 협의 및 조정(4차), 발주처 및 공동연구단 최종보고서

(안) 공동검토 및 보완사항 논의(5차)

#### ■ 제3회 국가GIS 관계기관 워크숍

- 개최일 : 1.24~25
- 개최장소 : 한국토지공사 대전연수원
- 주요내용 : 2008년도 국가GIS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적 추진방안 모색

#### ■ 국토 및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법적분쟁 실태와 대처방안 워크숍

- 개최일 : 1.28
- 개최장소 : 한국부동산연구원
- 주요내용 : 계획법 이론 및 관례분석기법 청취 · 토론

#### ■ 글로벌시대의 국토정책과 동북아도시 간 연계 · 협력방안 연구 전문가 워크숍

- 개최일 : 1.28
- 개최장소 : 6층 회의실
- 주요내용 : 동북아 도시 간 관광협력과 환황해 교류 역사 토론

#### ■ 이용자 맞춤형 대중교통 서비스 기술개발 워크숍

- 개최일 : 1.31~2.1(1차), 4.24~25(2차), 6.26~27(3차)
- 개최장소 : 대전 호텔스파이어(1차), 태안 오션캐슬(2차), 안양 블루몬테(3차)

#### ■ 국토공간정보 인프라 구축 워크숍

- 개최일 : 2.26~27
- 개최장소 : 천안 상록리조트

- 주요내용 : 건교부에서 추진 중인 국토통합정보시스템 구축방향에 대한 설명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 ■ 지능형 도시 지하시설물 관리기술 개발 연구 워크숍

- 개최일 : 2.28~29
- 개최장소 : 제주 씨에스호텔
- 주요내용 : 연구사업 중간점검 및 연구 참여한 간 연구결과 공유

#### ■ 밀양첨단과학산업단지 개발구상 및 추진전략에 관한 워크숍

- 개최일 : 3.3~4
- 개최장소 : 부산 한화콘도

#### ■ 부동산시장연구단 워크숍

- 개최일 : 3.6~7
- 개최장소 : 담양리조트
- 주요내용 : 연구단의 장단기 운영계획 및 최근 부동산 시장 관련 이슈 등 토의

#### ■ 국토 및 건물통합정보 구축 제1차 기술워크숍

- 개최일 : 3.10~11
- 개최장소 : 대한주택공사 속초연수원
- 주요내용 : 국토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아키텍처 설계 및 실현방안 논의

#### ■ 도시재생 워크숍

- 개최일 : 3.14
- 개최장소 : 서울대
- 주요내용 : 지역파급효과를 고려한 사업우선대상지 평가기법 개발 논의

#### ■ 재해에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한 방재도시계획 수립 방안 연구 워크숍

- 개최일 : 3.14(1차), 5.22(2차)
- 개최장소 : 양평 남한강연수원(1차), 한국법제연구원(2차)
- 주요내용 : 연구방향 정립 및 연구진 간 역할분담 논의

- 의(1차), 연구수행결과 설명 및 향후 연구진행사항 논의(2차)

#### ■ 주거실태조사 워크숍

- 개최일 : 3.27~28
- 개최장소 : 강원도 속초
- 주요내용 : 2007년 주거실태조사 업무보고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 가구·주거 용어정리방안 등 논의

#### ■ 국토관리분야의 사회적 자본 확충방안(I) 워크숍

- 개최일 : 3.29(1차), 11.21~22(2차)
- 개최장소 : 제주대(1차, 2차)
- 주요내용 : 경관관리를 위한 수법 및 규제, 사례검토에 대한 의견 수렴(1차), 연구과제 최종 검토 및 2차 연도 연구내용 논의(2차)

#### ■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확산전략 연구 워크숍 및 전문가 자문회의

- 개최일 : 3.31(1차), 5.16(2차)
- 개최장소 : 3층 소회의실(1차), 강당(2차)
- 주요내용 : 연구내용 및 추진상황 점검, 광역시도 UPIS 표준시스템 구축방향 및 추진상황 점검(1차),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전국 확산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설명 및 지자체 의견수렴(2차)

#### ■ GIS기반 건물통합정보 구축방안 연구 및 시범사업 시범지자체 워크숍

- 개최일 : 4.2
- 개최장소 : 강당
- 주요내용 : 건물통합정보 구축 절차 및 기관별 역할 협의

#### ■ 커뮤니티재생 거버넌스 시스템 개발 워크숍

- 개최일 : 4.8~9
- 개최장소 : 보령 레그랜드편비치
- 주요내용 : 연구진행과정과 테스트베드선정지표 및 핵심성과지표(KPI) 작성 등 논의

■ 세계철도 기술수준 및 투자정책 동향분석 연구 워크숍

- 개최일 : 4.24
- 개최장소 : 3층 중회의실
- 주요내용 : 연구결과 보고 및 일반철도 정책방향 논의

■ 지역개발사업의 통합적 추진모형 구축 및 적용 방안 연구(I) 제2차 협동연구기관 워크숍

- 개최일 : 4.30(1차), 5.26(2차), 8.25~26(3차)
- 개최장소 : 3층 소회의실(1차), 2층 대회의실(2차), 가평군(3차)

■ 2008년도 국가 GIS 지원연구 통합워크숍

- 개최일 : 5.14
- 개최장소 : 2층 대회의실
- 주요내용 : 연구추진 방향 정립 및 8개 세부과제 간 협력적 추진 논의

■ 미래 도시정책방향 수립 연구 지역전문가 워크숍

- 개최일 : 5.20~21
- 개최장소 : 대전발전연구원
- 주요내용 : 각 지방도시의 도시현황 및 주요 정책현안 논의

■ 부여고도보존계획 워크숍

- 개최일 : 5.22~23
- 개최장소 : 부여군청
- 주요내용 : 부여고도보존계획 방향 실무협의

■ 기후변화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국토관리(I) 연구진 워크숍

- 개최일 : 6.5(1차), 9.4~5(2차), 9.22(3차)
- 개최장소 : 서울대(1차), 양주 송암천문대(2차), 2층 중회의실(3차)
- 주요내용 : 인벤토리 구축 관련 문제점 및 지역특성 지표에 관한 논의(1차), 기후변화 인벤토리 구축 관련 결과취합 및 지역별 특성 도출, 부문별 향후 연구 추진방향 논의(2차), 부문별·지역별 탄소배출량 산

정 방법 및 결과 논의(3차)

■ 도시재생사업단 2핵심과제 워크숍

- 개최일 : 6.6
- 개최장소 : 연세대
- 주요내용 : 도시재생사업단 3차연도 연구개발계획서 작성관련 논의

■ 기존의 산단 등 재정비 사업방식별 시행방안 연구 워크숍

- 개최일 : 6.12
- 개최장소 : 안양 블루몬테
- 주요내용 : 세부 추진과제별 진행사항 보고, 향후 연구 추진 계획 및 재정비 사업방식에 따른 효과 논의

■ 새만금 간척용지의 토지이용구상 조정방안 연구 3차 워크숍

- 개최일 : 6.17
- 개최장소 : 3층 중회의실
- 주요내용 : 도입가능 및 용지별 수요추정 등 전반적 연구내용 발표 및 토론

■ 향만 배후단지의 물류비즈니스모델 공동워크숍

- 개최일 : 7.8
- 개최장소 : 인천광역시의회
- 주요내용 : 향만 배후도시의 물류모형 국내외 사례 비교

■ 대구국가과학산업단지 개발 타당성조사 워크숍

- 개최일 : 7.10
- 개최장소 : 대전 레전드호텔
- 주요내용 : 추진상황 점검 및 개발구상안 내용 협의

■ 2008년 국가GIS 전문인력 양성사업 워크숍

- 개최일 : 7.11~12
- 개최장소 : 대구과학대
- 주요내용 : 국가GIS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토의

■ **공간정보산업진흥법(안) 워크숍**

- 개최일 : 7.15~16
- 개최장소 : 5층 회의실
- 주요내용 : 공간정보산업진흥법에 대한 해설서, 시행령과 시행규칙 작성

■ **대구 국가과학산업단지 개발타당성 조사 워크숍**

- 개최일 : 7.15~26
- 개최장소 : 대전 레전드호텔
- 주요내용 : 지구계, 규모, 수요, 개발구상 및 사업성 등 논의

■ **2008년도 도시계획의 신조류 해외연수 참가자 워크숍**

- 개최일 : 7.18
- 개최장소 : 3층 중회의실
- 주요내용 : 2008년도 도시계획의 신조류 해외연수 결과의 종합보고 및 토론을 통한 학습효과 제고

■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KOPSS) 구축(3차) 전국 지자체 워크숍**

- 개최일 : 7.22~25(1차), 10.8(2차), 12.23(3차), 12.29(4차)
- 개최장소 : 5.18기념문화센터 등(1차), 일산 KINTEX(2차), 3층 중회의실(3차, 4차)
- 주요내용 :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KOPSS) 개발 내용 설명 및 요구사항 수립(1차),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KOPSS) 데모프로그램 사용자 교육(2차),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KOPSS) 2D·3D 범용화 방안 및 중장기 확산계획 논의(3차, 4차)

■ **제4차 국토종합계획 재수정계획 수립연구 총괄 분과 워크숍**

- 개최일 : 8.7(1차), 12.5(2차)
- 개최장소 : 안양 블루몬테(1차), 강당(2차)
- 주요내용 : 제4차 국토종합계획 작성지침(안) 보완·수정 및 실시예정인 위탁용역의 과업내용 협의 및 작성(1차), 중간보고서(안) 검토 및 추가연구내용

협의(2차)

■ **2008 한국물류대상 심사위원회 업무협의회 및 워크숍**

- 개최일 : 8.9
- 개최장소 : 한국물류협회
- 주요내용 : 기업의 물류에로사항 및 물류비 절감방안 청취결과에 대한 논의

■ **지능형 도시 지하시설물 관리 기술개발 연구 워크숍**

- 개최일 : 8.12~13
- 개최장소 : 과천 그레이스 호텔
- 주요내용 : 협동연구기관별 최종보고서 작성 및 성과물 연계방안 협의

■ **u-City 법제도 및 지원정책 합동워크숍**

- 개최일 : 9.11(1차), 9.25(2차)
- 개최장소 : 3층 중회의실(1차),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2차)
- 주요내용 : 계획분과 및 기술분과 연구진행 사항 발표 및 토의(1차), 각 분야별 연구진행 사항 발표, u-City계획 수립 지침(안) 발표(2차)

■ **2008년도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워크숍**

- 개최일 : 9.19
- 개최장소 : 한국토지공사연수원
- 주요내용 : 토지이용규제 정보의 효율적 관리방안 모색

■ **2009년도 연구과제 발굴 원내외 전문가 워크숍**

- 개최일 : 9.30
- 개최장소 : 6층 회의실
- 주요내용 : 2009년도 연구과제 논의

■ **파주시 도시성장관리방안 수립연구 워크숍**

- 개최일 : 10.2~3(1차), 10.27(2차)
- 개최장소 : 초호심터(1차), 흥원연수원(2차)

- **주요내용** : 시나리오 설정 등 도시성장 관리방안 및 주요 연구결과에 대한 행정계획연계 등 협의(1차), 도시성장 총량 배분, 시나리오 설정 주요 연구결과 및 행정계획 연계 사항 등 협의(2차)

#### ■ 산지관리제도 개편방안 마련을 위한 워크숍

- **개최일** : 10.21~22
- **개최장소** : 청태산휴양림
- **주요내용** : 산지관리연구과제 간 유기적 협업체계 구축, 최근 산지관리제도 경향분석 및 적용방안 마련 등 논의

#### ■ 2008년도 국가GIS 지원연구 워크숍

- **개최일** : 10.21
- **개최장소** : 2층 대회의실
- **주요내용** : 세부과제 및 국토통합시스템과의 연계 · 협력에 관한 토론

#### ■ 한·중 토지정책연구 공동 국제워크숍

- **개최일** : 11.3
- **개최장소** : 3층 중회의실
- **주요내용** : 한국과 중국의 부동산시장 여건변화와 주택정책

#### ■ NGIS 중장기 계획수립 T/F 워크숍

- **개최일** : 11.7
- **개최장소** : 과천 그레이스호텔
- **주요내용** : 국가공간정보체계 중장기 추진계획 내용 검토 및 논의

#### ■ 제17차 한·일 건설경제워크숍

- **개최일** : 11.12~14
- **개최장소** : 제주 엘리시안
- **주요내용** : 해외건설 진출 현황 및 추진전략

#### ■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 시행 및 운영활성화를 위한 연구 공무원 워크숍

- **개최일** : 11.21

- **개최장소** : 한국토지공사 대전연수원
- **주요내용** : 기반시설연동제 운영지침(안) 관련 지자체 공무원 연수

#### ■ 한국경제 60년사 발간사업(국토·환경분과) 전체워크숍

- **개최일** : 11.19
- **개최장소** : 3층 중회의실
- **주요내용** : 한국경제 60년사 발간사업(국토·환경분과) 집필방향 토의

#### ■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 수립 연구 연구진 워크숍

- **개최일** : 11.24
- **개최장소** : 6층 회의실
- **주요내용** : 지역별, 부문별 잠재력 및 성장동력 발굴

#### ■ 간척용지의 토지이용구상 조정방안 연구 연구진 워크숍

- **개최일** : 11.25
- **개최장소** : 3층 중회의실
- **주요내용** : 최종보고서 작성 및 제출에 관한 공동 연구진 협의 및 토론

#### ■ 이용자 맞춤형 대중교통서비스 기술개발(2차연도) 워크숍

- **개최일** : 12.16~17
- **개최장소** : 용인 캐빈호텔
- **주요내용** : 2차연도 연구의 추진방안 및 관리체계 논의

## 2) 세미나

#### ■ 기후변화 대응 국토공간계획 평가 및 과제 연구 전문가 세미나

- **개최일** : 2.19(1차), 3.21(2차)
- **개최장소** : 2층 중회의실(1차), 3층 중회의실(2차)

- 주요내용 :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감축분야에 대한 전문가 토론(1차), 기후변화 대응 교통 및 적응부문 정착논의(2차)

#### ■ 글로벌시대의 국토정책과 동북아 도시 간 연계·협력 방안연구 전문가 세미나

- 개최일 : 2.21
- 개최장소 : 3층 중회의실
- 주요내용 : 동북아 도시 간 협력 현황 및 전망 논의

#### ■ 동북아포럼 정기세미나

- 개최일 : 2.27(1차), 3.27(2차), 4.30(3차), 6.26(4차), 7.30(5차), 8.29(6차), 9.30(7차), 10.31(8차), 11.26(9차)
- 개최장소 : 3층 중회의실(1, 2, 5, 7, 8, 9차), 6층 회의실(4차), 3층 소회의실(3, 6차)
- 주요내용 : 남북한 국토정책의 전개와 접경지역에서의 협력적 국토이용 전략(1차), 동북아 협력과 두만강 하류 녹둔도 개발 논의(2차), 남북한 에너지 협력에 대한 현황 및 전망(3차), 실용적 남북경협 사례와 추진방안(4차),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의 부당성과 우리의 대처방안(5차), 통일과 국토개발의 과제(6차), 한반도 중단철도와 대륙철도 연계구상(7차), 평화정착을 위한 남북한 군사적 긴장완화(8차), 미국 민주당 진보세력의 등장과 남북협력에의 영향(9차)

#### ■ SOC·건설경제연구회 초청세미나

- 개최일 : 4.10
- 개최장소 : 3층 소회의실
- 주요내용 : 건설산업의 미래와 대응방안

#### ■ 대도시권 성장관리에 관한 국제세미나

- 개최일 : 4.15
- 개최장소 : 한국프레스센터
- 주요내용 : 선진외국의 대도시권 운영체제 및 합의 형성 과정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여 우리나라 수도권 계획적 관리에 활용

#### ■ 국토연구원 개원 30주년 토지정책 세미나

- 개최일 : 4.17
- 개최장소 : 강당
- 주요내용 : 토지시장 기능 정상화를 위한 용적률 거래제 도입방안

#### ■ 도로·교통정책 세미나

- 개최일 : 4.30
- 개최장소 : 3층 중회의실
- 주요내용 : 선진국의 도로정책동향과 한국의 국제협력 강화 방향

#### ■ 커뮤니티재생 거버넌스 시스템 국제세미나

- 개최일 : 5.8
- 개최장소 : 3층 중회의실
- 주요내용 : Building Participatory Governance for Urban Regeneration – East Asia

#### ■ U-Eco City 법제도 및 지원정책 세미나

- 개최일 : 5.29
- 개최장소 : 2층 대회의실
- 주요내용 : 지자체 U-City 추진현황 발표 및 법제도 건의사항 토의

#### ■ u-City 법제도 및 지원정책 세미나

- 개최일 : 6.19(1차), 7.24(2차)
- 개최장소 : 3층 중회의실
- 주요내용 : 계획적·문화적 측면에서 u-City 추진 방향 토의(1차), 컨버전스에 따른 혼돈극복을 위한 정책적 방향성, ITS계획과 기술표준(2차)

#### ■ 인프라 21 세미나

- 개최일 : 7.15(1차), 9.23(2차), 10.22(3차), 12.16(4차)
- 개최장소 : 3층 중회의실(1, 3, 4차), 3층 세미나실(2차)
- 주요내용 : 유럽 도로교통의 기술과 정책, 연구 동향 및 전망(1차), 우리 사회와 교통정책(2차), 과속감시 카메라가 평균속도와 교통사고에 미치는 영향 분석-(미)아리조나 템피시 사례를 중심으로(3차), 여성

의 눈으로 바라 본 교통(4차)

#### ■ 도시연구실 석학 초청 세미나

- 개최일 : 8.20
- 개최장소 : 3층 중회의실
- 주요내용 : 세계화 시대의 살기 좋은 도시들 - 국제적 관점에서의 서울(Livable Cities in a Global Era - Seoul in International Comparative Perspective)

#### ■ 토지·주택연구실 미니세미나

- 개최일 : 8.29(1차), 9.25(2차)
- 개최장소 : 9층 회의실
- 주요내용 : 손익조정을 위한 용적률거래제 도입방안(1차), 투자자국가소송(ISD)에 대비한 토지구제 개선 연구(2차)

#### ■ SD와 GIS 통합모형 구축에 관한 국제세미나

- 개최일 : 9.23
- 개최장소 : 서울교육문화회관
- 주요내용 : SD기법과 GIS기법의 특징과 강점을 분석하여 시공간 통합모형 구축방향 제시

#### ■ 국토문화네트워크·문화생태연구회 공동세미나

- 개최일 : 9.25
- 개최장소 : 강당
- 주요내용 : 문화유산의 활용 - 근대산업유산의 문화적 가치와 활용(주제1), 지역문화 - 문화벨트와 지역문화 활성화(주제 2), 문화와 산업 - 지역 성장동력으로서의 문화산업(현황과 발전과제)(주제3)

#### ■ 제12차 GIS 국제세미나

- 개최일 : 10.9
- 개최장소 : 일산 KINTEX
- 주요내용 : 국토정보의 통합적 활용을 위한 NSDI 정책방향 논의

#### ■ 도시의 날 세미나 - 미래 도시정책방향 연구

- 개최일 : 10.10
- 개최장소 : 전북예술회관
- 주요내용 : 미래 도시정책방향에 대한 주제발표 및 토론

#### ■ 녹색성장과 국토정책 세미나

- 개최일 : 10.29
- 개최장소 : 3층 중회의실
- 주요내용 : 녹색성장과 국토정책에 대한 자문 및 토론

#### ■ 새국토연구협의회 세미나(기후변화 시대의 지속 가능한 국토관리)

- 개최일 : 11.27
- 개최장소 : COEX
- 주요내용 : 기후변화 대비 녹색성장형 국토발전(기조강연), 기후변화 대응 국토계획 및 지역개발(제1분과), 탄소중립도시의 실현(제2분과), 기후변화와 신재생에너지 이용의 활성화(제3분과)

#### ■ 천변저류지 조성 촉진 및 효율적 활용방안 연구(2차) 세미나

- 개최일 : 12.19
- 개최장소 : 3층 중회의실
- 주요내용 : 천변저류지 활용 및 조성 방안, 조성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논의

### 3) 간담회

#### ■ 인수위원회 농업분야 간담회

- 개최일 : 1.16
- 개최장소 : 극동문제연구소
- 주요내용 : 농지·산지 등 토지이용규제 완화방안 검토

### ■ 부동산정책 전문가 간담회

- 개최일 : 1.17
- 개최장소 : 3층 세미나실
- 주요내용 : 부동산정책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수렴 및 토의

### ■ 광역경제권 추진방향 간담회

- 개최일 : 1.18
- 개최장소 : 7층 회의실

### ■ 일본 노무라연구소(NRI)와 교통·정보·통신 분야 간담회

- 개최일 : 1.25
- 개최장소 : 8층 회의실
- 주요내용 : 노무라연구소의 교통분야 연구목표 및 전략, 향후 기관 간 유비쿼터스 교통분야 협력방안 논의

### ■ 국토연구원과 한국도로공사 조찬 간담회

- 개최일 : 2.19
- 개최장소 : 라마다르네상스호텔
- 주요내용 : 고속도로 건설과 교통현안, 고속도로 발전 방향

### ■ 한반도 공동번영을 위한 국토분야의 대응방안 연구 전문가 간담회

- 개최일 : 3.4
- 개최장소 : 6층 회의실
- 주요내용 : 북한개발의 경제적 효과 분석방법 논의

### ■ 부동산시장 전문가 간담회

- 개최일 : 3.17
- 개최장소 : 9층 회의실
- 주요내용 : 전세시장 동향, 미분양실태 등 부동산 시장 동향을 검토하고 정책대응 방향을 모색

### ■ 한반도 공동번영을 위한 국토분야의 대응방안 연구 전문가 간담회

- 개최일 : 3.21
- 개최장소 : 6층 회의실
- 주요내용 : 민간 건설기관의 건설수요 파악

### ■ 부동산시장대책 전문가 간담회

- 개최일 : 4.11
- 개최장소 : 청와대
- 주요내용 : 서울 강북지역 주택시장 상황 점검 및 대응방안

### ■ 시민참여형 도시정비를 위한 시민역량 강화방안 전문가 간담회

- 개최일 : 5.19
- 개최장소 : 7층 회의실

### ■ 프랑스 국토환경부 대외협력국장 일행 방원 간담회

- 개최일 : 5.21
- 개최장소 : 3층 세미나실
- 주요내용 : 지속가능개발 관련 양국 간 공통 이슈 및 향후 협력방안 논의

### ■ 부평 재래시장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

- 개최일 : 5.22
- 개최장소 : 부평5동사무소
- 주요내용 : 부평 재래시장의 현황 진단 및 재래시장 활성화 정책의 방향 설정

### ■ 위성영상 활용 촉진방안 간담회

- 개최일 : 6.23
- 개최장소 : 2층 대회의실
- 주요내용 : 위성영상과 항공사진의 통합 활용방안 논의(한국형 구글어스 구축방안)

### ■ GIS기술 경쟁력 확보방안 모색 관·산·연 간담회

- 개최일 : 7.9

- 개최장소 : 3층 중회의실
- 주요내용 : 공간정보산업 육성 지원 협의체 구성(안), 해외진출 지원방안 및 공간정보산업진흥법(안) 검토

#### ■ 2008년도 국가GIS지원연구 조찬간담회

- 개최일 : 7.29
- 개최장소 : 3층 중회의실
- 주요내용 : GIS 표준화 조찬간담회

#### ■ 동남권 신공항 개발의 타당성 및 입지조사 연구 지역간담회

- 개최일 : 9.10
- 개최장소 : 경남발전연구원
- 주요내용 : 5개 지자체 실무추진위원회와의 협력 방안 등 논의

#### ■ 접경지역 10개 시·군 공동발전 방안 실무자 간담회

- 개최일 : 9.10
- 개최장소 : 6층 회의실

#### ■ 공간정보 SW산업 발전 협의체 간담회

- 개최일 : 9.17
- 개최장소 : 3층 중회의실
- 주요내용 : 세계 SW시장의 동향 및 우리의 현황, 오픈소스의 동향 및 올바른 이해

#### ■ 물류부문 연구협력을 위한 간담회

- 개최일 : 10.7
- 개최장소 : 8층 회의실
- 주요내용 : 물류표준화 공동연구, 기관 간 상호 협력 방안 논의

#### ■ 국토해양부 도로정책 조찬간담회

- 개최일 : 10.17
- 개최장소 : 그레이스호텔
- 주요내용 : 도로정책연구센터 업무보고 및 도로국 현안 토론

#### ■ 한반도 공동번영을 위한 국토부문의 대응방안 연구 정책간담회

- 개최일 : 10.17
- 개최장소 : 6층 회의실
- 주요내용 : 국내 건설관련 공기업 및 민간기업의 대북사업 추진방향 논의

#### ■ 현안 토지시장 상황 및 정책과제 간담회

- 개최일 : 10.17
- 개최장소 : 9층 회의실

#### ■ 공간정보 SW산업 발전협의회 간담회

- 개최일 : 10.22
- 개최장소 : 강당
- 주요내용 : 국토정보화사업의 제안요청서 작성(안) 과 평가기준

#### ■ 2009년도 물류정책 방향제시를 위한 지상간담회

- 개최일 : 10.27
- 개최장소 : 3층 소회의실
- 주요내용 : 물류경쟁력 강화를 위한 물류산업 발전 방안

#### ■ 부여 고도보존계획 주민간담회

- 개최일 : 11.21
- 개최장소 : 부여군 쌍북리 마을회관
- 주요내용 : 부소산 일대 부여 고도보존계획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

#### ■ 건설산업선진화위원회 투명화분과 제5차 전문가 간담회

- 개최일 : 11.25
- 개최장소 : 건설회관
- 주요내용 : 건설산업 청렴도 지수 개발 및 활용방안 논의

■ 싱가포르 도시재개발국(Urban Redevelopment Authority) 관계 공무원 간담회

- 개최일 : 12.3
- 개최장소 : 3층 중회의실
- 주요내용 : 우리나라 신도시 개발 사례 및 행정중심 복합도시 관련 토의

■ 건설보증제도 선진화 및 건설보증기관 전문화 방안 정책간담회

- 개최일 : 12.10
- 개최장소 : 3층 중회의실

■ 주민참여 모형개발 및 적용을 위한 지자체 간담회

- 개최일 : 12.12
- 개최장소 : 2층 대회의실
- 주요내용 : 모형개발에 대한 중앙 및 지자체 도시계획 담당자 의견수렴

■ Geoeye 위성영상 활용 전문가 간담회

- 개최일 : 12.12
- 개최장소 : 2층 대회의실
- 주요내용 : Geoeye 위성영상 활용방안 논의

■ 북한지역 수자원개발 전문가 간담회

- 개최일 : 12.16
- 개최장소 : 6층 회의실

#### 4) 설명회

■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 시행 설명회

- 개최일 : 2.12(1차), 4.28(2차), 4.29(3차), 10.27(4차)
- 개최장소 : 강당
- 주요내용 :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 및 통보방법에 대한 설명

■ 하도급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 시행 설명회

- 개최일 : 2.15(1차), 3.31(2차), 4.30(3차), 6.25(4차), 10.21(5차)
- 개최장소 : 강당
- 주요내용 : 하도급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 및 통보방법 설명

■ 공공기관 종전부동산 연구 이전기관 설명회

- 개최일 : 2.18
- 개최장소 : 강당
- 주요내용 : 종전부동산 처리계획 작성요령, 오피스 시장 동향설명

■ 도청이전 예정지 선정 등을 위한 연구 공청회 및 시·군 공무원 설명회

- 개최일 : 4.16
- 개최장소 : 경북도청
- 주요내용 : 도청이전 예정지 선정을 위한 후보지 선정 요강(안) 및 평가기준(안) 설명 및 토론회

■ 관양 2동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주민설명회

- 개최일 : 4.30
- 개최장소 : 관양2동 동사무소
- 주요내용 :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국내외 사례 및 관양 2동 소유관 도로이용 실태 발표 및 토의

■ 2007년도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설명회

- 개최일 : 7.28
- 개최장소 : 3층 중회의실
- 주요내용 : 국무총리실 주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설명

■ 부여 고도보존계획 업무설명회

- 개최일 : 8.20
- 개최장소 : 9층 세미나실
- 주요내용 : 주택관련 핵심규제들의 평가 및 향후 개선 방안 논의

#### ■ 건설업·골재업 관리시스템 사용자 설명회

- 개최일 : 8.22
- 개최장소 : 2층 대회의실
- 주요내용 : 건설업·골재업 관리시스템 사용을 위한 사용자 교육 및 설명회

#### ■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 시행에 관한 발주자 설명회

- 개최일 : 8.25
- 개최장소 : 2층 대회의실

#### ■ 스마트 성장을 위한 토지적성평가제도 활용방안 설명회

- 개최일 : 9.3
- 개최장소 : 9층 회의실

#### ■ 무안기업도시(한중단지) 사업시행자 설명회

- 개최일 : 9.9
- 개최장소 : 2층 중회의실
- 주요내용 : 개발계획, 감정평가 및 사업성분석에 대한 사업시행자 설명 및 논의

#### ■ 건설공사대장 및 하도급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 시행에 관한 설명회

- 개최일 : 9.29~30
- 개최장소 : 강당
- 주요내용 : 건설공사대장 및 하도급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 및 통보방법 설명

## 5) 토론회

#### ■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합의형성시스템 관련 전문가 토론회

- 개최일 : 2.20
- 개최장소 : 인천발전연구원
- 주요내용 :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광역거버넌스 구축방안, 수도권 인구안정화를 위한 계획적

관리 시스템 구축방안에 관한 주제발표 및 토론

#### ■ 국토연구원 개원 30주년 재해정책토론회

- 개최일 : 4.1
- 개최장소 : 강당
- 주요내용 : 도시침수피해 원인분석과 정책과제(주제 1), 산불피해를 줄이기 위한 IT기술 활용방안(주제 2), 황사피해방지 정부종합대책과 연구동향(주제3), 리스크관리 - 예방에서 경감으로(주제4)

#### ■ 기본지리정보 실무반 토론회

- 개최일 : 6.3
- 개최장소 : 2층 대회의실
- 주요내용 : 기관별 사업추진 현황 검토 및 기본지리 정보 활용성 제고 방안 논의

#### ■ 국가공간정보 관련 법제도 정책토론회

- 개최일 : 6.5
- 개최장소 : 3층 중회의실
- 주요내용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산업진흥법, 측량 통합법 등 법안 토론

#### ■ 지방중소도시 재생추진방안 토론회

- 개최일 : 6.25
- 개최장소 : 7층 회의실

#### ■ 재해정책토론회

- 개최일 : 6.26
- 개최장소 : 3층 중회의실
- 주요내용 : 우리나라 방재도시계획 현황 및 선진 외국 사례

#### ■ 하천점용 허가제도 개선 및 관리방안 정책토론회

- 개최일 : 9.5
- 개최장소 : 강당
- 주요내용 : 하천점용 제도 개선에 관한 주제발표 및 토론

■ 수치지도 글로벌화에 관한 정책토론회

- 개최일 : 11.18
- 개최장소 : 강당
- 주요내용 : 수치지도 국외빈출 관련 제도개선 및 대응방안 논의

■ 저탄소 녹색성장 도로정책토론회

- 개최일 : 12.8
- 개최장소 : 국회도서관
- 주요내용 : 교통부문 녹색성장의 외국사례(주제1), 녹색성장을 위한 도로정책방향(주제2)

## 6) 공청회

■ 도청이전 예정지 선정 등을 위한 연구 주민공청회

- 개최일 : 1.28~31(1차), 4.14~15(2차)
- 개최장소 : 영주시민회관 등(1차), 칠곡 교육문화복지회관 등(2차)
- 주요내용 : 도청이전 예정지 입지기준 마련을위한 주민의견청취 및 설명회(1차), 경상북도 도청이전 예정지 평가기준안, 경상북도 도청이전 예정지 평가방법안(2차)

■ 도로법령체계 정비방안 공청회

- 개최일 : 7.11
- 개최장소 : 강당
- 주요내용 : 도로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논의

■ 간척용지 토지이용구상 조정 방안 연구 공청회

- 개최일 : 9.5
- 개최장소 : 전북도청
- 주요내용 : 간척용지의 토지이용구상 조정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



# V

## 정기간행물 목차

1. 국토(315호~326호)	124
2. 국토연구(56권~59권)	135
3. 건설경제(55권~58권)	136
4. 국토정책Brief(164호~210호)	138
5. 도로정책Brief(3호~14호)	140

# 1. 국토(315호~326호)

## ■ 315호(2008. 1)

국토시론_ 국토 가꾸기의 새로운 패러다임 만들기	최병선
짧은 글 긴 생각_ 이스터섬의 비극	유종일
특집 : 국토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정책과제	
1. 기후변화와 국토정책과제	최영국
2. 인구구조변화와 도시정책과제	민범식
3. FTA 시대의 지역정책과제	박형서
4. 미래 기술발전과 교통정책과제	류재영
5. 동북아·남북한 협력과 국토정책과제	김원배
6. SOC 투자와 건설정책과제	유재운
7. 토지정책의 선진화과제	채미옥
8. 시장활력과 주택정책과제	손경환
9. 유비쿼터스 시대의 국가GIS정책과제	사공호상
용어풀이 113_ 발리로드맵(Bali Roadmap) 외	박정은
글로벌정보_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영국의 노인계층 정책 개선 논의 외	
이슈와 사람_ 특집 : 대한민국 국민의 일류국가 만들기 : "2008 대한민국, 살기 좋은 국토를 희망합니다"	
세계의 도시 113_ 인트라무로스(Intramuros)에서 메트로 마닐라(Metro Manila)로	권태호
가던 길 멈추고	김신규
@- 마이클 오덴(Michael Oden) : 미국 지역개발 정책의 새로운 동향 - 지속가능성 및 균형발전방안	조희덕
해외리포트_ 일본의 마을브랜드 만들기 : 오가와촌, 유후시, 아즈미노시 사례를 중심으로	김태영·오선영
KRIHS FOCUS	
1.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발전방안에 관한 정책토론회	최창영
2. 동북아포럼 정기세미나 : 관광발전을 위한 협력가능성과 동해안 '낭만가도' 구상	박찬호
3. 국토연구원 소식 - 제3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 공청회 외	
알기 쉬운 연구방법론 23_ 혼합연구방법론(Mixed Methods) : 정성적, 정량적 방법을 교차시키기	오은주
국토논단_ 도시재생정책의 패러다임 변화와 대응과제	김용웅
지역통신_ 보은 대추산업클러스터 본격화 외	
KRIHS 보고서	
1. 공공계획 실천에 대한 이론적 해석 모색 - 참여시대 공공계획의 패러다임에 관한 연구(문정호 외 지음)	이성우
2. 토지이용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실용적 개선방안 제시 - 도시관리계획의 토지이용 관리기능 제고방안 연구 - 개발행위를 중심으로(박재길 외 지음)	이진호
3. 주택 재고관리 정책은 올바른 주택정책의 초석 - 주택 재고관리 정책의 평가와 개선방안 연구(배순석 외 지음)	이만형
4. 방재정보화의 혁신적인 대안 마련 - 방재국토 구축을 위한 GIS활용방안 연구(II) - 지능형 도시방재정보체계 추진방안(정문섭 외 지음)	최용복
간추린소식_ 국토관리체계 개편방안 보고회 개최 외	
연구보고서 구입 안내	
독자와 함께	
우리 문화유산의 향기 95_ 전통문화의 본고장 전주 남교산성(南固山城)	박영순

## ■ 316호(2008. 2)

국토시론_ 국토, 새 정부에 바란다	황명찬
---------------------	-----

짧은 글 긴 생각 _ 세계 속의 한국과 인재만들기	서진규
특집 : 새 정부에 바라는 국토정책	
1. 새 정부의 국토균형발전정책 과제와 방향	최병선
2. 새 정부의 한반도 경쟁력 확충 방향	이봉조
3. 새 정부의 기후변화에 대응한 국토환경정책 방향	정희성
4. 새 정부의 교통정책 과제와 방향	김형진
5. 새 정부의 부동산정책 방향	조주현
6. 새 정부의 SOC · 건설경제 활성화 방향	권홍사
용어풀이 114 _ ESCO(Energy Service Company) 의	황정현
이슈와 사람 41 _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입니다” - 우동기 영남대학교 총장	김정훈
세계의 도시 114 _ 다뉴브의 진주, 헝가리 부다페스트(Budapest)	진경애
가던 길 멈추고	김선규
@-interview _ 마틴 밀스포(Martin Millspaugh) : 불티모어 신드롬, 성공적 도시재생을 위한 공식	양도식
국토논단 _ 유럽의 지역발전기구(RDA)와 정책적 시사점	차미숙
글로벌정보 _ 도시 전체에 친환경 건축물 인증방식 도입한 캔자스주 그린스버그시 외	
해외리포트 _ GIS를 활용한 도로기반시설물 관리동향과 시사점 - 미국, 일본,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재일
지역통신 _ 130만 명이 찾은 화천 산천어축제 성공 개최, 인제 빙어축제 개막 외	
알기 쉬운 연구방법론 24 _ 퓨처스 휠(Futures Wheel) 기법 : 흥미롭고 한눈에 보이는 미래연구방법	박영숙
KRIHS FOCUS _ 국토연구원 소식 - 일본 노무라연구소와 ITS 간담회 개최 외	
KRIHS 보고서	
1. 국토 생태계의 건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보호지역 위계와 효율적 관리방안은?	
- 국토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보호지역의 위계정립 및 관리방안(김명수 외 지음)	이재준
2. 토지문제의 근본적인 대안 제시 - 선진사회를 향한 토지정책 방향 및 추진전략 연구(II)	
- 토지이용규제 합리화와 용적률거래제 도입 방안을 중심으로(채미옥 외 지음)	서순탁
KRIHS 서평 _ 대규모 항만산업 테크노폴리스의 장기적 종합개발 구상	
- 황해 항만산업 테크노폴리스를 열자(김병린 외 지음)	강호제
간추린소식 _ 2008년도 국민임대주택 6만 9천 호 입주자 모집 외	
연구보고서 구입 안내	
독자와 함께	
우리 문화유산의 향기 96 _ 전주 진헌(眞獻)왕궁터와 동고산성(東固山城)	박영순
<b>■ 317호(2008. 3)</b>	
국토시론 _ 부동산의 스톡효과	손경환
짧은 글 긴 생각 _ 한 열흘 피어 있기 위하여	이향지
특집 : 선진사회와 부동산정책의 방향	
1. 주거서비스 향상과 저렴한 주택의 공급 확대	이수욱
2. 부동산정보 분석기능의 강화와 시장 선진화 과제	박성진
3. 부동산간접투자시장의 현황과 정책과제 리츠제도를 중심으로	정희남
4. 도시재생의 부동산시장 파급효과와 정책과제	배순석
용어풀이 115 _ 리츠(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REITs) 의	박천규
정책해설 _ 건축법의 주요내용	조한권

이슈와 사람 42 _ “공간의 유기성이 존중되는 발전이라야 한다” - 김우창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조판기
세계의 도시 115 _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기업도시 산티아고(Santiago)	이경희
가던 길 멈추고	김선규
@-interview _ 데이빗 슬론(David C. Sloane) : 역사적 맥락에서의 도시계획과 커뮤니티 헬스	최현선
해외리포트 _ 일본 마노지구의 마치즈쿠리 전개과정과 교훈	김진범
KRIHS FOCUS	
1. 독서발표회 - 국부는 어디에서 오는가?	윤운정
2. 미래 도시정책 포럼 - 한국 도시정책의 현황과 향후 과제	최운정
3. 국토연구원 소식 - 건설산업정보센터 개소 외	
글로벌정보 _ 파리시 공영주택 신축 개축 시 환경 프로그램 적용 의무화 외	
국토논단 _ 서해안 원유유출사고와 해안지역 생태복구	정종관
지역통신 _ 제2영동고속도로 2008년 조기착공 결정 외	
알기 쉬운 연구방법론 25 _ 리얼타임 델파이(Real-time Delphi)기법: 익명성이 보장된 전문가 예측	박경준
KRIHS 보고서	
1. GIS를 활용한 국토정책 의사결정과정의 과학화와 효율화	
- 국토정책의사결정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 연구(최병남 외 지음)	강영욱
2. 동북아 경제구조의 지형변화 전망 - 동북아 핵심경제지역의 발전 전망과 연계망 구축(I)	
- 지역현황 및 발전 전망과 지역연계 분석(김원배 지음)	박변순
KRIHS 서평 _ 여여하게 산다는 것? : 마음 - 붓다와 선사들의 가르침(황명찬 지음)	김재영
간추린소식 _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통합시스템 구축계획 발표 외	
연구보고서 구입 안내	
독자와 함께	
우리 문화유산의 향기 97 _ 전주 ‘한(韓) 문화와 전주팔경	박영순

#### ■ 318호(2008. 4)

국토시론 _ 행복을 목표로 삼는 국토관리전략	이정전
짧은 글 긴 생각 _ '88하계 99세까지'	이호연
특집 : Post-2012체제하에서의 신국토관리전략	
1. Post-2012체제에 대비한 신국토관리전략과 과제	김선희
2. Post-2012체제에 대비한 탄소흡수원 확충대책	이경하
3. 국토관리에 있어서 청정개발체제(CDM) 도입과 적용가능성	노동운
4. 신재생에너지 생산·활용기반 구축을 위한 에너지클러스터 조성방안	김해란, 권희수
5. 저탄소사회 실현을 위한 국내의 주요도시의 사례	왕광익
용어풀이 116 _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외	양민선
알기 쉬운 연구방법론 26 _ 경로분석방법론(Path Analysis) : 인과관계의 논리적 설명은 경로분석을 통해서	변세일
이슈와 사람 43 _ “열림과 믿음으로 기후변화 대응에 힘쓰겠습니다” - 정순갑 기상청장	심우배
세계의 도시 116 _ 빈곤을 감춘 도시의 화려함, 마이애미(Miami)	최현선
가던 길 멈추고	김선규
@-interview _ 진평진 : 중국의 교통망 발전현황과 한반도와의 연결전망	박인성
해외리포트 _ 일본의 최근 하천관리체계와 주요 치수사업	김선희, 박화권
글로벌정보 _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입 시 지원 외	

지역통신 \_ 전라감영 전면 복원 외

KRIHS FOCUS

- 1. 도시재생 전문가특강 - 행정중심복합도시 주민갈등 관리 및 국내 마을만들기 성과와 기본방향 김근태
- 2.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라운드테이블 - 시민참여 도시만들기 사업과 공공기관의 역할 손경주
- 3. 국토연구원 소식 - '파워심(Powersim)의 구성 및 운영방안' 전문가특강 개최 외

국토논단 \_ u-City 도입에 따른 도로기반시설물 관리 환경변화와 USN기술 동향 한재일

KRIHS 보고서

- 1. 베이비붐 세대의 주택소비형태 변화, 주택정책의 주요 변수인가?  
- 부동산시장의 환경변화에 대응한 정책방향 연구 - 인구와 가계자산 변동을 중심으로(이수옥 외 지음) 이상한
- 2. 미래 수요에 맞는 주택공급 체계로의 변화 제시 - 주택수급여건 변화에 대응한 주택공급체계 개편방안  
- 주택보급률 110%초과, 고령화 및 저출산에 대한 대응(배순석 외 지음) 김재익

KRIHS 서평 \_ 도시를 해석하는 또 하나의 시각 - 도시의 창, 고급호텔(발레리 줄레조 · 티에리 상쥐앙 외 지음) 조판기

간추린소식 \_ '기후변화에 대한 연구 및 대응' 국제심포지엄 개최 외

연구보고서 구입 안내

독자와 함께

우리 문화유산의 향기 98 \_ 부안 변산풍류(邊山風流)와 우금산성(禹金山城) 박영순

■ 319호(2008. 5)

국토시론 \_ 경쟁력 있는 국토를 위해 국토이용체계의 골격을 바꾸자 황희연

짧은 글 긴 생각 \_ 로드길을 생각한다 김선희

특집 : 국가경쟁력 강화와 토지이용규제 선진화

- 1. 토지이용규제 현황과 향후 방향 박무익
- 2. 지역·지구등 행위제한내용 평가결과와 정책과제 서순탁, 이병준
- 3. 토지이용규제 정보화와 향후 추진 방향 김미정, 임병훈
- 4. 도시용지공급 원활화를 위한 토지이용규제 합리화 방안 채미옥

용어풀이 117 \_ 용도지역·지구 송하승

글로벌정보 \_ 베이징-상하이 고속철도 착공 외

이슈와 사람 44 \_ “소중한 국토, 우리는 잠시 빌려쓸 뿐입니다” - 류상열 대한건설진흥회장 김성일

세계의 도시 117 \_ 과학기술의 메카로 도약하는, 타이베이(台北市) 박현정

가던 길 멈추고 김선규

해외리포트 \_ 런던의 랜드마크 경관보호 정책 김정후

@-interview \_ 데비 맥물렌(Debbie McMullen) : 런던플랜과 권역별 계획(SRDFs) 양도식

국토논단 \_ 독일 대도시지역과 새로운 공간계획 전략-European Metropolitan Region :  
A New Spatial Planning Strategy in Germany 피터 유르첵, 최선주, 이상준

알기 쉬운 연구방법론 27 \_ CGE(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모형 :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국토정책 수단을 찾아보자 김의준

정책해설

- 1.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 김복환
- 2. 하천법 전문개정 주요내용 이용직

KRIHS FOCUS

- 1. 국토연구원 개원 30주년 토지정책세미나 - 개발이익환수 및 손실보상을 위한 용적률거래제 도입 방안 송하승

2. 국토연구원 개원 30주년 정책토론회 - 재해에 안전한 국토기반 구축	심우배, 윤승환
3. SOC·건설경제연구회 초청세미나 - 한국 건설의 신 시장 개발을 위한 도전	구정은
4. 국토연구원 소식 - 김안제 명예교수 초청 '기록과 인생' 전문가특강 개최 외 지역통신 _ 충청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성공적 구축을 위한 세미나 개최 외 KRIHS 보고서 _ 국토 어메니티 자원 발굴을 통해 경쟁력 있는 지역발전 모색 - 미래 삶의 질과 개선을 위한 국토 어메니티 발굴과 창출전략 연구 (김선희 외 지음)	김세용
간추린소식 _ 사업용자동차 교통사고 5년간 50% 줄인다 외 연구보고서 구입 안내 독자와 함께 우리 문화유산의 향기 99 _ 부안의 문화유적과 변산팔경	박영순

### ■ 320호(2008. 6)

국토시론 _ 공공과 자동차	이용재
짧은 글 긴 생각 _ 몰입, Work Hard에서 Think Hard로!	황농문
특집 : 교통정책의 선진화 방향	
1. 이용자 중심의 도로정책 방향	정일호
2. 고객만족을 위한 철도정책 방향	이진선
3. 항공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홍석진
4. 교통혼잡을 완화하는 대도시권 교통정책 방향	권병운
5.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물류체계 선진화 방향	권오경
6.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선진 교통정책의 동향	조남건
용어풀이 118 _ LCC(Low Cost Carrier, 저비용항공사) 외	고용석
글로벌정보 _ 호주 SUMMIT 2020, 기후변화 문제를 최우선으로 다뤄 외 지역통신 _ 연구와 체험학습을 겸한 자연환경연구공원 개장 외	
이슈와 사람 45 _ "세계 최고 수준의 글로벌 교통물류 경쟁력을 갖추겠습니다" - 이재균 국토해양부 제2차관	정일호
세계의 도시 118 _ 독일의 항구도시에서 유럽의 문화·물류도시로, 함부르크(Hamburg)	김성길
가던 길 멈추고	김선규
@-interview _ 로버트 마란스(Robert W. Marans) : 도시민 주거환경 만족도 측정을 통한 삶의 질 개선	권태정
국토논단 _ 최저주거기준의 의의와 기준 미달가구 규모 추정	김혜승, 김태환
해외리포트 _ 영국의 공공디자인 정책과 시사점	김정후
알기 쉬운 연구방법론 28 _ 패널모형 : 시계열 분석과 횡단면 분석을 한번에	최충익
KRIHS FOCUS	
1. 커뮤니티재생 거버넌스 시스템 개발 국제세미나	김근태
2.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라운드테이블 - 마을만들기와 지원제도 : 조례 및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윤주선
3. 제4차 공공건축 설계포럼 - 육아시설, 어린이의 눈높이로 바라보기	조준배, 임현성
4. 국토연구원 소식 _ 2008년도 도시계획의 신조류 일본·미국 연구 실시 외	
기고 _ 공공건설공사 발주방식 결정체계의 이해	문혁
KRIHS 보고서	
1. 국가발전지수의 개념을 창안하고 국가재정의 전략적 배분 방법론 제시 - 재정투자파급효과측정시스템 개발 및 국가발전지수 정립 연구(I) (김영표 외 지음)	김태진
2. 지역전략산업 클러스터의 성공을 통한 국가경쟁력 확보와 균형발전	

-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전략산업 클러스터 촉진방안(권영섭 외 지음)	강병수
간추린 소식 _ 세계 유일 스마트홈 네트워크 쇼 개최 외	
연구보고서 구입 안내	
독자와 함께	
우리 문화유산의 향기 88 _ 한산모시와 서천팔경(舒川八景)	박영순

■ 321호(2008. 7)

국도시론 _ 푸른 숲이 되려거든 함께 서라	진영환
짧은 글 긴 생각 _ 더 이상 비경이 아닌 '여자만'	이준애
특집 :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활성화 방안	
1. 살고싶은 도시만들기의 성과와 과제	정승현
2. 살고싶은 도시만들기와 참여주체 간 협력	김은희
3. 살고싶은 도시만들기와 공공디자인	이상민
4. 살고싶은 도시만들기와 커뮤니티 비즈니스	김재현
5.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사례와 시사점 - 공공의 역할을 중심으로	류승한, 정윤희
용어풀이 119 _ 커뮤니티 비즈니스(Community Business) 외	손경주
지역통신 _ 제주시, 국제회의도시의 메카로 외	
이슈와 사람 46 _ "21세기 성장 패러다임, 강원도가 만들어갑니다" - 김진선 강원도지사	김영봉
세계의 도시 119 _ 세기를 넘나드는 도시의 아름다움, 프라하(Praha)	김계영
가던 길 멈추고	김선규
@-interview _ 후쿠이 히로미치(福井弘道) :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디지털어스	이영주
정책해설 _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의 주요내용	김효정
해외리포트 - 바르셀로나의 창조도시 전략과 시사점	윤준도
글로벌정보 _ 뮌헨의 친환경도로 이스트링크, 올헤의 프로젝트로 선정 외	
알기 쉬운 연구방법론 29 _ 해체기법(Decomposition Method) : 차이와 차별에 대한 통계학적 논증	이성우
KRIHS FOCUS	
1. 국토연구원 개원 30주년 및 MOU 체결기념 국제공동 심포지엄	
- 아시아 대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도시계획, 환경, 교통부문의 정책방향 모색	고용석, 이백진
2. 제5회 첨단교통포럼 - ITS 지속발전을 위한 사업활성화 방안	오성호, 강희찬
3.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라운드테이블 - 시민참여 도시만들기를 위한 학습 프로그램	손경주
4. 제2회 AURI 인문학포럼 - 공간의 인문학적 재해석	성은영, 이진민
5. 국토연구원 소식 - 제12대 박양호 원장 취임 외	
지역통신 _ 한미 FTA 대응 전북발전전략 세미나 개최 외	
KRIHS 보고서	
1. 구조적 접근을 통한 적극적인 자전거정책 모색	
-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임영태 외 지음)	이재영
2. 실태조사 결과에 근거한 주거복지 정책의 추진방안 제시	
- 최저주거기준을 활용한 2006년 주거복지 소요추정 연구(김혜승 지음)	홍인옥
KRIHS 서평 _ 도시, 건축, 조경의 유쾌한 소통 - 랜드스케이프 어버니즘(찰스 왈드하임 엮음)	권영상
간추린소식 _ 탄소중립 행복도시 구현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 개최 외	
연구보고서 구입 안내	

독자와 함께

우리 문화유산의 향기 101 \_ 정읍 은선리 고분군과 백제가요 정읍사(井邑詞)

박영순

### ■ 322호(2008. 8)

국토시론 \_ 창조성과 도시의 미래

강형기

짧은 글 긴 생각 \_ 창의적 의사결정의 열쇠, 위기

김성희

특집 : 창조도시, 문화가 도시를 살린다

1. 창조도시 : 개념과 전략

이희연

2. 창조도시 진흥을 위한 창조산업 활성화 전략

임상오

3. 근대문화유산을 활용한 창조도시 육성

강동진

4. 해외 창조도시 사례 및 시사점

오민근

5. 국내 창조도시 추진현황 및 향후과제

박은실

용어풀이 120 \_ 창조도시(Creative City) 의

이진희

이슈와 사람 47 \_ "창조적 문화에 도시의 미래가 있습니다" - 사사키 마사유키 일본 오사카시립대학 교수

박세훈

세계의 도시 120 \_ 세계평화의 산실, 국제도시 제네바(Geneva)

소진광

가던 길 멈추고

김선규

@-interview \_ 리 보스크(Leigh Boske): 국제무역 및 복합운송체계의 환경변화

조희덕

해외리포트 \_ 홍콩의 도시재생정책과 도시재생기구(URA)의 역할

박세훈, 전성제

정책해설 \_ 건축기본법령의 주요내용

김태오

글로벌정보 \_ 시드니의 그린스퀘어 도시재생 프로젝트 외

알기 쉬운 연구방법론 30 \_ 퍼지이론(Fuzzy Set Theory): 언어변수를 이용하여 애매모호한 집합문제 풀기

임은선

국토논단 \_ 지역개발사업의 추진실태와 개선과제 - 지자체 공무원 · 실무자 대상의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차미숙, 박준화

지역통신 \_ 전남도, 사회적기업 육성 5개년 계획 추진 외

KRIHS FOCUS

1. '도로법령체계 정비방안' 공청회

최소림

2. 도시연구포럼 : 공간구조와 도시성장

이진희

3. 국토연구원 소식 - 국토연구원-KAIST 미래도시연구소 연구협력 협정서 체결 외

KRIHS 보고서 - 건설업체 양극화 원인과 근본적 해결방안을 다각도로 분석

- 건설산업 선진화를 위한 상생협력 방안(김재영 외 지음)

김명수

KRIHS 서평 \_ 기후변화는 무서운 위협일까, 허풍 경고일까?

- 미친 기후를 이해하는 짧지만 충분한 보고서(슈테판 람슈토프 외 지음)

김선희

간추린소식 \_ 2008 한스타일 박람회 개최 외

연구보고서 구입 안내

독자와 함께

우리 문화유산의 향기 102 \_ 정읍 태인의 피향정(披香亭)과 정읍팔경

박영순

### ■ 323호(2008. 9)

국토시론 \_ 글로벌 위기와 실용주의 행정

정용덕

짧은 글 긴 생각 \_ 지금은 '성장' 보다 '성숙' 해야 할 때

유영만

특집 : 글로벌 위기와 국토관리

1. 글로벌 위기와 국토관리전략

정지범

2. 에너지 위기와 국토관리	김종달
3. 식량 위기와 농지관리	김태곤
4. 이상기후와 수해관리	심우배
5. 우리나라의 지진특성과 국토관리	전명순
용어풀이 121 _ 위기관리(Crisis Management) 외	윤승환
이슈와 사람 48 _ “서해안시대의 중심지로 도약하겠습니다” - 이완구 충청남도지사	윤여훈
세계의 도시 121 _ 국제교류의 거점, 물의 도시 오사카(大阪)	윤준도
가던 길 멈추고	김선규
@-interview _ 폴 클라발(Paul Claval) : 공간계획에서 지리학의 역할	이수진
국토논단 _ 바람직한 하천문화 창출을 위한 정책방안	박태선
해외리포트 _ 조망축 확보, 역사건축물 보전 등을 통한 웰링턴의 경관관리	김명수
글로벌정보 _ 탄소배출권 거래제도(ETS) 논란 외	
<b>KRIHS FOCUS</b>	
1. 개원 30주년 기념 세계 GIS 석학 초청 세미나 - 도시방재를 위한 GIS 활용	이재용
2. 전문가 특강 - 네덜란드 국토계획의 최근 동향	박정은
3. 국토연구원 소식 - ‘독도사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가?’ 문화생태연구회 특강 개최 외	
알기 쉬운 연구방법론 31 _ 네스티드로그잇모형(Nested Logit Model) : 개인의 선택에 관한 행태 이해하기	김준기, 김호정
지역통신 _ 삼척 LNG기지 확정, 영동권 경제활성화 기대 외	
<b>KRIHS 보고서</b>	
1. 갈등발생원인의 체계적 이해와 진단에 유용한 분석 틀 제공 - 공공사업 갈등지표 설정과 활용방안 연구 - 공공사업 입지관련 갈등유발요인 분석 및 지표체계 구축(박형서 외 지음)	박홍엽
2. 공간정보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미래 국가GIS 발전방향 제시 - 공간정보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한 국가GIS 전략 연구(사공호상 외 지음)	조우석
<b>KRIHS 서평 _ 시민사회가 만들고 지키는 자유 공간, 시민의 공간</b>	
- Globalization, the City and Civil Society in Pacific Asia(Mike Douglass 외 엮음)	이영아
간추린소식 _ 우리 국토면적 10만km <sup>2</sup> 넘었다 외	
연구보고서 구입 안내	
독자와 함께	
우리 문화유산의 향기 103 _ 완주 대둔산(大屯山)과 위봉산성(威鳳山城)	박영순
 <b>■ 324호(2008. 10)</b>	
국토시론 _ 상전벽해(桑田碧海)의 국토 60년	김영표
짧은 글 긴 생각 _ 스스로 우뚝 서서 산천을 바라보라	김별아
개원 30주년 특집 : 상전벽해의 국토 60년	
1. 국토, 개발에서 창조로	이원섭
2. 국토의 양 수레, 개발과 환경보전의 조화	김선희
3. 농지개혁에서 토지공개념까지	정희남
4. 폐허에서 살고 싶은 도시로	이범현
5. 가난한 농촌에서 쾌적한 삶의 공간으로	차미숙
6. 초가삼간(草家三間)에서 고층아파트로	이수옥
7. 전국 반일 생활권으로 바뀐 교통망	정일호

8. 치수에서 친수로	박태선
9. 전후 복구에서 글로벌 건설시장으로	김재영
10. 측천양지(測天量地)에서 유비쿼터스 국토까지	박종택
11. 북한, 함께 살아야 할 희망의 땅	김영봉
용어풀이 122_ 오염자부담원칙 외	박정은
개원 30주년 기념 해외 석학 30인의 축하 메시지_ “국토연구원 개원 30주년을 축하합니다”	마이클 구차일드 외
세계의 도시 122_ 예술이 살아 숨쉬는 호수의 도시, 미니애폴리스(Minneapolis)	최현선
가던 길 멈추고	김선규
지역통신_ 강원도 수출 전년 대비 34.8% 증가 외	
해외리포트_ 일본의 환경모델도시와 환경수도 콘테스트	김선희
알기 쉬운 연구방법론 32_ 핫스팟 분석기법(Hot Spot Analysis) :	
공간분석의 기초, 최근린근집분석과 국지모란지수의 이해와 활용	강호제
정책해설_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배경 및 주요 내용	우정훈
글로벌정보_ 도시개발·계획 수립 시 건강영향평가 실시 외	
KRIHS FOCUS	
1. 2009년도 기본연구과제 연구테마 관련 전문가 초청 연찬회	임상연
2. SD와 GIS 통합모형 구축에 관한 국제세미나	김단야
3. 국토연구원 소식 - '새로운 성장동력, 대체에너지' 전문가 특강 개최 외	
KRIHS 보고서	
1. 살고 싶은 터전을 위한 도로 공간 리모델링 방법 제시 - 도로 공간의 복합적 기능 활성화방안 연구	
- 도시 내 도로를 중심으로(이춘용 외 지음)	정일훈
2. 농촌 특화발전 정책의 전략적 접근방안 모색	
- 농촌지역 특성의 진단지표 개발과 정책적 활용방안(김창현 외 지음)	이석주
간추린소식_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고시 개정·시행 외	
연구보고서 구입 안내	
국토연구원 새 C.I. 선포를 축하하며	
우리 문화유산의 향기 104_ 완주 송광사 십자종루(十字鐘樓)와 완주팔경	박영순

## ■ 325호(2008. 11)

국토시론_ 태안 원유유출사고 1년, 교훈과 과제	강정국
짧은 글 긴 생각_ 시간과 공간의 멋진 만남	김영표
특집 : 태안 원유유출사고와 향후 과제	
1. 태안 원유유출사고 이후 지역사회 영향과 발전방안	김명수
2. 태안 원유유출사고의 환경적 영향과 복원방안	신용승
3. 태안 원유유출사고 손해배상과 향후 과제	목진용
4. 해양 원유유출사고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 : 외국사례와 시사점을 중심으로	박찬호
5. 해양 오염사고 관리체계 평가와 개선방안	김선희
용어풀이 123_ 유류오염 대비·대응 및 협력에 관한 국제협약(OPRC) 외	박정은
국토논단_ 한반도 공동번영을 위한 비전과 구상	이상준
이슈와 사람 49_ “동북아시아 최고의 국제자유도시로 도약하겠습니다” -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윤여훈
세계의 도시 123_ 캐나다 로키의 문화 축제도시 캘거리(Calgary)	남기범

가던 길 멈추고	김선규
@-interview _ 폴 모하이(Paul Mohai) : 사회적 불균형과 환경정의	이상운
정책해설 _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의 주요내용	최정민
글로벌정보 _ 차량 이동거리에 근거한 보험료 납부정책 도입 외	
해외리포트 _ 런던플랜의 수립과정과 정책적 시사점	양도식
알기 쉬운 연구방법론 33 _ 인지도(Cognitive Map)작성법 : 국민의 심리적 거리 인지도를 통한 고속도로 건설효과	김호정, 정우현
KRIHS FOCUS	
1. 국토연구원 개원 30주년 기념행사 및 C.I. 선포식	국토연구원 문헌출판팀
2. 개원 3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 지구적 변화와 국토전략	정진규, 이영아
3. 제12차 GIS 국제세미나 : 국토정보의 통합적 활용을 위한 NSDI 정책방향	오효경, 박주희
4. 국토연구원 소식 - '과속감시카메라가 평균속도와 교통사고에 미치는 영향' 인프라21 세미나 개최 외	
KRIHS 보고서	
1. 도로정책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도로정책 추이 및 향후 발전방향 - 전국 도로망체계 발전방안 연구(I) : 국토간선도로망 구축 성과평가와 재편 구성(정일호 외 지음)	고승영
2.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고용창출방안의 제도적 해법 -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개발정책의 혁신방안(이원섭 외 지음)	정성훈
KRIHS 서평 _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국가경영 지침서 - 최중찬의 新국가개조론 : 친제 한국경제를 위한 정통 관료의 대제안 (최중찬 지음)	
지역통신 _ 제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유치 외	
제13회 전국 초등학교생 국토사랑 글짓기 대회 입상자 발표 및 수상작	
간추린소식 _ 국토해양부장관의 공원녹지계획 승인권한 폐지 외	
연구보고서 구입 안내	
독자와 함께	
우리 문화유산의 향기 105 _ '징계맹경 외애밋들' 김제(金堤)와 벽골제(碧骨堤)	박영순
 <b>■ 326호(2008. 12)</b>	
국토시론 _ 세계경제 흐름의 구조와 창조적 국토발전	박양호
짧은 글 긴 생각 _ 동국여지승람 톺아보기	박태순
특집 : 창조적 국토발전 전략	
1. 광역경제권 발전전략과 과제	김동주
2. 국토의 녹색성장 추진방안	최영국
3. 도시재생 활성화 방안	민범식
4.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부동산정책 방향 - 주택시장 뉴딜전략	손경환
5.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토지이용의 합리화 방안	채미옥
6. 능동적 SOC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	김재영
7. 국토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속간선교통망 구축방향과 과제	정일호
용어풀이 124 _ 광역경제권 외	박경현
지역통신 _ 전남 신안, 세계 최대 태양광발전소 준공 외	
이슈와 사람 50 _ "전통이 깃든 첨단산업의 메카" - 김완주 전북도지사	임은선
세계의 도시 124 _ 청정에너지 도시로 변모하는, 애들레이드(Adelaide)	이재원

가던 길 멈추고	김신규
@-interview _ 진-미셸 굴드만(Jean-Michel Guldmann) : 최적화 · 계량화의 중요성과 도시계획가의 역할	김준필
해외리포트 _ 일본의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프로그램(CPTED)	김걸, 김병선
알기 쉬운 연구방법론 최종회 _ 연구 잘 하는 길: 갈 곳이 분명하고, 가는 길을 꿰뚫어야	김영표
정책해설 _ 유비쿼터스도시의 계획 · 건설 · 운영을 위한 실천계획의 주요 내용	김복환
글로벌정보 _ 심화되고 있는 머레이-다알링 유역의 물 고갈 문제 외	
KRIHS FOCUS	
1. 제17차 한 · 일 건설경제워크숍	김민철, 구정은
2. '도시와 공공디자인' 강연회	이진희
3. '기후변화 관련 도시연구' 포럼	이진희
4. 국토연구원 소식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LURIS) 지자체 업무담당자 실무교육' 실시 외	
KRIHS 보고서	
1. 개발사업 주변지역의 자가상승 억제 및 자가 불균등 해소를 위한 정책방향 제시 - 대규모개발사업 주변지역의 토지시장 안정화 방안(채미옥 외 지음)	류해웅
2. 세계측지계의 실제 적용을 위한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역할 정립 - 국가공간정보에 대한 세계측지계의 체계적 적용방안(신동빈 지음)	최윤수
KRIHS 서평 _ 가치관이 실린 우리 국토의 역동적인 변화상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책 - 상진벽해(桑田碧海) 국토60년(국토연구원 지음)	황희연
간추린소식 _ 2008 하천환경 세미나 개최 외	
2008년 국토 총 목차(통권315호~326호)	
연구보고서 구입 안내	
독자와 함께	
우리 문화유산의 향기 106 _ 모악산(母岳山) 금산사(金山寺)와 김제팔경	박영순

## 2. 국토연구(56권~59권)

### ■ 56권(2008. 3)

지방 투자적 지출이 지역경제 성장에 미친 차별적 영향 분석 : 광업·제조업을 중심으로	오병기
순차적 북한 경제특구 모형 및 적용에 관한 연구 : 지역경쟁력 확산 이론을 통한 남북협력 개발	임성훈
입지배분모형을 이용한 수도권 녹지총량 산정방안 연구	엄상근, 조창제, 황경수, 최영국
부동산정책이 아파트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수복
유전알고리즘을 이용한 동태적 공간모델의 보정	김복환, 양광식
AHP 기법을 이용한 u-City 사업타당성 평가기준에 관한 연구	정우수, 박웅희, 조병선

### ■ 57권(2008. 6)

산업연관분석에서 새로운 “생산유발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 최종수요, 총산출, 최종산출 사이의 생산순환체계를 중심으로	김효연
파트너십 형성을 통한 도시재생방안 : 영국 셰필드시 사례 연구	천현숙, 김근태
주변지역 토지이용특성이 주택 가격결정에 미치는 영향 : 일산신도시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임종현, 유진호, 이주형
부동산 감정평가에 있어서 위험과 불확실성에 관한 연구	임재만
광역시 주택가격 변화의 특징과 요인 분석	한동근
주택법의 특성 분석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촉진법적 요소와 문제점을 중심으로	김현아, 서정렬
도농통합도시 시민의 교통수단선택 특성과 통행패턴에 관한 연구	윤대식, 황정훈, 문창근
최저가 낙찰제 저가심사기준 도입효과 분석	백성준

### ■ 58권(2008. 9)

물동량 구조분석을 통한 광양항 항만배후단지 유치업종 선정연구	이성우
우리나라 도시경쟁력 평가 연구	권창기, 정현욱, 박선형
우리나라 광역시·도의 총 요소생산성과 결정요인	이영성
신, 구도시 균형발전을 위한 미국의 공동세와 도시합병 연구	조영태, 어옥경, 최상희, 진재득
창조산업의 집적화와 가치사슬에 따른 분포특성 : 서울을 사례로	이희연, 황은정
도시기본계획상 토지이용계획 수립의 한계와 개선방안	김영우, 문영기
토지이용 우점(優占)지수를 이용한 청주시 도심 토지이용 군집특성 분석	백종인, 반영운
확률선택모형에 의한 대구시의 토지이용변화에 대한 실증분석	박현수, 조규영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기관별 특성 분석	강태욱, 이현석
수량화이론 II류를 이용한 경매아파트의 양태풍수적 분석연구	천인호
층간소음의 불편비용 추정	유승훈, 이주석
The Estimation of Spatial Effects of the Office Rent in Seoul	허윤경, 김성진
BTL(민간투자)사업 리스크 관리를 위한 위험요소분류체계 및 체크리스트 개발 : 교육시설물의 운영유지관리 단계를 중심으로	손재호, 이상엽, 김재은

### ■ 59권(2008. 12)

Livable Cities: Neoliberal v. Convivial Modes of Urban Planning in Seoul	Mike Douglass
농촌장수마을 공간계획에 관한 연구 : 층복 음성군 차평 1리를 사례로	김묘정, 최아현
하천공간관리를 위한 하천구역 구분 기법 연구	송주일, 윤세의

비시장실패 이론에 의한 공공주도형 관광지 개발의 실패 과정 분석	김현정, 고동완
지역의 사회간접자본과 생산의 효율성	김일태, 김봉진
A Comparative Study of Housing and Neighborhood Satisfaction between Korea and the US	남수연, 이성우
공영택지개발의 민·관 파트너십 과제와 전망	
: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의 민간 참여 및 요구도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진미운
광역경제권 설정 대안에 따른 제조업 생산성 비교분석: 비용합수-누적공간효과모형의 적용	김아영, 윤성도, 김의준
건설사 우발채무의 측정과 기업가치에 관한 연구	고성수, 최은영
Effects of Built Environmental Factors on Perceived Health Status and Health Disparity	김은정
최저주거기준과 최저주거비부담을 고려한 주거복지정책 소요추정	김혜승, 김태환
토지이용규제를 위한 지역·지구·구역 등의 명칭에 관한 연구	최대식, 이삼수, 정연우, 성장환
대도시광역권의 지역 간 네트워크 구조 변화: 광주, 대전, 대구, 부산·울산광역시를 중심으로	김홍주

### 3. 건설경제(55권~58권)

#### ■ 55권(2008. 봄호)

건설경기진단

- |                      |     |
|----------------------|-----|
| 1. 2008년 상반기 건설경기 동향 | 김재영 |
| 2. 2008년 상반기 해외건설 전망 | 김태엽 |

특집: 건설산업의 국제브랜드화 전략

- |                            |     |
|----------------------------|-----|
| 1. 건설시공분야의 국제브랜드화 전략       | 이종광 |
| 2. 한국건설의 CM 국제브랜드화 가능성과 전략 | 이복남 |
| 3. 해외건설분야의 국제브랜드화 전략       | 김중현 |

논단\_ 수요자 중심의 부동산시장 기반조성

- |                                  |     |
|----------------------------------|-----|
| 외국의 건설정보_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해외 최고층 건설사례 | 이수옥 |
| 주요 건설통계                          | 구정은 |
|                                  | 이승훈 |

#### ■ 56권(2008. 여름호)

건설경기진단

- |                                |              |
|--------------------------------|--------------|
| 1. 2008년 하반기 건설경기 동향 및 전망      | 김재영          |
| 2. 2008년 상반기 부동산시장의 동향 및 향후 전망 | 최수, 이진형, 박미영 |
| 3. 2008년 해외건설 수주실적 분석 및 전망     | 김태엽          |

특집: 건설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의 현재와 미래

- |                              |     |
|------------------------------|-----|
| 1.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의 구축과 전개         | 문 혁 |
| 2. 건설행정 선진화와 건설행정정보시스템(CIS)  | 박동호 |
| 3. 건설공사 종합관리시스템(cws)의 구축과 활용 | 이희구 |

4. 부실법점통합관리시스템(PIS)의 도입과 구축	문병익
5. 토석자원의 재활용과 토석정보공유시스템(TOCYCLE)	고지훈
논단 _ 건설산업종합정보망 평가 및 추진성과	강형주
외국의 건설정보 _ 외국의 건설산업정보 관리시스템 사례와 시사점	권혁진
주요 건설통계	이승훈

■ 57권(2008. 가을호)

건설경기진단	
2008년 해외건설 동향 분석 및 전망	김태엽
특집 : 북한 SOC의 현황 및 진출방안	
1. 국내 건설업체의 대북진출 방안	김성일
2. 북한의 주거실태와 주택투자 소요 추정	김근용
3. 북한관광 인프라 현황 및 진출방안	조진철
4. 북한의 건설수요와 경제적 효과	안흥기
지상특강 _ 건설산업 기술혁신의 영역과 한계	홍성용
논단 _ 한·GCC FTA에 대비한 GCC 건설시장 실태와 문제점 분석	김명수
주요 건설통계	이승훈

■ 58권(2008. 겨울호)

건설경기 진단	
1. 2009년 건설경기 전망	김재영
2. 2008년도 부동산시장 동향 및 향후 전망	최수
3. 2009년 해외건설시장 전망	김종현
특집 : 건설업계의 위기 탈출을 위한 내수진작 방안	
1. 종합건설업체의 위기관리 및 내수진작 방안	이충렬
2. 위기극복을 위한 전문건설업체의 역할 모색	이종광
3. 설비건설업체의 위기관리 방안	김경희
논단 _ 2009년 SOC예산과 투자전망	김명수
지상중계 _ 제14회 아시아건설회의(Asia Construct Conference)로 본 아시아 각국의 건설시장 동향	안흥기
해외건설정보 _ 새로운 도로가 미래를 창조한다 - 新 토메이고속도로 건설현장을 다녀와서-	고용석, 최소림
주요 건설통계	

## 4. 국토정책Brief(164호~210호)

호	발간일	제목	저자명
164	2. 4	도로이용자의 안전운전을 배려하는 고속도로 휴게소의 설치방안	조남건
165	2. 18	국가공간정보인프라 구축을 위해 측량제도 일원화해야	최병남
166	2. 25	최저주거기준과 최저주거비 부담을 고려한 주거복지정책 방향	김혜승
167	2. 25	도시용지공급 확대 및 지가안정을 위한 용도지역지구제 개선방안	채미옥
168	3. 3	영국, 프랑스, 독일 그린벨트 정책의 최근 동향과 시사점	최영국, 김영수
169	3. 10	국가공간정보인프라 구축을 위한 공간정보 관련 법제도 정비방안	최병남
170	3. 17	삶의 질을 증진하는 도로 공간기능의 활성화 방안	이준용, 류재영
171	3. 24	건강을 위한 교통규제 : 유럽의 환경지구 사례와 시사점	조남건
172	3. 31	외국 신공항 개발사례로 본 기존 공항의 활용방안과 시사점	임영태, 류재영
173	4. 7	유럽 '문화수도(Capital of Culture)' 추진전략의 성과와 시사점	이순자, 장은교
174	4. 14	국토정책의 목표 수정에 관한 제언 : '지역 간 균형발전' 에서 '지역별 특화발전' 으로	이동우
175	4. 21	국토어메니티 발굴과 창출 전략 : 어메니티자원과 공간의 연계화를 통한 지역부가가치 증진	김선희, 차미숙
176	4. 28	새로운 대중교통정책 방향 모색 : 모빌리티 매니지먼트(Mobility Management)를 중심으로	이백진
177	5. 19	유럽의 新동방건문록, 마르코폴로 프로그램	고용석
178	5. 19	개별입지 집적지 분석을 통한 산업입지정책의 시사점	강호제
179	5. 26	선진국의 교통정책 방향과 시사점	정일호, 고용석
180	6. 2	디지털국토 기반조성을 위한 교통정보 통합인프라 구축방안	이상건
181	6. 9	해외 철도정책 동향과 시사점 : 일반철도의 고속화를 중심으로	정진규
182	6. 16	복지도시를 향하여 - 사회복지시설의 생활권별 정비방안을 중심으로 -	이영아
183	6. 23	문화의 시대, 도시계획의 새로운 역할	박세훈
184	6. 30	효율적 국토관리를 위한 공중모니터링 체계 구축방향	신동빈, 안중욱
185	7. 7	대중교통환승시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김흥석
186	7. 14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북한강 유역의 평화적 활용방안	김영봉
187	7. 14	고유가 시대 교통정책방향 - 해외정책 동향과 시사점 -	정일호 김중학, 송동윤

호	발간일	제목	저자명
188	7. 21	국도업무 조직 효율화 방안	정일호, 정상미
189	7.28	우리나라 도시침수피해 특성과 정책과제	심우배
190	8. 4	스태그플레이션과 주택시장	손경환, 박천규,
191	8. 18	계획과정의 주민참여 패러다임 변화 - Geoweb 기반의 미국 뉴저지주 주민참여 사례 -	정일호 김종학, 송동윤
192	8. 25	고속도로망 구축의 심리적 국토공간 거리단축 효과	김호정, 정일호
193	9. 1	도시계획적 접근에 의한 홍수위험관리 - 영국 사례와 시사점 -	심우배
194	9. 8	동북아 경제지형의 변화와 거대경제지역의 발전 전망	김원배
195	9. 16	지역정체성 확립 및 창조성 제고를 위한 문화지도 작성과 활용방안	박정은
196	9. 22	액티브 리빙 리서치(Active Living Research) - 미국의 비만억제 노력과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	김은정
197	10. 6	신(新) 실크로드 : 대륙 육상교통망과 연계	정일호, 서민호
198	10. 20	기후변화에 대비한 공간계획의 역할과 대응전략	왕광익
199	10. 27	유비쿼터스 시대를 대비한 u-City 계획체계 정립방안	김정훈, 조춘만
200	11. 3	탄소제로 도시(Carbon Zero City) 건설을 향한 영국 베드제드 (BedZED)의 혁신사례와 시사점	이순자
201	11. 10	녹색도시(Green City) 구현을 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	임영태, 류재영
202	11. 17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교통정책 방향	정일호, 서민호
203	11. 24	싱가포르의 산업단지 재정비 동향과 시사점	서연미
204	12. 1	고속도로의 비상재해 대응방안	조남건, 김준기
205	12. 8	뉴타운사업 추진현황과 발전방향 - 지방도시 재생추진에 있어서 기본방향 -	이왕건
206	12. 15	민자시장의 금융위기 진단 및 시장 활성화방안	윤하중
207	12. 22	공간정보서비스 산업 활성화 방안	최병남
208	12. 22	기후변화에 대응한 영국의 국가정책 동향 -「계획법(Planning Act)」 제정을 중심으로-	이영아, 왕광익 전민구
209	12. 29	일본 저탄소사회 만들기 전략과 시사점 - 저탄소형 도시·지역정책을 중심으로 -	김진범
210	12. 29	도시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계획지원체계 소개 : UrbanSim	최병남, 조대헌

## 5. 도로정책Brief(3호~14호)

### ■ 3호(2008. 1)

#### 칼럼

- |                         |     |
|-------------------------|-----|
| 1. 도로개발에 대한 몇 가지 제언     | 이건영 |
| 2. 수도권 경쟁력은 도로교통혼잡 해소부터 | 김명국 |

#### 해외정책동향

- |                                 |          |
|---------------------------------|----------|
| 1. 독일 통일 후의 도로정책                | 김경석, 정일호 |
| 2. 일본 동경 수도고속도로 중앙환상선 건설의 시사점   | 정일호, 이미영 |
| 3. 호주의 투건 우회도로(Tugun Bypass) 개통 | 정일호, 이미영 |

이슈 \_ 도로사업 확대의 필요성-외국과의 비교 중심으로  
정일호, 이미영

#### 간추린 소식

1. 도로사업, 국민참여 새 장을 열다(도로사업 국민참여 매뉴얼 배포 등 활성화 방안 마련)
2.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완전개통 - 일산~퇴계원 통행료 4,300원
3.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제 전문가 초청세미나 개최
4. 인프라 21 : 원외 전문가 초청세미나 개최(2007. 12, 14)
5. 인프라 21 : 유럽 교통학회 연구동향과 유럽 교통스케치

### ■ 4호(2008. 2)

#### 칼럼

- |                        |     |
|------------------------|-----|
| 1. 이용자 중심의 도로 기능을 확대하자 | 이용재 |
| 2. 고속도로 간이휴게소 설치의 타당성  | 조남건 |
| 3. 친환경도로 시범사업 시행방안     | 전우훈 |

#### 해외정책동향

- |  |     |
|--|-----|
| 1. 해외 민간투자제도 동향                        | 윤하중 |
| 2. 최근 미국의 교통정책 추진전략                    | 임병식 |
| 3. 우리의 교통인프라 경쟁력 : IMD 2007 세계경쟁력 평가결과 |     |

이슈 \_ 삼중고의 해결사 혼잡통행료  
황기연

#### 간추린 소식

1. 수도권 민자고속도로 등 9개소 고속도로 착수
2. 제87회 TRB연례회의 개최(2008. 1. 13~17, 미국 워싱턴DC)
3. 일본 노무라 연구소와 ITS 간담회 개최
4. 고속도로 교통현안 간담회 개최(2008. 2. 1)

### ■ 5호(2008. 3)

#### 칼럼

- |                          |     |
|--------------------------|-----|
| 1. 21세기의 도로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 | 차동득 |
| 2. 미국은 지금 도로교통혼잡과 전쟁 중   | 이찬영 |

#### 해외정책동향

대도시권 외곽순환도로 해외사례  
고용석

이슈 \_ 스마트하이웨이로 미래를 열어 세계로 달린다  
최고일

#### 간추린 소식

1. 수도권 - 서울 출퇴근시간 30분 줄어든다
2. “스마트하이웨이사업” 상세기획연구 공청회 개최
3. 한국교통연구원 국제 전문가 초청세미나 개최
4. 고속도로 정책간담회 개최 : 국토연구원과 한국도로공사

### ■ 6호(2008. 4)

칼럼 _ 민간투자사업을 위한 변명	김홍수
해외정책동향	
1. 중국의 도로현황과 도로정책 방향	서운석, 정일호, 이미영
2. 지속가능한 통합교통을 위한 유럽의 노력, TEN-T계획	고용석
3. 해저터널 건설현황과 시사점	정일호, 이미영
이슈 _ 자전거 이용활성화 방안	임영태
간추린 소식	
연구기관별 2007년도 도로관련 연구과제 소개	

### ■ 7호(2008. 5)

칼럼 _ 21세기 도로정책 방향	김형진
해외정책동향	
1. 미국의 교통투자재원 현황과 전망	이찬영
2. 장대교량 해외시장과 기술동향	문정호
3. 지속가능한 도로를 위한 사회적/환경적 접근	조남건, 송동윤
이슈 _ 2+1 홀수차로 건설의 필요성	권재혁
간추린 소식	
1. 2008년 동홍천 - 양양 등 4개 고속도로 신규착공	
2. 대한교통학회 :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전일제에 관한 전문가 토론회 개최	

### ■ 8호(2008. 2)

칼럼 _ 교통안전법 개정에 따른 도로안전정책 발전방향	신부용
해외정책동향	
1. 기후변화와 고유가 쇼크 비상구 : Ecodriving	김종학
2. 첨단교통정보시스템의 최근 해외동향 및 추진과제	이상건
3. 유럽도로의 사회경제적 편익효과	이미영, 정일호
이슈 _ 고속도로 입체개발 활성화 방안	이병진
간추린 소식	
1. 한국길포럼 : 실용정부의 도로교통 정책방향	
2. 우리의 교통인프라 경쟁력 : IMD 2008 세계경쟁력 평가결과	

### ■ 9호(2008. 7)

칼럼 _ 국도업무 조직체계 개편방향	정일호
---------------------	-----

해외정책동향

- 1. 스마트하이웨이 해외 사례
- 2. 자동차 대기오염과 배출규제 현황
- 3. 유럽이 꿈꾸는 미래의 도로건설, NR2C

신규성  
류정호  
고용석  
김준기

이슈 \_ 도시부 고속도로의 이동성 향상 방안  
간추린 소식

- 1. 제17회 도로의 날 행사개최
- 2. 보행자 안전을 위한 보행자 도로 설치

■ 10호(2008. 8)

칼럼 \_ 도로설계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해외수주 활성화

김대하

해외정책동향

- 1.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일본의 도로정책
- 2. 베이징 올림픽과 교통대책
- 3. 교통혼잡과 통합교통축 관리

이백진  
박인성  
오준석

이슈 \_ 도로사업 갈등관리 및 민간참여 활성화 방향  
간추린 소식

김응철

- 1. 도로법령체계 정비방안 공청회 개최
- 2. 노선지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11호(2008. 9)

칼럼 \_ 최적의 도로, 최소의 도로

민만기

해외정책동향

- 1. 일본의 도로정책동향 : 도로특정재원 폐지와 도로정비중기계획
- 2. 과적 트럭차량 단속을 위한 Virtual Weigh and Compliance System
- 3. 유럽연합의 도로안전 관리정책 동향
- 4. 도로설계의 안정성 증대를 위한 미국의 노력

이승호  
양충현  
윤덕근  
이동민

이슈 \_ 교통안전을 위한 새로운 도로정책 방향  
간추린 소식

설재훈

- 1. 교통체계효율화법 전면 개정안 공청회 개최
- 2. 전기자동차 상용화 기반 추진

■ 12호(2008. 10)

칼럼 \_ 적정 도로 투자정책

강경우

해외정책동향

- 1. 미국의 새로운 교통정책
- 2. 네덜란드의 친환경 도로정책 동향
- 3. 해외의 환승연계시설 운영사례

이찬영  
조혜진  
윤혁렬  
김주홍

이슈 \_ 자동차관련 세수 현황과 개선방향  
간추린 소식

1. “도로투자 적정성”에 관한 토론회 개최
2. 2011년까지 국도 중앙분리대 102km 설치

### ■ 13호(2008. 11)

칼럼 \_ 합리적인 도로건설 목표 설정

손의영

해외정책동향

1. 화물차 전용도로 및 차로제 도입 필요성
2. 도시부 자전거전용도로 설계 시 고려사항
3. 영국과 일본의 ITS 성능시험장 건설 동향
4. 축 감지 센서를 이용한 차량 원더링 계속 장비

유정복

백남철

이미영

장진환

이슈 \_ 도로건설을 위한 토지보상, 이대로 괜찮은가?

서순탁

간추린 소식

1. 서울시 교통문화상 본상에 국토연구원 “도로정책연구센터” 수상
2. 안정적인 교통투자재원 확보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개최

### ■ 14호(2008. 12)

칼럼 \_ 민간투자사업의 성과와 최소운영수입보장 부담 개선

김재형

해외정책동향

1. 북한의 도로 현황과 향후 정책 방향
2.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한 독일의 교통투자 평가
3. 부산-거제 간 연결도로 침매터널 설계와 시공

서민호

김경석

윤상철

이슈 \_ 교통, 에너지, 환경세 및 교통시설특별회계 지속 존치 필요

박용석

간추린 소식

1. 길포럼 행사
2. 저탄소 녹색성장 도로정책 토론회



# V 부서 소개

1. 원장·부원장	146
2.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149
3. 녹색국토·도시연구본부	157
4. 주택토지·건설경제연구본부	165
5. 국토인프라·GIS연구본부	173
6. 기획경영본부	181

01

# President & Vice President

### 박양호 원장

도시 및 지역계획학 박사,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국토 및 지역계획 분야 전문가로서 건설교통부장관 자문관, 국토연구원 부  
원장, 한국지역학회 회장 등을 역임하였고 현재 지역발전위원회 위원, 녹색성  
장위원회 위원,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위원이다. 주요 연구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략적 국토발전 방향」(2009), 「세계경제 흐름과 창조적 국토  
발전」(2009), 「제4차 국토종합계획 연구」(1999),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연구」(1991), 「첨단산업과 지역발전 방향」(1987) 등 다수가 있다.



### 김영표 부원장

도시계획학 박사, 경원대학교

「우리산맥바로세우기포럼」 상임대표 등으로 활동 중이며 주요 연구분야는  
국토개발사, 국토정책, 토지정책, GIS, 국토정책시뮬레이션모형 분야다.  
연구실적은 「상전벽해 국토60년」(2008), 「울릉도와 독도의 역사적 기록에  
관한 연구」(2008), 「재정투자파급효과측정시스템 개발 및 국가발전지수  
정립연구」(2007), 「균형발전 영향평가 연구」(2006~2007), 「시공간통합  
국토정책시뮬레이션모형 개발연구」(2005), 「한반도 산맥체계 재정립 연  
구」(2004), 「時空自在의 세상을 향한 사이버국토 창조방안」(2004), 「GIS  
기반 공간분석방법론 개발연구」(2003), 「국공유지 관리 및 효과적 활용방  
안」(1995), 「토지공개념 연구」(1989), 「대도시 적정규모에 관한 연구」  
(1980) 등 다수가 있다.

# 02

c h a p t e r VI

국토계획 · 지역연구본부

## 연구본부 소개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는 국토계획, 지역계획, 한반도와 동북아지역계획 등 주요 공간계획과 관련된 장단기 정책을 연구하고 있다. 첫째, 국토의 균형 있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토종합계획 및 수정계획을 수립하고, 둘째, 광역경제권계획을 비롯한 경쟁력 있는 지역발전을 위한 수도권 및 산업입지 등 다양한 지역계획을 수립하며, 셋째,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북한연구 및 한반도와 동북아의 상생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연구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분석 방법론과 미래사회 변화에 대비한 중장기 기초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는 창의적, 실용적, 미래지향적 정책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광역경제권, 수도권, 산업입지, 한반도·글로벌국토전략센터 등을 두고 있다.

### 광역경제권전략센터

- 광역경제권 개발계획 수립
- 지역 간 협력, 갈등 조정 연구
-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 수도권전략센터

- 수도권정비계획 수립
-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방안 마련
- 수도권 규제 및 정책 연구

### 산업입지전략센터

- 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
- 산업입지 공급계획 수립 및 정보시스템 구축
- 산업클러스터 형성 및 촉진 방안
- 기타 산업입지 및 지역경제 발전방안

### 한반도·글로벌국토전략센터

- 한반도 국토 개념 디자인 및 계획 수립
- 통일시대를 대비한 토지, 주택, 교통, 환경, 산업입지, 지역 및 도시발전과 관련된 장단기 정책 개발
- 지역협력 증진을 위한 한반도 국토구조 전환 전략
- 동북아시아 도시 및 지역발전 비교 분석



## 연구진 소개

### 김동주 선임연구위원

지역경제학 박사, University of Pennsylvania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책연구실장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장을 맡고 있다. 주요 연구로는 「광역경제권 발전전략과 과제」(2008), 「균형발전 선도도시 건설과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2006), 「혁신 주도형 균형발전정책의 성과와 미래상」(2006), 「국토 공간구조 개편과 국가경쟁력」(2005), 「혁신클러스터와 지역경제발전 : 국제비교연구」(2003), 「지식정보화시대의 산업입지 군집체계」(2002) 등이 있다.

### 이용우 연구위원

지리학 박사, University of Bonn  
국토 및 지역계획과 지속가능발전 분야의 전문가로서 광역경제권전략센터장을 맡고 있다. 주요 연구로는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지표 설정과 활용에 관한 연구」(2007), 「고속철도와 국토공간구조의 변화(II)」(2006), 「고속철도 주변지역의 효과적 개발방안」(2006), 「전략환경평가 시행지침 개발 연구」(2006), 「서해안 관광벨트 개발계획」(2005), 「과천지식정보타운 개발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연구」(2005), 「지역의 특성화 발전을 위한 산업별 수위도시 육성방안」(2004), 「서해안고속도로 개발계획 수립연구」(2003), 「지속가능한 국토개발지표 설정에 관한 연구」(2003), 「환경친화적 국토발전을 위한 전략 연구」(2001) 등 다수가 있다.

### 이동우 선임연구위원

도시 및 지역계획학 박사, University of Tsukuba  
현재 수도권전략센터장을 맡고 있으며, 「수도권규제가 인구·산업의 공간적 재배치에 미친 영향 실증분석」(2008),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기초연구」(2006), 「분권화시대 중앙정부의 지역정책 방향연구 : 국제비교분석을 중심으로」(2006),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개발 투자재원 확보방안 연구」(2005) 등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 류승한 연구위원

지리학 석사, 동국대학교  
현재 산업입지전략센터장이며,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시민이 참여하는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 사례편」(2007), 「자립적 지역발전을 위한 잠재력 분석 연구(II)」(2005), 「산업입지 제도개편 방안 연구」(2005), 「환경친화적 산업입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2004), 「Environment-Friendly Industrial Park Development Guidelines : The Cases of Cikarang and Bitung in Indonesia」(2002) 등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 김영봉 연구위원

경영학 석사, 서강대학교  
현재 한반도·글로벌국토전략센터장을 맡고 있으며, 북한 및 군사시설 분야 전문가로서 미시간주립대학 국제전문가 초청과정을 수료하고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 정책전문위원, 통일교육위원 등을 역임하였다. 주요 연구로는 「북한 주요항만과 배후산업단지 개발전략에 관한 연구」(2007), 「북한 관광자원의 효율적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2006), 「북한강유역의 남북한 평화적 이용방안」(2005), 「평화벨트 구축을 위한 서해 남북접경지역 이용방안」(2004), 「경의·동해선 연결과 접경지역 평화벨트 구축방안」(2003),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실태와 관리방안」(1999),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전략지역 활용방안」(1998) 등이 있다.

### 김원배 선임연구위원

도시 및 지역계획학 박사, University of Wisconsin at Madison  
동북아 도시 및 지역경제 분야 전문가로서 하와이 동서

# 02

문화센터 연구위원, 동아대학교 조교수, 하와이대학교 부교수 등을 역임하였다. 주요 연구로는 「동북아 핵심 경제지역의 발전 전망과 연계망 구축(I)」(2007), 「베세토 비즈니스 회랑 구축 제안-동북아 교통망의 비전과 실천」(2007), 「한반도 기반시설 개발의 기본구상 연구(I)」(2006), 「환동해경제권 형성을 선도하기 위한 동해안지역의 대외전략」(2005), 「한일해협권 통합지역경제 기반구축을 위한 전략」(2005), 「러시아 연해주에서의 자원·인프라 개발을 위한 한·러 협력방안」(2003), 「동북아 협동적 지역개발의 사례분석과 이론모색」(2002), 「21세기 동북아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전략」(2001), 「동북아 협동적 지역개발의 사례분석과 이론모색」(2002), 「21세기 한반도 경영전략 : 지경학적 접근」(1999), 「Culture and the City in East Asia」(1997), 「Asian NIES and the Global Economy」(1995) 등이 있다.

## 양하백 선임연구위원

조경학 석사, 서울대학교

지역계획, 자원 및 환경계획 분야의 전문가로서 주요 연구로는 「개발제한구역의 제도개선을 위한 환경평가」(1999), 「국토이용계획을 위한 GIS활용방안 연구」(1998), 「제주도 중산간지역 종합조사」(1997) 등이 있다.

## 이상준 연구위원

공학 박사, Technical University of Berlin

도시개발 및 북한 국토·도시 분야 전문가로 일본 총합연구개발기구와 독일 연방건설청의 객원연구원으로 활동하였다. 주요 연구로는 「한반도 기반시설 개발의 기본구상 연구(II)-기반시설 개발의 추진체계와 재원조달」(2007), 「통일 이후 구 동독의 도시정책과 시사점」(2006), 「남북인프라 협력사업의 통합적 추진방안 연구」(2005), 「동북아 협력시대의 북한 경제특구 활용전략」(2004), 「북한의 개혁·개방과 산업인프라 개발의

새로운 과제」(2003) 등이 있다.

## 김상욱 연구위원

행정학 석사, 서울대학교

「밀양 첨단과학산업단지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2008), 「Air-City 개발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용역」(2007), 「2025 수원도시기본계획(변경) 수립 연구용역」(2006), 「대전-통영 고속도로 주변지역의 효과적 개발방안 연구」(2004), 「지식기반산업 입지정책 연구」(2003), 「산업입지제도 개편방안 연구」(1998), 「산업입지정보망 구축방안」(1998) 등 국토 및 지역개발 계획 수립과 지역개발정책 및 산업입지 분야 연구를 수행하였다.

## 김태환 연구위원

지리학 박사, University of Newcastle upon Tyne

수도권 및 지역계획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주요 연구로는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연구」(2008), 「지역개발사업의 통합적 추진모형 구축 및 적용방안(I)」(2008), 「수도권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지방이전추진방안」(2005), 「자립적 지역발전을 위한 잠재력 분석연구(I)」(2004), 「수도권 집중요인 분석 및 기능 분산방안 연구」(2003),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분권실행과 지역화방안 연구」(2003) 등이 있다.

## 박형서 연구위원

도시 및 지역계획학 박사, University of Liverpool

주요 연구실적은 「공공갈등지표 설정과 활용방안」(2007), 「공공사업 지자체 참여제도 방안」(2006), 「공공갈등 관리 매뉴얼 구축연구」(2006), 「한일 해협권 통합지역경제 기반구축을 위한 전략」(2005), 「환동해경제권 형성을 선도하기 위한 동해안지역의 대외 전략」(2005), 「공공시설 입지갈등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연구」(2004) 등이 있다.

**김광익 연구위원**

지리학 박사, 성신여자대학교

도시 및 지역정책 분야의 전문가로서, 주요 연구로는 「국토경쟁력 강화를 위한 광역경제권 설정 및 발전구상」(2008), 「도시권 획정 연구」(2007), 「도시화지역 획정을 위한 시스템개발」(2006), 「공공기관 지방이전시책의 추진과정 연구」(2006), 「인구저성장시대의 도시권 공간구조의 변화와 정책대응방향」(2006), 「대도시 산업구조변화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2001) 등이 있다.

**이원섭 연구위원**

지리학 박사, Michigan State University

국토계획 및 낙후지역정책 분야 전문가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책연구팀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주요 연구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개발정책의 혁신방안」(2007), 「지방분산·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의 대응과제(I), (II), (III)」(2005, 2006, 2007), 「통합국토를 향한 지역 간 공동발전방안 연구(I), (II), (III)」(2003, 2004, 2005),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연구」(2005) 등이 있다.

**권영섭 연구위원**

행정학 박사, 서울시립대학교

국토 및 지역계획, 산업입지, 첨단산업과 지역정책 등의 분야를 연구하고 있으며, 주요 연구로는 「미래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다핵도시체계 확립과 육성 방안」(2008),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전략산업 클러스터 촉진방안」(2007), 「지방도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혁신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연구」(2006), 「지역특성화 발전을 위한 혁신 클러스터 육성방안 연구」(2005), 「정보통신기술(ICT)산업의 지역간 기능분담방안 연구」(2004), 「지역별 지식기반산업과 지역혁신체계 구축방안: 테크노파크 성과분석을 중심으로」(2003), 「지식기반산업의 입지특성과 지역경제활성화

연구」(2002), 「시범 테크노파크사업과 지역혁신체계 구축」(2001), 「지역 지식기반산업 육성을 위한 잠재력 제고방안」(2000) 등이 있다.

**김천규 연구위원**

경제학 박사(자원 및 환경경제), 中國人民大學

지역계획, 자원 및 환경경제 분야의 전문가로서 주요 연구로는 「새만금 간척용지의 토지이용구상 조정방안 연구」(2008), 「중국의 행정구역 분류 및 기초통계」(2008), 「개발제한구역의 제도개선을 위한 환경평가」(1999), 「국토이용계획을 위한 GIS활용방안 연구」(1998), 「제주도 중산간지역 종합조사」(1997) 등이 있다.

**김창현 연구위원**

경제학 박사, 국립경상대학교

국토계획 분야 전문가로서 주요 연구로는 「농촌이주 인구의 공간적 분포특성과 국토정책과제」(2008), 「농촌지역특성의 진단지표 개발과 정책적 활용방안」(2007), 「지역특성을 고려한 농촌활성화 방안 연구」(2006), 「유역통합관리를 위한 재원확보방안 연구」(2005), 「정주공간의 구조적 변화와 대응방향」(2003),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중추기능의 공간적 재편방안」(2002), 「공공시설부담금제의 도입에 관한 연구(I), (II)」(1995, 1996) 등이 있다.

**문정호 연구위원**

계획학 박사,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주요 연구로는 「국토 및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법적분쟁의 실태와 대처방안」(2008), 「국토종합계획 실천계획 평가체계 정립연구」(2007), 「지방분산·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의 대응과제(III)」(2007),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 수립연구」(2007), 「제주 광역도시계획 수립연구」(2007), 「참여정부 공공계획의 패러다임에 관한 연구」(2006), 「지방분산·분권과 국토균형발

# 02

전의 대응과제(I),(2005), 「자립적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단위 설정 연구(2003) 등이 있다. 현재 「글로벌 시대의 국토정책과 동북아 도시 간 연계·협력방안 연구」, 「국토 및 지역개발사업의 법적 분쟁 실태와 대처방안」 등의 연구를 수행 중이다.

## 차미숙 연구위원

행정학 박사, 연세대학교

지역정책 전문가로서 현재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문위원, 국토해양부 규제개혁위원·예산자문위원, 충남투융자 심사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연구로는 「지역개발사업의 통합적 추진모형 구축 및 적용방안(I)」(2008), 「미래 삶의질 개선을 위한 국토어메니티 발굴 및 창출전략 연구(2007)」, 「개발제한구역의 친환경적 보전 및 관리를 위한 내셔널트러스트 도입방안 연구(2006)」, 「국가균형발전사업의 지역 내 추진체계 구축연구(2004)」, 「지역발전을 위한 거버넌스체계 구축 및 운용방안 연구(2003)」, 「지역발전론(2003)」, 「유럽의 지역발전정책(2003)」,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유형별 입지특성과 지역연계연구(2002)」,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구상 및 지정타당성 조사연구(2001)」, 「지역개발사업의 파급효과 분석기법 및 적용연구(2001)」를 수행하였다.

## 이승복 연구위원

경영학 박사(자원환경관리), 단국대학교

자원관리 및 경제성 분석 전문가로서 주요 연구로는 「남북경협 활성화 시대에 대비한 동해연안 남북접경지역의 평화적인 이용방안(2008)」, 「경주역사문화도시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2007)」, 「하천의 연계성 확보를 위한 하천관리체계 모색연구(2006)」, 「대체수자원 확보에 관한 연구(2006)」, 「효율적인 빗물관리방안 연구(2005)」, 「홍수피해 특성분석 및 홍수피해 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2005)」, 「하천 법령 및 제도 개선방

안 연구(2004)」, 「국토개발사업의 환경가치평가 기준 설정과 적용에 관한 연구(2004)」 등이 있다.

## 정옥주 연구위원

지리학 및 지역계획학 박사, University of Paris-IV-Sorbonne

주요 연구로는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연구(2007)」, 「지방분산·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의 대응과제(II), (III)」(2006, 2007)」,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기초연구(2006)」,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연구(2005)」, 「통합국토를 향한 지역 간 공동발전방안 연구(II), (III)」(2004, 2005) 등이 있다.

## 황성수 책임연구원

도시계획학 석사, 서울대학교

「경기서북부국제업무 신시가지개발 타당성분석 연구(2006)」, 「중부내륙광역권개발계획(2006)」, 「김포신도시 개발구상 및 주변지역 관리방안 연구(2006)」, 「철도역세권 개발계획(2006)」, 「웅진군 종합발전계획(2005)」, 「도시수변공간의 이용특성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2002)」 등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 이순자 책임연구원

정치학 박사(환경정책 및 자원관리), Colorado State University

주요 연구로는 「새만금 간척용지의 토지이용구상 조정 방안 연구(2008)」, 「국토 및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법적 분쟁의 실태와 대처방안(2008)」,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 측정·평가 연구(2008)」, 「근대 산업유산의 보존·활용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연구(2008)」, 「도시재생을 위한 근대역사환경 활용방법 분석(2008)」, 「전주 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연구(2007)」, 「공공사업 갈등지표 설

정과 활용방안 연구」(2007), 「새만금 간척용지의 토지 이용계획 수립 연구」(2006), 「제주 광역도시계획 수립 연구」(2006) 등이 있다.

### 변필성 책임연구원

지리학 박사(도시계획 부전공), University of Arizona

「지역발전을 위한 향토자원의 상품화 사례로서 보령시 머드화장품 사업에 대한 고찰」(2006), 「분권화시대 중앙정부의 지역정책 방향연구 : 국제비교분석을 중심으로」(2006), 「A Revisionist Model of Suburbanization and Sprawl : the Role of Political Fragmentation, Growth Control, and Spillovers」(2005)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 강호제 책임연구원

도시정책학 박사, Cleveland State University

지역경제개발, 산업클러스터, 산업단지 및 개별입지, GIS 공간분석 전문가로 「서해안 고속도로의 지역성장 효과분석」(2007), 「준산업단지 실행방안 연구」(2006), 「노후산업단지 재정비 실행방안 연구」(2006), 「지방분산·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의 대응과제(III)」(2006), 「지방분산·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의 대응과제(II)」(2006), 「지역특성화 발전을 위한 혁신클러스터 육성방안 연구」(2005) 등의 연구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후원으로 이집트 토지개발정책 평가감시능력 강화를 위한 이집트 파견교육(2008)을 수행하였다. 2005년 미국 서부지역학회 최고논문상(Springer Award)과 Honorable mention for Tiebout prize를 공동 수상하였다.

### 이성수 책임연구원

경제학 석사, 서강대학교

주로 동북아 및 북한지역 개발을 연구하며 주요 연구로

는 「한반도 기반시설 개발의 기본구상 연구(I)」(2006), 「한일 해협권 통합지역경제 기반구축을 위한 전략」(2005), 「동북아 협력시대의 북한 경제특구 활용전략」(2004), 「경의·동해선 연결과 접경지역 평화벨트 구축방안」(2003) 등이 있다.

### 변세일 책임연구원

경제학 박사, 경북대학교

주요 연구로는 「주택정책평가모형 개발과 정책효과 분석 연구」(2008), 「균형발전영향평가 제도개선방안 연구」(2008),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전략산업클러스터 촉진방안」(2007), 「2007년도 균형발전영향평가 연구용역」(2007), 「2006년도 균형발전영향평가 연구용역」(2006), 「제4차 국토계획 수정계획 수립연구」(2005), 「수도권 대규모개발사업의 집합적 파급영향 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2005),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방안」(2004), 「ICT 산업의 지역 간 기능 분담에 관한 연구」(2004),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혁신 클러스터 육성방안」(2003), 「지역별 지식기반산업 육성과 지역혁신체계 구축방안」(2003), 「지역 간 산업 연관표 작성연구(III)」(2003) 등이 있다.

### 서연미 책임연구원

지리학 박사, 서울대학교

지역산업정책 분야의 전문가로서 주요 연구로는 「기후 변화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국토관리 전략(I)」(2008), 「국토관리 분야의 사회적 자본 확충방안(I)」(2008), 「기존의 산단 등 재정비 사업방식별 시행방안 연구」(2008), 「국토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보호지역의 위계정립 및 관리방안」(2007), 「경기도 산업클러스터 발전 기본 구상」(2007), 「실리콘밸리에 입지한 한국계 중소기업의 국제화와 국지화」(2007) 등이 있다.

# 02

## 김은정 책임연구원

도시 및 지역계획학 박사, Texas A&M University  
주요 연구로는 「Effects of Built Environmental Factors on Perceived Health Status and Health Disparity」(2008), 「남북경협 활성화시대에 대비한 동해연안 남북접경지역의 평화적인 이용방안」(2008), 「울릉도와 독도의 역사적 기록에 관한 연구」(2008), 「Health Disparity and the Built Environment : Spatial Disparity and Environmental Correlates of Health Status, Obesity, and Health Disparity」(2007), 「The Impact of Alternative Tax Systems on Regional Disparity in Korea」(2005) 등이 있다.

## 박인권 연구원

현재 Ohio State University, City & Regional Planning, Ph.D 과정 중.

## 박경현 연구원

지리학 박사과정 수료, 서울대학교  
주요 연구로는 「지방분산·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의 대응과제(III)」(2007), 「농촌지역 특성의 진단지표 개발과 정책적 활용방안」(2007),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와 도시계획의 역할에 관한 연구」(2006), 「지역특성화 발전을 위한 혁신클러스터 육성방안 연구」(2005), 「인구저성장시대의 도시관리정책 방향 연구」(2005), 「ICT산업의 지역 간 기능분담 방안 연구」(2004) 등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 임상연 연구원

행정학 석사, 서울시립대학교  
주요 연구로는 「미래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다핵도시체계 확립과 육성방안」(2008), 「균형발전영향평가제도 개선방안 연구」(2008), 「전략환경평가 시행지침 개발 연구-국토관련계획을 중심으로」(2006), 「지방분산·

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의 대응과제(I)」(2005),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2005), 「국토·교통계획에 대한 전략환경평가 시행방안 연구」(2005), 「전략환경평가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2004) 등이 있다.

## 장은교 연구원

조경학 석사, 서울대학교  
「공공사업 갈등지표 설정과 활용방안 연구」(2007), 「경주 역사문화도시 조성 타당성조사·기본계획 및 선도시업 세부실행기본계획 수립연구」(2007), 「전주 전통문화도시 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연구」(2007), 「참여시대 공공계획의 패러다임에 관한 연구」(2006), 「새만금 간척용지의 토지이용계획 수립 연구」(2006) 등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 윤영모 연구원

도시정보공학 박사과정 수료, 안양대학교  
주요 연구로는 「규제자유지역의 추진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2008), 「국토종합계획 실천계획 평가체계 정립방안 연구」(2007),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 수립 연구」(2007), 「고속철도 주변지역의 효과적 개발방안에 관한 연구」(2006) 등이 있다.

## 구정은 연구원

도시계획학 석사, 서울대학교  
주요 연구로는 「미래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다핵도시체계 확립과 육성방안」(2008), 「도시규모에 따른 다핵화 수준에 관한 연구」(2006) 등이 있다.

# 03

c h a p t e r VI

녹색국토 · 도시연구본부

## 연구본부 소개

녹색국토·도시연구본부는 국토의 녹색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환경과 문화·역사를 통한 국토 및 도시정책을 연구·개발하고 있다.

에너지 문제, 기후변화에 따른 녹색기술과 국토분야를 융합한 녹색성장정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국토환경관리, 수자원·방재 등을 연구하고 있으며 국토의 역사성 확립 및 문화환경 조성을 위해 국토문화·역사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삶의 질과 의미에 대한 재평가와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력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새로운 가치를 포용할 수 있는 도시계획 및 개발, 도시재생 관련 정책 및 제도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녹색성장국토전략센터, 도시재생전략센터, 문화국토전략센터 등 3개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 녹색성장국토전략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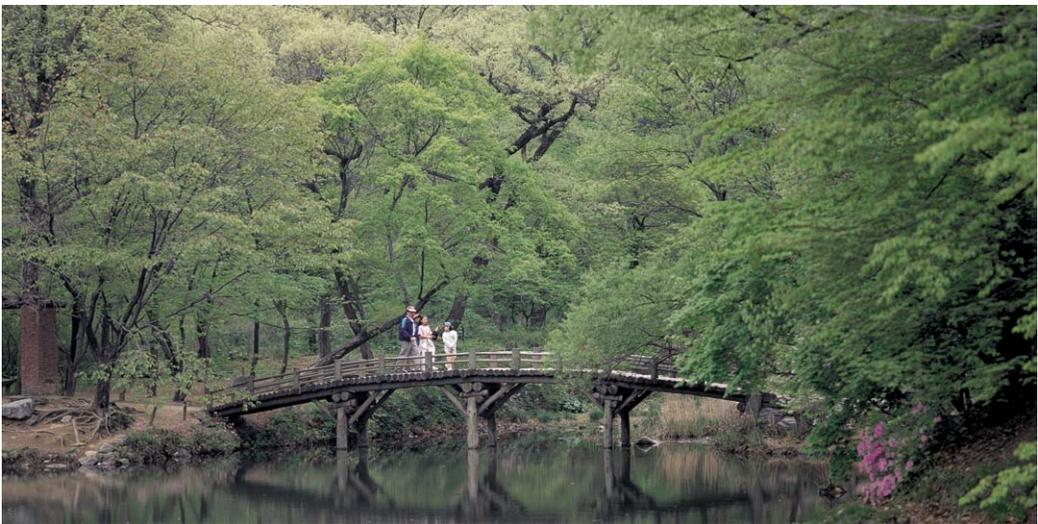
- 저탄소 녹색성장형 국토관리 정책·제도 연구
- 녹색성장 실천을 위한 역량강화·현장지원
- 녹색성장 국토전략에 관련된 국내외 정보구축 및 DB화

### 도시재생전략센터

- 도시재생,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관련 정책연구
- 도시재생, 지방자치단체의 도시 만들기 역량강화 지원 협력
- 도시재생과 관련된 국내외 정보 구축

### 문화국토전략센터

- 국토 문화가치 제고를 위한 역사·문화 환경조성 연구
- 국토 역사·문화보전 및 조성 관련 공간계획 수립
- 국토의 역사·문화·자산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정책연구
- 문화국토 조성을 위한 역사·문화관련 기초정보 구축



## 연구진 소개

### 최영국 선임연구위원

조경학 박사, Agricultural University of Norway  
자연환경관리, 생태관광 및 경관계획 분야의 전문가로서 현재 녹색국토·도시연구본부장이며, 국토해양부 중앙도시계획위원, 환경부 중앙환경보전 자문위원과 산림청 산림정책평가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연구로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국토관리(I)」(2008), 「국토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보호지역의 위계정립 및 관리방안」(2007),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시설물 평가지표 작성 및 DB구축 연구」(2007), 「국토의 자연훼손 진단 및 대책에 관한 연구」(2006), 「생태관광 활성화방안 연구」(2005)와 저서로서 「녹색성장의 길(공저)」(2009) 등이 있다.

### 김선희 연구위원

공학 박사, 서울시립대학교  
국토환경 및 어메니티 계획, 갈등관리 분야 전문가로서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위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전문위원 등을 역임한 바 있고, 현재 녹색성장국토전략센터장,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위원, 중앙하천관리위원회 위원, 백두대간보호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연구로는 「국토관리분야의 사회적 자본 확충 방안 연구」(2008), 「상전벽해 국토60년」(2008), 「미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국토어메니티 발굴 및 창출전략 연구」(2007), 「효율적인 수계별 하천관리방안 연구」(2007), 「개발제한구역의 친환경적 보전 및 관리를 위한 내셔널트러스트 도입방안 연구」(2006), 「국책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사회합의형성시스템 구축방안 연구」(2005), 「국토개발사업의 환경가치평가 기준설정 및 적용방안 연구」(2004), 「자원절약적 국토발전방안 연구」(2003) 등이 있다.

### 민범식 선임연구위원

도시공학 박사, University of Tokyo  
현재 도시재생전략센터장이며, 「커뮤니티 중심의 도시 정비 활성화 방안」(2007),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기본계획」(2006), 「주거지역 개발밀도 설정방안에 관한 연구」(2004), 「성남판교지구 택지개발사업 기본구상 및 개발수요 분석연구」(2003), 「기성시까지 정비기법에 관한 연구 : 주거지역을 중심으로」(2002) 등 도시개발과 기성시까지 환경정비 분야 연구를 수행하여 왔다.

### 채미옥 선임연구위원

공학 박사, 서울시립대학교  
국토연구원 토지·주택연구실장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문화국토전략센터 소장, 국토해양부 정책자문위원, 환경부 국토환경보전위원,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행정안전부 자체평가위원, 중앙산지관리위원 등으로 활동 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토지정책, 개발이익환수 및 손실보상, 토지이용규제, 산지 및 농지관리 등이며,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고도(古都)보존 기초조사연구」(2007), 「대규모 개발사업지 주변지역의 토지시장관리 방안」(2007),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조성 방안」(2007), 「선진사회를 향한 토지정책방향 및 추진전략연구(II)」(2007), 「선진사회를 향한 토지정책방향 및 추진전략연구(I)」(2006), 「계획적 국토관리를 위한 산지관리제도의 개선방향」(2005), 「계획적 국토관리를 위한 정책수단의 운용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2004), 「토지적성평가제도의 개선방안 연구」(2003), 「토지이용규제제도와 환경규제제도의 연계성 확보방안」(2002),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토지적성평가에 관한 연구」(2001) 등이 있다.

### 진영환 선임연구위원

도시 및 지역계획학 박사, Cornell University  
「시민이 참여하는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 사례편, 전

# 03

략편」(2007, 2008), 「행정중심복합도시 기본계획」(2005), 「신행정수도 기본구상 및 입지기준」(2003), 「수도권 등 광역도시계획수립」(2001), 「제4차 국토계획수립」(1999), 「개발제한구역 조정」(1998) 등의 연구를 수행했으며, 국토연구원 부원장, 기획조정실장, 국토계획연구실장, 지역·도시연구실장을 지냈다.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한국지역학회 회장, 건설부장관 자문관을 지냈으며 현재 중앙도시계획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 김현식 선임연구위원

도시계획학 박사, Princeton University

「The Role of Festivals in the Reproduction of the Urban Lifeworld」(2006), 「이집트 토지개발정책 평가 감시능력 강화사업」(2006), 「과천지식정보타운 개발전략 수립연구」(2005), 「도시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2001), 「제주국제도시 기본 계획 및 타당성조사 연구」(2000) 등의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지역·도시연구실장을 역임하였고, 경기도 도시계획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 정석희 선임연구위원

도시 및 지역계획학 박사, University of Pennsylvania  
주요 수행연구는 「김포 양촌신도시 개발구상 연구」(2007), 「판교신도시 개발구상 및 타당성 분석」(1999), 「경부고속철도 역 및 역세권개발 기본구상」(1997), 「부산시 도시기본계획」(1992), 「일산 신도시개발사업 기본계획」(1991) 등이 있으며, 도시계획연구실장을 역임하였다. 대외적으로는 건설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 서울시 건축위원을 역임하였고, 현재는 국토해양부 신도시 자문위원,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정책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 박재길 선임연구위원

공학(도시계획) 박사, The University of Tokyo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와 도시계획의 역할에 관한 연구」(2006), 「도시관리계획의 토지이용 관리기능 제고 방안 연구」(2006), 「행정중심복합도시 국제공모 관리 및 기본계획 수립연구」(2006),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추진방안 연구」(2005), 「도시계획결과와 사회적 정의에 관한 연구」(2004) 등의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지역·도시연구실장을 역임하였다. 대외적으로는 건설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위원 등을 역임하였고, 국토해양부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 김종원 연구위원

자원경제학 박사, West Virginia University at Morgantown

환경 및 수자원 분야 전문가로서, 현재 감사원 건설물류분야 자문위원, 국토해양부 전략환경평가위원 등을 역임하고 있으며, 주요 연구로는 「환경용수의 확보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분담과 정책과제」(2007), 「하천복원사업의 사회·경제성 평가기법」(2007), 「물 수요관리평가모형 구축방안 연구」(2006), 「유역통합관리를 위한 재원확보방안 연구」(2005), 「하천 유역별 오염총량관리제도의 도입에 따른 지역경제 및 토지이용 전망과 정책과제」(2004), 「용수재배분을 통한 가용수량확보 방안(I), (II), (III)」(2004, 2005, 2006) 등이 있다.

## 박은관 연구위원

환경조경학 석사, 서울대학교

「도시개발제도 개선방안 연구」(2005), 「택지개발사업 지구 자족기능 강화방안 연구」(2004), 「대구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연구」(2004), 「지구단위계획의 효율적 운용방안 연구」(2001), 「도시계획체계정립 및 계획수립

기준 연구(1993) 등 주로 도시계획 및 설계분야에서 연구를 수행해왔다.

#### 이왕진 연구위원

도시 및 지역계획학 박사, Texas A&M University  
「도시용지의 공급확대에 따른 계획적 활용방안」(2008), 「도시주변부 녹지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경제적 보상방안에 관한 연구」(2007),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와 도시계획의 역할에 관한 연구」(2006), 「인구 저성장시대의 도시관리정책 방향 연구」(2005),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추진방안 연구」(2005), 「행정중심복합도시 국제공모 관리」(2005), 「주거지역 개발밀도 설정방안 연구」(2004) 등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 박태선 연구위원

수공 및 환경공학 박사, 한양대학교  
하천 및 수자원 분야 전문가로서 수자원정책, 자연형 하천, 공업용수도, 내륙주운, 간이상수도, 치수경제성 분석, 댐 사후평가 등 수자원 전반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한국수자원학회, 대한토목학회 등 관련 학회 회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주요 연구로는 「홍수피해 특성분석 및 홍수피해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2005), 「자연형 하천정비를 위한 하천환경특성 분석연구」(2004), 「하천의 유지관리방안 연구」(2004), 「합리적 하천관리를 위한 하천등급 조정방안 연구」(2002) 등이 있다.

#### 이문원 책임연구원

도시공학 박사과정 수료, 서울시립대학교  
국토자원 활용(연안 및 접경지역) 및 군사시설 이전정책 분야 전문가로서 국토연구원 출판팀장을 역임하였으며, 해양수산부의 어촌어항기본계획 수립 자문위원(2007), 어촌체험마을 컨설팅사업 및 사무장채용 지원 사업 심사위원(2007)으로 활동하였다. 주요 연구로는

「울릉도와 독도의 역사적 기록에 관한 연구」(2009), 「기후변화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국토관리전략(I)」(2008), 「재해에 안전한 도시조성을 위한 방재도시계획 수립방안」(2008), 「낙동강프로젝트 기본계획수립연구」(2008), 「미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국토 어메니티 발굴과 창출전략 연구」(2007), 「군사시설 이전적지 활용 및 사업화 추진에 관한 연구」(2007), 「북한 관광자원의 효율적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2006) 등이 있다.

#### 김성수 책임연구원

현재 University of Hawaii at Manoa, Department of Urban and Regional Planning, Ph.D 과정 중.

#### 김상조 책임연구원

환경조경학 석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혁신도시 개발을 위한 계획기준 연구」(2006),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기본계획 및 개발계획」(2005~2006), 「지방분권에 따른 국토도시계획체계 재정립방안 연구」(2005), 「남해군 시범 군 기본계획 수립」(2004), 「도시 기본계획 결정권한 이양에 따른 제도보완방향 연구」(2003) 등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 이영아 책임연구원

도시계획학 석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시민참여형 도시정비를 위한 시민역량 강화방안」(2008), 「도시환경개선을 위한 기성시가지 정비방안 연구」(2001),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도시시설 확충방안 연구」(2000) 등을 수행하였으며, 주요 연구분야는 도시정비 및 사회정책이다.

#### 박세훈 책임연구원

행정학 박사(도시계획 전공), 서울대학교  
도시정책·계획 분야의 전문가로, 세계화와 도시발전, 도시계획의 역사, 일본의 도시계획 등에 관심을 가지고

# 03

연구하고 있다. 주요 연구실적으로 「대중교통중심형 도시공간구조 구축을 위한 도시계획과 교통계획의 연계방안연구」(2008), 「동북아 대도시권 동태적 경쟁력의 비교연구」(2007), 「지방분산·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의 대응과제(I)」(2005), 「신행정수도 후보지선정 및 평가관리 연구」(2004) 등이 있다.

## 심우배 책임연구원

공학 박사, 홍익대학교

국토·도시방재 및 기후적응 분야 전문가로서 현재 소방방재청 재해복구사업사전심의위원회 중앙심의위원, 환경부·기상청 기후변화연구회 연구위원, 환경부 기후변화 적응 포럼 위원, 한국방재학회 하천방재시스템 분과위원, 한국수자원학회 수문기상분과위원, 하천협회 정책개발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연구로는 「재해에 안전한 도시조성을 위한 방재도시계획 수립방안 연구」(2008),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계획」(2006),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기본계획」(2006), 「도시홍수관리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연구」(2006), 「현장중심적 접근을 통한 수해특성 분석 및 정책과제」(2006), 「방재국토 구축을 위한 GIS활용방안 연구(I)」(2005), 「국토·교통계획에 대한 전략 환경평가 시행방안 연구」(2005), 「수자원관리 및 국토 방재기반구축」(2005), 「효율적인 빗물관리방안 연구」(2005) 등이 있다.

## 김명수 책임연구원

공학 박사, 서울대학교

환경생태계획 및 경관계획 전문가로서 경관생태학에 대한 다수의 논문이 있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국토관리(I)」(2008), 「건강·문화·생태회랑 구축 전략 연구」(2008), 「국토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보호지역의 위계정립 및 관리방안」(2007),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시설물 평가지표 작성 및 DB 구축 연구」(2007),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기본계획」

(2006),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계획」(2006), 「도시경관 관리제도 정비방안 연구」(2005),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경관기본계획 수립」(2005), 「생태통로 설계 지침서」(2005), 「포항제철소 그린마스터 플랜」(2005), 「경기도립 환경교육센터 기본계획수립 연구」(2004), 「도시지역의 자연환경성 확보방안 연구」(2004), 「서울의 주요 하천변 경관개선 방안 연구」(2002) 등을 수행하였다.

## 김진범 책임연구원

도시·지역계획학 박사, University of Tsukuba

주요 관심분야는 계획이론, 커뮤니티플랜, 지역시설계획 등이다. 주요 연구로는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활성화 위한 마을계획 제도 도입 방안(2008), 「시민이 참여하는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 사례편」(2007), 「제주광역도시계획 수립 연구」(2007), 「광역권 개발계획의 평가와 진단」(2006), 「평택시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연구」(2005), 「일본 키타큐슈시의 공항 선택선호의식에 관한 연구」(2004), 「일본 도시계획제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2004), 「필리핀 다바오시의 불법점거거주자와 이전거주자의 거주환경 선호의식」(2003), 「기혼취업여성의 출산행동에 미치는 보육시설의 효과」(2002) 등이 있다.

## 김형진 책임연구원

현재 Texas A&M University, Department of Urban and Regional Planning, Ph.D 과정 중.

## 왕광익 책임연구원

공학 박사, 서울대학교

도시공학 박사, University of Tokyo

지역계획석사,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Albany  
「기후변화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국토관리 전략(I)」(2008), 「기후변화 대응 국토공간계획 평가 및 과제」

(2008), 「미래 도시정책방향 수립 연구」(2008), 「재해에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한 방재도시 연구」(2008), 「중심시가지 환경개선을 위한 도시재생 전략 연구」(2008), 「도시용지 공급확대에 따른 계획적 활용방안 연구」(2008), 「기후변화협약 대응 국가 온실가스 IPCC 신규 가이드라인 적용을 위한 기획연구」(2008), 「공공성을 고려한 도시계획시설의 합리적 공급방안 연구」(2007),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계획수립 연구」(2007), 「인구저성장 시대의 도시권 공간구조의 변화와 정책대응방향」(2006), 「도시구조, 교통, 사회인구학 패턴이 도로교통부문의 CO<sub>2</sub> 배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2005), 「2020년 부산도시기본계획」(2004) 등 기후변화에 대응한 도시정책 및 도시계획과 도시공간구조 분석 분야에서 연구를 수행하여 왔다.

#### 김은관 책임연구원

지역과학 박사, Cornell University

주요 관심분야는 창조경제, 인적자본, 지역개발이다. 주요 연구 및 프로젝트 실적으로는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를 활성화를 위한 마을계획 제도도입 방안」(2008), 「수도권 계획적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2007), 「정보직종과 미국 대도시권 사회경제적 환경」(2006), 「뉴욕시 텔레비전과 영화산업 계획」(2004), 「뉴욕주의 창조경제 : 예술과 경제개발」(2004), 「뉴욕주 경제 현황」(2004), 「뉴욕주 산업구조와 산업특화」(2003) 등이 있다.

#### 권태정 책임연구원

도시계획학 박사, The University of Michigan, Ann Arbor

「고도지역 주민지원 구제화 방안 연구」(2008), 「부여 고도보존계획 수립 연구」(2008), 「부동산시장 선진화를 위한 리츠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2008) 등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 정윤희 책임연구원

도시공학 석사, 연세대학교

「시민이 참여하는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 전략편」(2008), 「시민이 참여하는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 사례편」(2007), 「건설교통관련 공공갈등 매뉴얼 구축에 관한 연구」(2006),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개발 투자재원 확보방안 연구」(2005), 「도시계획결정과정과 사회적 정의에 관한 연구」(2004), 「공공시설 입지갈등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연구」(2004), 「지역발전을 위한 거버넌스체계 구축 및 운용방안」(2003), 「외국인 직접투자기업의 유형별 입지특성과 지역연계 연구」(2002) 등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 이범현 책임연구원

도시설계학 박사과정 수료, 서울대학교

「중심시가지 환경개선을 위한 도시재생전략 연구」(2008), 「충주 기업도시 개발타당성 평가」(2007), 「행정중심복합도시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2006), 「국토의 자연훼손 진단 및 대책에 관한 연구」(2006), 「수도권 대규모 개발사업의 집합적 파급영향 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2005), 「성남판교지구 택지개발사업 기본구상 및 개발수요 분석 연구」(2003) 등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 안용진 연구원

현재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Department of Urban and Regional Planning, Ph.D 과정 중.

#### 박정은 연구원

공학 석사, 경원대학교

주요 연구로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국토관리(I)」(2008), 「건강·문화·생태회랑 구축 전략 연구」(2008), 「국토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보호지역의

# 03

위계정립 및 관리방안」(2007), 「산업입지 공급계획 수립지침 연구」(2007), 「지방분산·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의 대응과제(II)」(2006), 「국토개발전략의 국제비교와 한국에 대한 시사점」(2006), 「A Study on Energy Conservation Policy of Korean Cities」(2006) 등이 있다.

## 이진희 연구원

공학 석사(도시계획 및 설계), 연세대학교

주요 연구로는 「대중교통중심형 도시공간구조 구축을 위한 도시계획과 교통계획의 연계방안 연구」(2008), 「도시용지의 공급확대에 따른 계획적 활용방안」(2008), 「미래 도시정책방향 수립연구」(2008), 「주민참여형 도시개발사업방식 연구」(2007), 「강화군 장기종합발전계획 연구」(2007), 「김포신도시 개발계획 및 주변지역 관리방안 연구」(2006), 「광역대중교통체계 기반의 포천신도시 개발전략 연구」(2004) 등이 있다.

## 이승욱 연구원

도시공학 학사, 한양대학교

주요 연구로는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마을계획 제도 도입 방안」(2008), 「혁신도시 개발을 위한 해외전문가 자문 및 활용방안 연구」(2007), 「혁신도시 개발을 위한 해외 선진사례 연구 및 국제세미나 연구」(2006), 「행정중심 복합도시 국제공모관리 및 기본계획수립 연구」(2005) 등이 있다.

## 정소양 연구원

도시 및 지역계획학 석사,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주요 연구로는 「건강·문화·생태회랑 구축전략 연구」(2008) 등이 있다.

# 04

## c h a p t e r VI

주택토지 · 건설경제연구본부

## 연구본부 소개

주택토지·건설경제연구본부는 정부의 정책방향을 선도하고, 정책수요에 적시 대응하며, 국가적 연구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주택토지·건설경제연구본부에서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의 발전을 위해 주택, 토지 및 건설경제와 관련된 시장분석, 정책개발 및 법·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주요 연구분야는, 첫째, 부동산 시장분석 및 전망, 부동산 정책개발 및 정책효과 분석 등 부동산 시장연구, 둘째, 주택종합계획수립, 주거실태조사, 주거복지평가 등 주거복지정책연구, 셋째, 토지정책의 평가 및 개발, 토지이용 및 개발제도, 토지수급 및 관리 등 토지정책연구, 넷째, SOC·건설경기 동향, SOC 투자 및 정책평가, 건설산업 및 제도 등 건설경제연구다. 이를 위해 4개의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 부동산시장연구센터

- 부동산시장 동향 분석
- 시장분석을 위한 모형개발
- 부동산 금융 및 세계
- 부동산정책 개발 및 정책효과 분석

### 주거복지전략센터

- 중장기적 주택종합계획 수립
- 국민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개발
- 주거실태조사 및 주거복지 평가
- 주택의 수급 및 재고관리 체계 구축

### 토지전략센터

- 토지정책의 평가 및 개발
- 토지개발 및 부동산산업 정책
- 토지이용 및 계획제도
- 토지 수급 및 재고 관리

### 건설경제전략센터

- SOC 투자 및 정책 평가
- 건설산업 및 제도
- SOC·건설 경기 및 동향
- 해외건설시장 및 정책
- 건설산업정보화



## 연구진 소개

### 손경환 선임연구위원

경제학 박사, 한양대학교

현재 주택토지·건설경제연구본부장을 맡고 있다. 주요 연구분야는 주택정책 및 부동산시장이며,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부동산시장의 선진화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2008), 「부동산시장의 환경변화에 대응한 정책방향 연구」(2007), 「부동산정책의 효과분석체계 구축 연구」(2006),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산업 발전방안 연구」(2005), 「부동산시장 선진화를 위한 기반정비 연구」(2004), 「부동산거래신고가격 적정성 평가모형 개발」(2004), 「주택종합계획(2003~2013) 수립연구」(2003), 「부동산시장 동향 및 전망체계 구축」(2003) 등이 있다.

### 김근용 연구위원

경영공학 박사, 한국과학기술원

현재 부동산시장이연구센터장, 한국주택학회 부회장을 맡고 있으며, 대통령자문 국민경제자문회의 전문위원, 국무총리실 정책평가위원회 전문위원, 감사원 특별조사국 자문위원을 역임하였다. 주요 연구분야는 부동산시장 및 정책, 부동산금융이며,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2006년도 주택수요조사 연구」(2007),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실현방안 연구」(2005), 「지역간·계층간 주거격차 완화방안 연구」(2005), 「공공임대주택배분체계 및 관리제도 개선방안 연구」(2004),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정책 개편방안 연구」(2003), 「주택사업 유형별 지원정책 평가에 관한 연구」(2002) 등이 있다.

### 진정수 선임연구위원

행정학 박사, 건국대학교

현재 주거복지전략센터장, 국토해양부장관 정책자문위원, 산림청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위원, 한국주택학회 이사를 맡고 있다. 주요 연구분야는 주거복지정책 및 택지개발이며,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택지개발사업의

공공·민간경쟁체제 도입방안 연구」(2009), 「서민주거복지 확대정책의 평가와 향후 정책방향」(2008), 「합리적인 산지관리제도 개선방안」(2008), 「국민주택기금관리체계 개편연구」(2007),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주거실태분석 연구」(2006), 「철원평화시 건설기본구상 연구」(2006), 「지방분권시대의 주택거버넌스체계 정립방안 연구」(2005),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 실현방안 연구」(2005) 등 다수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 정희남 연구위원

정치학 박사, University of Hawaii at Manoa

현재 토지전략센터장이며, 대통령비서실 경제구조조정기획단에서 활동한 바 있다. 주요 연구분야는 도시 및 토지정책, 토지 및 부동산시장과 법제, 부동산금융이며,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부동산시장 선진화를 위한 리츠제도 활성화방안 연구」(2008), 「국책사업의 갈등해결을 위한 보상제도 개선방안 연구」(2008), 「공공택지 공급방식의 다양성 확보방안 연구」(2007), 「토지관련 부담금제 개선방안 연구」(2006),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 실현방안 연구」(2005), 「토지구제개혁추진과제」(2004), 「토지에 대한 개발이익환수제도의 개편방안」(2003), 「지역지구제의 행위규제 분석연구(I), (II)」(2002, 2003) 등이 있다.

### 김성일 연구위원

행정학 박사, 서울대학교

현재 건설경제전략센터장을 맡고 있으며, 건설교통부 자체심사 평가위원, 국무조정실 성과관리 자체평가위원, 서울시 투자심사위원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주요 연구 분야는 SOC 투자 및 건설 산업 정책, 조달행정 및 정책 등이며, 주요 연구로는 「한반도 공동번영을 위한 국토부문의 대응과제」(2008), 「해외건설 제도약을 위한 건설업 경쟁력 강화방안」(2007), 「BSC 구축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정책의 효과적인 성과관리방안 연구(2007), 「SOC 재정사업의 사후평가모형 구축방안 연구」(2006), 「대형 공공건설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연구」(2005), 「공공공사 발주행정 분권화 방안 연구」(2004), 「공공공사 클레임 실태분석과 개선방안」(2003), 「공공공사 발주제도의 다양화 방안연구」(2002), 「최저가 낙찰제도의 정착방안 연구」(2001) 등이 있다.

### 배순석 선임연구위원

도시계획학(정책분석) 박사, University of Washington 규제개혁위원회 전문위원, 민주당 소득격차완화 특별위원회 위원, 지방공영개발평가위원회 평가위원 등을 역임하였으며, 한국주택학회 운영위원장, 학회지 편집위원장 및 감사로 활동하였다. 주요 연구분야는 주택정책, 택지개발 및 재개발 등이며,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서민 주거복지 확대정책의 평가와 향후 정책방향」(2008), 「주요 주택규제의 평가와 개선방안 연구」(2008), 「주택수급여건 변화에 대응한 주택공급체계 개편방안 : 주택보급률 110%, 고령화 및 저출산에 대한 대응」(2007), 「주택 재고관리 정책의 평가와 개선방안 연구」(2006), 「도시 주거공간의 사회통합 실현방안 연구」(2006), 「주택소비자 보호를 위한 주택품질보증체계 구축방안」(2005),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원주민 재정착 제고방안 연구」(2005) 등이 있다.

### 김재영 선임연구위원

경제학 박사, 중앙대학교 건설경제분야 전문가로서 국토정보실장, 건설경제연구실장, SOC·건설경제연구실장, 건설교통부 선진화기획단 위원, 국가청렴위원회 전문위원 등을 역임하였고 건설산업의 경쟁력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주요 연구분야는 건설경기동향 분석 및 건설산업정책과 제도분야다. 주요 연구실적은 「SOC 건설 사업비

합리성 제고를 위한 추정체계 개선 방안 연구」(2008), 「재정운영의 효율화 및 계약제도 선진화를 위한 국가 계약제도 개선 방안연구」(2008), 「건설산업 선진화를 위한 상생협력 방안」(2007), 「중장기 건설보증시장 전망과 대응방안」(2007), 「지역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SOC투자 연계집행 방안」(2006), 「공공시설 관리권에 관한 연구」(2006), 「건설경기의 구조적 진단과 효율적 대응방안」(2005), 「건설보증제도 개선방안 연구」(2004), 「SOC시설의 효율적 정비 및 사후관리방안 연구(I, II)」(2003~2004), 「건설경기 종합지수 개발 연구」(2002), 「제2차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 수립연구」(2002), 「건설경제 구조변화를 고려한 건설경기 예측 모형 개발연구」(2000), 「건설분야 부패방지 대책」(1999), 「건설산업 지식정보시스템 구축방안」(1999) 등 다수가 있다.

### 지대식 연구위원

행정학 석사, 서울대학교

건설교통부 민원·제도개선협의회 및 재정경제부 국유재산분과위원회 등의 위원을 역임한 바 있으며, 현재 기획재정부 국유재산관리체계개선 정책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연구분야는 부동산시장 및 관리와 도시 행·재정이며, 최근 연구실적으로는 「투자자국가소송(ISD)에 대비한 토지구제 개선연구」(2008), 「중장기 국유재산관리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2007),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토지보상체계 개선방안」(2006), 「국민경제 안정을 위한 주택산업 발전방향」(2005), 「국공유재산 관리체계의 효율화 방안」(2004), 「부동산 관련세제의 정비·개선방안」(2003) 등이 있다.

### 김혜승 연구위원

이학 박사(주거정책), 경희대학교

현재 한국주택학회 이사 및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

으며, 주거환경자문위원회 위원, 대통령자문 국민경제자문회의 수석 전문위원,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전문위원 등을 역임하였다. 주요 연구분야는 주거복지정책 및 주택시장 분석이며 「주거수요분석에 기초한 노인주거지원 정책과제 연구」(2008), 「2007년도 주거실태조사」(2008), 「최저주거기준을 활용한 2006년 주거복지 소요추정 연구」(2007), 「2006년도 주거실태조사」(2007), 「임대주택 체계개편 연구」(2006), 「주거양극화의 현황 및 과제」(2006), 「임대료보조제도 확대도입방안 연구」(2004), 「주거복지 지원 및 전달체계 구축방안 연구」(2004), 「주택후분양제도의 조기정착방안 연구」(2003) 등의 연구과제를 다수 수행하였다.

#### 윤하중 연구위원

공학 박사, 경원대학교

주요 연구분야는 교통계획, 민간투자사업으로서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민간투자제도의 내실화를 위한 추진단계별 개선방안」(2007), 「하남-화도(국도45호선) 교통량 재검토 연구」(2006), 「주거환경개선기본계획수립 및 주차수급 실태조사분석 연구」(2006), 「교통수요예측을 위한 기준 및 절차지침연구」(2004), 「민간투자사업의 성능계안형 방식 도입에 관한 연구」(2002), 「SOC 중장기 민간투자계획 수립연구」(2002), 「민간투자사업의 운영관리비 산정에 관한 연구」(2001), 「인프라시설의 타당성 개선방안 연구」(2000) 등의 연구와 개발도상국의 인프라시설 타당성조사 및 다수의 민간투자사업 평가와 협상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민간투자지원센터의 사업추진팀장을 역임하였다.

#### 최혁재 연구위원

행정학 박사(도시 및 지역개발), 건국대학교

국무총리 물관리정책위원회 전문위원, 부패방지위원회 전문위원을 지낸 바 있으며,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위원, 농지전용조정심의위원회 위원,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위원, 경기도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등으로 활동 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토지이용 및 개발이다.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농촌활력 증진을 위한 농촌토지이용의 계획적 관리방안 연구」(2007), 「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지역 관리방안」(2006), 「유희농지의 효율적 활용·관리방안 연구」(2005), 「농지규제 완화에 따른 투기방지방안 연구」(2004), 「지속가능한 하구역 관리방안 연구」(2004),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농지이용관리제도의 발전방향」(2003), 「농지도 개선방안 연구」(2003) 등이 있다.

#### 천현숙 연구위원

사회학 박사, 연세대학교

건설교통부 자체심사평가위원, 규제개혁위원회 전문위원, 감사원 건설물류국 자문위원을 지냈으며, 현재는 한국주택학회 이사로 활동 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주거복지 및 도시재생정책이며,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커뮤니티재생 거버넌스 및 운영시스템 개발」(2008), 「도시주거공간의 사회통합 실현방안 연구」(2006), 「지방분권시대의 주택거버넌스체계 정립방안 연구」(2005),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정책 개편방안 연구」(2003), 「주거정책과 복지정책의 연계방안 연구」(2002), 「수도권주택건설과 인구집중」(2001) 등이 있다.

#### 이수옥 연구위원

문학 석사, 한양대학교

주요 연구분야는 부동산시장 및 정책, 부동산금융이며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부동산시장 선진화 시스템 구축 연구」(2008), 「주택정책평가모형 개발과 정책효과분석 연구」(2008), 「부동산시장의 환경변화에 대응한 정책방향 연구 : 인구와 가계자산 변동을 중심으로」(2007), 「부동산정책의 성과와 과제」(2007), 「주택분양가제도 개선방안 연구」(2007), 「2007년도 부동산 시장 및 정책동향」(2007), 「부동산 정책의 효과분석체계 구축

# 04

연구」(2006), 「국민주택기금 관리체계 개편 연구」(2006), 「2007년 재정사업(안)에 대한 균형발전영향평가」(2006) 등 다수가 있다.

## 강미나 연구위원

경제학 박사,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주요 연구분야는 주택정책 및 부동산 시장이며,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주거수요분석에 기초한 노인주거지원 정책과제 연구」(2008), 「2007 주거실태조사 : 노인가구」(2008), 「국민임대주택 수요추정 연구」(2007), 「노인주거복지 제고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연구 : 고령자 생활패턴 분석을 통한 주거환경 편리성 개선방안 연구」(2007), 「지역간·계층간 주거서비스 격차 완화방안 연구(II)」(2006),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비 산출체계 구축방안 연구」(2006), 「서울시 강남주택시장의 구조분석 연구」(2005),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금융 역할강화 방안」(2005), 「인구고령화와 노인주거」(2004) 등이 있다.

## 최수 연구위원

도시행정학 박사, 서울시립대학교  
주요 연구분야는 토지 및 주택정책, 부동산 시장분석이며,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부동산시장 선진화를 위한 리츠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2008), 「2008년도 국내외 부동산 시장 및 정책 동향 연구」(2008), 「행정중심복합도시 토지공급제도 마련을 위한 연구」(2007), 「선진사회를 향한 토지정책 방향 및 추진전략 연구(II)-토지이용규제 합리화와 용적률거래제 도입 방안을 중심으로-」(2007), 「재건축사업의 계획적 관리 및 개발이익 환수방안」(2006), 「공공택지 조성원가 및 공급가격체계 개선방안 연구」(2006), 「주택 재고관리 정책의 평가와 개선방안 연구」(2006), 「토지관련 부담금제 개선방안 연구」(2005),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 실현방안 연구」(2005), 「부동산시장의 선진화를 위한 기반정

비 연구」(2004), 「부동산 관련세제의 정비·개선방안 연구」(2003) 등이 있다.

## 안흥기 연구위원

도시경제학 박사, 서강대학교  
건설경제 분야 전문가로서 주요 연구분야는 SOC, 건설경제, 지역경제 등이다.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전환기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정책 재정립방안(II)」(2008), 「대형 공공건설계획에 따른 지역별 건설중간재의 과부족 진단」(2007), 「교통기반시설투자의 지역간 배분과 지역경제성장에 관한 연구」(2006), 「건설경기의 구조적 진단과 대응방안 연구」(2005), 「SOC시설의 효율적 정비 및 사후관리방안 연구」(2004), 「공공투자지출의 국민경제적 파급효과 분석」(2001), 「MRIO 모형구축과 SOC투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2000) 등 다수가 있다.

## 권혁진 책임연구원

경제학 석사, 서강대학교  
건설경제분야 전문가로서, 건설보증, 건설정책, SOC 투자 등의 분야를 연구하고 있다.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SOC 건설사업비 합리성 제고를 위한 추정체계 개선방안 연구」(2008), 「건설업 겸업제한 폐지에 따른 건설보증시장 구조 및 특성변화 연구」(2008), 「건설공사 부실벌점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2008), 「건설산업 선진화를 위한 상생협력 방안」(2007), 「중장기 건설보증시장 전망과 대응방안」(2007), 「지역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SOC투자 연계집행 방안」(2006), 「건설산업 구조개편에 따른 건설보증기관의 발전방안 연구」(2006), 「건설경기의 구조적 진단과 대응방안」(2005), 「건설교통부문의 성과관리 지침 개발에 관한 연구」(2004), 「지역별 사회간접자본(SOC) 스톡추계 연구」(2003), 「건설산업DB 구축사업」(1999~2008) 등 다수가 있다.

### 조판기 책임연구원

행정학 석사, 서울시립대학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 전문위원, 행정자치부 자체평가위원을 역임하였다. 주요 관심분야는 주택·도시정책이며, 특히 도시의 물적 기반이 형성되어 온 과정과 요인에 대한 관심이 많다.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선진사회를 향한 토지정책 방향 및 추진전략 연구(Ⅲ)」(2007), 「토지보상체계 개선방안 연구」(2004), 「공공택지 조성 및 공급제도 발전방안 연구」(2004), 「택지개발지구 자족성 강화방안 연구」(2004), 「도시개발의 재정영향분석 연구」(2002), 「서민주거안정과 주거기준 달성연구」(2002), 「도시경쟁력 비교분석 연구」(1998) 등이 있다.

### 이형찬 책임연구원

경제학 석사, 고려대학교

건설경제분야 전문가로서 건설정책 및 제도를 주요 연구분야로 하고 있다.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한 공공공사 클레임 발생 가능성분석」(2004), 「공공공사 발주행정의 분권화 방안 연구」(2004), 「건설교통부문 성과관리지침 개발 연구」(2004), 「공공공사의 클레임 실태분석과 개선방안」(2003), 「대형공사 입찰제도 개선방안 연구」(2003), 「제2차 건설산업진흥 기본계획수립 연구」(2002) 등 다수가 있다.

### 김민철 책임연구원

경제학 석사, 서강대학교

건설경제 분야 전문가로서 건설경기 및 제도를 주요 연구분야로 하고 있다.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고유가에 대한 건설산업 대응 전략」(2008), 「전환기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정책 재정립 방안(Ⅱ)」(2008), 「해외건설채도약을 위한 건설업 경쟁력 강화 방안」(2007), 「건설수요구조의 변화 전망 및 대응방안 연구」(2006), 「교

통기반시설투자의 지역 간 배분과 지역경제 성장에 관한 연구」(2006), 「대형 공공건설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연구」(2005), 「건설경기의 구조적 진단과 대응방안 연구」(2005), 「SOC시설의 효율적 정비 및 사후관리 방안 연구」(2003) 등이 있다.

### 김승중 책임연구원

법학 박사, 서울시립대학교

주요 연구분야는 토지법제와 토지정책이며,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투자자국가소송(ISD)에 대비한 토지규제 개선연구」(2008), 「농촌활력 증진을 위한 농촌토지이용의 계획적 관리방안 연구」(2007),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토지보상체계 개선 연구」(2006), 「유휴농지의 효율적 활용 관리방안 연구」(2005), 「부동산시장 선진화를 위한 기반정비 연구」(2004), 「토지에 대한 개발이익환수제도 개편방안」(2003) 등이 있다.

### 손학기 책임연구원

지리학 박사, 서울대학교

주요 관심분야는 GIS, 공간통계, 부동산시장 모니터링 등이다. 주요 연구·프로젝트로는 「합리적인 산지관리제도 개선방안 연구」(2008), 「부동산시장 선진화 시스템 구축 연구(I)」(2008), 「투기과열지역의 공간패턴 모형화」(2008)가 있다.

### 송하승 책임연구원

도시계획학 석사, 연세대학교

주요 연구분야는 도시계획 및 토지정책이며, 주요 연구로는 「합리적인 산지관리제도 개선방안 연구」(2008), 「선진사회를 향한 토지정책 방향 및 추진전략 연구(Ⅱ)」(2007), 「고도 보존을 위한 역사문화환경 관리방안」(2007), 「선진사회를 향한 토지정책 방향 및 추진전략 연구(I)」(2006), 「계획적 국토관리를 위한 산지관리제도의 개선방향」(2005), 「계획적 국토관리를 위한 정책

# 04

수단의 운용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2004), 「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국토공간구조의 변화전망 및 대응방안 연구」(2003) 등이 있다.

## 박천규 책임연구원

경제학 박사과정 수료, 한양대학교

주요 연구분야는 주택정책과 부동산시장이며,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부동산시장 선진화 시스템 구축 연구(I)」(2008), 「부동산시장 BSI 조사 및 분석체계 구축 연구」(2007), 「부동산시장의 환경변화에 대응한 정책방향 연구 : 인구나 가계자산 변동을 중심으로」(2007), 「주거양극화의 현황 및 과제」(2006), 「국민경제의 안정을 위한 주택산업 발전방향 연구」(2005), 「공공임대주택배분체계 및 관리제도 개선방안 연구」(2004), 「주택자금대출시장의 개선방안 연구」(2003) 등이 있다.

## 전성제 연구원

지리학 석사, 서울대학교

주요 연구분야는 주택정책과 부동산시장이며,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주택정책평가모형 개발과 정책효과분석 연구」(2008), 「주택수급여건 변화에 대응한 주택공급체계 개편방안: 주택보급률 110% 초과, 고령화 및 저출산에 대한 대응」(2007), 「주택분양가제도 개선방안 연구」(2007), 「주택종합계획(03~12) 수정보완을 위한 연구」(2007), 「도시주거공간의 사회통합 실현방안 연구」(2006) 등이 있다.

# 05

c h a p t e r VI

국토인프라 · GIS연구본부

## 연구본부 소개

국토인프라·GIS연구본부는 1978년부터 전국 간선도로·철도망 계획, 광역 종합교통계획 등 국가 및 권역, 도시차원에서의 주요 교통정책과 계획을 선도적으로 수립해 왔으며, 국가GIS 계획 및 정책수립,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계획 시행을 평가하며, 향후 국가GIS 정책의 발전방향 수립을 지원하고 있다.

중점 연구분야로는 국가 및 권역 발전을 지원하는 주요 교통정책 개발, 중장기 교통투자 계획수립, 공간구조와 연계한 교통축 개발계획 수립, 도로·철도 간선교통망계획 수립, 한반도 및 동북아 발전과 관련한 국제교통망계획 수립, 지능형 교통체계(ITS)의 표준화와 아키텍처 연구, GIS 기반의 전자정부·지방정부 구현 방안, GIS 정보 공유 네트워크 구축방안, 사이버국토 건설 및 유비쿼터스(時空自在) 공간 창조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 GIS연구센터

- 국가공간정보정책 및 계획 수립
- GIS기반의 유비쿼터스 세상 실현
- 공간정보 분석 및 분석 방법론
- 국가공간정보관련 법·제도·조직 개선

### 국토정책시뮬레이션센터

- 국토와 관련된 제반 정책 및 계획에 대한 모의 실험 및 평가
- 대형 국책사업의 파급효과 분석
- 기타 GIS의 응용 및 계량분석과의 연계 방법론 개발

### 국토인프라전략센터

- 국가기반시설의 종합계획 수립
- 인프라 사업의 계획 및 평가
- 인프라 사업의 국토공간 영향 분석
- 인프라 관련 법·제도·조직 개선

### 도로정책연구센터

- 도로정책 수립
- 지자체 도로정비기본계획 검토 및 자문
- 도로투자사업 평가
- 도로관련 법·제도·조직 개선



## 연구진 소개

### 류재영 선임연구위원

도시 및 교통계획학 박사, 한양대학교

현재 국토인프라·GIS연구본부장이며 1978년부터 KIST지역개발연구소와 국토연구원에서 「항만배후단지 물류비즈니스모델에 기초한 물류정책방향」(2008),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수립연구」(2007, 1993), 「서남해안 국제관광 및 물류단지개발구상연구」(2004), 「국토공간이용 및 사회간접자본 최적화모형개발」(2000), 「Transforming Korea into a Logistics Center for Northeast Asia」(1998), 중부·서울외곽순환, 호남고속철도·분당선·안산선·서울 지하철망 등 간선교통망계획에 참여하였다. 건설교통부 장관자문관, 국토연구원 교통연구실장을 지냈고 국토해양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 한국물류대상 심사위원장, 세계도로협회 한국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 사공호상 연구위원

도시계획학 박사, 서울시립대학교

현재 GIS연구센터장이며, 주요 연구분야는 국가GIS정책, GIS & RS 응용이다. 한국지리정보학회 부회장, 안양대학교 대우교수로 활동 중이며,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공간정보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한 국가GIS전략 연구」(2007), 「북한지역 국토이용실태 조사방안 연구」(2006), 「제3차 국가GIS기본계획 수립 연구」(2004), 「국토종합정보체계 구축 및 추진방안 연구」(2003), 「원격탐사와 GIS의 연계활용방안 연구」(2002), 「GIS 온라인교육 도입방안 연구」(2002), 「인공위성영상자료를 이용한 국토자원분석 연구」(2000) 등 다수가 있다.

### 유재윤 선임연구위원

도시경제학 박사, Texas A&M University

현재 국토정책시뮬레이션센터장이며, 주요 연구분야는 도시경제, 도시개발, SOC 투자 등이다.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전문위원을 역임하였다. 주요 연구로는

「전환기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정책 재정립 방안(I)」(2007), 「건설수요구조의 변화 전망 및 대응방안 연구」(2006), 「기업도시 타당성 검토기준 및 개발이익산정연구」(2005), 「민간투자사업의 중간평가와 효율적 추진 방안 연구」(2005), 「도시개발의 재정영향분석에 관한 연구」(2002), 「도시개발비용의 구조분석 연구」(2001), 「도시문화산업 육성방안 연구」(2000), 「도심재개발 활성화 방안」(1997) 등 다수가 있다.

### 조남진 연구위원

공학 박사, 서울대학교

현재 국토인프라전략센터장이며, 주요 연구분야는 SOC 투자평가 및 사후평가, 고속철도 영향분석 등이다.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1.5차로에 관한 기초연구 : 1차로 도로의 개량방안」(2008), 「비상재해에 대응하는 도로망 연계성 제고방안」(2008), 「도로분야 제도개선 및 도로법령체계 정비방안 연구」(2008), 「중부선(하남-호법간) 외 5개 노선 고속도로 건설공사 사후평가 연구」(2006), 「고속철도와 국토공간구조의 변화(I)」(2005), 「창선-삼천포 대교 건설공사 사후평가연구」(2004), 「제2차 수도권 광역교통5개년 계획 및 추진계획 수립연구」(2004), 「서해안선 외 2개 노선 고속도로 건설공사 사후평가 연구」(2004), 「고속철도개통에 따른 국토공간구조의 변화전망 및 대응방안 연구」(2003), 「고속도로 확장투자계획 수립 및 효과분석 연구」(2002), 「국토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도로망체계 구축방향」(2002) 등 다수가 있다.

### 정일호 연구위원

교통계획 박사, University of Leeds

현재 도로정책연구센터장을 맡고 있다. 주요 연구분야는 SOC 투자계획 및 평가, 교통계획 수립 및 평가, 교통체계분석이며,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간선도로 기능제고방안 마련 및 중장기계획 수립 연구」(2008), 「전국

# 05

도로망체계 발전방안 연구(I)»(2007), 「공공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 전면개정 연구»(2007), 「국가기간 교통망계획 수정계획 연구»(2007), 「수도권 고속도로망 실행계획 연구»(2007), 「효율적인 교통혼잡통행료 정책의 도입방안 연구»(2006), 「호남고속철도 기본계획 조사연구»(2005), 「SOC 공급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체계 구축방안»(2004), 「교통수요예측을 위한 기준 및 절차 지침연구»(2004) 등 다수가 있다. 현재 국토해양부 예산자문위원회,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 최병남 선임연구위원

경영정보공학 박사, 한국과학기술원

연구분야는 GIS 및 MIS로써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국토정책의사결정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 연구»(2007),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 구축 연구(I)»(2006, 2007), 「시공자재의 세상을 향한 사이버국토 창조방안(II)»(2005), 「시공간 통합 국토시뮬레이션모형 개발 연구(I), (II)»(2005, 2006), 「전자지방정부 구현을 위한 GIS활용 방안 연구»(2004), 「토지종합정보망 구축 및 운영관리 연구»(1998~2004), 「국도이용모니터링체계 구축방안 연구»(2003), 제2차 및 제3차 「국가GIS 기본계획 수립 연구»(2000, 2005) 등 다수가 있다.

## 이춘용 연구위원

공학 석사, 한양대학교, 교통기술사

주요 연구분야는 도로계획 및 정책, 교통계획, 지역계획이며,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도로 공간의 복합적 기능활성화 방안 연구»(2007), 「행정중심복합도시 기본계획 및 광역도시계획의 교통부문»(2005~2006), 「도로정비 기본계획 재정비 수립 연구»(2004), 「일반국도 및 국도 대체우회도로 중장기계획 수립연구»(2003), 「수도권 및 지방5대 도시권 광역교통계획 수립연구»(2000, 2001), 「국도 기능분류 및 효율적 투자방안 연

구»(1999), 「국도 대체우회도로 기본계획 조사»(1997), 「도로정비 중장기계획 수립 연구»(1997) 등 다수가 있다.

## 정문섭 연구위원

지리정보공학 박사수료, 인하대학교

주요 연구분야는 국토정보화 및 GIS정책이다. 한국공간정보시스템학회 이사, 국가GIS추진위원회 분과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국토정보화 혁신을 위한 지능형국토 추진방안(I)»(2007), 「방재국토 구축을 위한 GIS 활용방안 연구»(2006), 「지식정보화시대의 디지털통합국토 구상 연구»(2005), 「국가GIS 중장기 정책방향 연구»(2004), 「국토종합정보체계 구축 및 추진전략 수립연구»(2003), 「국가공간정보기반 구축을 위한 전략계획 수립 연구»(2003), 「국가GIS 평가방안 및 시행계획 수립방안 연구»(2002) 등 다수가 있다.

## 이상건 연구위원

공학 박사, Virginia Tech

주요 연구분야는 ITS 표준화, ITS 기본계획, SOC 투자평가 등이며,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디지털국토 기반조성을 위한 통합교통정보 인프라 구축방안»(2007), 「도로교통 통계정보기반 정비방안»(2006), 「국가 ITS 기술표준화 1~6단계 연구»(1998~2005), 「효율적인 광역교통개선에 관한 연구»(2004), 「SOC 투자평가모형을 활용한 지역파급 효과 실증분석 연구»(2004), 「안양시 ITS, BIS 기본계획»(2003), 「SOC 투자평가모형의 개발 1, 2, 3단계»(2000~2003) 등 다수가 있다.

## 김홍석 연구위원

공학 학사, 성균관대학교

주요 연구분야는 SOC 종합계획 및 운영·관리, 교통계획수립 및 교통정책방향, 공공사업 및 수요분석관련 연구 등이며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광역대도시권 SOC

정책의 새로운 방향」(2004), 「철도역세권 개발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2003), 「고속도로 확장투자계획 수립 및 효과분석 연구」(2002), 「서천-보령간 국도 확장사업」(2001), 「도로사업 투자분석기법 정립」(1999) 등 다수가 있다.

### 김정훈 연구위원

도시 및 지역계획학 박사, University of Newcastle upon Tyne

주요 연구분야는 도시계획, GIS와 u-City정책이다. 성균관대학교 겸임교수, 한국GIS학회 상임이사, 유시티건설포럼 법제도분과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며, 주요 연구실적으로 「u-City 법제도 지원정책」(2008), 「u-City 구현을 위한 계획체계 정비방안 연구」(2007), 「u-City(時空自在도시) 구현을 위한 국가전략연구」(2006), 「제2차 GIS백서」(2006), 「미래형 삶의 질 향유를 위한 첨단정보도시 구현방안 연구」(2006), 「수도권 개발수요 및 가용지 분석을 통한 효율적 토지수급방안 연구」(2005), 「시설물관리 범용시스템을 활용한 도시정보체계 구축방안 연구」(2004), 「도시계획정보체계 시범사업(I, II)」(2002, 2003) 등 다수가 있다.

### 정진규 연구위원

도시학 박사, Portland State University

주요 연구분야는 교통 및 토지이용, 광역 및 도시교통 계획, 정보화와 교통, 계획이론 등이다. 주요 연구실적은 「광역교통개선대책의 합리적 재원부담 연구」(2007), 「기업도시 기반시설 국고지원 기준 연구」(2006), 「대도시권 교통개선을 위한 재택근무 활성화 방안 연구」(2005), 「대도시권 SOC정책 결정체계에 관한 연구」(2004), 「고속철도가 국토공간에 미치는 영향 연구」(2003), 「자원절약적 국토공간구조에 관한 연구」(2002) 등 다수가 있다.

### 김호정 연구위원

공학 박사, 홍익대학교

주요 연구분야는 교통계획과 도로계획이며,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승용차 이용자가치를 고려한 교통정책 수립방안 연구」(2008), 「간선도로 기능제고방안 마련 및 중장기계획 수립 연구」(2008),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수정계획 연구」(2007), 「수도권 고속도로망 실행계획 연구」(2007), 「전국도로망체계 발전방안 연구(I)」(2007), 「공공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 전면개정 연구」(2007), 「고속도로사업효과 조사연구」(2006), 「교통서비스 지표 개발 및 활용방안 연구」(2006)가 있다. 현재 국토해양부 건설기술심의위원회, 항만정책심사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 신동빈 연구위원

공학 박사, 연세대학교, 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술사, 정보시스템수석감리원

주요 연구분야는 국가GIS정책, 지리정보유통, GIS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분야다. 한국공간정보시스템학회 부회장이며,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도시계획과정의 GIS기반 주민참여 모형 개발 및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2008), 「국가공간정보에 대한 세계측지계의 체계적 적용방안」(2007), 「국가지리정보유통 고도화 방안 연구」(2006), 「도로기반 시설물 통합관리사업 확대추진 방안 연구」(2003), 「기본지리정보구축 추진전략 수립연구」(2002), 「지하시설물전산화사업 감리사례 연구」(2002), 「제1차 국가GIS사업 백서 연구」(2002) 등 다수가 있다.

### 오성호 연구위원

공학 박사,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현재 첨단교통(ITS) 표준연구단장을 맡고 있으며, 주요 연구분야는 교통정보(ITS), 교통계획이다.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2006년 국가 ITS 기술표준화 연구」(2007),

「u-City의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방안 연구」(2007), 「표준 노드/링크 체계 구축사업」(2005), 「고속도로 확장투자 5개년 계획」(2004), 「제2차 수도권 광역교통 5개년 계획 및 추진 계획」(2003), 「장기 수도권 고속도로망종합체계 조사 연구」(2003) 등 다수가 있다.

#### 박종택 연구위원

도시 및 지역계획학 박사과정 수료, 중앙대학교

주요 연구분야는 국토정보 및 국가GIS정책이다. 주요 연구실적으로 「지자체 공간정보화 수준분석 및 역량 제고방안」(2008), 「공간정보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한 국가GIS전략 연구」(2007), 「방재국토 구축을 위한 GIS 활용방안 연구(I)」(2005), 「국가GIS중장기 정책방향 연구」(2004), 「2004년 국토조사사업연구」(2004), 「국토종합정보체계 구축 및 추진전략 수립연구」(2003), 「지리정보기반의 지역 간 격차분석연구」(2002) 등 다수가 있다.

#### 한선희 연구위원

전자계산학 학사, 동국대학교

주요 연구분야는 통계 및 GIS다. 주요 연구실적으로 「재정투자자급효과측정시스템 개발 및 국가발전지수 정립 연구(I, II)」(2007, 2008), 「북한지역 국토이용실태 조사방안 연구」(2006), 「時空自在의 세상을 향한 사이버국토창조방안(II)」(2005), 「제3차 국가GIS 기본계획 수립연구」(2005), 「접근불능지역의 지리정보 구축 방법」(2004), 「지리정보의 정확도 측정방법에 관한 연구」(2002) 등 다수가 있다.

#### 임영태 책임연구원

공학 박사, 서울시립대학교

주요 연구분야는 교통경제와 물류계획이며,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항만배후단지의 물류비즈니스모델에 기초한 물류정책방향」(2008), 「한국형 부가가치 물류클

러스터 창출방안 연구」(2007),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2007), 「효율적인 교통혼잡 통행료 정책의 도입방안 연구」(2006), 「전국 무역항 항만 배후단지 개발종합계획수립 연구」(2006), 「연계성을 고려한 수송물류결절점 평가기법 연구」(2005) 등이 있다. 현재 국토해양부 중앙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 서울특별시 물류정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 김대중 책임연구원

지리학 박사과정 수료, The University of New York at Buffalo

주요 연구분야는 GIS를 활용한 공간분석 및 공간통계이며,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인간과 지리물리적 모델에서 생태경제 설정에 관한 연구」(2008), 「미국의 시설물 입지 평가 및 에이전트 기반 모델에 대한 사례 연구」(2007), 「토지투기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방법론 및 모델 개발」(2006), 「토지관리정보체계 구축사업」(1998~2003), 「환경적합성 사전분석시스템 구축연구」(2001) 등 다수가 있다.

#### 김미정 책임연구원

지리학 박사, 건국대학교

주요 연구분야는 시스템 통합 및 GIS다. 건설교통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주요 연구실적으로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 기반연구」(2008), 「GIS기반의 건물통합정보 구축방안」(2008), 「2007 국가GIS 자원연구-표준」(2007), 「제3차 국가GIS기본계획 수립 연구」(2005),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구축방안 연구」(2005), 「토지종합정보망 구축사업 운영관리」(2000~2005) 등 다수가 있다.

#### 임은선 책임연구원

지리학 박사, 건국대학교

주요 연구분야는 공간분석 및 GIS다. 주요 연구실적으

로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KOPSS)구축 연구」(2006~2008), 「기후변화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국토관리전략(I)」(2008), 「국토정책의사결정지원을 위한 기반 연구」(2007), 「도시성장관리를 위한 공간구조 측정방법에 관한 연구」(2006), 「시공간 국토시뮬레이션모형 개발 연구」(2005~2006), 「時空自在의 세상을 향한 사이버국토 창조방안」(2005), 「제3차 국가GIS 기본계획 수립 연구」(2005), 「GIS기반 공간분석방법론 적용 연구」(2004) 등 다수가 있다.

#### 조춘만 책임연구원

도시 및 지역학 박사, Texas A&M University  
전공분야는 국토·도시계획 및 GIS/IT의 활용이며, 최근 연구분야는 유비쿼터스도시, 첨단그린도시 등 국토·도시계획을 위한 GIS/IT의 응용이다. 주요 연구실적으로 「U-City 법제도 및 지원정책 연구」(2008), 「U-City구현을 위한 계획체계 정비방안 연구」(2007), 「지능형 도시 지하시설물 관리기술 개발 연구」(2007), 「행정중심복합도시기본계획수립 연구」(2006), 「U-City구현을 위한 국가전략 연구」(2006), 「개발가능지의 합리적 선정을 위한 토지형상기준 도입방안 연구」(2005), 「광역대중교통체계 기반의 포천신도시 개발전략 연구」(2004~2006), 「파주시 토지적성평가를 위한 연구」(2004) 등이 있다.

#### 고용석 책임연구원

공학 석사, 한양대학교  
주요 연구분야는 도로 및 교통계획, ITS, SOC투자 등이며,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도로분야 제도개선 및 도로법령체계 정비방안 연구」(2008), 「2007년 국가 ITS 기술표준화 연구」(2008), 「디지털국토 기반조성을 위한 통합교통정보 인프라 구축방안」(2007), 「제2관문공항(남부권 신공항) 건설여건 검토 연구」(2007), 「대중교통시설 설치를 위한 대규모 개발사업 계획기준 연

구」(2007), 「도로교통 통계정보기반 정비방안」(2006) 등 다수가 있다.

#### 이미영 책임연구원

교통공학 박사,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주요 연구분야는 교통계획 및 공학이며,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전국 도로망체계 발전방안 연구(I), (II)」(2007~2008), 「도로정책 연구센터 운영연구(1, 2단계)」(2007~2008), 「u-T 아키텍처 설계 및 구축(2, 3차연도)」(2007~2008),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수립연구」(2007), 「도로교통통계정보기반 정비방안」(2006), 「TTS 장비 성능평가 및 검·교정체계 실용화 연구(2, 3단계)」(2005, 2006) 등 다수가 있다.

#### 김결 책임연구원

지리학 박사, Florida State University  
전공분야는 도시지리학, 정치경제지리학, 계량지리학 및 GIS이며,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겸임교수로 활동 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도시재생과 공간의사결정지원시스템이며 연구실적으로는 「지자체 공간정보화 수준 분석 및 역량제고 방안」(2008), 「국토정책의사결정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 연구」(2007),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 구축」(2006, 2007, 2008), 「GIS를 활용한 난개발 상시감시체계 구축방법 연구」(2006) 등이 있다.

#### 이영주 책임연구원

현재 University of Tokyo, Center for Spatial Information Science 연구원으로 재직 중.

#### 이백진 책임연구원

공학 박사, Hiroshima University  
주요 연구분야는 교통계획 및 ITS이며,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전국 도로망체계 발전방안 연구(II)」(2008), 「이용자 맞춤형 대중교통서비스 기술개발(2차연도)」

# 05

(2008), 「아시아하이웨이 1번노선(서울~신의주) 이용 수요 추정모델 연구」(2008), 「초기 유비쿼터스 환경과 대도시권 교통정책에 관한 연구」(2007), 「디지털국토 기반조성을 위한 통합교통정보 인프라 구축방안」(2007) 등 다수가 있다.

## 김종학 책임연구원

교통공학 박사과정 수료, 한양대학교

주요 연구분야는 교통계획 수립 및 평가, 교통체계분석이며, 주요 연구실적은 「승용차 이용자가치를 고려한 교통정책 수립방안 연구」(2008), 「광역교통 기본계획 수립」(2007), 「교통서비스 지표개발 및 활용방안 연구」(2006), 「호남고속철도 기본계획 조사 연구」(2005) 등 다수가 있다.

## 김동한 책임연구원

현재 University of London, University College London, Center for Advanced Spatial Analysis Bartlett School of Planning, Ph.D 과정 중.

## 강혜경 책임연구원

지형정보공학 박사, 부산대학교

ISO/TC211 WG10에서 ISO19151 프로젝트 책임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주요 연구로는 「2008년도 국가GIS 지원연구 : 국가GIS표준체계확립 및 표준관리」(2008), 「지자체 공간정보화 수준분석 및 역량 제고방안」(2008), 「Dynamic Position Identification Scheme for Ubiquitous Space(u-Position)」(2008), 「A Framework for Dynamic Updates of Map Data in Mobile Devices」(2007), 「다중축척 공간 데이터의 축소연산자를 위한 위상관계 일관성 평가」(2005) 등이 있다.

## 김준기 책임연구원

교통시스템공학 박사, 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

주요 연구분야는 형태분석 및 교통안전이다. 주요 연구 실적으로는 「전국 도로망체계 발전방안 연구(II)」(2008), 「비상재해에 대응하는 도로망 연계성 제고방안」(2008), 「스마트하이웨이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1차 연도)」(2008) 등이 있다.

## 서기환 책임연구원

지리정보학 석사, 경북대학교

주요 연구분야는 국가공간정보정책, 시민참여GIS 및 공간분석이다. 주요 연구실적으로 「도시계획과정의 GIS기반 주민참여 모형개발 및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2008), 「공간정보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한 국가GIS 전략 연구」(2007), 「북한지역 국토이용실태 조사방안 연구」(2006), 「남북교류증진을 위한 북한지리정보 구축방안 연구」(2005), 「제3차 국가GIS기본계획 수립연구」(2004) 등 다수가 있다.

## 정선영 연구원

현재 University of Maryland, College Park, Traffic Safety and Operations Lab in Department of Civil Engineering, Ph.D. 과정 중.

## 서민호 연구원

도시계획 및 설계학 박사과정수료, 고려대학교

주요 연구분야는 동북아를 포함한 한반도 기간인프라 망계획 및 ITS이다. 기간망계획 관련 주요 연구로는 「전국 도로망체계 발전방안 연구(II)」(2008), 「베세토 비즈니스 회랑 구축 제안」(2006~2007), 「한반도 도로 네트워크 구축방안 연구」(2005~2007) 등이 있다. ITS 관련 주요 연구로는 「이용자 맞춤형 대중교통서비스 기술개발 연구」(2007~2011), 「u-City의 지능형교통 체계(ITS) 구축방안 연구」(2007), 「TAGO 기본계획 및 유지관리방안 연구」(2007) 등이 있다.

# 06

c h a p t e r VI

기획경영본부

## 본부 소개

기획경영본부는 연구원 전체의 연구기획 및 경영관리와 함께 4개 연구본부에 대한 융·복합 정책연구 및 고객지향의 창조적 연구상품 개발을 지원하고, 연구성과를 확산시키는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3개의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연구전략센터는 연구과제의 기획·관리·평가, 국토연구 브랜드 구축 및 연구원의 예산편성, 출판물 기획·편집 및 홍보, 연구성과 확산, 대외기관 간 협력 업무 등을 담당한다.

경영전략센터는 연구원의 경영계획 수립, 성과관리 및 업적평가제도 운영, 직원의 역량개발 및 지속적인 혁신의식 고취, 국제협력 및 대외기관과의 학술교류업무 등을 담당한다.

행정관리센터는 직원의 복리후생 및 노사관계 업무와 운용자금 관리, 청사시설관리, 문헌관리 및 연구관련 사무와 행사지원을 포함한 연구원 행정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 연구진 소개

### 서태성 선임연구위원(기획경영본부장)

공학 석사, 연세대학교

국토 및 지역계획, 지역개발정책, 관광개발계획 등의 분야를 연구하고 있으며 국토계획·환경연구실장을 역임하였다. 현재 기후변화에 대한 국토분야 과제를 연구하고 있으며,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 수립연구」(2006),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연구」(2004), 「신행정수도 후보지선정 및 평가관리 연구」(2004),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연구」(2002), 「남해안국제관광벨트 개발계획 연구」(1999), 「광양만·진주권 광역개발계획 수립연구」(1998) 등 다수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 장철순 연구위원(연구기획조정팀장)

도시계획학 박사과정 수료, 서울대학교

도시 및 지역계획·개발 전문가로 산업입지 및 낙후지역 정책 등 지역계획 전반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2004년에는 재정경제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에 파견근무 하였다. 주요 연구로는 「노후산업단지 재정비 실행방안 연구」(2007), 「산업입지제도개편 연구」(2005), 「지식기반산업의 군집형성요인에 관한 연구」(2005),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개발계획 수립연구」(2003), 「지식기반산업의 입지정책연구」(2003), 「산업입지 공급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2002) 등이 있다.

### 양진홍 연구위원(경영디자인팀장)

도시 및 지역계획학 박사과정 수료, 중앙대학교

국토계획 분야 전문가로서 건강·문화·생태회랑 및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시·군) 자문위원 등을 역임하였다. 주요 연구로는 「통합국토를 향한 지역 간 공동발전방안연구(Ⅱ)」(2004), 「구미국가산업단지 지원기능 강화방안연구」(2004),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전략

사업의 추진평가와 개선방안 연구」(2001) 등이 있다.

### 조진철 책임연구위원(국제협력팀장)

도시 및 지역계획학 박사, Portland State University 동북아 및 북한분야 전문가로서 한국개발연구원 정책대학원 연구개발팀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주요 연구로는 「해외도시개발의 진출 방향 및 전략」(2008), 「동북아 핵심경제지역의 발전 전망과 연계망 구축(Ⅱ)」(2008), 「북한 주요항만의 배후산업단지 개발전략 연구」(2007), 「개성공단 및 남북한 서해안 연안지역 개발 전략 연구」(2006), 「국책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사회합의형성시스템 구축방안 연구」(2005), 「북한강 유역의 남북한 평화적 이용방안」(2005), 「평화벨트 구축을 위한 서해 남북접경지역 이용방안」(2004), 「군사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시범지역 사례연구」(2004), 「복합관광레저단지 활성화 방안 연구」(2004) 등이 있다.

### 김중은 책임연구위원

공학 석사, 서울대학교

「인구저성장시대의 도시관리정책 방향 연구」(2005), 「도시계획결정과정과 사회적 정의에 관한 연구」(2004), 「신행정수도건설 추진을 위한 기본구상 연구」(2003), 「행정수도 이전의 효과분석 및 국내외 사례조사 연구」(2003) 등의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건설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전문위원(2006~2007)으로 활동하였다.

## 연차보고서 발간 전담반

---

반장 윤여훈 연구전략센터장  
반원 김승종 책임연구원  
김은란 책임연구원  
김종학 책임연구원  
김중은 책임연구원  
변세일 책임연구원  
박순업 홍보커뮤니케이션팀장  
조진철 국제협력팀장  
간사 한여정 전문원  
(직급별 가나다순)

## 2008 국토연구원 연차보고서

---

발행자 · 박양호  
발행처 · 국토연구원  
출판등록 · 제2-22호  
인쇄 · 2009년 5월 25일  
발행 · 2009년 5월 30일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로 224(431-712)  
전화 · 031-380-0114(대표)  
팩스 · 031-380-0470

[www.krihs.re.kr](http://www.krihs.re.kr)

©2009, 국토연구원

\* 이 보고서의 내용은 국토연구원의 자체 연구물로서 정부의 정책이나 견해와는 관련이 없습니다